

삼성전관을 몰라도 되지만
삼성전관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

삼성전관이 없다면
TV도, 핸드폰도,
노트북PC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지만
삼성전관이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컬러 브라운관 부문 세계1위란 사실도,
노트북PC의 핵심부품을 만든다는 사실도
21세기 멀티미디어시대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란 점도
사실 소비자 여러분에게는
그리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삼성전관 역시 저희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제품을 선택한 기업이 만저라는 점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일류 수준의 제품들 안에는
언제나 삼성전관이 한몫하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창

SAMSUNG

삼성전관

웃자! if if if 놀자!

feminist journal

if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특집 남자는 어머니를 모른다

마더스토리 "모성도 유행이다"

나쁜 엄마들의 항변 나혜석, 장희빈, 병덕어멈, 백설공주의 계모

이프가 만난 배우 이해영

남자에게 권인숙씨가 최고의 마초맨 전두환에게 보내는 편지

인티미스코리아 패션쇼의 과잉문화

창간2주년 기념 페미니스트 인식도 조사

수다방 "참을 수 없는 포르노의 지겨움"

음식모녀 페미니스트 모녀의 여자를 해방시키는 요리 이야기

남자의 가사노동 이렇게 집안일 잘하는 남자가 또 있을까?

동글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99 여름

8,500원



우리나라
빙상공공에
고마콜드가
연결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주)

길을 가다 콜드가
마시고 싶으면
다세요~!

밖에서 마시는 냉장주스
고마콜드

Gulliver

걸리버

와~ 300명이나 금강산을
공짜로 간단 말이지?

걸리버를 펼치면

10,310개의 보물이 잡힌다!

행방~ 걸리버 덕에 좋은 차,
자그마치 10대나 준다니까!



10,000명이나 준다는데
어떤 걸로 고를까?



걸리버 10,310개 보물찾기 대축제

[행사기간] '99. 5.25 ~ 7.31 | 지금 걸리버를 구매하시면 행방한 걸물 10,310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잠만, 대들전시 1차 미당할자는 2차 후형시 또 한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 ▶ 대상 : 행사기간 중 걸리버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 (서비스 사업자 전산개별별 기준)
- ▶ 방법 : 판매점에 비치된 응모접수 양식에 참가신청을 기재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모두 10,310명을 추첨, 무제한 경품을 드립니다. (단, 중복응용자/일부사항 기재 누락자는 무효 처리)
- ▶ 보물상 : (158-600) 서울 양천구서국 사서함 5호 걸리버 10,310개 보물찾기 당첨자 및 (사서함 2호) 1차 미당할자
- ▶ 1차 : 1999. 7월 중, 2차는 1999년 8월 중, 3차는 1999년 9월 중
- ▶ 1차 : 걸리버상(100명) - 경품용 각 1대 (사서함 2호) 보물상(300명) - 경품용 각 1대 (사서함 5호) 행방한 10,000명 (특) - 경품용 (사서함 5호) 보물상(300명)

◆ 걸리버상 : 경품용 각 10대 (1차: ATOZ 5대, 2차: VISTO 5대)

◆ 물다상 : 금강산 관광권 300명

◆ 행운상 : 10,000명 (특)



걸리버 상을 12개월 동안 사용 가능

걸면 걸리는 현대 걸리버

현대전자
YUNDAI



한영애

더 높은 곳으로 비상을 꿈꾸며

한영애 **5**집 6월 발매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함께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아는 사람의 커피-
맥심

맥심 리필의 모습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른 새벽, 한적한 국도에서
갑작스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달려오는 차는?

삼성화재는 전국 어디서나 사고접수 후, 10분 내에 안심콜을 해드리고
30분 내에 현장에 출동하는 3단계 안심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야간이동 보상서비스를 운영, 24시간 가장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고객께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다.

- ◆ 4대 자동차보험 부문 고객만족도 1위!
- ◆ 보험금 지급 결정률 최우수 보험회사(AA+)
- ◆ 10년 연속 전국 최우수 경영기업!
- ◆ 1995년 10월 1일 설립 이래 2004 기입!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SAMSUNG

삼성화재

if를 열며



2년 전 못말리는 일단의 여성계릴라들이 주위의 애정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게를 때문에 덜컥 if라는 아이를 낳았더랍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인 남성의 호응 없이 태어난 이 아이는 명색없는 사생아 신세였지요. 주위의 손가락질과 비난, 야유에는 아직 철이 없어 의연할 수 있었지만 첫돌도 되기 전에 닥친 IMF 한파 속에서 아비 없는 아이가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자랐습니다. 벌써 두 돌이나 됐으니까요. 토실토실 살도 오르고 앞니도 나구요.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면서 뽀빠질 흥내도 낸답니다. 아비 없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에겐 엄마, 이모들이 무지무지 많기 때문이랍니다.

“여성의 힘으로 이 아이를 한 번 잘 키워보자”는 공감대가 온연중에 형성되었던가 봅니다. 미국 대중 가수 마돈나는 아비 없는 아이를 낳아 당당히 키우더라고요. 주눅이 들기는커녕 너무도 당당해서 존경스럽더라니까요.

저는 IMF 독감으로 아이가 아플 때 또 하나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하고 나섰었는데 그만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큰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여기저기 부산스럽게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난장을 벌이고 노는 아이에겐 성북동의 하교방이 너무 비좁더라고요. 학군까지 고려한 건 아니었는데 인연이 닿아 강남의 8학군에 있는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이제 동생도 생겼답니다. ‘도서출판 이프’라고 단행본을 만드는 부서인데 그 첫 작품으로 if의 엄마이기도 한 김신명숙씨의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를 5월에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대회를 패러디한 한바탕의 난장을 벌였습니다. 이름하여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

미스코리아 대회가 뭐하는 행사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다 큰 처녀들을 거의 벌거벗겨서 오색등불 아래 주옥 새워놓고는 경매장의 경매사처럼 마이크로 상품 자랑을 합니다. 이 아가씨는 근수는 얼마나 나가고, 가슴은 얼마나 크고, 허리는 얼마나 가늘고, 히프는 얼마나 풍만한지 수치를 들먹이며 상품 자랑에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남자들더러(여자는 순전히 구색이고) 일등급, 이등급, 삼등급... 하며 등급을 매기게 합니다. 푸짐한 상을 상품가치만큼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라나요? 서양영화에서 본 노예시장 장면이 딱 이렇더군요. 이렇게 해서 뽑힌 여성을 ‘미스코리아’ 즉 ‘가장 한국적인 여성’이라고 하며 전국에 생중계를 해대니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구조와 얼굴 생김새에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if는 ‘나도 잘났다’ 대회를 연 것입니다. 참가대상도 기혼·미혼을 안 가리고 연령제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잘났다고 우기는 남학생도 끼었으니 기상천외한 행사였지요. 당일 대회장 안팎은 정말 대단했어요. TV 뉴스에 의하면 300석인 대회장에 1,200명이 몰렸고 매스컴의 취재경쟁도 치열했답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미의 기준을 다시 생각하고, 여자도 인간이라는 선언을 하고 싶었는데도 모릅니다. 그동안 가부장 사회에서 너무나 움추러들었던 모든 여성들에게 ‘나도 잘났다’는 자의식을 심어주자는 것이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의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1]

김민숙 발행인

1999 .

최후의 만찬 .



밥?

김민정
김민숙
박지현

사진으로 보는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

사진 엄윤순

합창 댄스팀의
메들리 공연
(블루이즈)



북파위원 손덕수 교수가
(못자)상 공동수상자
김순덕 할머니와 김진옥 주부에게
방망이를 시상하고 있다.



사회를 맡은 유지나 교수(왼쪽)와 변영주 감독.

패션쇼 <시선, 분열,
우리는 cool>의 한 장면.



공동육아를 주제로 한
패션쇼의 한 장면



남녀공동 혼례복 소개
패션쇼 한 장면.



한국 여성들의 시집살이 한을
노래하는 고은광순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상희
교육문화위원장이
<개인적인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수상자인 고은광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 위원)씨에게
방망이를 시상하고 있다.



안필연(경기대)교수와
특별공연 <존재와 부채>의
한 장면.



안티 미스코리아
아상을 받은
노허즈밴드의
<카니발>
공연 장면.



유일한 남성 출전자로
<뒤집자> 상을 받은
전한배원(왼쪽).



북파위원 조한배정
<연세대> 교수가
<자매애는 아름답다> 상의
수상자 고미라(가운데),
트리사(오른쪽)에게
방망이를 시상하고 있다.



<나의 주장>을
펼치는 황우선 어린이.



<안티미스코리아>의
영예를 안은 노허즈밴드의 멤버들.



고미라(왼쪽), 트리사의
아크로바틱 장면.



그날 그녀들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포스터 '이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를 캐리커처 만들었다. (관련기사 본지 244-247쪽)
 유신의 막바지에 접어든 1979년 8월 9일 170명의 (주)YH 무역 여공들에 의해 감행된 신민당사 농성사건은 그달 11일 경찰의 '101호작전'에 의해 강제해산됐고, 그 와중에 김경숙 열사가 동맥을 끊고 투신 사망하는 건이 벌어졌다. 그 당시 여공들은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신체제의 종말이 앞당겨졌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광주 누에고치 공장에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김경숙 열사는 76년 19살에 YH무역에 입사했고 노동조합 활동 끝에 22살 젊디젊은 인생을 접어야 했다. 그의 소망은 "8년간의 공장생활로 몸은 비록 병들었지만 마음은 상하지 않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전태일 열사를 그의 평전과 영화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김경숙 열사를 아는 이는 별로 없다. 오는 8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김경숙 열사 20주기 추모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여노자회 02-708-4624) 사진제공 동아일보

바다출판사

마포구 상수동 211 호수빌딩 302호
 전화 322-0525 팩스 322-0868

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는가?

김경일 저음 | 신국판 | 값 8,000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온 유교문화
 그 권위와 위선에 대한 600년 만의 자유선언!!

한국인의 내면을 지배해온 유교문화, 그 권위
 와 위선에 대한 600년 만의 자유선언!!

우리들 마음속의 공자를 죽이지 않는 한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

20C를 살아온 시절보다 21C를 살아가야
 많은 사람을 위한 책!!

김광문 박사 김경일 교수의
 제대로 배우는

한자 교과서



content 99 summer

7 IF를 열며

두살배기 이프의 '새엄마'가 됐어요!

44 지상중계

화제폭발 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가다

56 "당신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간2주년 기념 설문조사

82 특집 남자는 어머니를 모른다

84 모성도 유행이다(류숙렬)

88 '민중의 어머니' 이소선에서 '미시족 엄마' 변정수까지(황금희)

94 나혜석, 탕덕어엄, 장희빈, 계모, 그 '나쁜 엄마'를 위하여(김효선)

102 어머니의 독이 아들을 죽인다(이하천)

106 딸들아! 엄마도 사람이데미(구훈모)

110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모녀3대 이야기(김윤심)

112 정신의학계 '엄마죽이기' 현상(최보문)

118 사례 '여자들의 어머니'와 '남자들의 어머니' 이야기

66 남자에게

이 시대 최고의 마초맨 천두환에게(권인숙)

72 정한남자 이윤택

문명의 팔십 노모에게 항복하는 부권주의자(류숙렬)

78 남자의 가사노동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이상성)

페미니스트저널

if



8 FEMALEGAZE

1999, 최후의 만찬.

시진으로 보는 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

그 날 그녀들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만화

색녀열전 복치는 고부(장현실) 172

난나의 if세상 136

이여자 이해영 138

눈부신 광기와 서늘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자(이숙인)

유채지나의 영화산책 162

포르노디아스포라 시대의 <부기나이트>

고은부인 도끼 들었네 210

J.O.T에 대한 몇 가지 깨달음

음식모녀 214

들어봤나요, '송경덕표 골뱅이무침'? (박형욱, 박이은경)

22 뉴스우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제14회 소월문학상 받은 시인 김정란

하버드 로스쿨 마치고 3년 만에 귀국한 백금자 변호사

"여자 국회의원은 차마만" 불문을 뚫은 이미경 국회의원

마신의 '별물' 여성운동가 마신 MBC 일렉속PD

여성신문 연재 시작한 공신옥씨

최연소 영상원 합격자 김현진

<명반하지 않은 공범> 상영한 여성다큐멘터리작가모임

38 파워우먼

여성벤처협회 정화자 회장(김민숙)

IF SPIRIT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웃고 있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특별한 일목적인, 웃음이 흐르는 눈수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아, 웃어!

이웃과

우리는 여자로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내면에서 자연스롭게 자라는 하나의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

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화려하기보다는, 뒤떨고 있다. 이 세상

을 한번 만나게 되잖아 버리고 있다. 갈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놀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 왔다. 여자로서

세상을 건지는 것은 고통과 인내. 희생의 지겨운 학습과

함께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

을 강박적으로 마침내 노예의 행장을 선사했다. 이런 삶이, 죽었고 있다. 제

기되고 있다. 놀고 있다. 그리하여 여자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



177 REVIEWCINEMA

〈택시〉와 〈아메리칸 히스토리X〉(이명인)

REVIEWTV

SBS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권혁란)

REVIEWBOOK

《가쁜 여름의 책》(윤숙경·김정복)

REVIEWMUSIC

《가 '딱딱' 미는 여성가수》(김보미)

수다방 196

참을 수 없는 포르노의 지겨움

잡설 168

대중매체 요리열풍, 어떻게 볼까?(김정복)

if웃이아기 206

검은색 웨딩드레스를 아시나요?(이재진)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221

엄마의 결혼식 엄마는 그때... 행복했을까



표지 : 이렇게 아름답고 밝은 여성이 결혼 후 어머니가 되면 앞의 목조상처럼 아이를 안고 이고 명예를 진 듯 힘겨운 실을 꾸라기느라 점차 손을 잃어가고 남자들이 혐오하는
無色의 아줌마 부류로 편입되어간다. 어머니가 되어도 아름다운 손을 유지할 수는 없을까?
이 사진은 모델이 너무 예뻐서 딱지를 맞을 뻔했다. 아름다움을 반감시키기 위해 흑백처리도 하고 좀더 동성한 어머니 모델로 새로 흑백사진도 찍었으나 너무 무겁다는 중
론에다시 이 사진이 채택되었다. 이 사진의 포인트는 한하게 웃는 얼굴 표창안에 이프 제호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 원래 의도가 무색하게 되었다. 사진 글 김민숙
제호 : 잡지의 장르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제호' 과 고유어를 'IF'를 합해서 만들었다. IF는 페미니스트들이 '반악에...' 라고 가정해 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아니설로 읽을 수도 있다. 그외
에도 f mFeminex 또는 f m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CROSSOVER 237

세계의 여성들 238

(양한주, 오애리)

사이버원도우 244

여성 노동자, 노동운동과의 불행한 동거?(강한거미)

가상리포트 248

영광, 영광, 큰 영광! 예코페미니스트 대축제 2008! (김재희)

발굴 252

동성애, 조선시대 외로운 여인들의 불우한 연애(정성희)

통굴 256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우먼스트릿 40

순속 환경부장관 전격 취임/ 최근 창간된 작은 책들/ 21

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의 '여성주의 자넨라들' 토론회/
제 2회 서울여성영화제/ 산악인 지현옥씨 히말리야에서 잡들다
/ 성폭력 학칙제정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

새로운 대학신문을 이끄는 여성편집국장들(김보미) 62

264 if 연재소설

내 사랑 투명 반창고 1(이숙인)

230 이럴텐이렇게

음란전화 대처법(한채윤)

234 여자의 꿈

내 나이 60, 인생은 지금부터!(이월순)

232 상대적이고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남영)

260 히스토리

강원도 산골마을 이장집 아주머니 함선배씨(김민숙)





“호주제 폐지가

여성운동의

핵심과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격 취임한 강기원씨

때로는 법이 남용되기도 하지만 사회 변화의 '도구'인 법을 효과적으로 다룬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여성문제 해결에서도 법의 역할은 마찬가지 아닐까.

지난 3월 19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격 취임한 강기원(57)씨. 법대 교수 출신이었던 1대 윤후정 위원장의 뒤를 이었다. 강기원씨는 여성법 조인 2호, 서울지법 판사를 거친 변호사로서 평생 '법'을 다뤄온 정통 법조인 출신이다.

여성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왔지만 향간에는 '뜻밖의 발탁'이라는 평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특위에 부여된 남녀차별에 관한 '준사법권'의 활용과 남녀차별금지법 시행령 마련 등 법적으로 풀어야 할 여성문제의 기틀 확립에 단단한 뒀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평소 정책담당자나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는 입장이었다는 강기원 위원장은 "막상 중책을 맡고 보니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후회 없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알고 수락했다"고 했다. 아내의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인천대 총장으로 있는 남편 김학준씨가 임명 소식을 듣고 "걱정하지 말라, 적극 도와주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이렇듯 강위원장에게는 최고의 길을 걸어온 특혜받은 여성이란 이미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역시 판사시절 하나밖에 없는 딸 양육문제로 '간장이 녹아내리는' 평범한 엄마의 고충을 겪어야 했고 아무리 외조를 잘해도 '부엌에는 들어가지 않는' 남편의 뒷바라지며 여자판사가 전무하던 시절 겪을 수밖에 없던 여성으로서의 체험을 거쳤다. 그랬기에 그는 "개인의 경험을 초월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각자의 환경과 감수성, 통찰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성문제"이며,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명문 부호의 딸이든 구멍가게 딸이든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강위원장은 우선 여성특위의 역할을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7월 1일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법 시행령 마련, 정치행정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는 역시 '법조인 출신답게' 여성문제의 법적 해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호주제 폐지'를 여성운동의 핵심과제로 거침없이 거론했다. "주민등록제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와 협의해야겠지만 우선 이를 대체할 행정적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호주제야말로 남녀차별의 근원입니다. 시급히 고쳐야지요. 또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시에만 주어지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부자라도 생전엔 콩나물감박에 못 만져보고 결국 황혼이혼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이혼해야만, 남편이 죽어야만 돈을 만져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서울 법대 시절이나 판사 시절에도 성차별을 겪었던 강위원장은 95년 남편과 공저로 『직장에서 플레이 보이를 봐도 됩니까?』라는 책을 통해 최근의 쟁점인 성희롱 문제를 풍부한 구체적 사례로 다뤄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활발하고 시원스런 성격에 선이 굵은 강위원장은 남편 김학준 총장과도 평등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무심해 보일 만큼 독립적인 삶으로 이어졌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됐다"고 설명했다.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늘 민주적으로 걸었다는 딸 은수(32)씨를 1년 전 결혼시킨 그는 "손녀가 생기면 부부가 모든 걸 버리고 길러줄 생각도 있었다"고 했지만 당분간 여성문제 해결의 수장으로서 걸어야 할 '큰길'을 위해 손녀를 맡아기르는 기쁨은 접어둬야 할 것 같다. ■

글 박혜숙 / 사진 김민숙

“**밖**에서 멀다 이제야 방안에 들어온 것 같네요.”

“오랫동안 추운 바깥에서 있다가 따뜻한 방안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처럼 앉아야 할지 서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새 추운 바깥에서 사는 일에 어지간히 길이 든 모양입니다.”

지난 7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지 25년 만에 시인 김정란(문학평론가, 상지대 불문과 교수)에게 ‘상’이라는 것이 돌아왔다.

지난 4월 소월시문학상 심사위원회는 김정란 시인의 시 「사랑으로 나는」 등 7편을 제14회 소월시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그간 그의 시는 남성평론가들이 읽지 못하는 어려운 시로 유명했다. “남성의 말을 부수고 여성의 말을 새롭게 발생시키는” 그의 시는 남성의 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 편 그의 시가 예전에 비해 많이 쉬워지고, 편해졌기 때문에 이번 수상이 가능했다는 말도 들린다. 첫번째 시집 『다시 시작하는 나비』에서 그의 자아는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시인은 신경질적이고, 불행하고, 악마적으로 보이며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을 귀신, 녀마라고 힐난한다. 두번째 시집 『매혹 혹은 겹침』에서 그는 “내 안에 숨어 있는 나보다 훨씬 힘이 센 여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세번째 시집 『그 여자, 입구에서 가만히 되돌아보네』에서 마침내 그는 그 안의 여성성을 인정하고, 그와 화해하기 시작한다.

“그 동안 저의 시 작업은 자아를 찾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열추 됐다는 느낌, 이제 ‘나’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느낌이 나로 하여금 편안한 말로 노래를 부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나한테 상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안의 여성성과 화해하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후 김정란 시인은 자신의 내부가 아닌 실천의 공간으로 싸움의 장소를 옮겼다. 그가 실천공간으로 삼은 것은 언론매체다. 김정란 시인은 최근 한국사회

에서 가장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는 시사 칼럼니스트다. 그의 필봉 아래 우리 사회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부도덕한 정치가, 몰염치한 자본가, 편파적인 언론가 등이 발가벗겨지고 해체된다.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탁월한 글솜씨로 인해 그의 칼럼은 열혈독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최근 2~3년간 매체에 실린 그의 칼럼은 올초 『거품 아래로 깊이』(생각의 나무 간)라는 제목으로 묶여 출판되기도 했다.

시인, 문학평론가, 대학교수, 시사칼럼니스트 말고도 김정란에게 붙어다니는 직함은 많다. 그는 윤석화의 공연으로 유명한 장죽포의 일인극 〈목소리〉를 대학 시절 초연한 주인공이며, TV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람세스』등을 번역한 탁월한 불어 번역가이기도 하다. “말을 전할 수 있는 ‘미디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는 최근 또 다른 ‘미디어’를 하나 더 품었다. 자신의 시를 직접 노래하는 낭송가로 나서 동료시인 위승희씨와 함께 〈사이렌과 사이키〉라는 제목의 낭송 음반(현대시프로덕션)을 낸 것이다. 이번 낭송 음반의 컨셉은 ‘뉴미디어’다. 여기서 ‘뉴미디어’란 바로 시인의 몸을 말하는 것. 목소리의 고저와 떨림과 음율을 이용해 자신의 시를 직접 노래하는 것은 그가 지면을 통해 실천하는, ‘몸으로 글쓰기’의 입체적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의 말을 전달할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인 김정란을 하나의 ‘미디어’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를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것만큼의 다양한 ‘미디어’가 필요하다. 그럼으로 이 글 역시 그의 부분만을 더듬다 만 것에 불과하다. ■

글 황금희 / 사진 엄윤순



시를 통해 나를 만난다

제14회 소월시문학상 받은 시인 김정란



나의 귀국을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하버드 로스쿨 마치고 3년만에 귀국한 배금자 변호사

“이 프로? 애기 많이 들었어요. 다들 재미있다고 하던데요.”

대중매체 여기저기에서 인터뷰 요청이 적잖게 들어와도 “인터뷰는 이제 그만!”으로 초지일관해 왔다는 배금자 변호사가 이프의 인터뷰 요청은 반갑게 받아들인다. 인터뷰 올 때 이프로도 한 권 꼭 가지고 오라는 말과 함께.

96년 미국유학 길에 올라 3년 만인 지난 3월 귀국한 배금자 변호사를 5월 초 서초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변호사로서 유명세를 얻으며 한창 잘 나가던 그가 변호사 사무실을 닫고 유학길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당시 그는 여성단체의 자문변호사로, 김부남, 김보은 사건 등 시대적 성폭력 사건의 변호사로, 법률상담자료집 『이의 있습니다』를 출간한 저자로, 그리고 TV 법률상담프로그램인 〈오변호사 배변호사〉의 진행자로 이름을 날리며, 명분과 실리를 양손에 거머쥔 수 있는 절호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저는 장대협에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정신대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유엔에서 조사관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위 자문변호사라는 사람이 영어가 안 돼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는 ‘스타’ 변호사가 아닌 ‘전문’ 변호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심이 서자 마침 공무원인 남편도 미국 농무성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아들과 함께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었다. 코넬대학과 조지타운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에 영어가 빨리 늘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어학연수를 마친 후에 그는 하버드 로스쿨에 ‘당당하게’ 입학했다. 그 곳에서 언론법과 연예계의 법률문제를 전공하고 미국 담배소송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을 주제로 졸업논문을 썼다.

로스쿨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딴 그

는 지난 3월 보루도 당당히 서울에 입성했다. 돌아온 후 동료변호사 두 사람과 함께 해람 합동법률사무소를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배변호사는 TV프로그램을 통해 정식 귀국인사를 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오양 비디오’ 사건과 관련해 모 방송국에서 5월 초에 생방송한 TV시사토론회의 사회를 본 것. 성교육전문가 구성에서,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영화감독 이현승씨 등 내로라하는 성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3년이나 공백기간을 가졌던 그에게 단박에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의 자리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변호사는 조만간 하버드 졸업논문의 자료를 토대로 흡연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소송을 낼 생각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최초의 담배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가 미국의 시민권과 관련된 소송사례를 한국사회에 적용시켜 분석한 자료도 6월중에 책으로 출판된다.

“저는 유명인사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변호사로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내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전문변호사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배변호사의 각오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기대된다. □

글 황금희 / 사진 임윤순



‘바지 입고 의정활동’ 작은 역사의 주역

“여자 국회의원은 치마만” 불문을 깬 이미경 국회의원

최 근 당의 방침을 어기고 ‘소신있는’ 한 표 행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49). 여성계에서야 그를 모르는 이가 없지만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의 방침에 당당히 맞서 노사정위원회 법안 표결에 참가, 찬성표를 던져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선한 희망을 주었고 국민적 격려를 받았다.

지난 5월은 그에게 ‘우리 정치가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서글픔도 안겨줬지만 그간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한껏 빛낸 달이기도 했다.

“정정적 사안과 민생·경제 사안은 분리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표결에 참가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지금도 후회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다수 유권자의 격려가 큰 힘이 됐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의 ‘소신’은 사실 평생 걸어온 길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이끌면서 정신대문제를 사회문제로 정점화했고 국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모임’을 정식으로 국회에 등록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은 국회에 바지를 입고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주역. 96년 국회 동원에 앞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조선의원 당선축하회’에 국민회의 정회경, 신낙균, 권영자 의원 등 4~6명의 여성의원끼리 의기투합해 ‘바지정장’ 차림으로 참가. ‘국회에서 여자 국회의원은 바지를 입지 못한다’는 불문을 깬 일화를 만들어냈던 인물이다.

선배의원들한테 여자 국회의원은 짧은 반팔 투피스나 원피스도 입어서는 안되고 치마정장만 입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는 의회동원 전 몇몇 여성의원들에게 “우리 동원하는 날 모두 바지를 입자”고 제안해 전격적인 동의를 얻었고 치마정장 아닌 ‘바지정장 의정활동’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일 뿐

이라는 의원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공식석상에서 바지가 정장으로 인정되고 있고, 미국에서 힐러리가 미국선거사상 유일하게 바지 입고 남편의 선거 유세를 했던 것도 여성운동사에서 볼 때는 의미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번은 뒤에 앉은 남성 중진의원에게서 ‘왜 여성의원들이 바지를 입고 다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미 90년대 바지가 국제복식협회에서 정장으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을 해드렸더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우리 나라 여성들이 걸코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화려하게 차려입는 파티복장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또 노동위의 큰 쟁점에 밀리기 쉬운 여성문제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큰 쟁점이 없는 시점을 틈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틈새전략’으로 일본군 전범 출입국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금지와 간접차별 금지 조항을 끼워넣는 값진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 상대를 졸업하고 재야운동에 평생 몸담고 있는 남편 이창식(53)씨와 결혼, 2녀를 둔 의원은 남편과는 ‘삶의 동지’로, 결혼초부터 궁합이 잘맞는 시부모와 함께 살아왔다. “단 한번도 문제는 없었어요. 서로가 합리적이어야 해요. 또 고부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사실 일흔넷 되신 시어머나가 가사일을 거의 하시는데 진정으로 모든 식구들이 가사노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사해하고 그 역할을 존중하니까 집안이 진짜 시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년 있을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의 삶의 행로가 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신뢰받는 여성운동가로서의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글 박혜숙 / 사진 김민숙

18살, 에세이 '네 멋대로 해라'의 저자, 최연소 영상원 합격자, 김현진.

그를 만나려고 전화를 할 때 옆에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전화 내용을 들은 어떤 사람이 한 마디 했다. "그 애, 취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게 그 아이에게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애를 자꾸 들까불어 놓으면 도움보다는 해가 될 텐데요." 과연 그럴까. 일간지와 시사잡지, 영화잡지에 이르기까지 김현진의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 정말 그는 인터뷰를 자꾸 하면 오만해지고 그것때문에 제자리를 잡지 못할까.

아마도 그는 제 목적에 따라 자신을 만나길 원하는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약간의 환멸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는 알파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위선을 부리지 않을 힘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영화는 애인 같아요. 애인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미친 듯 좋다가도 시들해져서 보기 싫을 때도 있는 것처럼,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많이 볼 수도 없어요."

그는 약간 어눌한 말투로 천천히 고등학교 1년도 못 채우고 자퇴한 이야기, 학생도 어른도 대학생도 사회인도 아니어서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의 이야기, 나이가 몇 년씩 차이 나는 사람들과의 학교 이야기 등을 풀어놓았다. 영상원의 억압적이지 않은 분위기,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아온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 그리고 틀에 짜여져 있지 않은 수업방식,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듣다보니, 그건 나름대로 힘겹게 자신과 사회와 싸워온 그가 스스로 찾은 선물 같았다. 누가 덤벼 안겨준 것이 아니란 말이다.

"난 잘 생긴 남자배우나 예쁜 여자배우가 나오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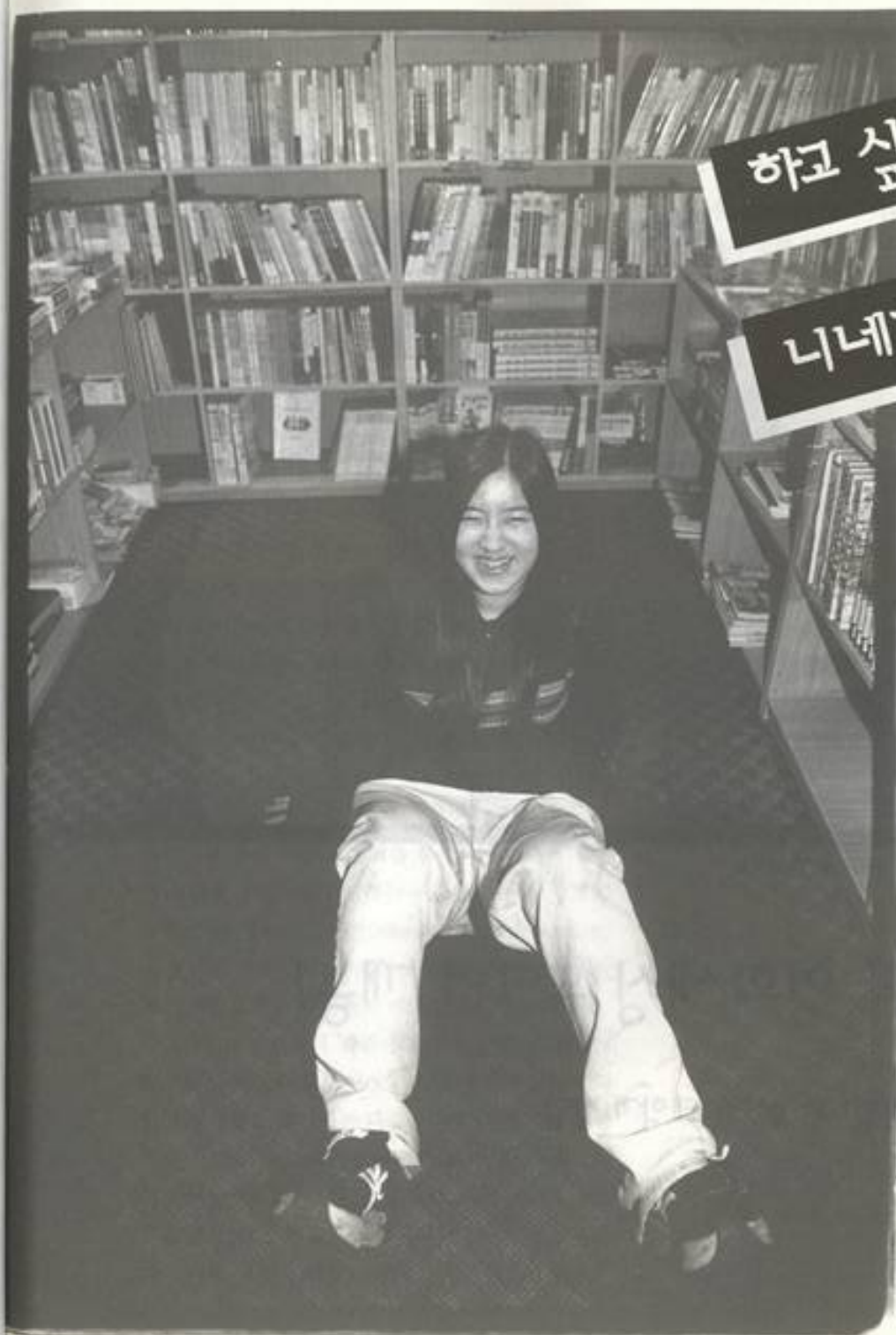
화가 별로 좋지 않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가 뭐 재미있나요. 영화를 만들게 되면 꼭 같이 일해 보고 싶은 배우가 있어요. 친구씨 하고, 정영숙씨요."

이어서 나온 좋아하는 배우들이 김무생, 김인문, 이휘향, 배종옥... 18살 짜리의 감수성에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걸 들으니 어쩌나 즐거워지던지, 꼭 두 배나 더 많은 나이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였다. 한없이 편안하고 격식 없고 두서없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그의 책을 읽고 느꼈던 묘한 슬픔과는 다른 기쁨이었다.

긴 머리에 하얀 얼굴의 현진이는 제 나이에 걸맞게 짙은 웃으며 학교길에 떡볶이를 먹어본 기억이 없다. 스무살도 안되어 인터넷 웹진 <네가진> 편집장을 맡으면서부터 사람들은 '현진아' 대신 '김현진씨'라고 불렀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혹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온 그는 그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어른들의 세계로 성큼 들어서 텅텅이 자기주장이 강한 아이로만 오해받곤 했다. 어떤 길을 가든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듯 그도 조금씩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살아왔을 것이다.

무얼 하고 싶어도 그냥 참거나, 정반대의 길로 들어가 해매는 동년배의 친구들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고 싶으면 니네가 해라. 남 탓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인터뷰 전에, 가만히 있는 애들 쫓이지 말라고 했던 '어른'의 말은 단순한 기우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영상원 연출과 김현진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오만하지 않은 나만의 세계가 이미 자리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글 권혁란 / 사진 엄윤순



하고 싶으면

니네가 해라

최연소
영상원 합격자
김현진



오른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윤은정, 이주영, 김현주, 정호현.

‘여다모 표’ 영화세상 드디어 개봉!

〈평범하지 않은 평범〉 완성시켜 대학가 상영

여성다큐멘터리작가모임, 이름하여 여다모는 지난해 11월 말 다큐멘터리에 매료된 여자들이 만든 작은 모임이다. 푸른영상, 독립영화사협회와 함께 동대문구 신당동의 한 건물 5층에 나란히 있는 다큐멘터리제작사 A-TV 사무실에는 한 달에 두 번 네 여자가 모인다.

교육방송에서 구성작가를 하면서, 영상을 알면 글 쓰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다큐제작을 배우다 아예 다큐작가로 나서게 된 이주영(33, A-TV)씨, CF감독이나 코미디언을 꿈꾸었지만 학교 졸업 후 평범한 회사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다 재미삼아 배운 다큐멘터리 제작실습이 전업이 되어버린 정호현(27, A-TV)씨, 회원관리를 해줄 직원으로 들어간 독립영화제작사 푸른영상에서 다큐멘터리에 매료되어 버렸다는 윤은정(32, 푸른영상)씨, 인천여성노동자회에서 ‘영화와 여성’ 모임에 참여하며 여노회의 모습을 영상을 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다큐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는 김현주(28, 인천여성노동자회 영상팀)씨가 여다모의 창립 멤버이다.

“처음에는 10여 명 넘게 모였는데 여성과 다큐멘터리 중 어느 한쪽에만 방점을 찍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기 작업의 고민을 나누고, 세미나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면서 동시에 생활을 공유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 모임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대안(alternative), 다른(another)을 뜻하는 말의 약자인 A-TV를 동료 다큐작가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영씨는 여다모의 큰언니 격이다.

여다모는 호현씨의 작품이 계기가 되었다. 호현씨는 지난해 10대와 20대 여성 세 명을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성체험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평범하지 않은 평범〉을 찍었다. “이 작품을 찍는 데는 영상기술만큼이나 여성주의적 시각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제가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민을 호소하다 아예 모임을 만들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싶었지요.” 올초 편집을 마친 이 작품은 여다모의 고민이 모아진 첫번째 열매인 셈. 현재 대학가 여성학 강좌와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상영되면서 활발한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

앞으로 ‘여다모 표’ 여성다큐멘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날지 기대해볼 만하다. 각기 다른 작업현장에 속해 있는 네 여자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윤정씨는 여성민우회 노동센터 안의 영상매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실업문제나 호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주씨는 여성실직문제를 다뤄볼 생각이다. 호현씨는 이번 작품이 끝나면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구상중이고, 영주씨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면 소재에 국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다뤄볼 생각이다.

호현씨의 작품명 〈평범하지 않은 평범〉은 다른 무엇보다 여다모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말인 듯하다. 평범한 여자들이 만든 평범하지 않은 모임, 여다모를 주목하시라. 여다모의 이름으로 만드는 다큐멘터리 세상 개봉박두! □

글 황금희 / 사진 엄윤순

바람 부는
수수밭을
본 적이
있는지...

여성신문 연재 시작한
공선옥씨



호 남선을 타고 기차로 여섯 시간 남짓 달려가면 지리산 한 자락을 나눠가진 곡성이 나온다. 새로 지은 기차역사만 우뚝하게 서 있는 그 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한 시간 가량 섬진강변을 따라가면 공선옥(36)씨가 사는 석곡, 돌실이다. 제주도에서나 보일 법한 돌담이 가지런히 늘어선 골목 한 어귀엔 아랍이(14)와 혜원이(11) 그리고 민수(4)와 공선옥씨가 동지를 뜯 커다란 대문이 반긴다.

공선옥씨는 요즘 대숲이 울울한 뒤꼈을 벗삼아 여성신문에 연재중인 『수수밭으로 오세요』를 열심히 집필 중이다.

『수수밭...』은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산골짜기 읍내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바람 부는 수수밭을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 키가 자랄 대로 자란 가을 수수밭은 산해. 두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봄부터 수수밭을 가꾸었어. 올 여름도 거기서 보내고 수수팔떡도 해먹고 수수밥도 해먹으며 살아. 이렇게 사이좋게 먹을 것을 나누다가도 수틀리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이 작품을 통해 크게는 화해라는 것을 그리고 싶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고통을 겪지만 그러면서 가족이 뭔지 산다는 게 뭔지 재끼는 뭐고 부모가 왜간다는 건 뭔지, 이런 걸 말하고 싶어. 이 이야기는 첫소리가 약간 나는 공선옥씨의 육성으로 들어야 재미있다. 잘못고 욕 잘 하고 남의 아픔을 나의 그것보다 더 아파하는 그 목소리로 들어야 제맛이다.

그는 또 이 작품을 통해 동양적 페미니즘을 그려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연재를 시작하려면 즈음. 공선옥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겨레』 기사를 보고 건 전화였다.

자기도 그 기사 봤어? 여성운동이 과연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어떤 여성운동가가 고민하는 내용이 담긴 거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 지금까지 여성운동이 주장해 왔던 그런 방식만이 우리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 나는 우리네 어

머니들이 성황당에 둘 하나 올려놓으면서도 정성을 들이고, 미물 하나 함부로 대하지 않던 그 자세를 높이치고 싶어. 그 정신을 소중한 여성성의 자산으로 삼고 싶어. 꼭 정치나 경제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대부분 여성이 그러지도 못하고, 밥 하고 애 키우는 게 어때서? 내 생각엔 그게 정치나 경제보다 중요한 것 같애. 그 일을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는 게 문제지. 그게 우리 역사를 지켜온 것 아니겠어? 나를 보수적인 여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자들끼리 모여 재사도 지내고 명절마다 음식도 만들고 애도 키우는, 급진적 여성운동가들이 터부시하거나 타도하고자 했던 부분을 끌어안고 싶어. 무수한 갈등을 겪으며 삼투압을 거쳐, 여자든 남자든 하나로 녹아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어.

한편 공선옥씨는 그간 여러 작품을 통해 모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었다. 그의 모성은 생애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못 남성들이 찬미해 마지않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희생적인 모성이태울로기도 아니다. 오히려 어미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든 도망쳐볼까 탄 생각도 품어보는, 그렇게 아이와 부대끼며 자신의 성장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의 모성이다.

애들은 준비 안 된 엄마였던 나를 엄마로 부모로 만들어준 고마운 존재야. 자식을 키운다니, 당치도 않아. 오히려 애들이 어른을 키우지. 애들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세상에 눈을 뜨고, 자식이라는 타인을 통해 이 타적 세계에 눈을 뜬다고 생각해.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든든해. 얘기를 업으면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애들과 함께 겪는 고통을 통해 나는 점점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 행복해. ■

글 최이부자



남녀평등도 인해전술이 필요하다

여성벤처협회 정의자 회장

수 십 미터 지하에 터널을 뚫고 레일을 깔고 전동차를 올려놓는다고 지하철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전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자동신호제어기, 역단위 전산기, 오토매틱 발전기, 티켓 발매기 등 지하철 업무를 관장할 역무자동화시스템이 갖춰져야 비로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자동제어장치는 지하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말하는 정희자씨(오토피스 엔지니어링) 사장의 아름다운 외모와 차분한 언행을 지켜보며 가장 남성적인 요소들의 융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공사판에서조차도 여성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것도 남성들이 힘들여 만든 몸체의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하철 자동화시스템은, 시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능력있는 대기업은 외면해 왔고 중소기업은 기술집약형이라 덤벼들기 힘든 틈새시장이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나라 지하철을 움직이는 두뇌 부분을 엄청난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외국기술에 의존해 왔다.

"제가 군인의 아내라 그런지 애국심이 많은가 봐요. 화장품도 의제보다는 국산품을 쟁겨서 쓰는 편인데 우리 나라 기간산업을 관장하는 기술을 외국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마음에 안들어 내가 나서서라도 수입 대체를 해보겠다고 생각했지요. 또 누구나 손댈 수 없는 아예 어려운 기술 쪽으로 사업방향을 정했지요. 기본기술이 있으니까 한동안 경쟁력이 있겠다 싶었어요."

기술자가 된 아티스트

첨단 기술을 요하는 벤치기업가라면 으레 이공계 출신으로 생각하겠지만 정사장은 의외로 미술대학을 나온 아티스트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첨단제품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됐다. "납품 기일은 다가오는데 연구성과가 안날 때는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연구원들과 밤샘을 하기도 하고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 설치할 때도 팔을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함께 해온 세월이 쌓이다보니 이제 이 분야에선 전문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파는 기계의 기능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만 남에게 세일즈를 할 수 있어요. 늘 애정을 갖고 보니까 기계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회로의 어디가 잘못 됐는지 웬만한 기술자만큼은 알게 되더군요."

6년 전 어느날 전자분야 사업을 하던 남동생으로부터 자본참여 권유를 받고 동생은 연구개발 분야를, 정희자씨는 경영을 맡기로 하면서 기계와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됐다. 93년 회사를 인수한 이래 정희자씨의 오토피스 엔지니어링사는 연구에 몰두한 결과 상당한 실적을 쌓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 3, 4호선에 사용되던 외국산 자동신호제어기가 이 회사제품으로 교체됐고, 부산 지하철은 22개 역에 160개의 발권기, 발매기가 도입되는 등 사업이 날로 번창해 시작한 지 5년 남짓만에 20여 명의 연구인력만으로 급년 매출 100억 원을 육박하는 실적을 올리게 되었다.

20여 명 연구인력으로 100억 매출

이렇게 자신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정사장은 주변의 여성사업가, 특히 자신과 같이 벤치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98년 7월 여성벤처협회를 발족시킨 후 초대회장을 맡아 여성벤처기업간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벤처협회는 전국의 약 70여 명의 여성벤처기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 조찬회와 연 3회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부의 벤치 관련정책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며 그 동안 남성들이 독식해온 벤치업계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여성벤처협회가 생기기 전에는 일터나 회의석상에서 여성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남성들만의 모임에 내가 혼자 끼는 식이었죠. 그렇게 사회가 남성위주로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여성미를 잃고 남성화되나 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정희자씨는 너무나 곱고 여성적

이다. "남자들은 벤치 사장 하면 청바지에 운동모자, 짙은 동여맨 머리 등을 연상했는지 첫 대면에서 한결 같이 의외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일은 육체노동이 아니라 하이테크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기계를 다룬다고 해서 기름때 묻힐 일도 없고 땀을 낸 복장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여성벤처협회에 소속된 여성경영자들도 모두 멋있고 부지런한 것이 특징이라며 30대가 주축인 회원 자량이 대단하다. "그러나 곱게 미소만 짓고 있다가 일감을 뺏길 수는 없지요. 일단 일에 맞닥뜨리면 남성보다 더한 끈기로 달려드는 것이 여성벤처기업인의 특징이라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60년대 산업화 정책으로 많은 여성들이 공장에서 조립 등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을 바라보는 지금은 단순노동인 컴퓨터워드 치는 직종 등에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정희자씨는 "여자들이 뽕뽕 뽕뽕 서로 밀고 당겨줘도 사회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주류가 온통 남성들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협조 없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순탄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평등을 구호로만 부르짖지 말고 사회 속에 스며들어가 자리를 잡아서 어느날 '이렇게 여자가 많은가?' 하게 해야 한다"는 게 그의 남녀평등 전략이다. "숫자가 많아야 지원정책도 따라온다"는 게 그의 지론.

그러나 군인 1%, 경찰 1%, 제조업 2.8%인 현실에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올는지... 벤치업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부한 벤치인증서가 2,500개나 되지만 그중 80개만이 여성기업인에게 발부된 것. 전체 벤치기업가 중에 여성은 3%밖에 안되는 셈이다. 그래서 정희자씨는 자신의 회사일만으로도 벅찬 일정이지만 여성벤처협회 일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다. 3%가 50%로 되는 날까지 말이다. [11]

글·사진 김민숙

5월 내각 교체, 여성장관 1명으로...

환경부 손숙씨

연극배우이자 방송인인 손숙(55)씨가 지난 5월 24일 단행된 내각 교체에서 환경부장관에 취임했다. 이번 개각으로 여성장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 여성계가 느끼는 아쉬움은 크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송인 손숙씨가 환경부 장관이 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손숙씨는 지난 30여년간 100여 편의 연극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연극계 여우주연상, 이해랑 연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 2월부터 10년 공연을 목표로 정동극장에서 〈손숙의 어머니〉(연출 이은택)를 공연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넉넉한 인품과 편안한 말솜씨, 점잖은 목소리로 지난 10년간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인기프로그램으로 이끌어왔다. 다른 오전시간대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하철 파업사태,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 등의 시사적인 문제



를 언급하면서 대 사회적인 관심을 표명했으며 그 외에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 여성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

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예술인이 환경문제나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사회활동에 뛰어들어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숙씨는 취임 전에도 꾸준히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가 환경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과 세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언론과 비판적인 사회인식, 그리고 성실하고 빈틈 없는 삶의 태도 등이 그의 공적인 업무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김보미

큰 내용 담은 작은 책들

최근 창간된 『공간』, 『아름다운 사람』, 『나와 우리』

소담한 일상을 담은 작은 책들이 잇따라 출간돼 독자들에게 진중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기존의 잡지들에 비해 절반 정도 크기와 부피, 그리고 가격을 줄인 '작은 책'들이다.

〈장애여성공감〉에서 지난 4월 창간한 장애여성잡지 『공간』은 장애인여성들이 직접 만드는 우리 나라 최초의 잡지여서 눈길을 끈다. 〈장애여성공감〉은 지난 98년 2월 만들어진 모임, 〈빛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장애인 모임

을 통해 만난 장애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돼 현재 장애여성과 여성학을 공부하는 학생 등 8명의 회원이 꾸려가고 있다.

아들이 만든 잡지 『공간』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남성과는 다른 장애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동안의 장애운동에 반기를 들고, 장애여성의 체험을 드러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어낸다는 창간목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잡지가 사용하는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정치적인 개념이다. 장애인의 인(人)은 성별을 감추고 보편적인 인간, 즉 남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은 그 대신 성별을 드러내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여 장애여성이라고 말한다. 『공간』 창간호에는 장애여성들이 직접 쓴 그들의 삶이 실려 있고, 『몸에 대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제목으로 한 편집진의 대담도 수록되어 있다(3,000원, 02-441-2384).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2호에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인 반민운동가 강명순씨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지하철 안에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사연을 담은 특집 『지하철에서』가 수록되어 있다(2,000원, CM미디어,

'네가 있어 세상이 아름답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잡지, 『아름다운 사람』은 지난 4월에 창간호 현재 2호까지 발행되었다. 이 잡지는 제호에서 보여주듯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나 쉽게 찾아지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것을

02-695-5054) 『나와 우리』는 잡지명과 동명인 단체 〈나와 우리〉에서 지난해 여름 창간했다. 단체 〈나와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을 주

고자 하는 사람들이 98년 초반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1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지킴이 강제숙씨는 나와 우리의 활동목표에 대해 "정신대 할머니,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그들을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소개한다.

지난해 창간호를 내고 현재 2호를 준비중이다. 창간호에는 북녘동포돕기 운동, 외국인노동자의 사연, 지구촌 우리 동포이야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가격미정, 02-747-3194). 황금희

한국사회 여성주의 저널리즘, 어떻게 가능한가?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연이은 토론회서 문제제기

한국사회에서 여성주의 저널리즘은 낯선 용어이다. 여성주의 저널리즘이 무엇이고, 어떤 매체를 여성주의 저널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공통된 기준조차 없지만 그러나 이미 본지인 『페미니스트

저널 F』를 비롯해 『여성신문』, 『또 하나의 문화』, 『여성과 사회』, 『여/성/이론』을 비롯해 여성단체에서 수백 종의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저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대표 이계경)가 지난 3월과 4월 잇따라 개최한 두 번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는 3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여성주의 저널리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 데 이어 4월 2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언론은 여성인가 남성인가—'황혼이혼' 그리고 'O양 비디오' 보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여성주의자들이 주류매체를 여성주의 시각을 통해 모니터링해 온 기존의 비평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언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황혼이혼 사건과 'O양 비디오 사건'에 대한 주류언론의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태도를 지적한 두번째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삶을 그들의 시각에서 볼 수 없는 남성들이 만들어낸 언론의 태생적 한계

와 여성언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앞으로도 21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
는 매달 한 번씩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필요성',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21

세기여성미디어네트워크는 (주)여성신
문사가 지난해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구
현을 목표로 발족시킨 단체로 김훈순, 최
선형 교수(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
부), 남영진 한국일보 차장, 류숙형 문화

일보 차장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디어 관련기관에 종사하거나
미디어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다(02-389-9275).
황금희

동승동서 꽃핀 7일간의 '여성축제'

제2회 서울여성영화제 성황리에 마쳐



〈랍의 여전사〉, 영국, 1998.

영화제라기보다는 차라리 여성축제였
다!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이해경)이
주최한 제2회 서울여성영화제가 열린 4
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종로구 동승
동 대학로는 더 이상 뛰는 10대들의 공
간이 아니었다.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영화
제의 구호에 맞게 이번 영화제는 여성들
로 하여금 서로 만나게 하고, 대화를 나
누게 하고, 연대하게 하고, 세상에 대해
말하게 했다. 그래도 영화제라는 축제의
가치는 영화를 보는 즐거움에서 더욱 배
가되는 법. 이번 영화제에는 좀처럼 접
하기 힘든 국내외 여성감독들의 영화들
이 그야말로 삼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
졌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앞서서보기, 뒤집

어보기, 건주어보기, 더불어보
기, 되돌아보기 등 크게 5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총 52편의 국
내외 여성영화들이 상영되었
다. 그 중 관객들의 사랑을 가
장 많은 받은 작품은 두 차례나
앙코르상연을 했던 프리티바

파마 감독의 다큐멘터리 〈랍의
여전사〉(영국작품). 시네드 오코너, 마
론나, 해니 디프랑코 등 세계 유명 여성
록 · 랑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공개상황
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만점인 이 영화
는 그들이 현대여성에게 미치고 있는 영
향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밝혀나가고 있
어 관객들로부터 '페미니즘을 물췌던 사
람들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게 해준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랍의 여전사〉 외에 미국남성의 이상
적 여성상을 반영해 온 바비인형의 역사
를 다룬 톨라 아셀라니즈 감독의 〈바비인
형의 제국〉(미국작품), 여성들로만 이루
어진 일본의 유명 악극단 '타카라주키'
에 관한 다큐멘터리인 킴 콘지노토/제이
노 윌리엄스 감독의 〈드림걸즈〉(영국 작
품),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

과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들을 조목조
목 짚아나간 도미니크 카도나/로리 콜버
트 감독의 다큐멘터리 〈나의 페미니즘〉
(캐나다 작품) 등 주로 다큐멘터리 작품
이 이번 영화제에서 관객들의 사랑을 받
았다.

이번 영화제의 또 다른 재미는
30~40년 전의 한국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봤으면 자칫 지
루했을 오래된 한국영화 특유의 촌스러
움과 과장된 연기가, 여성영화제라는 특
별한 의미가 부여된 자리에서 감상한 탓
인지 유쾌한 코미디로 해석되었다. 특히
〈자유부인〉이 상영된 이후 여성영화제
주변에서는 영화 속에서 교수부인을 유
혹하기 위해 출생선이 많이 켜던 '아담,
이라부'라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여성영화제는 이번이 없는 한 2년 후



〈바비인형의 제국〉, 미국, 1996.

산악인 지현옥 히말라야에서 잠들다

"산에 미치지 않으면 산을 탈 수 없다"
고 말해 온 산악인 지현옥씨가 그토록 사
랑하던 산의 품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본
지와와의 인터뷰(본지 7호 뉴스무인)에서
8,000미터 이상의 산에 등정하는 것은
'죽음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던 그가 지
난 4월 29일 안나푸르나 I 봉을 등정하
고 하산하다 추락, 끝내 사망했다.

1979년 등반을 시작해 올해로 20년
등반경력 가진 그는 1993년 5월 10일
한국여성으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고, 이후 가셔브럼 I 봉(8,068m)
을 비롯해 가셔브럼 II 봉(8,035m)을 단

독 등정했으며 이번에 안나푸르나 I 봉
(8,091m) 등정에 성공해 명실공히 세
계적인 산악인의 반열에 올랐으나, 그 기
쁨은 산 자들의 몫이 되었다.

산을 오를 때의 육체적 고통보다 여성
산악인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자리를 찾
아가는 작업이 더 힘들었다던 그는 본지
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산악인 사회를
만드는 게척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
었다. 그의 어깨가 너무 무거웠던 것일
까. 그의 말은 후배 여성산악인에게 남
긴 유언이 되고 말았다. 세상 그 무엇과
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

로 느낄 수 있는 여성축제 자리잡기 위
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현존 업그레이드된 제3회 여성영화제를
위해서 말이다.
황금희



로 서른아홉 해를 살다간 지현옥씨의 명
복을 빈다.
황금희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서울대 성폭력 학칙 제정, 학생들 나섰다

성폭력 없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서
울대 학생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기다
리지 말자, 바로 지금, 바로 당신과 함
께!'라는 구호로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규정(안)」을 위한 결의 서명에 나섰
다. 지난 4월 12일에서 14일에 걸쳐 실
시된 이번 서명에서 서울대 전체 학부생
의 1/4에 해당하는 4,239명이라는 놀라
운 숫자가 참여했다. 이는 바로 지난 6. 7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온 학칙제

정에 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학
생들의 의지의 산물. 또한 성당론이 활발
히 이루어지는 학내 분위기와 현충 높아
진 학생들의 성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측은 이같은 학생들의
참여가 단순히 학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학칙이 만들
어지는 과정과 이후 운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
칙 제정을 통해 대학교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이룩해 나가고 성폭력에 대해 올
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현재는 학칙제정 과정에서 생기는 학
생부처와 학생들간의 의견차이를 좁혀
가고 있는 상태이다.

전국에서 대학으로는 최초로 총학
생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98년 성폭력 관
련 학칙을 제정한 부산대 이외에 동의대,
동아대, 아주대 등에 관련 학칙이 제정돼
있다.
김보미



화제폭발

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가다

60대의 한 노교수는 "대한민국을 발각 뒤집어놓았다"고 표현했고

또 다른 남성지식인은 후진성을 면치 못한 한국의 남성문화 역사에 통쾌한 펀치를 날린 '문화혁명'이었다고 표현했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 현장은 한 마디로 감동과 충격의 무대였다. 현장에 오지 못한 독자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의해 안티미스코리아 현장을 지면에 옮겨보았다.

그 뜨거웠던 토요일밤의 열기

문화일보 기자·이프 편집위원 류숙협

5월 15일 오후 5시 충정로 옛 동양극장 자리에 자리잡은 문화일보홀. 무대 전면에는 짙은 핑크 빛 바탕에 흰 글씨로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라는 문구가 쓰여진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사회는 영화평론가 유지나(동국대) 교수와 정신 대다큐멘터리 연작으로 잘 알려진 변영주 감독. 막이 오르자 무대 안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재즈드럼 김대환씨의 드럼공연이 서막을 알리며 시작됐



◀ 여성들의 공동육아를 표현한 패션쇼 중의 한 장면.

▲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마지막 무대.

다. 김씨와 함께 등장한 여가수는 가사가 없이 구음으로만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부짖음 같기도 한 노래를 불렀다. 김씨의 신들린 듯한 북소리와 여가수의 구음재즈는 원시시대 제식행위의 시작을 알리는 주술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김씨의 북소리가 잦아들면서 무대에는 7, 8명의 여성들이 음악없이 발을 구르며 등장. 오프닝댄스에 들어갔다. 티셔츠와 바지의 평상복 차림을 한 이들은 "헤이 헤이, 옷자! 헤이 헤이, 뒤집자! 헤이 헤이, 놀자!"를 소리치며 본격적인 안티미스코리아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첫번째 출연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덕 할머니의 '하고 싶은 말 하기'. 커다란 액자에 담긴 자신의 수예미술작품 <젓밥힌 청춘>을 들고 나온 김순덕 할머니는 변영주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간호사가

된다는 꼬임에 정신대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청춘시절의 꿈, 일제에 의해 짓밟히고 빼앗긴 여자의 인생, 그리고 성폭력 신고의 신기원을 이룩한 청대협 활동을 소개했다.

김순덕 할머니를 이은 두번째 출연자는 댄서, 효인, 수경 등 20대 여성 7명으로 이루어진 힙합팀. <blaise(명)>라는 제목의 힙합댄스 메들리를 선보인 이 팀은 격렬한 춤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분출하는 젊은 에너지를 뽐내었다. 김순덕 할머니에 의해 숙연해졌던 장내는 젊음이 넘치는 힙합댄스로 달아오르기 시작. 관객들은 함께 박수를 치며 열렬하게 호응했다. 이어진 무대는 가수 한영애씨의 축하공연. 조명을 받아 온갖 색깔로 찬란하게 빛나는 흰색 새틴 바지정장을 입은 한영애씨의 공연은 노련한 무대매너와 함께 장면을 열광시키기에 족했다.



◀ 이혜경 폭파위원장으로부터 안티미스코리아 발명상을 받고 있는 노희즈밴드

▲ 소설 『선택』의 주인공 장씨부인으로 분장한 이하천씨.



그리고 폭파단(심사위원) 소개. 폭파위원이 소개되는 동시에 검은 망토에 검은 마녀모자를 쓴 폭파단장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가 무대에 뛰어올라 미스코리아처럼 부위별 평가점수가 아니라 "마음대로 뽀글겠다"는 심사소견과 함께 7개 부문으로 이루어진 안티미스코리아상 내역을 설명했다.

세번째 출전자는 언더그라운드 여성밴드 변신시멘트귀신의 퍼포먼스와 노래 〈신촌의 칼〉. 요리를 위해 도마 위에서 또다다다 호박을 자르던 부엌칼은 '아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육설과 밀시'를 일삼는 미친개에 대한 방어용 칼로 변신한다. "미친개를 만났지, 굴다리에서, 미친개에 물렸지, 하숙집에서, (중략) 엄마, 나 오늘 칼을 하나 샀어, 남자 깎는 칼, 하숙집에도 고향집에도 신촌에서도 어디든 찌르고 다니는 날선 칼, 엄마 걱정 마, 나도 이제 무장했어."

네번째 출전자는 9개월 된 딸이 있으면서도 아직 신혼이라고 우기는 주부 김진옥씨. 달콤한 우유냄새를 풍기며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철부지 신혼주부를 기대하고 있던 관객들은 월세어에 실려서 등장하는 김씨를 보고 일순 조용해졌다. 빨간 원피스에 하얀 레이스가디건을 입은 김씨는 밝은 얼굴로 장예엄마에게서 태어난 딸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 간간히 남

독을 멈추며 격한 호흡을 가다듬는 김씨의 힘겨운 노력은 끝내 관객들을 흐느끼게 만들었다.

이어 무대에 오른 특별출연자는 소설가 이하천씨. 이씨는 여성들에게 현모양처로 살 것을 강요하는 이문열의 소설 『선택』의 주인공 장씨부인의 닮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자신을 빙자해 소설을 쓴 이문열을 호통치는 편지를 낭독했다. 녹색과 갈색의 나염 쉬폰 드레스와 화려한 카메라 분장으로 현대판 장씨부인의 모습을 한 이씨의 무대는 시종 호통에 호응하는 관객들의 휘파람과 웃음으로 유쾌한 성토장으로 돌변했다.

40대의 여한의사 고은광순씨의 〈가요 가요 나는 가요〉. 다홍치마 언두저고리에 족두리를 쓴 전통 혼례복 차림의 고은광순씨는 얼굴을 가린 채 봉건적인 시집 살이의 한을 노래에 담아 등장했다. 그러나 삼종지도의 미덕을 노래하던 전통가요는 후반부로 접어들어 옷을 벗어부치는 '자유선언'과 함께 정치부인의 노래로 바뀌었다. 족두리에서 치마 저고리 온장도까지 차례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열광하던 관객들은 속이 뒤틀리 비치는 속곳 차림의 고은씨가 "미인대회 집어치워라", "호주제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선창하자 자연스레 구호를 따라 외쳤다. 장내가 가부장제 규

탄 시위현장으로 변해버리자 폭파위원석에 앉아 있던 손덕수(효성가톨릭대) 교수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무대 위에 뛰어올라 규탄시위는 관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강도를 더했다.

난무하는 구호 속에 무대 화면에는 여섯번째 출전자 오혜주씨의 셀프비디오가 비쳐졌다.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유치원생 아들을 키우는 30대 독신모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린 이 자작 비디오는 남자의 도움없이 건강한 삶을 꾸려가는 여성의 생존법이 일상에 녹아든 아름다움으로 카메라에 잡혔다.

이어서 조세나 외 8명이 하는 패션쇼 〈시선, 불멸 우리는 COOL〉이 펼쳐졌다. 성차별적 복장 편하게 입기를 주제로 열린 이 패션쇼는 테크노사운드를 배경으로 한 남남공용의 혼례복을 필두로 스포츠웨어, 평상복, 직업복, 자유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유일한 남성출전자인 전한해원은 무대 위에서 힙합보이 패션, 블랙 타이트드레스, 진스커트 등으로 의상의 전경계선을 넘나드는 중형무진한 변신으로 남성복과 여성복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패션쇼의 마지막을 장식한 40대 오순애씨의 랩송에 이어 설치미술가 안필연(경기대) 교수의 특별 퍼포먼스 〈존재와 부재〉가 이어졌다. 지난 해 해외에서 공연된 후 국내 초연인 이 작품은 두 개의 여자마네킹(서양마네킹: 디자이너 이광희씨 작품, 동양마네킹: 디자이너 이영희씨 작품)이 바빠 무대 위를 돌아다니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가운데 살아 있는 여자(안필연)가 뛰어들며 진행된다.

거친 숨소리(효과 김벌레)를 배경으로 마네킹과 관객들을 향해 "끝났어?"를 반복하며 뛰어다니던 여자는 중국에는 쓰러져버린다. 기계적이고 획일화된 미를 상징하는 마네킹과 살아 있는 여성의 이분법을 통해 문화적 인종적 다원성을 되살리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안교수의 퍼포먼스는 순수예술로 미인대회의 허구를 공박한 의미깊은 공연이었다.

아홉째 출전자는 89세의 박복련 할머니. 며느리 박

영숙씨의 안내로 무대에 나온 박복련 할머니는 쟁쟁은 꽃모자에 고운 양장 차림. 박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었으나 점차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미인대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열번째로 여성학 강사 고미라씨와 캐나다 출신 행위예술가 트리샤가 함께 펼치는 아크로바틱 공연이 이어졌다. 진홍색 티셔츠와 검은 단복바지 차림의 두 여성은 교태어린 여성댄스가 아니라 힘과 기술이 필요한 건강스포츠로서의 아크로바틱을 공연하고 '오양비디오'의 주인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현경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어 열한번째 출전팀 노희즈밴드의 뮤지컬 〈카니발〉이 공연됐다. 쌀, 모기 등 4명으로 이루어진 이 팀은 현모양처, 앵커우먼, 영화배우를 꿈꾸는 미스코리아출전여성들의 이야기를 패로

다형식으로 담은 〈카니발〉을 노래와 춤, 연기로 공연. 관객들의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

열두번째 출전팀인 여성 언더그라운드밴드 〈무슨연구소〉 멤버들이 악기를 세팅하고 있는 사이 행위예술가 트리샤가 무대에 등장했다. 생고기를 가슴에 붙여 비키니복장을 한 그녀는 계속 무대를 돌며 줄넘기를 계속했다. 김영주 외 5명의 컴퓨터동호회원으로 구성된 〈무슨연구소〉팀은 흰천을 둘러싼 태아의 차림으로 성비 파괴를 일으킨



전년도 미스코리아로 출전한 호주여성 사라.



89세의 최고령 출전자 박복련 할머니.

여아낙태를 주제로 노래와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서 최연소 출전자인 황우선(10, 상수초등학교) 어린이의 〈나의 주장〉. 우선양은 왜 위안전에는 남자들만 있고 여성위원은 없다고 물으며 자신이 역사를 공부해서 여성위원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쓰겠다고 다짐했다. 우선양에 이어 무대에는 전년도 미스코리아라고 주장하는 호주여성 사라가 자주빛 벨벳드레스 차림으로 등장 페어웰퍼레이드를 벌였다. 사라는 "성형수술을 하도 해 완전히 서양여자로 바뀌어버렸나 보다"는 사회자들의 코멘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형적인 미스코리아의 행태를 풍자하는 행동과 답변으로 장내의 폭소를 터뜨리게 만들었다.

10여분 동안 맘을 뽐낼 줄리며 즐겼던 트리샤는 전년도 미스코리아 사라의 풍자가 이어지는 동안 비키니웃을 대신했던 소고기를 가슴에서 떼어 불판 위에 구워서 즉석 불고기를 만들었다. 남성이 여성을 마치 고기처럼 부위별로 성적 대상화를 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담은 트리샤의 불고기는 은박접시에 담겨 관객석으로 전달이 됐고 전년도 미스코리아 사라의 미소 짓느라 얼굴도 아프고 굶느라 구두 때문에 발

도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무대를 퇴장. 출전자들의 공연이 마무리됐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밴드 마고의 〈인당수〉가 공연되고 안티미스코리아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상품은 다이내마이트가 아니라 야구방망이. if가 뽑은 아름다운 사람 상은 89세의 출전자 박복련 할머니.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Personal is Political) 상은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고은광순씨. '자매애는 아름답다' (Sisterhood is beautiful) 상은 고미라 & 트리샤. '웃자' 상은 김순덕 할머니와 김진옥씨 공동수상. '뒤집자' 상은 전한혜원. '놀자' 상은 조세나와 8명의 패션쇼팀. '99 안티미스코리아상'은 〈카니발〉을 공연한 노허즈밴드에 돌아갔다.

시상식이 끝나자 무대에 남아 있던 마고밴드의 음악에 맞춰 출전자, 토크단 관객까지 모두 무대로 뛰어 올라 춤추며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졌다. 미스코리아 대회가 아니라 문화일보홀이 폭파될 지경이었다.

잇몸을 드러내고 꾸하하!

총기획 변리나

나 태. 레즈비언. 월경. 에이즈. 성폭력... 그 동안 내가 기획하고 연출했던 작품의 중심 주제들이다. 〈얼굴 없는 자궁〉, 〈피를 나눈 자매들〉 뭐 이런 제목으로 겨우겨우 공연해 왔던 내가 if에서 〈anti miss korea festival〉의 총기획을 부탁받았다. 겁이 없는 if인지 아님 가난한 살림에 실력이 기획자를 채용하기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백인 나는 "그래, 이젠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야"라는 자만감과 if 또한 그럴 거라는 믿음과 착각(?)으로 일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쪽쟁 언니가 프로그램을, 사방하는 영주

가 사회를, 그리고 '웃자! 놀자! 뒤집자!'가 생명인 if 족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if가 붙이 나서 홀랑 타버리는 꿈까지 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어떻게 잘 못될 수가 있어. 당연히 잘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과 함께.

큰머리 작은 머리 뽀뽀하며 세부계획을 세웠다. '아자!!' 계획이 서자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다.

◎목표1!! 참가자 개개인이 연출한 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자. 그들의 작품에 어설피름은 없다. 난 그들이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목표2!! 여성 기술자들을 찾아내서 함께 일을 하자. 무대, 음향, 조명 등의 여성기술자를 영입해서 함께 일을 함으로써 스태프들조차 자신이 아름다울 수 있는 날을 만든다.

◎목표3!! 아무런 제한없이 모든 여성이 모여 놀 수 있는 여성놀이 공간을 연출한다.

다른 목표가 더 없나고 누군가가 굳이 물어준다면 여성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고함치고 싶고 if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구. if가 대박이 터져 if족들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구 또...

그러나... 애고 말쟁은 끊이지 않았다. 매일 싸움의 연속이었다. 전국에서 한가닥 한다는 여성들이 모이다 보니 나름대로의 참가목적이 다 달랐다. 단지 예뻐보여서 진선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류의 미인들이 아니었다. 그저 수영복을 입지 않는 미인대회로 생각을 하고 온 여성이 있는가 하면 온갖 정치성을 담아 출전한 극렬한 페미니스트도 있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도 있었다.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다 같은 페미니스트는 아니었다. 목적과 의미가 좋으니 if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행사를 자신의 포지션에서 생각을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친구도 있었다. 나는 나대로 입장이 있었고 if도 입장이 있었다. 어느날인가는 머리가 폭발을 해버릴 것만 같은 날도 있었다. 다양한 모습의 여성들이 한 가지 목적으

로 모였지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생김 것만 큼이나 다양했다. 난 그것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만들어야 했다. 목적은 같지만 표현과 행동은 너무도 다양하게 반응을 했다.

처음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여성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죽기 살기로 떠들어댈 수 있는 자리를 내가, if가 만들고 있으니 그것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간은 몇 일을 넘기지 못했다. 전혀 행사진행이 되지 않았다. 개개의 다양함을 모아 한 자리에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도망을치고 싶었다. 왜? 왜? 왜? 어느것 하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없었다. 물론 나라는 잔머리의 여왕도 그녀들이 고민하는 것을 고민했지만 내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MT를 갔다.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함께 묶을 수 있는 기회는 그 때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부터 하나씩 깨지고 말았다. '그래 너 잘났다!!'라고 소리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지고 뇌세포 하나하나가 제각기

놀아나는 것 같은 기운을 느끼기 시작할 때 여신은 나를 미쳐버리게 두지 않았다.

"전 행복해요. 저같이 평범한 아이가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누군가가 울먹이며 말을 꺼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전 선생님을 만난 게 행운이에요."

그녀의 말 한 마디는 나에게만 힘을



총기획 변리나.

실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참가자 모두에게 힘이 되었다. 멋진 MT의 시간을 보냈다. MT를 다녀오자 행사일까지 10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그 때까지도 음향, 조명, 무대를 책임질 여성감독을 구하지 못했다. 저렴한 인건비에 노련한 기술력을 원한 내 탓도 있었지만 몇 군데 연락을 하니 여성연출자들은 있었지만 기

술자들은 없는 실정이었다. 몇몇 후배들에게 짧은 내 기술을 가르치며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은 몇몇의 친구들이 일에 대한 두려움에 떠났다.

계획을 수정했다. 행사 직전까지 힘들더라도 혼자 버티다가 행사 이틀 전에 남성기술자를 스카웃 하자. 그렇게 되면 행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 못하는 남성들은 나를 비롯한 스태프들과 출연자 의도대로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 동안 몇번의 행사를 남성 기술자와 하면서 여성의 시각을 무시해 버리는 것에 분노했던 적이 있었다. 남성은 여성의 시각을 읽어낼 수 없다. 변영주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되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난 발언권이 없는 남자와 세트를 만들 수는 있지만 남성감독과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난 행사 4일을 남겨두고 남성 무대감독을 불러야만 했다. 그는 여성단체의 일을 해본 경력도 있고 좋은 남자였다. 하지만 난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겨우 몇 일 함께 하면서도 의견 차이로 연성을 높일 일이 발생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시각의 문제였다. 여성의 놀이와 잔치에 대해 '이렇게 놀면 재미있지 않겠니?'라는 남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내 고집이며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내 삶의 몸부림이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아름

한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올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며...

다움을 억누르고 획일화된 미에 가까
이 다가가기 위해 입술을 파르르 떨
고 어색한 미소를 지을 때 나를 비롯
한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여성들은
잇몸을 드러내며 호탕하게 웃을 수
있으면 된다. 조용필보다 더 잘난 척
을 떨어대는 날을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됐나?? 갑자기 묻고 싶
군...

행사를 진행 하면서 가장 기뻐던 일을 말한다면 이 행사를 어디선가 들은 40대 중반의 여성에게서 자신도 출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던 날이다. 너무 많아 더 이상 신청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5분이 안되면 1분이라도 무대에 서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 날은 IF사무실에서 아무일도 할 수가 없었다. 신청자가 밀려들었다.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연락이 왔다. 마산에서는 한 여성독자가 자신이 메이크업을 자원봉사 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결국 그녀는 그 말 한 마디의 책임을 지기 위해 행사날 아침 9시부터 30여 명의 분장을 도왔다. 물론 자신의 도구와 화장품을 갖고... 올라올 때 한 보따리였던 화장품이 하루에 날아갔다. 그리고도 행복하다는 눈물을 짓고 갔다).

출전자들이 정해지고 프로그램을 접수하던 날도 행복했다. 출전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 춤, 퍼포먼스, 운동 등을 이야기하고 연습하던 것들을 발표했다. 시간을 재보니 다음날까지 행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다. 노허즈 친구들은 콘티를 논문처럼 만들어왔고 자료집에 실려야 할 내용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만들어왔다. 자료집의 양도 백과사전처럼 늘어났다(결국 프로그램 시간을 줄이고 자료집 내용도 줄였다. 그래서 몇몇의 출전자들은 아직도 내게 불만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행사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지 말라고 했다. 처음 이 행사를 기획할 때 나는 400명만 오면 성공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날 대표상황을 보니 더 이상 관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콘티의 콘서트가 이 정도라!

한영애씨의 축하공연도 좋았지만 미라와 트리샤의 공연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했고 김대환씨의 연주도 좋았지만 여성으로만 구성된, 매끄럽지 못한 밴드들이 관객을 더 열광하게 만들었다. 여유있는 몸매로 자신을 노래하는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의 공연에 사람들은 취해갔다.

참을 수 없는 관객들이 무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음악에 취해 무대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마음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올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하며...

있을 거란 생각에 난 오늘도 숨을 쉰다. 웃고 놀고 뒤집기 위해...

그 치열했던 보도전쟁

홍보기획 · 단행본팀장 권혁한

페 스티벌 출전자들은 사무실에 모여 연일 '안티 미스코리아'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갑론을박을 벌였고,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출전자의 콘티와 출전자들의 변화는 그저 지켜보기에도 힘에 겨웠다. 우리 출전자들이 어디 보통 뛰는 사람들인가. 어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던가, 사실 우리 이프식구 누구라도 그리 억지로 누구를 조종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었다. 도대체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합숙훈련을 가던 5월 4일까지 오리무중이었다. 어디선가 우리 행사의 소식을 듣고 먼저 취재를 하겠다는 몇 방송사와 신문사를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입을 막아놓고 합숙훈련을 떠났다.

일을 정리하고 오후 늦게야 가던 용인 중소기업개발원의 어두운 밤길을 잊을 수 없다. 피로한 와중에도 잠은 와주지 않았고 천신만고 끝에 다다른 그 곳에서 연습중인 출전자들을 만나면서 한시름을 놓았지만, 마지막 도착팀이 가져온 따끈 따끈한 소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를 보면서 마음은 또 다시 덜컹대기 시작했다.

5월의 깨끗한 바람과 공기 속에 누워 잠시 쉬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5월 6일, 하루종일 각 일간지에 소식을 알리고 5월 7일, 프레스센터 한국기자클럽 안, <미스코리아대회>를 주최하는 한국일보 기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회견을 마쳤다. 점심 후엔 일간지 출판 담당 기자까지 찾아가 책을 주면서 하루를 다 보냈다.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릿저릿한 다리를 주무르며 뻘뻘한 눈을 비볐다.

5월 8일자의 일간지엔 거의 모두 우리의 페스티벌 소식이 실렸다. 이젠 제대로 치루어내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그 이후 쏟아지는 방송과 신문사 그리고 각 대학 학보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는 일, 출전자에 대한 설명과 인터뷰 섭외, 홍보는 진짜 숨일 틈도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발음한 '미스코리아'와 '안티 미스코리아'는 도대체 몇 번이나 될까.

내가 전화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나 중엔 사무실 전화는 물론 개인 휴대폰까지 일 때문에 울리기 시작해서 그토록 정겨웠던 나의 전화벨 소리인 '미뉴엣' 소리마저 지겨워져 '군밤타령'으로 바뀌 버렸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어허 허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요 예헤라 생를밤이로구나' 하는 걸로.

그리고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 리허설, 몇몇 신문과 케이블TV, 대학 학보사와 방송국이 와서 리허설 장면을 찍어갔고 몇 명을 인터뷰해 갔다. 매스컴의 생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사람

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다. 유일한 남자 출전자, 정신대 할머니, 89세 할머니, 10살 여자어린이, 외국인 출전자 등으로.

어차피 그들이 사람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좀더 다른 말을 해줄 사람들은 아예 찾지도 않는 것은 좀 씁쓸한 일이었다.

5월 15일, 문화일보홀은 아침부터 아주 뜨거웠다. 출전자들은 마지막 리허설에 정신 없었고 미리부터 찾아온 촬영팀들은 리허설을 찍기에 바빴고 이프식구들은 모두 사무실을 비워놓은 채 손에 익지도 않은 일들, 티켓팅, 손님 접대, 책 판매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

3시쯤 넘어서면서 우리 폭파위원(심사위원) 인터뷰 촬영, 사회자 인터뷰, 행사 주최자 인터뷰 등으로 홀의 로비는 발디딜 틈도 없었다. 매일 각 방송사의 프로듀서와 작가들과 미리 말을 다 했었던, 그래서 어디서 누가 오리라는 건 그런대로 알고 있었지만, 나로서도 거의 통제불능이었다. 말을 안 하고 온 취재진도 많았고 미리 내게 말한 사람들도 다 기억하기 힘들었다. 그들은 방송시간도 다 달랐고 방송의 양도 달랐지만 요구하는 건 한결 같았다. 출전자를 만나게 모아달라. 보다 좋은 자리에서 찍게 만들어달라. 제대로 설명해달라...

제대로 라인업하지 못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우린 보도진들을 위한, 어떤 편의도 실은 그다지 마련하지 못했다. 관객도 밀려들어 도대체 앉힐 구석이 없는 데, 출입문 밖에 통제한 보도진들이 항의를 해왔을 때, 그 뒤에 수많은 얼굴들을 보면서 사실은 나도 겁이 약간 났다고만 고백하자. 그리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공연이 잘 되나 보고 싶어 공연장을 들락날락하는 철이 하나도 없는, 프로정신이라곤 눈썹고 봐도 없는 나를 찾느라 혼비백산했던 보도진들에게도 조금은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보고 싶었다. 저 안에서 들리는 박수소리, 음악소리, 환호소리, 다 보고 느끼고 싶었다고, 이

해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8시 뉴스에 맞춰 SBS가 떠나고 9시 뉴스에 맞춰 MBC와 KBS가 가고 맘에 쏙은 사진기자들이 떠나고 한바탕 축제를 끝낸 출전자와 관객들이 다 떠났을 때, 나는 내가 그나마 마음에 걸려 눈을 준 여자 취재진 두 명을 떠올렸다. 아기를 가져서 몸이 무거워 보였던 방송기자 두 명이었다. 서서 봐야 할 자리마저 확보되지 않아 홀 밖에 위치한 모니터를 보고 있었던 한 명과 급히 마련해 준 의자 위에서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 아주 피곤해 했던 또 다른 여자 한 명.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마지막 뒷풀이에서 50여 명의 출전자와 스태프들이 행사 성공을 자축하며 술을 한 잔 할 때, 그래, 나는 울었다. 술이 채 취하기도 전에, 내 생애 동안 울어본 눈물 중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 이유를 나 스스로 예견 설명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그 날 이후에도 쏟아지는 보충취재와 다시 관심을 보이는 여러 곳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석연치 않았던 감정에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

보도되는 신문과 방송을 보긴 보았다(참고로 말하자면 KBS, MBC, SBS를 비롯해 17개 방송국 25개 프로그램에 방영됐으며, 조선·동아·중앙·한겨레신문을 비롯해 11군데 일간지에 2회 이상 보도됐고 시사저널, 한겨레21, 여성신문 등 20여개 주일간지에, 그리고 15개 이상의 대학 학보에 보도됐다).

그들에게도 의미있는 행사임에는 분명했을 것이다. 제대로 보도되긴 했지만, 의미전달도 되긴 했지만, 『페미니스트저널 이프』란 정확한 명칭을 쓰는 곳은 거의 없었다. 거개가 '한 여성단체' 정도로만 취급되었다.

그건 이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보도 당사자들의 설명이었지만, 글썽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입이 달도록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이라고 되뇌었던...

이제 책이 잘 팔렸으면 좋겠다. 행사는 나름대로 잘 되었고 모두가 해방감을 느낄 만큼 재미있었고 관객

들 중엔 감격의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았다. 그러면 되었다. 앞으로는 더 잘할 자신도 있다. 남은 건 필자인 김신명숙씨가 잠도 못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아 미스코리아 대회의 문제점을 폭로하기 위해 쓴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것뿐. 나에게 '페미니스트란 은혜받은 자의식의 소유자'라는 걸 알려준 재미있고 좋은 소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가 모두의 가슴으로 다가가는 것뿐이다. 여성을 외모로 숨막히게 하는 우리 사회를 고발한 김신명숙씨의 열정이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길...

은혜로운 이름이며, 감사하나이다

출전자 오순애

지난 5월 15일 <If you are free!—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은 세기말의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폭발적으로 끝났다. 덕분에 며칠 동안 지독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5월 초 1박2일의 합숙훈련, 젊은 친구들과의 열띤 토론, 패션쇼의 연출과정, 소품 준비과정, 행사 전날의 리허설과정, 당일의 분장과정, 그리고 관객과 하나되는 무대 위의 난장은 어느 종교의 부흥회 그것보다 열광과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였다. 그 날의 흥분과 감동의 여운은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묵가시지 않아 애를 먹었다. 순식간에 꿈결 같은 시간들이 흘러버렸다. 잠자리에 누우면 모든 장면장면들이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가 되어 천장에 펼쳐진다. 그리고 꿈 속에서도 영화는 계속 상영된다.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정말 나이와 시간과 온갖 핑계 등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평생, 평영' 후회할 뻔했다. 지금까지 여성운동 속에서 수많은 문화활동을 해왔지만 이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다. 그것은 젊은 친구들과 나이 많으신 어르신과의 나이를 초월한 만남 덕택이었다.

특히 젊은 출전자친구들과의 교감은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합숙훈련 이후로 그들과 급격히 가까워졌다. 어느새 그들은 호칭을 '선생님'에서 '언니'와 '누나'로 바꾸었다. 고맙고 기뻐다. 자매애와 동지애와 인간애를 한꺼번에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패션쇼 연습과정은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 행사를 이틀 앞두고 아직 소품도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려니 막막했다. 우리 팀은 윤활유가 절실히 필요했다. 원활한 공연을 위해서 이프 사무실 앞의 음식점에서 우리끼리 조출한 단합대회를 했다.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나이로 구성돼 있는 '빠썬' 팀은 물론 다른 팀에서도 나쁜 본의 아니게 '쌍언니'가 되었다. 사이드 한 잔씩을 쥐고 상기된 기분을 기화로 밤이 새벽을 부를 때까지 연습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은 소품을 기가 막히게 잘도 만들었다. 모두들 감탄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되어 열심히 만든 결과였다.

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났다. 리허설 와중에도 취재경쟁을 하느라 범벅이었다. 매스컴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극성스럽게 보도하기는 한국여성운동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아니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다. 결단코 그렇다. 술한 시위나 집회를 할 때도 이렇게 많았는데, 오히려 난리부르스를 하는 매스컴을 역으로 취재하고 싶을 정도다.

드디어 막이 오른다. 분장실은 부산하다. 다들 정신이 없다. 아침부터 긴장되어 소화가 안된다는 친구,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친구, 좌석예매를 못해 엄마가 못 오시게 됐다고 걱정하는 친구, 한쪽 구석에서 중얼중얼 연습하는 친구, 분장실은 숨막히다며 밖에서 땀뻘뻘 불



무대에서 람을 열창하는 오순애

루즈충팀. 그나마 분장실 차지를 못해서 주차장에서 연습하는 노히즈밴드와 변신시멘트귀신 친구들과 이하천 선생님, 비상계단 바닥에 앉아서 연습하는 팀이 무슨 팀이냐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던 <무슨연구소> 친구들,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내내 밖에서 계신 고은광선 선생님께는 '쌍언니'로서 배려를 못해드려 대단히 미안스럽다. 그러나 넌들 어떤 팀,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 맥주를 마시게 했다.

문화일보의 분장실은 우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좁았다. 행편이 풀리거든 분장실을 넓히기 바란다. 하루종일 우리는 뜨거운 사우나탕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뜨거운 조명과 뜨거운 열기와 복적대는 출연자들과 부산한 스태프들과 거기다 인터뷰가 금지되어 있는 분장실의 경비(?)를 훌륭하게 뚫고 들어온 플래쉬맨들(취재진), 한 술 더 뜨자면 문화일보의 음향감독인가 하는 아저씨의 호령도 반만치 않다.

제기랄, 되게 잘난 척하기는... 행사 진행과정 찍사하느라 바쁜 와중에 출연자들 먹을 것 챙기느라 다독이느라 눈물나도록 고마운 나의 친구 올썬씨. 젊은 친구들은 그와 나의 이름을 합성해서 '올썬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만들어주었다. 이젠 그와 헤어지지도 못하게 생겼다. 온혜로운 이름이여 감싸하나이다...

이프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더 넓은 가슴을 갖게 해줬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이프를 사랑할까봐 두렵다.

이젠 구호로만 하는 여성운동은 지양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렵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축제가 필요하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 거듭 주장하건대 <미스코리아 대회>가 폐지될 때까지 출전할 것을 약속하면서... **17**

사진 엄윤순



모두가 통쾌하게 '주하하하'. 행사를 끝내고 한 자리에 모인 관계자들.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허난설헌'의 저자
김신명숙 장편소설

한 명의 미스코리아 후보와 11의 편집진들이 미인대회를 폭파하기 위해서 공작을 꾸렸다.
마구재, 한국남, 강남근, 돈 리,
몽드레 김, 도리양 한과 연두보라, 가여린,
고마, 장미랑, 고여해, 김유미, 유정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
그들은 과연...

여성은 바비인형이 아닙니다



미스코리아 문제 있는가? 없다.
생물학적인 사실을 중요시하는 사람,
곧 젊은 나이와 혼인 여부가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외모, 특히 서구미인 중심의
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거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이 나라의 문화적 낙후성이 슬픈 것이다.
조한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현실과 꿈을 화끈하게 섞은 페미니스트들의 '말폭탄
월간 말'

한국 소설 사상 최초의 초특급
액션 스릴러 미스터리 에로틱 래디컬 페미니즘 소설

도서출판 **if**

페미니스트 저널의 정기독자에는 30% 할인 혜택
여성의 삶을 생각하는 출판사 도서출판 if 전화 : 557-7942 팩스 : 565-9059

당신은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30대 남녀 388명 대상 페미니즘 인식도 조사

2000년을 앞둔 바로 지금,
사람들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한 번은 본격적으로 짚어볼 만한 일이다.

우 리 사회는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에 여성운동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을 개화기로 잡는다면 70~80년의 역사는 족
히 된다. 그 기간 동안 아주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나름의 페미니즘을 실천하며 존재해 왔다.
법제도 개선운동에서부터 민중여성운동, 주부운동, 사무직운동, 환경운동, 생협운동, 그리고 최
근 싹트기 시작한 래디칼 여성운동까지. 한때는 대중에게 보여질 이미지를 관리하며 통일된 모
습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모습은 개개인의 수만큼 다양해졌다. 그만큼 수적
으로 놀라운 증가율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2000년을 앞둔 바로 지금, 사람들은 도대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어떤 면면을 본 것일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을까?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페미니스트와 사회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한 번은 본격적으로 짚어볼 만한 일이다.

이제는 창간2주년을 기념해서 일반인의 페미니즘 인식도를 조사했다. '당신은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 30대의 성인남녀 388명을
대상으로 1999년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20, 30대는 80년대부터 활발
해진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며, 또한 여성운동
의 주요대상이기도 하다.

설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배포-수거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방
법을 택했고, 표본추출방법은 성·연령에 따른 무선표집방법을 사용했다. 자료검증은 별도로 실
시하지 않았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99\%$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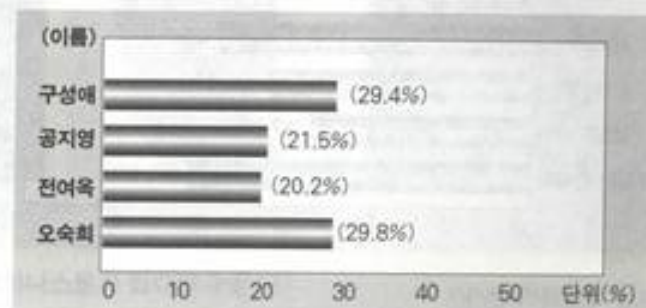


왼쪽부터 오숙희, 구성애, 조혜정, 유지나, 공지영.

1. '페미니스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복수응답)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 사회
에 잘 알려진 여성들을 보기로 들어 물어보았다.

18명의 보기 인물 중 오숙희를 선택한 응답자가 29.8%로 가장 많았고 그외에
도 2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사람이 구성애(29.4%), 공지영(21.5%), 전여옥
(20.2%) 등 3명이다. 10%대의 응답률을 기록한 사람은 영화평론가 유지나(17.4%), 손숙
(16.6%), 조혜정(12.2%), 방송인 이숙영(10.9%), 영화감독 변영주(10.6%) 등이었다.



오숙희는 30대에게서 높은 지지율(50.6%)을 보였으나 남성들에게는 낮은 지지율(12.4%)을
받았고 구성애의 경우는 20, 30대 남녀에게서 비교적 고른 지지를 받았으나, 30대 미혼남녀의 지
지율은 낮았다(30대 여자 12.5%, 남자 11.1%). 그가 방송에서 주로 강조했던 결혼, 가족, 출산
등의 주제가 30대 미혼남녀에게는 호소력을 갖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여성계의 어머니로 알려진 이효재 선생(6.5%)이나 여성계가 일제히 비판해온 엄앵란
(4.4%)은 모두 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런 응답률로 미루어볼 때 사람들이 페미니
스트라고 인정하는 인물들은 주로 방송계 등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인물 중에서 여
성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일반인은 매스
컴을 통해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있으며, 여성운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에 자주 등장할 만한 페미니스트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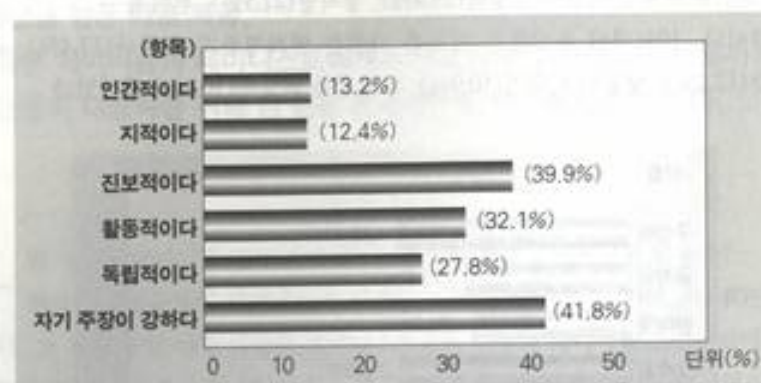
2.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복수응답)

	남녀평등	여성해방운동	여권옹호	여성주의	성해방론
응답수	233	128	104	65	62
응답률(%)	60.4	33.2	26.9	16.8	16.1

사람들은 '페미니즘'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남녀평등'이 60.4%로 월등히 많고, '여성해방운동'(33%), '여권옹호'(26.9%), '여성주의'(16.8%)의 순으로 개념을 정의했다.

3. 당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상은?(복수응답)



페미니스트는 목소리가 큰가?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상으로 첫번째 꼽은 이미지는 '자기주장이 강하다'(41.8%)이다. 그 외에도 진보적이다(39.9%), 활동적이다(32.1%), 독립적이다(27.8%)의 순으로 대답했다.

특히 '독립적이다'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응답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독립적'이라는 인식에 대해 여성들이 33.3%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데 비해 남성은 17.5%를 보였을 뿐이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높게(51.4%) 응답한 반면 여성들은 36.4% 정도로 응답했다.

따라서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들의 '독립적'인 부분, 남성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측면에서 더 많은 인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 '성적으로 개방적이다'라는 생각이 2.3%에 그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즉 가정에 소홀하다(2.1%), 과격하다(1.8%), 권위적이다(2.8%), 못생겼다(2.3%), 이기적이다(3.6%), 잘난 척한다(3.4%) 등은 예상보다 그렇게 많은 응답률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이미지의 누계는 16%이다.

4.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있다		없다		모르겠다		기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응답수	180	90	31	16	32	32	2	2
응답률(%)	73.5	64.3	12.7	11.4	13.1	22	0.8	1.4

응답자의 69.8%가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에서도 30대 여성응답자의 82.3%가 남성페미니스트의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에 비하면 20대 여성의 경우는 69.3%로 30대 여성보다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남성 자신은 남성페미니스트의 가능성을 64.3%만 믿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남성의 페미니스트 가능성을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남자들이 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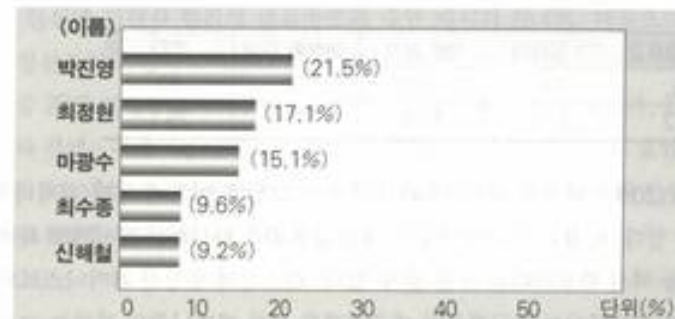


왼쪽부터 박진영, 최수종, 최정현, 마광수.

5. 만약 남성페미니스트가 있다면 누군가?

응답자들은 박진영(21.5%), 최정현(17.1%), 마광수(15.1%)의 순으로 대표적인 남자페미니스트를 꼽았다.

이 중 박진영은 20대 여성에게 높은 지지(33.7%)를 받았고, 마광수는 남성들에게서 많은 응답(28.6%)을 끌어냈다. 특히 박진영은, 본지 7호 인터뷰기사('맛있는 남자 박



진영, 페미니스트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에서 그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후 방송계가 그를 페미니스트로 부각시킨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만화가인 반쪽이 최정현의 경우 30대 여성들은 27.4%가 대표적인 남자페미니스트로 신뢰한 반면 20대 남성들은 불과 2.8%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역시 남성들은 독선적이더라도 목소리가 높은 남성을 선호했고(사실 페미니스트들에게 마광수는 인기가 없다), 여성들은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을 꼽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가사노동의 고통을 아는 30대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동참하는 최정현과 같은 남성에게 신뢰감을 보내고 있다는 점은 수궁이 잘 만하다.

6. 남성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응답자들은 '기득권을 포기 못함'이 35.1%, '실천하지 않는다'와 '여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가 각각 29.8%로 대답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7.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가?

	매우 필요		어느정도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모르겠다		기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응답수	120	31	109	83	9	19	0	2	3	5	1	0
응답률(%)	49.6	22.1	45.0	59.3	3.7	13.6	0	1.4	1.2	3.6	0.4	0

응답자의 89.8%가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매우 필요 39.7%, 어느정도 필요 50.1%),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0.5%에 불과했다.

특히 30대 여성들에게서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64.5%) 나타났는데 20대 여성(42.8%)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는 것일까.

남성들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평균(7.3%)보다 높게(13.8%)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8. 처음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접한 곳은?

	방송교양프로	TV 드라마	신문 잡지	여성학 강의	기타
응답수	65	14	153	58	87
응답률(%)	17.2	3.7	40.6	15.4	23.1

신문 잡지(40.6%), TV(20.9), 여성학 강의(15.4%) 순으로 대답해 언론에 의해 페미니즘을 접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고 페미니스트들의 대 언론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스컴에 등장한 페미니스트의 인식도가 높았던 1번 문항의 분석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중매체를 통한 페미니즘의 전파는 그 영향

력이 지대한 것이다.

기타 응답자의 경우(23.1%)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동아리, 책, 친구를 통해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다는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볼 때 인간적인 교류나 접촉(여성학 강의, 동아리, 친구)을 통한 페미니즘 전파도 역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문, 잡지, TV가 피상적으로 또는 왜곡시켜서 알려줄 수 있는 문제를 인간관계를 통해 페미니즘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도 있으므로 이 응답률은 수치 이상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9. 당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페미니스트상은?

	여 자		남 자	
	응답수	응답률(%)	응답수	응답률(%)
남녀 차이 인정, 조화	27	18.0	23	26.1
불평등 구조 타파	16	10.7	7	8.0
자긍심, 독립심	31	20.7	5	5.7
넓은 포용력, 인간성	13	8.7	8	9.1
실천하는 여성	6	4.0	5	5.7
합리적 대안 제시	22	14.7	17	19.3
진취적인 자기실현	18	12.0	1	1.1
사회구조와의 연대	13	8.7	8	9.1
기 타	4	2.7	14	15.9

이상적인 페미니스트상을 묻는 질문에 페미니즘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대답들이 혼재되어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칠 수 있는 가능한 응답들을 모은 결과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남녀평등을 실현하자'는 응답이 21%로 가장 높았다. 역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남녀를 대결구도로 이끌어갈 것을 걱정하는 대답이다. 이같은 견해가 30대 남성에게서 높게(32%)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또는 조만간 꾸릴 가능성이 큰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또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대화방법과 대안 제시가 16.4%,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경제·육체·정신적인 독립이 15.1%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20대 여성응답자의 38.5%가 '합리적 대안제시'를 원했으며, 22.3%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경제·육체·정신적인 독립'을 이상적인 페미니스트상으로 보았다. 재미있는 것은 남성응답자의 5% 내외만이 이 응답에 동의해 남성들은 여성들의 독립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줬다. [7]

분석: 한결조사연구소(3144-1912)



‘언론 자주화 투쟁’ 집회 중요한 자리에 모인 한양대 학보사 기자들. 앞 줄 왼쪽 여학생이 최민선 편집국장.

“학보사 여성편집국장 아직도 화제가 되나요?”

새로운 대학신문을 이끄는 여성편집국장들

“대학학보 여성파워! 140곳 중 100곳이 여자편집장. 대학 언론을 여대생들이 점령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 난 기사의 일부분이다. 전국 대학교 학보사 편집장의 70% 정도가 여학생이며, 이에 따라 학보사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룬 기사였다. 그 기사에 따르면 대학교 ‘학보사’는 언제부터 전령터가 되어버렸는지 여학생에 의해 ‘점령(?)’ 당했고 또한 후배 남학생들이 여자선배의 지도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기사거리로 채택되었다. 여자가 무슨 무슨 ‘짱’인 것과 남자 후배들을 거느리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 범상한 일이 아닌가 보다.

전화로 통화한 편집장들과 기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편집장이 여학생이에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질문이 되나요? 왜 다들 놀라는 거죠?” 하고 의아해했다. 오히려 신기한 듯 묻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서울대의 송기영 국장은 얼마 전 EBS의 한 프로그램에 고려대의 남자 편집국장과 함께 패널로 참가했다가 “정말 편집국장이 맞느냐?”는 질문을 계속 들어서 당황했다고 한다. 명지대 학보 박진희 편집국장은 “솔직히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남자 기자는 그냥 기자이고 여자 기자는 여기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고 놀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짱이야?!

그들은 학보사의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운영할 사람이 반드시 남자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남자 동기나 남자 후배를 역시 마찬가지로. 여학생도 능력만 있으면 편집국장을 하는 것이지 ‘성’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여학생 편집국장이라서 더 좋은 물음에 한양대의 남자 수습기자는 “글쎄, 그냥 좋은데. 여자라서 더 좋은 게 있나요?” 하고 웃는다.

남학생들이 수적으로 많은 과에서 여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은 그리 눈에 띄지 않지만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학보사에서는 여학생에게 가해지는 활동의 제한은 없다. 여학생이 편집국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이제 그들에게는 구태의연하다.

전국 4년제 대학은 190개 정도이다. 그 중 학보사가 운영되는 학교는 약 140개가 된다. 그 중 이프가 직접 전화조사한 67개 대학(여대, 교육대, 신학대는 제외) 중 현재 43개 대학의 편집국장이 여학생이다. 이 수치는 현재 99년 1학기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학생 편집국장이 있었던 학교를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이 된다.

현재 연세대, 고려대, 단국대, 서강대 등은 남학생이 편집국장을 맡고 있지만 고려대의 경우만 해도 작년에 첫 여학생 편집국장이 탄생해 이슈가 됐다. 건국대의 경우도 현재는 남학생이지만 92, 93, 96년 세 번에 걸쳐 여학생이 편집국장을 맡았었다. 서강대의 경우 기자 성비를 보더라도 97년 초에 여학생이 10명, 남학생은 2명으로 여학생이 훨씬 더 많았다.

서울대의 대학신문사 송기영(97학번, 역사교육학과)씨는 88년 학부생이 학보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89년도의 미학과 선배 다음으로 두번째 여학생 편집국장이다. 공과대학이 유명한 한양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최민선(97학번, 교육학과)씨는 한대신문사의 세번째 여성 편집국장이다. 현재 학보사 내 남녀 기자의 비율은 반반 정도이다. 여대였다가 남녀공학으로 바뀐 상명대의 경우 편집국장은 전미경(97학번, 행정학과)씨가 맡고 있고 학보사 내 여학생은 16명인데 반해 남학생은 단 1명이다. 경북대학교의 경우도 현재 이지애(97학번, 국문과)씨가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1954년 창간된 명지대학교의 명대신문은 벌써 5대째 여성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학내 사정으로 97년 2학기부터 98년 1학기까지 잠시 휴간된 적이 있는데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신문물 발행시킨 주역도 바로 지난해 여성 편집국장이다. 현재 편집국장은 박진희(97학번, 행정학과)씨.

요즘 학보사 내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훨씬 많다. 그 이유는 지원을 하는 남학생의 수가 여학생보다 적고 군대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학보사에 남아 있는 남학생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와는 다른 말이다. 편집국장은 학보사 내부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능력과 책임감의 문제이지, 단순히 남아 있는 인력에게 그냥 맡겨지는 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학보사 학생들에게 지배적이다. 신문사 생활과 학과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힘든 생활 속에서 일을 잘 못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보사를 그만둔다. 결국 남아 있는 강한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많으며 그 중에서 선출된 장이 바로 편집국장이고, 여성인 것이다.

호랑이 없는 골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

최근 들어 신입생들 사이에 학보사가 3D업종(?)으로 인식돼 예전에 비해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국민대학신문사의 윤정국 간사(31)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학보사에 대해 운동권이라고 못 박거나 일이 너무 많아서 과생활에 충실할 수 없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학보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학보사를 일반 동아리처럼 쉽게 생각한 신입생들은 중도에 쉽게 무너진다. 이런 여건에서도 여학생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남학생은 줄어들고 있다. 인하

대의 한주연(97학번, 지리정보학과) 편집국장은 "수습으로 들어오는 남학생들이 왜 그런지, 이상하게 의존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하기도 힘들고, 반면 여학생들은 진취적이고 잘 해보려는 의지가 강해요"라고 말한다.

물론 남학생들에게 군대가 가장 큰 걸림돌임은 확실하다. 편집국장은 보통 3학년 때 맡게 되는 IMF 이후 군대를 가는 시기가 점점 빨라져 남학생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편집국장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남자 편집장이 적어지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의 남학생들의 활동에도 문제점이 많은 걸 보면 말이다. 경북대의 이지예 국장은 "남학생의 경우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 적어 보여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전질 것만 건지자'

는 심리가 있어요"라고 말한다.

여학생이 많아지면 학보사가 바뀐다?!

대부분 사람들이 '학보사 문화=남성중심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학생이 학보사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듯하다. 과거 학보사에선 지나치게 술자리가 많았고 또 밤샘작업도 많아 학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학생들이 개인사정으로 술자리를 피하거나 집에 너무 늦지 않게 귀가하려고 할 때, 남학생들의 입장은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다. 모든 일이 남성적이었고 업무체제도 군대식이어서 여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여학생이 증가하면서 요즘 학보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학보사도 공동체 생활이고 예전에 운영되어오던 방식을 이어받기 때문에 여학생이 장을 맡았을 때 문제가 드러난다. 딱딱한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하게 만들고, 후배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지만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밤을 새는 남성적인 뒷풀이 문화를 조정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서강학보의 서하나 사회부장(97학번, 정치외교학과)은 "사실 제가 술을 잘 못해요. 그런데 뒷풀이가 주로 막걸리나 소주를 얼큰하게 마시고 거의 '죽어보자' 하는 분위기여서 힘들어요"라고 말한다. 경북대신문사의 이지예 편집국장도 "남자 후배들이 농구나 축구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 전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때가 있죠"라고 토로한다.

하지만 언제나 2, 3차 술자리로 이어졌던 술자리가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다 같이 즐기는 스포츠를 찾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 일을 할 때 후배에게 선배로서 단순하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한다.

얼마 전 신문에 미국의 'USA Today'가 미국 전국규모 일간지 사상 최초로 여성을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이처럼 우리 사회 주요 언론에서 여성이 편집국장이 되기란 아직까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대학의 학보사는 변했다. 이는 한 편집국장의 말대로 우리의 대학이 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희망이 엿보이는 지점이다. "어, 편집국장이 여자네?"라고 할 때 "제가 편집국장인데요"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는 당당한 그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시작이 느껴진다. 이제 남은 일은, 그들이 젊은 시절 쌓았던 귀중한 경험을 사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평등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1]

글 김보미 / 사진 엄윤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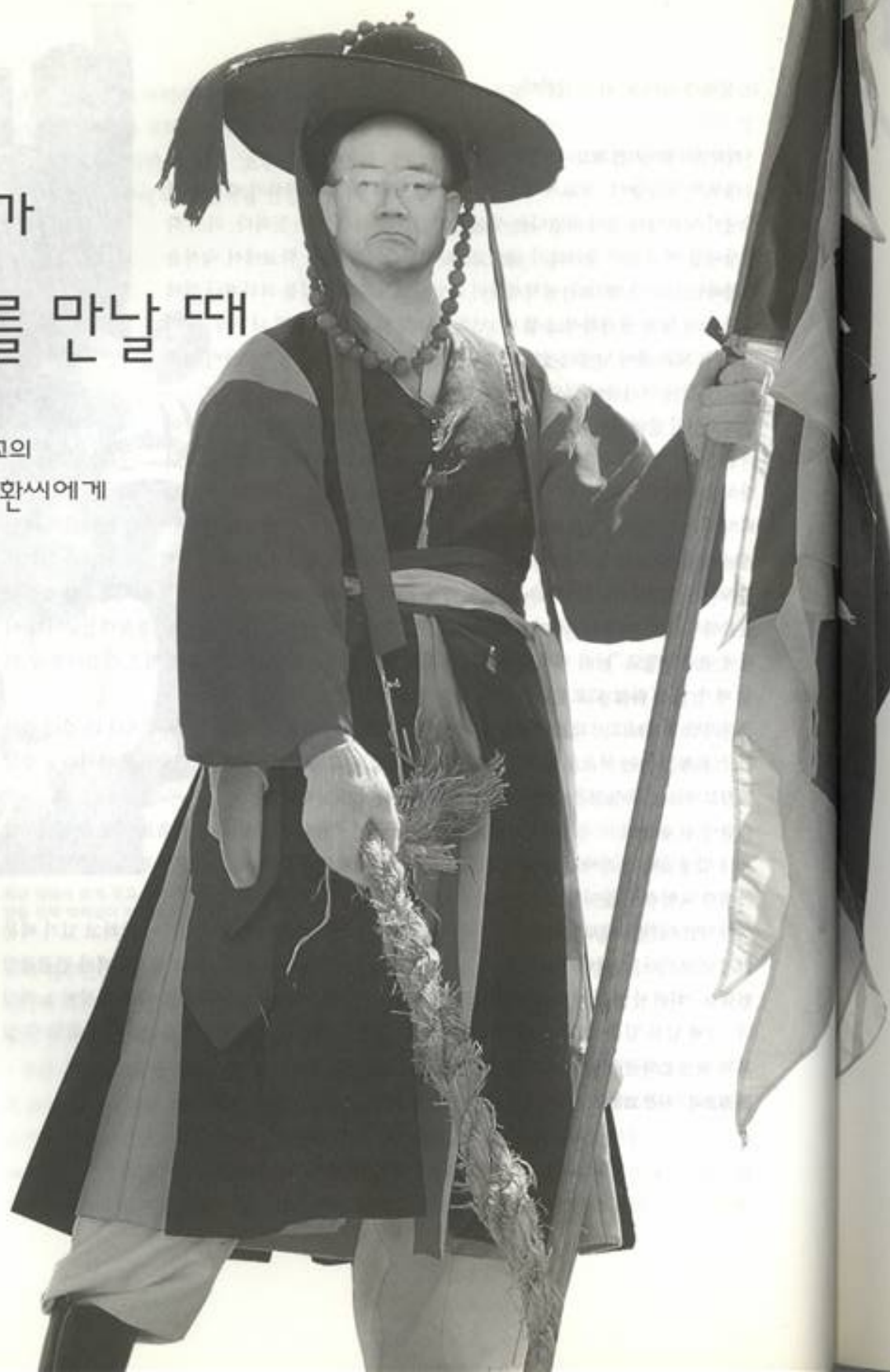
학관 앞에서 밝게 웃고 있는 영지대 학보사 기자들. 앞줄 왼쪽 여학생이 박진희 편집국장이다.



신문사 건물 앞에서 촬영. 서울대 학보사 기자들. 오른쪽 아래가 송기영 편집국장.

의리가 비리를 만날 때

이시대 최고의
마초맨 전두환씨에게



이 글을 요청받았을 때 찜찜했던 기분이 생각나는군요. 아직도 잡지에서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 현재적 인물로 전두환씨가 비쳐지고 있는 것이 일단 싫었습니다. 창당설이 나돌고, 고향 방문에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의 숨은 의미를 해석하느라 분주한, 실세인 그 무엇으로 여겨지는 것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항거자로서 인연이 있는 전두환씨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 것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80년대의 경험에 나를 계속 한정시키고 있는 것만 같아서요.

어쨌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식인들이나 언론에서 5공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비판을 안하고 있다고 느껴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전두환씨의 실세화를 반길 거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궁금함을 추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냐고요?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이고 몇천억의 비자금 형성과 그토록 꼬리를 물었던 갖가지 대형비리 사건의 주인공이 정치에 재등장할 수 있는 현실이 답답은 하지만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자금이 1,000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구, 영남지역에서의 영향력, 전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별로 바뀌지 않은 오래된 한국 집권층의 뿌리를 생각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지식인이나 언론이 도저히 반길 수 없는 어쨌든,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두환씨의 기반은 꽤나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장세동씨가 정치복귀를 고려했던 곳이 서울의 송파갑이고, 허삼수씨가 '5공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전두환씨와는 공공연히 적대적인 김영삼씨의 본거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출마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궁금해할 만한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나요?

대구, 영남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은 인기에 대한 5공세력, 즉 당신들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죠. 사실, 선거를 통해서 정치세력화를 꾀하려고 할 때 돈과 지위나 기반만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인 인기나 호감도 참 중요합니다. 이 호감에 대해서 이설씨는 경향신문에 '냄비 체질' 국민성을 탓하면서 역사를 쉽게 잊는 건망증을 질타합니다. "5공 청문회와 전·노 재판과정에서 의리 있는 사람으로 부각된 전씨 측근인사의 언행이 유권자의 호감을 사고 있는 점도 5공인사들의 용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성에 치우치기 쉬운 대중심리의 한계다"(99.3.19)라고 말하면서 "감성보다는 이성을 존중하는 유권자의 깨어 있는 의식"을 호소했죠. 반면, 거의 같은 시기에 글을 쓴 유승삼씨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공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권 때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 그들은 정치적 재판이었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그 때나 이제나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99.3.18) 한 칼럼은 대다수 국민은 전두환씨 등의 정치세력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칼럼은 그 국민들이 과거를 잊고 전두환씨 등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두환씨와 전두환씨의 심복세력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분리하기 힘든 한 몸으로 여겨 집니다.

저는 이 두 칼럼의 차이가 의견의 차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공존하는 두 가지 의식을 다르

게 대변한 데서 온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한편으로는 전두환의 과거행적에 비판적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호감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씨 등에게 비판적이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동시대를 살면서 무엇무엇을 잘못했는지 전두환씨와 그 심복들만큼 까발려진 사람들이 없고, 광주학살 등은 누구에게도 어떤 식으로도 합리화되기 힘든 범죄니까요. 그런데도 5공이라는 간판을 걸고 선거에 나올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옆에 일꾼은 당선이 될 거다라고 자신했다면(중앙일보, 1999. 4. 11), 그리고 여론에 예민한 언론이 이들의 움직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경험한 호감이 사람들의 비판적인 정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면 일부 특수지역 외에는 선거에 나올 엄두도 내기

힘들 것이니까요. 물론, 지금이 IMF시대라, 한창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전두환씨 시절의 치적을 염두에 둔 호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저는 이 편지에서 그 호감에 대한 궁금함을 일부 풀고자 합니다. 또 이를 전두환씨의 정치세력화를 저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욕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씨가 일조한

군사문화, 폭력배문화가

전씨 일족의 재등장을 열심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당당히 자신을 정당화하면

남자답게

보이는 사회이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두환은 당당, 노태우는 미안"

저는 그 호감을 한 마디로 이 시대의 '고개 안 숙인 남자 전두환'에 대한 호감이라고 칭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잠깐 작년 호에서 어떤 이는 전두환씨를 이 시대의 최고의 마초라고 표현했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특히 95년 12월 김영삼씨에 의해 구속되기 직전, 연희동집 골목에서 장세동씨 등을 뒤에 세우고 당당하게 대항 성명서를 읽을 때도, 과단성있게 단식투쟁을 할 때도, 오랜 정적인 김대중씨의 당선을 축하하며

당당하게 감옥을 나올 때도 매번 마초라는 개념으로 규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두환씨를 대신해서 세 번이나 감옥에 간 장세동씨나, 단 한 마디도 전두환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은 안현태씨 등과의 인간관계는 전두환씨의 마초 이미지를 굳히게 했습니다.

이번 고향방문에도 수십 년을 변함없이 늘 함께하던 심복 20여 명을 이끌고 고향을 다녀오셨다구요. 노태우씨와 비교되면서 그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는 듯합니다. 노태우씨는 비자금 관계를 실토한 의리없는 부하를 두었죠. 또한 그 자신이 바로 친구 전두환씨를 대통령 취임 1년만에 백담사에 보내고, 다시 끌어내어 청문회에 세운 의리없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사실 전두환씨야말로 "과는 나에게 돌리고, 공은 노태우씨에게 가게 하라"며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여 6.29 선언을 실제로 진두지휘하였고, 정권 재창출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람인데도 말이지요.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 때문인지 중앙일보 4명의 기자들은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의 석방표



정을 "전두환씨는 당당, 노태우는 미안" (97. 12. 22)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이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보스기질은 전두환씨를 남성 중의 남성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뜰이나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설 자리가 없다고 온 사회가 고개 숙인 남자를 걱정스럽게 주목하고 있는 때에 전두환씨의 역경을 초월한 듯한 당당함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믿음직해 보일 수도 있나 봅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89년 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에 사건 당시 안기 부장이었던 장세동씨가 증인으로 소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무슨 사건으로 감옥에 있었던 장씨를 위하여 재판이 서울구치소 안에서 이루어졌었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무슨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는지 거의 기억나지는 않고 다만 장씨가 군인

들이 복장하듯 암송하면서 한 마디 한 마디를 끊어서 다부지게 답하던 모습만은 잘 생각합니다. 그의 답변에 깔려 있는 몇 가지 원칙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포기하지 말자, 비굴하게 굴지 말자, 보스에게 해가 될 말은 삼가고 모두 내 책임으로 하자, 끝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남자답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신념이 강한 군인 정신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장세동은 그 당시 인상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각종 비리와 관련되고, 한 여성을 성고문한 사실을 왜곡해서 피해자는 감옥에 가두고 가해자를 옹호 하도록 총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최고책임자의 잘못을 감추고, 반성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피해당사자에게까지 보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답다라고 하면서 일견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군인이었던 지배자들 밑에서 그야말로 지배받아 왔습니다. 전두환씨같이 군인으로 훈련되고 군대의 조직관계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요직을 차지해 왔습니다. 박정희씨의 개발독재는 군인정신의 사회적 실현이었고 전두환씨는 극악하게 뒤를 이었죠. 안될 일도 명령이 떨어지면 되게 하고, 집단만이 존재하고 집단이 함께 물고가는 목적만이라도덕이고 선일 뿐 그속에서 개인은 보이지 않는 거죠. 경제제일주의라는 목적 속에 온 사회를 군대화시켰고 그 지배의 선봉에 군인출신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두환씨가 하극상을 저지른 사람입니다만, 하극상이 가장 두려운 조직인 군대에서 커온 사람이기에 노동자나 학생들의 저항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전혀 없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런 군인들의 지배나 요직 참여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80년대까지의 민주화투쟁은 거의 이런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바쳐

세계 제1위라는
강간발생 비율이
이런 남성다움에 대한
추구나 폭력배적
의리구조와
무관할 것 같습니까?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내재화시킨 것도 많습니
다. 그 중 하나가 남자다움이죠. 한국사회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진짜 사나이가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입니다. 2차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군대를 인정하는 문화죠. 물론 군인이
요즈음 사회에서 항상 바람직한 남성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갑제씨는 80년대 이후 군인을 멸시하고 싫
어하는 문화가 있다고 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단적 군
대경험과 군사정신으로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형
성된 남자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은 결코 약해 보이지 않
습니다.

조성숙씨는 군대가 훈련시켜내는 남성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일원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져다가면서 군대생활의 각종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한 주체가 되어 남성
의 집단적 우월성을 갖게 된다고요. 또한 힘의 논리에 기초한 계급관계에 훈련되고 적응하게 된
으로써 상사에 복종하고 아랫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소위 말해서 사회가 뭔지 아는 '철든' 인간
이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여성을 대상화 상품화시키는 성문화에 편입되면서 또 다른 남성우월의
식과 여성편파의식을 고취한다더군요.

송지나씨가 <모래시계>에서 그려낸 조직폭력배 문화의 대중적 설득력과 인기도 우리 사회에
서 군사문화와 관련해서 뿌리 내린 남성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남자들간의 의리가 강조됩니
다. 그러나 이 남자들간이라는 것은 동등한 남자들간의 의리가 아닙니다. 보스와 그 심복 간의.
아니면 형남 폭력배와 아우 폭력배 간의 의리입니다. 한 마디로 위계적 조직 질서가 강조되는 사
이에서의 의리입니다.

전두환씨는 보수세력의 청량제

문제는 이런 조직사회에서 위계적으로 형성된 의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가치체계와 문화
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개 숙인 남자가 일 나간 부인을 대
신해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봐줄 수 있는 문화적 기초보다는, 부인을 때리는 남자가
돈 잘 벌고, 술 잘 먹고, 의리가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큰 사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적 기초가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화된 의리나 남자다움에 대한
가치추구가 낳은 결과를 따져보자구요. 80년 광주에서 살벌한 진압을 했던 전두환씨의 폭력적
지배육구가, 폭력과 억압적 훈련 속에서 길들여지며 형성된 자부심 강한 남성다움과 얼마나 다
른 것일까요? 전두환씨가 부하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사회 요직을
전직 군인으로 채우고 이권을 나누어주었던 의리와 장세동, 안현태씨가 전두환씨의 범죄사실을
폭로하지 않음으로써 지켰던 의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 같습니까?

세계 제1위라는 강간발생 비율이 이런 남성다움에 대한 추구나 폭력
배적 의리구조와 무관할 것 같습니까? 또한 남자다움이나 의리라는 기
준은 본말을 전도합니다. 왜 비자금 사실을 실토했던 노태우씨의 심복
보다 비리사실을 함구했던 심복들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자
기가 저지른 범죄를 미안해하는 듯한 노태우씨보다 뻔뻔하게 당당한 전
두환씨가 왜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야 합니까? 누가 사회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쪽에 가깝게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 사
회의 많은 사람들은 남성다움에 대한 가치추구가 사회정의와 진실에 가
깝다고 믿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한창 언론의 호응을 얻으며 진행되었
던 '남편 기 살리기 운동'을 보세요. 한국 사회가 남성의 나약함이나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힘
없음을, 그래서 잃어버린 당당한 남자다움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이런 문제에는
쉽게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는지, 전두환씨의 존재는 이런 남녀관계의 변화 갈등에 반발하는
이 사회의 보수성이 기댈 구석을 열어주는 청량제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전두환씨가 일조를 한 군사문화가, 그리고 폭력배문화가 지금 전두환씨와 그 일족의
재등장을 열심히 돕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당당히 자신을 정당화할 때
남자답게 보일 수 있는 사회이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축하합니다.

전두환씨, 고개 안 숙인 남자 전두환씨, 당신을 변화시킬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겠조.
우리 뺏속 깊이 알게 모르게 자리잡혀서 감정구조까지 좌우하는 각종의 군사문화의 파생물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제거해 나갈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특히 여성차별의식 속에 뿌리내린 그 파
생물들에 도전하고 변화시켜 내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몫일 것입니다. 쉽게, 당연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것이 우리 사회 속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1]

1999년 5월 20일 미국에서 권인숙



80년 당시 인기부장이었던
장세동.



권인숙

미국에서 여성학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중이고,
여덟 살인 딸 김강희 함께 곧 한국에 돌아가서 살 기대감에 젖어서 살고 있다.
군사주의와 여성, 그리고 제국주의와 페미니즘 관계 등에 관심이 있어
제법 심각하고 진지해 보이지만, 집다하고 알뜰한 관심사가 너무 많아 말,
특히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주제를 못할 정도. 현재는 창국영에 깊이 빠져 있고,
웃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문맹의 팔십 노모에게 항복하는

부권주의자 이운택



연 극연출가 이운택에게 많은 별명이 따라다닌다. 우선 문화계필라, 고(故) 기형도 시인이, 부산에서 거리연극패를 이끌고 올라와 서울서 첫 공연을 가진 이운택을 일러 붙인 이름이다. 또 시인 황지우는 그를 "날것을 먹을 줄 아는 양아치, 눈앞의 벽이를 그 자리에서 해치우고 다른 영토로 떠나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문화사냥꾼"이라고 표현했다. 이운택 자신은 산적, 파락호, 게릴라, 유목민, 거리패, 객원, 사회부적응자, 도깨비, 영원한 비주류, 변방 등 온갖 부랑(浮浪)의 언어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채색한다. 그러나 그의 연극을 보거나 그를 직접 만나 술잔이라도 나누게 되면 그가 엄청난 부권주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심각한 상실상황에 있는 부권이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마다하지 않으며 '부권주의자'라는 꼬리표(?)에 이의를 달지도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남자의 바람은 가벼운 것"이며 "집에서 도망치는 남자들이 자기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고 남자의 바람기를 두둔하기도 한다. "유부녀와 진한 사랑을 나눴지만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자신의 체험사례까지 예로 들며 "바람피우는 남자는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운택 식의 부권옹호는 "×대가리가 서야 나라가 잘 된다"는 이운택 식 애국론으로까지 거침없이 발전한다.

그는 첫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가 참담한 패배를 맞은 후 서적외판원, 우체국 직원, 지방지 기사를 거쳐 부산에서 거리연극패를 창단했고 <오구—죽음의 형식>으로 화려하게 서울에 입성했다. 이후 10여 년간 한국 연극관을 뒤흔들며 결국 TV <성공시대>에도 인생이 소개된 바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의 작품이나 연출 스타일 또한 독재자 같은 카리스마는 물론 남성적 감성과 폭력성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면 그토록 골수 부권주의자인 그를 <성공시대>도 아닌 페미니스트저널에서 인터뷰할 이유가 있었을까? 물론 그냥 단순히 그가 마음에 들어서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운택의 최근 행보가 페미니스트들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부산서 시작된 제2의 게릴라전

지난 봄 배우 손숙과 함께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정동극장에서 막을 올린 그의 연극 <어머니>, 광고전단에는 "러시아에는 고리끼의 <어머니>가, 독일에는 브레히트의 <억척어멈>이, 그리고 한국에는 이운택의 <어머니>가 있다"고 쓰여 있다. 소문난 부권주의자 이운택이 '어머니 여성'에 천착하는 작품활동을 시작해 화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이프의 이번 특집 주제도 어머니. 그를 피해갈 도리가 없었다.

인터뷰 요청을 위해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그는 이미 지난 연말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부산으로 돌아간 뒤였고 부산에서 개간 문예평론지 『게릴라』를 창간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20세기 인문주의 잔당들의 긴급 피난처이자 최후의 저항지"라는 치기어린 선전포고와 함께 '게릴라 되기'

그는 "부권이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마다하지 않으며

'부권주의자'라는

꼬리표(?)에 이의를

달지도 않는다.



이운택이 창간한 문예비평지 '게릴라'.

를 선동하고 유혹하는 이 작은 잡지는 편집실도 기자도 없는 사실상의 1인 잡지. 10여 년 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문화계를 뒤집어놓으며 게릴라전을 펼친 그가 이제 거꾸로 부산으로 내려가 '제2의 게릴라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가 펼치는 게릴라전은 7월 그의 본진인 우리극연구소가 밀양으로 이전한 후 본격 전개될 전망이다. 이들의 아지트는 폐교된 밀양 월산초등학교 건물. 8월까지 이곳에 연극제작소, 무대제작소, 자료실 등을 만들 계획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은 더 이상 중심지가 아니고 소비지역의 하나일 뿐"이며

"밀양에서 제작한 연극을 서울에 팔기 위해선 게릴라 육성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름 되면 '부권주의자'라기보다는 도둑 소굴의 '날뛰는 괴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바보각시〉연출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다는 그와 4월 18일 저녁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감지 않은 듯한 더부룩한 긴 머리, 허스키 목소리에 지독한 경성도 사투리, 작지만 섬뜩할 정도로 예리하게 빛나는 눈, 짧은 다리에 넓은 검정색 통바지. 이운택의 겉모습은 여전히 바람 냄새가 나는 날건달의 모습이었다.

그는 '부권주의자'라는 혐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부권의 회복은 '고개 숙인 남자 기 살리기' 같은 것은 아니다. 그는 근래 들어 강조되고 있는 가족중심주의를 우려하며 남성을 일상화시키는 데 여자들이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은 세상으로 진출하는 베이 스펀크일 뿐인데 1차집단인 가족과 가정이 지나치게 중요시되면 그 사회는 진보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는 그에게 남자는, 아버지는 '늘 떠나는 존재'다.

떠나는 아버지와 지키는 어머니

"우리들의 아버지는 늘 집 밖으로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식민의 역사로 인해 국가도 잃고 생활 터전도 잃은 아버지들은 늘 무언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상향을 찾기도 하고 혁명을 찾기도 했지만 대부분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변절자가 되거나 탕아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유랑의 거리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아버지 부재의 현실에서 어머니가 가족의 생존을 지켜내는 중심자가 된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의 어머니도 남편 대신 미군부대 장봉장사, 행상, 시장 좌판 옷장사 등을 하며 억척스럽게 외아들을 키웠고, 부재하는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고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를 그는 '위대한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

"긴 별거세월 동안에 조상제사 지낼 때 하루 찾아오시는 아버지를 어머니는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가 손수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주는 과정까지는 무사하게 넘어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수저를 들자마자 시작되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간간이 수저의 움직임을 멈췄다 이었다 하시다와 화장장 밥상을 얹고는 발걸음을 대문 밖으로 향하셨다."

1917년 식민지하 빈농의 8남매 중 둘째딸로 태어난 그의 어머니는 열에닐곱 살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폐병 말기 중환자였던 남자집에 주저앉지 않고 어느날 집으로 야반도주를 해 도망나온 그녀는 스무 살 시절 일본에서 귀국한 한 남자를 만난다. 이운택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열다섯 나이에 일본으로 밀항하여 규슈, 홋카이도, 오사카, 도쿄, 시모노세키를 전전하면서 헐헐단신으로 살아온 낭인이었다.

오랜 수난사를 거치면서 기층민중의 강한 독자성과 생존성을 지닌 한국 어머니에 대한 그의 천착은 사실 더 깊이 들어가보면 부재하는 아버지에게 대한 갈망과 현실에 발붙인 어머니에 대한 혐오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출발한다. 그는 동시대 어머니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살에 대한 약삭성'을 기피하고 그에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으로 대변되는 여성성을 혐오했다. 그는 카프카가 결혼을 안하고 가정부와 산 이유도 여성이 줄 수 있는 일상의 행복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월리를 죽게 한 것도 아내 린다의 현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그의 여성관은 대단히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여성에 대한 플라토닉한 동경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일상성이나 현실성에 대한 혐오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그 탓인지 그의 작품에 나오는 여성은 대부분 성녀 아니면 창녀의 2분법이 적용된다. 그는 그 이유를 술한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게 한 자신의 연애경험 탓으로 돌린다.

첫사랑은 고교시절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대학입시에 낙방한 후 혼자서 포기해 버린 쌍둥이자매의 동생이었고, 그 다음은 〈백조〉라는 고전음악다방에서 만난 여성, 수자. 그녀는 결혼 생각까지 했지만 전혀 뜻밖의 남자와 결혼해 버려 끝났다. 재수시절 함께 공부했던 재숙이라는 여성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고, 그에게 가장 큰 실연의 상처를 선사한 네번째 여자 명옥은 '이상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짜를 놓고는 지금껏 독신으로 살고 있다.

룸펜 시절 대학교 연극부 연출을 맡아주며 만난 양희는 자유로운 광대 이운택을 알아보고 계약결혼을 제의했으나 이번에는 이운택이 거절을 했다. 결혼은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상이며 1개 분대의 아이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결국 그가 아내로 택한 여자는 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 때 늘 앞자리에 앉던 짝지 여자였다. 그는 술한 연애 끝에 '결혼과 아내는 현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랑은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그의 선택은 남성은 유랑하는 존재고 여성은

이운택 연출의 연극 〈바보각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상성

목사. 생물학적 나이 45세.
심리학적 나이 29세의 목사이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살고 있는데 일부의 극소수 남성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을 모시고 사는 것도
편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극소수에
끼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열심히 남녀평등을 실천하려는
남자를 보면 무척 기쁘고 반면
기득권을 휘두르는 남성이나 그 안에
안주하려는 여성을 보면 우울하다.
생태여성신학적 관점의 수용 및
정착이 한국 교회의 정신과 신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
이 일을 일생의 과제로 몰쳐나기려
작정하고 있다.

다진 돼지고기 5파운드, 양파 5개, 김치 2쪽(배추 한 포기, 김치 4쪽 나온
다), 풀무원두부 2모, 달걀 4개, 당면 반 봉지, 참기름, 간장, 소금, 후추,
설탕, 그리고 만두피 5팩.

이상이 속이 통통한 만두 250개를 빚기 위한 재료들이다. 야채와 두부는 푸
드프로세서로 다져서 한약 찌는 기구로 물기를 빼고(우리집에는 세탁기가 없
다), 당면은 5분간 삶아 칼로 다진 다음 모든 재료를 버무려서 만두 속을 만들
고 냉동되어 있던 만두피를 마이크로오븐으로 해동시켜서 빚으면 된다. 빚을
때 만두피는 계란 풀 것으로 붙인다. 빚기 전에 약간의 만두속을 마이크로오븐
으로 익혀서 간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4월 8일,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서
울로 오기 전에 공부하는 아내 김진희씨(우리는 서로 반말을 하지만 남들 앞
에서는 서로 씨름 붙인다)더러 급할 때 먹으라고 만두 250개를 빚어놓고 왔다. 그
전에 배추 12통을 사서 김치도 담아놓았고...

진희씨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만 신학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때의 우리집 가사노동의 원칙은 어느 누구도 집안일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비록 한쪽이 80%의 일을 부담하고 있어도 다른 한쪽에
책임이 있는 한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굉장히 불리해진다 것이 그 이유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가사노동을 하기로 약속
되어 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훨씬 강하기 때문
에 적어도 67%의 일은 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세탁을 비롯해서 힘이
 많이 드는 일은 내가 전적으로 도맡아 해왔으며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를 부
담했다.

그런데 95년에 진희씨가 공부할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하게 되어서 공부를 시
작했다. 대학 때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후 16년 동안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진희씨인지라 두려워 떠는 그녀에게 나는 온갖 여성해방 이론을 들이대며 공
부할 것을 종용했고 드디어 95년 가을학기부터 풀타임 학생이 되었다. 부부 학
생이 된 우리는 다같이 시간에 쫓기는 형편이었지만 공부에 대해 거의 공포
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진희씨를 설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면 내
가 가사노동을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럼으로써 어느 누구도 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가 깨뜨렸다. 나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첫 학

기에 겨우 95% 정도(이 수치는 나의 계산이 아니고
진희씨가 주장한 수치이다)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그
로 인한 책임 추궁을 당해야 했다. 나는 속으로는 95%
라도 해준 게 어디냐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지만 약
속은 약속인지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
다. 그러나 그 다음 학기부터는 계속 조금씩 떨어져 결
국에는 90% 정도까지 내려갔다. 진희씨가 공부에 익
숙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가사일을 거든 원인이 있
기는 했지만 하여튼 나는 약속을 단 한 학기도 지키지 못
한 셈이 되었다.

작년 5월에 나는 드디어 학위를 마쳤고 가사일에 전
념하는 전업주부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확실히 갖추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다시 상승해
95~100%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1년 가까이 지내
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서 한창
바쁜 학기말에 진희씨가 100%의 가사노동을 해야만
할 상황이 벌어졌다. 미안한 마음이 든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장을 파놓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
두 메모해서 일러주고 김치 담그고 만두 250개를 만들
어 비상식량을 확보하고서 서울행 여정에 올랐던 것
이다.

나의 가사노동의 역사는 멀리 중학교 1학년으로 올
라간다. 초등학교 6학년 실과 시간에 받은 쌀 5, 물 6
의 비율로 하면 된다는 이론을 배운 나는 서울에서 중
학교 1년을 마치고 가정형편으로 휴학하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시골로 내려가 놓고 있었는데 교인들 심
방 때문에 어머니가 종종 집을 비우셨고 나는 그 때마
다 그 이론대로 밥을 해서 동생들을 먹였다. 빨래가 쌓
이면 바구니에 잔뜩 담고 마을 시냇가로 가서 동네아
줌마들 틈에 앉아서 방망이질하면서 빨래를 했고 심
지어 살고 풀먹이고 다듬이질하는 것까지 열심히 했
다. 남들이 사내자식이 별짓 다 한다는 시선으로 바라
보면 볼수록 왜 남자는 여자가 하는 일을 못하냐 하는
심정으로 아줌마들보다 더 여자스럽게 빨래를 문대고

행구고 찌고 닦고 했다. 재봉질과 뜨개질은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어머니 아재너머로 배워 수준급으로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집에서 재봉질은 모두 내 몫이다.
진희씨는 손바느질에 전문가 뺨치는 솜씨를 가지고
있지만 재봉틀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와 하나뿐인 우리 딸 수빈이는 합성세제에 알레르
기가 있어 빨래는 모두 세탁기로 두 번 한다. 특히 팬
티와 런닝은 한 번 빨고는 락스로 표백한 후 욕조에 담
가 발생기 염소 성분이 모두 없어지도록 기다린 다음
다시 세탁기로 두 번을 돌려야 피부 가려움증이 예방
된다. 그래서 빨래하는 날은 세탁장과 집을 몇 차례 왔
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청소, 요리, 설거지,
아이 뒷바라지, 장보기 등등 가사일을 전업으로 하면
하루 6~7시간이 게 눈 감추듯 날아가고 거기다 저녁
먹고 자기 전 진희씨와 그 날 공부한 것을 토론폰도 하고
정답도 나누고 하기를 2~3시간 하고 나면 내게 남은
시간은 어떤 날은 정말 책 한 페이지 읽을 틈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진희씨는 가사노동에 전혀 무
지한 여자같이 보이겠지만 진희씨도 청소, 정리, 요
리, 아이보기 모두 다 전문가 수준이다. 한동안 너무
안 해서 요즘 요리솜씨는 많이 늘어났지만 신속하
게 해내는 요리는 귀신처럼 잘한다. 나도 요리를 전천
후로 하지만 특히 장시간 정성을 들이는 요리에 특기
를 가지고 있다. 칠면조는 대체로 6~7시간 동안 오븐
열에 앉아서 해야 하는 요리인데 내가 굽는 칠면조는
먹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어찌다 둘이 함께 줌
은 부엌에서 요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때에는
서로 별 말이 없이 공동으로 해도 손발이 척척 맞아 즐
거운 요리시간이란 말이 전혀 무색치 않은 한때를 보
낸다. 함께 요리하다 보면 가끔 가끔 겨우 안을 수도 있고
키스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세탁 외에 반드시 남자가 해야 할 가사노동이 한 가
지 더 있으니 그것은 설거지이다. 요리를 하다보면 냄

비나 프라이팬이 잘 탄다. 특히 프라이팬은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요리기구여서 이 식용유가 어찌다 흘러넘쳐 까맣게 타면 여간해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한번 타서 붙은 것은 그때그때 제거하지 않으면 요리가 거들궂을수록 더욱 강하게 달라붙어 주방기구와 한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매번 설거지할 때 힘을 주어 깨끗이 닦아내야 하는데 이것이 여자의 힘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남자인 내 힘으로도 간신히 닦이는 지독한 때도 있으니 하물며 여자들에게는 오죽이나 힘들 것인가. 덕분에 우리집 냄비와 후라이팬은 심지어 10년 전에 산 것도 아직 반짝반짝한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사노동과 떨어져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처음 출병 1년 동안 취사장에서 일해서 군대 가사노동을 해야 했다. 그리고 이 가사노동을 귀찮아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가사노동을 다른 말로 살림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이 살림을 하지 않고는 생존할 길이 없다.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이 일에 여남,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료 남성들이여! 그까짓 잘난 남자의 기득권을 시원스럽게 날려버리고 각자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사노동 부담을 비롯한 여남평등을 실천해 보라. 그대들의 삶에 환희와 행복이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특히 가사노동은 사회적 변화 없이도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만 고쳐먹으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평등을 위한 실천항목이 아닌가!

한 가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가사노동을 해도 결코 여러분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떨어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것으로 바꿔주겠다. 정말이다. [1]

김세영성형외과클리닉

TEL 515-0030

아름다움 속엔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전문성 외과박사
김세영



국내 최초로 개발된 산딸기 차가 신혼의 性을 되찾아 드립니다

원조 산딸기 차는 이런 제품입니다

제배가 아닌 엄밀 정선된 북한의 야생 산딸기로만 제조된 고품향 차로 산딸기의 맛과 효능을 최대로 살린 제품입니다. Tea-Bag용으로 개발돼 일년 사시사철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기능 차입니다. 산딸기를 주원료로 하여 구기자, 오미자, 감초 등 한약재를 가미해 효능을 극대화하였으며 무방부제 무색소로 자연의 맛과 색을 살렸습니다.

산딸기의 유래

옛날 중국에 노부부가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도 몸이 약해서 걱정하던 차에 지나가는 노인이 산딸기를 다려 먹이라고 일러 주었다. 매일 열심히 다려 먹었더니 커서는 오줌을 누면 하도 힘이 세서 요강을 열어버려 이름을 복분자(覆盆子)라 하였다. (本草綱目)

산딸기의 효능은?

한방에서는 복분자라 하여 정력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몸의 피로회복과 기운을 돕고, 몸을 가볍게 하며 눈을 밝게 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좋게하여 남자들의 정력을 강하게 하며, 여자들의 임신을 돕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과 오줌 싸는 어린이에게도 좋습니다. (東醫寶鑑)

제품의 종류 및 가격은?

포장단위는 50포 2만원, 100포 4만원 두 종류입니다.

문의전화

정우당 02-967-8838

전화주문시 택배로 배달해 드립니다.

(제조원 가나다식품)





특집 **남자는 어머니를 모른다**

모성도 유행이다 | 류숙렬

'민중의 어머니' 이소선에서

'미시족 엄마' 변정수까지 | 황금희

'나쁜 엄마'를 위하여 | 김효선

어머니의 독이 아들을 죽인다 | 이하천

딸들아! 엄마도 사람이데이 | 구훈모

한(恨)만을 남기고 가야 하네 | 김윤심

"모든 불행의 원인 어머니" | 최보문

사례 | '여자들의 어머니'와 '남자들의 어머니'



이번 어머니 특집에 원고를 준 여성필자들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꽤나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처럼 어머니와 나는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코드이다.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이상과 현실의 양극단을 방황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말에게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이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의 이미지가 여성 자신에 의해서 정의되고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성을 가진 어머니 담론에서 창작 어머니의 목소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프는 우리 사회 어머니들이, 남성들이 만들어놓은 가부장사회에서 남성들이 규정한 어머니의 말을 쓰고 얼마나 고통에 몸을 휘둘고 있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또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말들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드러내려고 한다.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번 특집호에서 여성필자들은 뱃속에서 치받쳐 올라오는 소리로 저마다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성도 유행이다

수난의 마더스토리 (Mother-story)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라는 책을 쓴 미국의 페미니스트 시인 애드리언 리치는 “우리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우리가 여행하는 바다나 산 등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어머니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게

다가 모든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낳은 ‘나’가 누구냐에 따라서 즉 아들이나 딸이냐에 따라 어머니는 굉장히 달라진다.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알고 있는 어머니와 여자가 알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적어도 피임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1960년대 이전까지는 말이다. 그리고 또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30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체함에 관하여 아는 것을 거부해 왔다. 하루종일 어린아이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어머니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되기과 싸우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쁜 여자라는 고백과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에게 어머니되기를 즐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기꺼이 해야 하는 의무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모성이라는 것이 인류 탄생 이래 불변한 절대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다. 오히려 어머니는 유행의 산물이었다. 모성이 유행이라고? 그 무슨 망발이냐고 묻고 싶은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온 이상적인 어머니상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상기하면 된다. 어머니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은 당연히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끔찍할 정도로 유행에 결부되어 있다. 어머니의 역할은 영원한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변덕과 더 상관관계가 깊은 것이다. 즉 어머니의 역할은 가부장제 사회의 생존전략, 인구압력, 생태학, 과학기술, 기상양식 그리

고 남자들의 생각 등 인위적인 남성문명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이다.

여성의 다산성에 대한 초기 인류의 숭배

태초부터 여성은 두려운 존재였다. 처음에는 여성이 혼자서 배를 부풀리고 그리고 자신만의 규율에 따라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원시시대 초기, 그러니까 예수나 그외 다른 남성신이 태어나기 2500년 전에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모든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원시시대 인간은 생명이 어머니로부터 나온다는 명백한 사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대한 어머니를 신으로 받들고 숭배했다.

그들은 여성을 생명의 신비와 연결하는 종교적인 테마를 발전시켰다. 모든 생명은 신성했으며 위대한 어머니가 그 모든 생명을 창조했던 것이다. 가장 초기의 것으로 알려진 종교적인 성상들은 별거벗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출산을 앞둔 임신 말기의 배부른 모습인 경우가 많다. 유럽 극지나 시베리아 동지에서 발견된 이들 구석기시대의 여성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명확한 특징은 커다란 가슴과 둔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을 최초로 발굴하고 연구한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위대한 어머니상이 그저 ‘유방과 엉덩이(tits and ass)’로 비쳤기 때문에 이들 여신상은 ‘비너스’ 상으로 범주화되었다.



윌렌도르프의 비너스

기원전 3만 년경에서 2만 5,00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 지금까지 출토된 비너스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또 가장 유명하다. 이 비너스상은 4와 1/8인치 크기의 석회암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출토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비너스상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

비너스상들은 출생이나 양육 또는 관능이 아닌 임신의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산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즉 가장 초기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은 것은 명백히 여성의 생산능력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이를 안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상이 나타나는 것은 신석기시대 중반에 이르러서이다. 성적 평등과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되는 신석기시대의 전원생활은 대략 기원전 3,100년 경부터 기원전 600년 경에 이르는 2,500여 년에 걸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기원전 600년 경에 이르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가부장제가 확립된다. 남성들이 아이를 탄생시킬 때에 자신이 한 ‘공헌’에 대해 깨닫게 되고 역사시대가 전개되면서 통제권을 쥐게 되자 어머니들은 비인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신들의 남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녀의 이야기(히스토리)가 끝나고 그의 역사 즉 히스토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불려온 것이다.

출산하는 남자들

가부장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속에서 처녀와 어머니로 대별되는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되었다.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한 남자(아버지)로부터 다른 남자(남편)에게 양도되어 법적, 재정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남자들의 권력에 종속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은 본래 종속적이며 인체는 숙명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것이다.

가부장제가 지배권을 획득하는 2,500여 년 동안 여성은 출산능력의 기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자유와 존엄성은 축소되었으며 단지 재

생산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산능력조차 여성만의 것은 아니게 되었다. 여성은 아기를 낳기 위한 조립라인에서 거쳐가는 단순한 정거장에 불과했다. 가부장적인 남성은 '자신의' 아내를 임신시키고,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 주기를 기대한다. 여성은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자연히 남근은 자궁을 대신하여 생명과 힘의 근원적인 상징이 되었다. 남성이 인간사의 드라마에서 조연의 자리를 벗어나 주연으로 올라서자 남근은 곧 그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대 이후 남성지배는 바로 이 하나의 기관에 귀속되었고 이 하나의 기관은 남성권력의 영원한 유품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남근의 상징물들은 교회의 첨탑에서 기념비, 칼, 권총, 지휘봉, 곤봉, 로켓에까지 이르고 최고를 의미하는 엄지손가락 제스처까지 남근의 권력에 가담하고 있다.

생명을 낳는 여성능력에 대한 남성들의 도착적인 강박증은 문자로 기록된 창조신화들일 것이다.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며 변형을 거듭했을 이 개정판 창조신화들의 특징은 남성은 더 이상 여성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가장 손쉬운 예는 성경의 창세기이다. 아담은 아내가 없는 하느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진다. 아담은 이브의 어머니이자 남편인 것이다(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나보다).

그리스신화에도 머리로 아이를 낳는 남성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제우스신의 딸 아테네는 아버지의 머리에서 다 자란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프로디테(비너스)는 아버지의 생식기를 물리싸고 있는 정액에서 태어났다. 데미테르, 헤라 그리고 헤스티아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삼켜버렸다. 올림포스산의 주요 여신들 중에서 달과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만이 주위의 다른 것들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형적으로 양육되었다.

아기가 여성에게서 태어난다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다. 고대그리스인들은 너무 열심히 생각한 나머지 남성이 머리로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을 탄생시킨 것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의 난자를 '요리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남성의 씨 즉 정자라고 말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생식에서 나타나는 소위 여성들의 수동성을 여성의 사회적 열등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과학적으로 위장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혐오증은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의 여성혐오증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치아 수가 더 적다는 우스꽝스러운 관찰에서 절정에 달했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따금 아내의 입을 벌려보지만 했더라도 그런 실수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조크를 했다는 소문이 있다.

어머니는 혈족이 아니다?

모친살해를 다룬 오레스테스신화는 모권의 패배와 부권의 승리를 판가름한 이야기로 유명하다. 현존하는 32개 그리스 비극작품 중에서 일곱 작품의 주제이며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 당시의 위대한 극작가들에 의해 다루어진 이 신화는 고대그리스인들에게 모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력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오레스테스 신화에서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딸을 죽인 남편 아가멤논을 살해한다. 그러자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 아들 오레스테스는 자신의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인다. 재판이 열리지만 오

아테네는
여성의 도움 없이
남성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막스 에른스트가 동정녀 마리아상을 패러디한 1926년도 그림. 마녀 같은 모습의 마리아가 3명의 목격자 앞에서 아기예수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다.

레스테스는 어머니를 죽인 대가로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이다. 아테네라는 남성지배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오레스테스 재판은, 정의가 씨족의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법기구를 통해서 획득되었다는 이유로 법학의 진보를 상징하게 된 동시에 모성의 궁극적인 패배를 기록한 재판이었다. 아이스킬로스의 희곡에서 아폴로신은 모친살해를 부친살해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아이는 흔히 어머니의 소유로 여겨지지만 어머니는 실제로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진정한 부모인 남성에 의해서 자신의 몸 속에 심어진 씨앗을 기르는 사람일 뿐이다... 내 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여기 제우스의 자식 아테네가 있다. 아테네는 어머니의 자궁을 빌리지 않고서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테네는 여성의 도움 없이 남성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그래서 오레스테스는 어머니를 죽이고서도 혈족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어머니는 혈족이 아닌 것이다. '씨앗을 준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는 것이다.

그후 두 번의 1,000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성스러운 마돈나에서 가정의 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부침을 겪었다. 1970년대 활발해진 여성해방운동은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모성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됐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제되던 가부장적 어머니라는 역할을 거부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주장했다. 안전한 낙태와 효과적인 피임이 가능해야 여성들에게 모성이 운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의 변증법』을 쓴 슬라미스 파이어스톤은 여성 억압의 원천을 여성의 임신출산능력 때문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야만적인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출산에 얽힌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여성을 해방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페미니스트 시인 에드리언 리치는 모성을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모성'과 가부장제 사회가 강제한 '제도로서의 모성'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강제노동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모든 결정을 아버지가 하는 것은 남성통제의 강제노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모성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모성을 가부장제 사회의 통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들이 어머니이기도 한 이들 페미니스트들은 모성의 경험이 개인 여성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창조성을 선사하며 또 모성이 남성문화에 반대되는 여성문화의 근간이 되며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류숙필 편집위원



'민중의 어머니' 이소선에서 '미시족 엄마' 변정수까지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어머니 이미지

60년대 어머니를 대변하는 드라마 <육남매>의 장미희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우 리 사회에는 어머니를 설명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다. 지고지순한, 희생을 감내하는, 여자보다 강한, 억척스런, 이기적인, 물염치한, 평피짐한, 주책맞은, 알뜰살뜰한, 센스 있는, 처녀 같은... 어머니.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수식어가 아니다. 그러한 수식어는 옳고 그름을 정하고, 분리와 배제의 작용을 통해 여성들의 어머니 노릇에 개입한다.

어머니를 설명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만들어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공간은 대중매체다. 대중매체는 사회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머니상'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어머니상은 여성들의 경험이나 남성중심의 사회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어머니상, 아드리안 리치가 명명한 바로 그 '제도적 모성'에 기반하고 있다.

대중매체가 재현하는 어머니상에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투영된다. 궁핍의 시절에는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며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가, 경제부흥기에는 '성공하는 남편'에 적합한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현모양처가 부각된다. 정치적 암흑기에는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남편이나 자식들을 대신해 부패한 권력과 맞서 투쟁하는 '민중의 어머니'가 대중 앞에 전시된다.

대중매체는 억척어멈과 미시족, 커리어우먼과 슈퍼우먼, 현모양처와 신현모양처 그리고 아줌마를 이 시

대 어머니상으로 혼란스럽게 재현해 내고 있다. 그 와중에 대중매체를 통해 '대표 어머니'로 불리는 몇몇의 어머니 스타가 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과, <전원일기>의 김혜자, 연극 <어머니>의 손숙이 대변하고 있는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서정화, 최유라, 변정수 등 대중스타들이 대표하는 신현모양처, 미시족 어머니들이 바로 그들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스타가 된 이 시대 '대표어머니들'을 만나보자.

민중의 어머니,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는 말로 칭송된다. 임정남의 시 「어머니의 환갑」에 그려진, "새벽별을 이고 삼십 년을 하루같이 고사리 독에 손바닥이 터지고 도라지 핏느라 손톱이 뭉개진 우리 어머니 재산이라곤 사남일녀가 다 파먹은 몸뚱이와 주름살에 엉겨붙은 눈물"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사회가 칭송하는 여자보다 강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러한 어머니상은 한국사회의 근대화 시기에 형성되었다. 일제침략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극도의 사회적 혼란기에 어머니들은 질병당하거나 전쟁에 참여한 남편을 대신해 가정을 이끌면서 강한 생활력을 가져야 했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생활력은 70~80년대 암울했던 정치상황에서 '자식을 위해' 기꺼이 투쟁의 선봉에 선 투사의 역할로 이어진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은 바로 그러한 어머니상의 전형이다. 이른바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집안살림 하느라, 먹고살기에 바빠 하늘 향해 저주 한 번 할 새 없고, 또 땅을 향해 침 한 번 뱉지 못하던 소박하지만 한 어머니"였으나 아들의 분신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의식화되면서 민주투사가 됐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현장에는 이소선 여사처럼 투사가 된 어머니들이 많았다. 87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위촉한 분신열사, 장기수, 구속학생, 노동자, 교사 가족수기 『오, 어

머니 당신의 눈물은』(도서출판 동녘)은 서문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머니들은 집안 뒤뜰에서 가슴앓이를 하는 수동적 어머니들이 아니라 거리에서, 고도소 접견장에서, 법정의 방청석에서 부당함에 항거하는 이 시대의 가장 행동력 있는 양심의 대변자"라고 적고 있다.

'민주투사'이자 '양심의 대변자'인 어머니들을 80년대의 자식들은 기꺼이 숭배한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왜 민주투사가 아닌 민주투사 아무개 어머니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MBC 장수드라마 <전원일기>의 김희장덕 사모님은 투사의 어머니와 다른 지점에서 있지만 그 본질이 비슷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어머니다. <전원일기>의 어머니는 가부장적 질서와 권위에 절대 순종하면서, 집안살림의 상징인 '꽃간 열쇠'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가부장가족을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한국사회의 정서와 맞아떨어지면서, 김희장 부인역을 하고 있는 탤런트 김혜자를 일약 한국적 어머니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김혜자가 실은 "살림에 관심도 소질도 없고, 왕비처럼 대접받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다는 것"이 심심치 않게 폭로(?)되었지만, 한국적 어머니라는 타이틀은 그에게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가난했던 시절을 되돌아보며 향수에 젖어들게 하는 복고풍 드라마가 유행하면서, 복고풍 어머니가 다시 한번 대중적인 어머니상으로서 기선을 제압한다. 한동안 인기를 모았던 MBC 드라마 <육남매>에서 장미희가 그려낸 어머니는 50~60년대 억척어멈의 90년대판 리바이벌이다. 장미희가 70년대 젊은이의 방황과 고뇌를 그린 영화, <속 별들의 고향>에서 자유분방한 의식을 가진 여자역을 맡아 당시 젊은이의 정서를 대변했다는 평을 받은 사실을 떠올리면 90년대 육남매의 어머니로 변신

한 그의 모습은 희극적이다.

연극배우 손숙의 <어머니> 공연 소식 역시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대중에게 알려진 손숙은 "지금도 사랑을 기다린다"며 자신의 욕구를 감추지 않고, 자식들에게 충분히 희생적이지 않은 대신 연극배우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하는 여성이었다. 그런 그가 왜 다중적인 자신의 여성성을 무색무취 무향의 중성적인 아들의 <어머니> 속에 가두는 것에 합의했을까. 앞으로 20년간 장기공연되는 <어머니>를 통해 환생한 복고풍 어머니들이 우리 사회를 음산하게 떠돌 모습을 상상하니 그런 의문이 더 커진다.

남편을 빅맨으로!

70~80년대 경제성장의 '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중매체는 경제적 수준에 걸맞은 새로운 어머니상을 제시한다. 산업일선이라는 공적 영역은 남성에게,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은 여성에게 배분하는 뚜렷한 성별분업 아래 여성은 따뜻하고 세련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 시대 한 여성잡지

는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라는 이른바 현모양처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다. 이 여성지의 사장은 '아내여, 남편을 강하게 키워라'는 제목의 글을 잡지에 실어 여성들에게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 지금 썩 잘 만나지 못한 남편이라면 아내의 힘으로 썩 좋은 재물을 만들어야 한다.
-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선택한 남자, 우리의 아버지 말고 가장 떠받들고 싶은 남자. 그렇다면 그를 한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빅맨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 (1986년 6월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가사나 육아 같은 자질구레한 일을 시켜 남편을 직장부로 만들어서는 안되며, 산업일선에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남편을 위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라고 설교한다. 그에 걸맞게 대중매체는 홈드레스에 앞치마를 걸치며 현대식 주방을 바쁘게 오가는 여성의 모습을 행복한 삶, 갈등 없는 삶, 현명한 삶으로

포장해 낸다.

80년대 후반의 TV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석한 바 있는 문학평론가 이영미(<여성과 대중문화>, 『외국문학』 86년 가을호)는 당시 등장한 새로운 여성상이라는 것도 봉건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라 지적한다. 봉건시대의 현모양처가 '남존여비'의 동의어였다면, 현대판 현모양처는 '현명한 여인', '사랑 받는 여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전과된다

는 것이다. 이영미는 그러나 여성의 본업은 가사노동이라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유행하던 그 시절 한국여성의 반 이상은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하고 있었다고 일침을 가한다.

90년대 환생한 신현모양처

귀신과 미시족

사회학자 조혜정은 80년대를 여성들에게 특별한 시기로 분류한다.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386세대에 해당하는 60년대에 태어나 70~80년대의 경제적 성장기에 학창시절을 보내고 여성학이라는 학문적 수혜를 통해 남녀평등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대거 쏟아져나온 것이 바로 80년대이기 때문이다. 조혜정은 그래서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90년대에는 각자 선 자리에서 나름대로 변혁을 시도해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조혜정이 90년대 후반 몇 편의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가부장적 사고보다 훨씬 생명력이 절겨서 결코 쉽사리 변형되지 않았다. 오히려 90년대의 의식 있고, 교양 있고, 지적인 젊은 여성들은 미시족이나 신현모양처라는 새로운 가부장제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아이를 낳고도 날씬하고 매력적이어서 아가씨 같은 어머니, 홈쇼핑, 홈쇼핑 등 컴퓨터 작동에도 능하고,



이른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미시족의 대표주자 변정수.

집안꾸미기도 프로처럼, 음식만들기도 요리사처럼, 아이교육은 선생님처럼, 모든 일에 능숙한 프로의식을 가진 전업주부의 모습이 미시족, 신현모양처로 명명돼 90년대 젊은 주부들에게 제시되었다. 90년대의 대중매체에는 미시족과 신현모양처에 걸맞은 대표주자가 등장한다. 영화 배우 엄영란, 시인 조양희, 전 앵커 신은경, 탤런트 최유라, 개그맨 박미선, 방송인 서정희, 모델 변정수를

위시해 '누구의 아내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유명인사의 아내들이 대중매체에 등장한다. 그들은 남편내조법, 알뜰살림법, 요리법, 인테리어 요령 등에 대해 열변을 토한다.

이들은 결국 조양희의 '부엌데기사랑'의 광고문구처럼 '누가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들을 주목하게 하나! 오직 성공만을 꿈꾸는 커리어우먼에게 묻는다. 진정한 아내와 엄마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합창한다.

뛰니뛰니해도 이 시대 미시족, 신현모양처의 대표주자는 코미디언 서세원의 부인 서정희다. 빼어난 미모에 지칠 줄 모르는 가족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 탁월한 센스와 감각까지 겸비한 그녀는 호주머니에 쪽 집어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귀엽고 깜찍한 요정 같은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선다. '30대 피부, 옷자'며 화장품 광고를 하는 그녀의 피부는 20대 피부보다 젊고 평평하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고급 종이로 인쇄된 요리책 속에서 그녀는 바비인형보다 더 예쁜 자신의 생활을 공개한다. 물론 그 모든 꿈 같은 현실은 온몸을 던져 순종적인 아내, 헌신적인 엄마, 다소곳한 며느리 역할을 잘 해내고, 가끔은 목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다. 그러니 서정희는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다. "여성들이여,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성희롱

만독이는 K대 국문과 1학년생이다. 교수님이 요즘 세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로 짧은 글짓기를 지어보라고 하셨다. 모두들 공공대고 있는데 만독이는 단 5분도 안 되어서 교수님께 제출하였다. 교수님이 그 글을 읽어보니...
'아름이 성희인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첫날밤에 옷을 벗는 신부에게 신랑이 말했다.
'성희, 롱 다리구나!! ~~~'

태정태서문단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우던 조선왕조 임금들 머리글자

를 짝...

다 외우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오걸 다섯 자로 줄여보세요.

-왕입니다!

죽음이야

- 소금이 죽으면—죽염
- 아이스크림이 죽으면—다이하드
- 얼음이 죽으면—다이빙
- 눈 맞아 죽으면—설사
- 아몬드가 죽으면—다이아몬드
- 아이가 추워서 벌벌 떠는 것을 4글자로?—아이추워
- 아이추워의 반대말은?—어른더워



80년대 대표적인 어머니는 단연코 <전원일기>의 김혜자다.

이른 결혼과 출산으로 화제를 모았던 모델 변정수 역시 미시족 어머니의 대표적 표상이다. 모델 변정수는 사실 매력적인 인물이다. 남편제일, 가정제일, 자식제일주의를 주창하는 서정희에 비하면 푹부러진 성격에 모델로서 프로의식과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 엄마로서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도 서투르지 않다. 문제는 그런 변정수조차 대중매체를 통해 포장되고, 상품화되면서 신세대 주부, 혹은 신세대 여성, 신세대 어머니의 전형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최근 일고 있는 아줌마담론도 그런 면에서 미심쩍다. 아줌마에 대한 최근의 설왕설래는 아줌마를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럼에도 아줌마 담론이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여성인물을 만들어내진 않을까 우려된다. 확실적인 우리 사회에선 특정한 여성의 이미지가 대중화될 때 그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여성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줌마 예찬이 극성스러워지면 추앙 받던 미시족들이 하루아침에 철퇴를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어머니는 다르다”

그런데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이런 어머니들이 과연 나의 어머니인가? 최소한 우리의 어머니들은 조금씩

이소선 같고, 김혜자 같고, 엄앵란 같고, 서정희 같고, 조양희 같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결코 그들과 똑같아질 수 없다. 그들은 아들과 남편 그리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선택되고 포장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습에는 여자로서의 삶이 없고, 딸이 보는 어머니가 없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성들이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진형화된 어머니의 모습과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심진경은 90년대 부상한 은희경, 공지영, 배수아, 전경린, 전해성, 김연 등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딸의 서사’라고 분석하면서,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전형적인 어머니상이 해체되는 징후를 읽어낸다(심진경, 『모성의 서사와 90년대 여성소설의 새로운 길 찾기』, 『여성과 사회』, 제9호). 심진경은 “딸들이 볼 때 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세계는 여성의 운명을 옥죄는 가부장제의 그들이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지적인 여성에게 어머니의 존재, 그리고 ‘어머니 되기’의 과정은 펼쳐버려야 할 운명의 굴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전해성의 소설 『마요네즈』는 이러한 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연극과 영화로 만들어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마요네즈』는 대부분의 대중매체에서 ‘어

니’라는 키워드로 읽혔다. 그러나 『마요네즈』를 읽는 키워드는 ‘딸’이다. 『마요네즈』에서 딸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자식에게 헌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기연민에 빠져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만 애쓰는 존재다. 이렇게 딸이 본 어머니의 삶은 전형적인 어머니상과 다른 모습이다. 이 소설을 읽은 많은 여성들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다” 혹은 “우리 어머니는 그보다 더 심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마요네즈』를 통해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대중적인 어머니상에 무엇이 배제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모성체험 드러내는 90년대의 여성들

『마요네즈』가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삶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어머니 노릇을 거부하는 여성들도 나타난다. 90년대 대중매체는 현모양처나 미시족과 함께 가부장이데올로기에 정면 도전하는 여성들도 자주 등장시킨다. 이들의 사연이 비록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가식으로 취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그로 인해 여성들은 동시대를 사는 다양한 여성의 삶을 접할 수 있다.

소설가 한림화, 여성학자 오숙희, 작가 공지영, 개그맨 이성미 등이 그들이다. 소설가 한림화는 결혼제도를 거부하고, 아이를 낳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킴으로써 모계중심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 개그맨

이성미는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아 5년여를 혼자 힘으로 키우면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낯뜨게 대면했다. 작가 공지영, 여성학과 오숙희는 어머니 역할의 어려움과 고민을 대중매체를 통해 드러내면서 어머니가 결코 인내의 화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린다.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유명인사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존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해방적인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 동안 미시족이나 신현모양처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남녀평등의식을 흡수한 자의식 강한 여성들이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딸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사회통념과 전혀 다른 어머니가 되겠다는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남성들이 만든 ‘어머니의 환상’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딸들은 어머니를 환상 속에 가두지 않는다. 딸들과 어머니는 ‘저 높은 곳’이 아닌 삶의 현장에 있다. 그 속에서 딸들은 어머니와 지지고 볶으며 부대끼고, 논쟁하며, 절타하고, 미워하면서 때로는 따뜻한 감정을 주고받는 다. 이제, 딸들은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어머니의 삶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곧 자신의 어머니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식어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딸은 곧 어머니요, 어머니는 또 다른 어머니의 딸이므로... [1]

한림화

68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91년부터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여성신문』 기자로 일했고, 그 곳에서 일하면서 페미니즘을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이후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위해 96년에 이화여대 여성학과에 들어갔다. 지금은 대학원을 수료하고 『여성주의 저널리움』을 주제로 석사논문 쓰고 있다. 요즘 들어 페미니즘은 삶의 철학일 뿐 아니라 생계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페미니즘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쓸쓸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어디 없나?





'나쁜 엄마'를 위하여

나혜석 · 뽕덕어멈 · 장희빈 그리고 계모 다시보기

내가 애 엄마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안부를 묻는다. "애는 잘 크지요?" 그 순간 나는 나에게 묻는다. "우리 애가 잘 크나?" 그런 것 같아서 대답한다. "아마 그럴 거예요." 또는 "잘 크겠지요, 뭐." 듣는 사람과 함께 나도 미소한다. 그러나 남의 아이 얘기하는 듯한 나의 대답은 더도 덜도 아닌 진실이다. "잘 크겠지, 뭐." 확고한 믿음이나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다.

언제부터가 나도 엄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엄마인데 뭔가 덜 떨어진 엄마라는 걸 확인하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자기 아이를 남의 아이 얘기하듯 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정서가 어떤 엄마들 사이에서는 매우 기이한 정서라는 걸 확인할 때 내 마음은 결코 편하지 못했다. 이 기이한 정서에 대해서 나는 한동안 고민해야 했다. 뭔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런 나에게도 엄마라는 걸 붙이려 한다면 '무늬만 엄마'라는 말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보기에는 '무늬만 엄마'지만 나로서는 '무늬만 엄마'가 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써야 했다. 내 아이의 안부에 대해 남 얘기하듯 태평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실은 많은 고비가 있었다. 내가 엄마로서 부절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부터 나는 신경질적인 불안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 기간은 꽤 길었던

것 같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무늬만 엄마' 노릇을 하게 된 나의 태평주의는, 꽤 긴 고민의 터널을 지난 끝에 도달할 수 있었던 나의 최선이였다고 생각된다. 정말 제대로 된 엄마 노릇엔 자신이 없다. 교육문제만이 아니다. 엄마인 나의 기를 꺾어 죽이는 멋진 여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

도시락 편지로 유명한 조양희씨도 그렇고 요즘 쓴 아지는 살림 잘 하는 연예인들도 위험적이다. 최유라, 서정희 등등 젊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벌고, 직업도 확실한 그들이 어찌하여 살림까지 도사수준에 이르게 되었는지 정말 불가해한 일이다.

이런 여자들이 있는 가정에서 사는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 것이며, 이런 미덕을 갖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행복감을 선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는 미안해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긴다. 물론 나는 잘못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도 탁월한 모델들이 가까운 데에 있음으로 해서, 나는 비록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나 '모자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모성의 글기 "인격을 갖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나는, 내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로서 용감히 했어야 할 거들나기를 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결혼한 후에도, 엄마가 된 후에도, 나로서는 상당부분 양보하고 포기했지만 아직도 지나치게(?)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칠 때면 나 스스로 '자의식 과잉증'을 의심한다. 왜 다른 여자들이 다들 순조롭게 일정을 바치는 엄마 노릇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도 소극적이고 그렇게도 회의적이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까?

나와 엄마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놓여 있다는 걸 몸으로 직감하면서 나는 엄마란 무엇인가, 엄마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엄마로 부적절하다고 느끼는가, 엄마가 뭐길래? 하는 등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아직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는 금기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를 기르는 여자가 나와 엄마를 때어서 생각하는 것, 즉 여자의 자아와 모성을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금기가 있다는 것이다. 엄마에게는 실존적 인간의 인격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 '모격(母格)' 같은 게 존재한다는 느낌이다.

훌륭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수행이기도 하다. 우선 어머니에게는 개인적 자유가 어색하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욕구가 어머니에게는 어색하다. 그 모든 것을 자녀에게 종속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

50대 중반에 들어선 여성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느라고 유보했던 자신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여성은 우선 돈이 문제라고 했다. 자신은 어학을 배우고 싶었다고 한다. 대학 때 공부를 충실히 못했다는 생각에 영어와 일어 공부를 계속해 보고 싶었으나 두 아이를 기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이것 저것을 가르치다 보니 자신의 공부에 투자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50대 중반이 되어서 손자를 기다리는 시점에서도 이 여성은 잃어버린 자신의 꿈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소박한 욕구에서 시작하여 어머니로서의 삶을 들춰보면 기억의 서랍 한켠에 고이 접혀 있는 자신의 꿈과 욕망을 만날 수 있다. 실존적 인격체라면 누구나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꿈과 욕망이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것 앞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기억의 서랍 한켠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인격'에서 '모격'으로 승화(?)되는 거들나기에 성공한다. 이 과정에 뒤따르는 고통이 있기에 세상은 '모격' 앞에 숭고하다는 형용사를 덧붙이고 찬미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리라.

그건 분명 보상이라 할 만하다.

많은 여성들이 인격에서 '모격'으로의 승화(?) 과정을 받아들였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그랬으므로 모성은 여성의 본능이며 자연의 법칙이라고 믿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습된 면도 있다. 어머니가 되어서도 자의식을 앞세우는 여자들, 자신의 욕구와 꿈을 추구하는 용기있는 행동을 감행한 여자들은 '나쁜 여자'들로 되어 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나쁜 엄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울 수 있었다. 여성들은, 나쁜 엄마들이 인간의 본능과 자연의 법칙을 위반한 존재로 처리되는 반면 훌륭한 엄마들이 숭고한 존재로 찬미되는 세상의 상벌원리에 대하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온 것이다.

부덕을 택한 어머니

주요섭의 단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어머니는 일부종사의 계율을 잘 지켜냈다. 이 어머니는 결혼 일 년 만에 남편을 잃은 청상과부로 옥희라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 청상의 외로움 속에서 모처럼 연정이 솟아오를 계기를 만난다. 어머니 방에서는 닫혀 있던 풍금 덮개가 열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사랑방 손님」을 향한 연정의 갈등 앞에서 어머니는 이성적이다.

“...옥희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옥을 한단다. 사람들이 옥을 해. 옥희 어머니는 화냥년이다. 이러구 세상이 옥을 해. 옥희 아버지는 죽었는데 옥희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두 하지. 이러구 세상이 옥을 한단다. 화냥년의 딸, 이러구 남들이 옥을 한단다.”(주요섭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리고 나서 풍금의 선율은 조용해졌다.

화냥년이라는 세상의 욕이 두려워서 옥희 어머니는 ‘깨끗하게 혼자 살기로’ 결심을 했을 것이다. 이 어머니에 대하여 한국여성의 아름다움, 절제의 미학 운운하는 찬사가 붙는다. 만약 ‘화냥년’이라는 세상의 비난이 없다면 옥희 어머니의 결심은 달라졌을 것이다. 사랑방 손님을 따라서 그 손거리를 탈출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면 어찌했을까? 옥희 어머니는 예쁜 여자, 화냥년 등등 악의에 찬 비난 속에서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해야 했으리라.

한국문학사는 옥희 어머니에게 화냥년이라는 세상의 욕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확인케 하고, 청상의 서글픈 미학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성의 체험이 생략돼 있는 듯하다. 옥희 어머니의 생각과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하튼 옥희 어머니는 사랑하는 ‘외간 남자’에게 달걀을 삶아서 들려보내는 것으로 순결한 부덕의 미학을 완성함으로써 ‘최우수상’의 모성상을 받아낸 여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 삶에 드리울 길고 깊은 그림자

를 보며 가슴 정한 ‘여자의 길’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표현한 엄마의 비참한 말로

자신의 욕구에 충실해서 훌륭한 엄마의 길을 벗어난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어떤 비운이 닥치는가를 알면 어떤 여자라도 그 길을 비껴가고 싶을 것이다. 비록 자신을 좀 죽이더라도 말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정월 나혜석을 꼽을 수 있다.



나혜석의 자화상

나혜석이 유명한 건 크게 두 가지로, 화가로서의 명성과 이혼 사건이다.

30년대 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나혜석의 이혼 사건은 유명인사의 간통 사건에 불과하다. 파리에서의 간통으로 정월은 이혼을

‘당’하고 거리로 쫓겨나 비명횡사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당시 가부장제의 한국사회는 예술천재 한 명을 이렇게 가혹하게 치단해 낼 수 있었다. 그가 어머니의 부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말이다. 그는 이혼당할 때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 색이 느껴지면 색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당당한 여성이었다. 그의 주장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머니는 ‘무성(無性)’의 존재여야 한다는 ‘모격’의 법칙은 그의 주장을 나쁜 여자의 궤변으로 만들어갔다. 마지막에 남긴 정월의 명석한 유언을 보라.

“4남매 아이들아. 에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에미는 과도기의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이었더라.”

그는 진정 시대를 잘못 만나 불행하게 죽어간 선각자였다. 지금 나혜석을 새롭게 조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선 여성의 이름으로 그의 비운을 애도하는 비석이라도 세워야 옳을 일이다. 또 천재를 미개한 도덕률로 사장해 버린 우리 사회가 우선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여자가 아니었다면 멋쟁이 ‘한량’이 됐을 여자

어머니가 인간의 본성과 욕구에 충실할 때 이렇듯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 그래도 여성들은 인간의 욕구를 칼로 무 자르듯 거세할 수는 없었다. 심청전에 나오는 뽕덕어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부도덕한 여자이다. ‘뽕덕어멈’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 그도 역시 어머니였던 모양이다. 들리는 말로는 그에게도 자식이 있었는데 무지 착했다. 뽕덕어멈은 사기꾼이고 호색가이고 철면피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여자라는 짐을 벗기고서 보면 뽕덕어멈은 대단히 자유로운 인간이었던 것 같다.

“밥 잘 먹고 떡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술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받아다 저 혼자 싹껏 먹고
시원한 정자 밑 옷통 벗고 낮잠 자고—

.....
여자 보면 내외하고 남자 보면 행궁 웃고
코 큰 총각 유인하야 밤낮 거시기하고...”
(관소리 〈심청가〉 중)

이혼바 ‘제비족’이 갖춰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춘 여자였던 모양이다. 이런 여자에게 돈 있는 봉사 한 명 정도야, 푸짐한 밥상에 불과했을 것이다. 특히 성욕이 풍성한 여자였다. 당시 전통사회에서 여자의 자아실현의 길이 꼭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여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길이라는 게 별달리 있을 리 없었고, 성욕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니, 자유로운 여자들의 자

기표현은 흔히 성적 욕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뽕덕어멈의 왕성한 성욕은 닫힌 사회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자기표현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런 여자들에게 무성의 존재인 어머니로서 살아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마치 변강쇠 같은 남자에게 신부로 살아야 한다는 주문과도 같이 무력한 것이리라.

권력의 경쟁자를 제거하려 했던 엄마

나쁜 엄마 열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일급 주인공은 역시 계모들이다. 전처의 자식을 구박하고, 버리고, 죽이기도 한다. 백설공주의 어머니도 전처의 딸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다. 거울이 답한 미모의 경쟁자 백설공주를 죽이고자 독사과를 먹이는 아비한 행각을 벌였다. 많은 사람들이 백설공주의 선함과 미모에 정신이 팔려서 이 동화를 읽고, 그 계모의 사악함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모의 입장에서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라. 전처의 딸, 남편인 왕의 직계혈통이란 그 자체가 막강한 권력의 기반이다. 왕비쯤 된 여자가 권력에 대한 계산이 없을 수 없다. 백설공주가 자라서 여왕이 되면 그 남편이 왕이 되면 간에 왕위를 계승한 후의 자신의 입지를 생각해 본다면 계모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권력기반 구축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백설공주란 존재는 더할 나위 없는 위협인 것이다. 남자를 중심으로 한 왕족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모왕비의 살해음모는 권력투쟁의 세상에선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백설공주 이야기의 근간이 되었을 권력관계는 보지 않은 채로 단지 어머니라는 것대로 그 왕비의 사악함만을 생각해 왔고 더 나아가 모든 계모들에게 악한 여자의 원형을 덧붙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콩쥐의 새엄마, 장화홍련의 새엄마들은 좀더 원색적이다. 이들이 딸을 구박하는 방식은 1차원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뿐인가? 아이들의 동화책에는 계모가 아이들의 수난을 가져오는 가장 빈번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그 결과는 여자들이 엄마 노릇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분명해. 계모라면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구박할 리가 없어"라는 말이 있다. 계모가 된 여자들은 계모의 사악함을 반증하고, 예외적인 계모가 되기 위하여 초인적인 헌신의 노력을 해야 했다. 친모들이 자연스럽게 얻고들어가는 착한 여자의 프리미엄조차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혼한 여자들 중에는 아버지와 딸의 밀착관계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밀착관계도 여자를 괴롭게 하지만, 부녀의 밀착은 더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궁궐의 계모, 장화홍련의 계모들이 사악해진 데에는 물렁한 아버지들의 공헌도 있을 것이다. 새 아내를 얻었지만 전처 아이들을 아내보다 더 싸고도는 남편이라면 새 아내는 몹시 불안해질 것이다. 백설공주의 계모에게 적용했던 권력적 맥락의 추론을, 한 가정 안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면 계모들의 악행도 결국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짓이라고 해석해 변호할 만한 일이다.

부계혈통에 복수한 악모

조선조 숙종 때 회빈 장씨는, 여자가 권력을 잡을 때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표본이다. 회빈 장씨는 숙종 후대인 경종의 생모로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회빈으로 강등되는 수난을 겪고 끝내 사약을 받았다. 자세한 역사적 사실이야 어떻든 회빈 장씨는 권력욕이 발달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왕비의 지위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다가 숙종의 마음이 변하여 다시 회빈으로 강등되는 수치를 겪었을 때는 사무치는 복수와 원한의 칼을 마음 속에서 갈고 있었을 것이다. 숙종이 사약을 내려 죽음을 명했을 때,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숙종은 처음에는 회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렸으나 약사발을 던지고 사사(賜死)를 거부하였다 한다. 이에 숙종은 친히 회빈 장씨

의 거실에 가서 그 문판을 때어 장씨의 몸 위에 덮어놓고 수십 명의 궁녀를 시켜 밟아죽였다고 전한다. 한편 『인현왕후전』에는 역지로 사약을 회빈 장씨의 입에 부어넣어 죽였다고 서술되어 있다."(『한국여성사』 1권 360쪽)

여성과 권력은 부정적인 관계로 묘사된다. 특히 어머니는 무성, 무욕(無慾), 헌신의 존재이다. 그러나 종종 역사 속에서는 권력욕에 불타는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에게 자식은 권력쟁취의 최고의 도구가 되곤 한다. 이상한가? 여성을 어머니로 보지 말고 인간으로 보면 하등 이상할 게 없다. 인간에겐 권력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자기과시욕도 있다. 어머니가 인간의 범주 중 하나라 생각하면 어머니라 하여, 여성이라 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을 피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또 어머니는 잔혹하기도 하다. 제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을 해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회빈 장씨는 사사(賜死)될 당시 14세가 된 왕세자(경종)의 고환을 잡아당겨 이로 말미암아 경종은 생식능력을 상실한 성불구자가 되었다고 한다. 경종이 결혼한 지 16년 만에 왕위에 올랐으나 소생을 보지 못하였고 늘 병약하고 고질의 병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경종은 부친 숙종의 후궁 소생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으로 후계자 문제를 확정했다는 것이다(『한국여성사』 1권 361쪽).

자신을 출세시켰지만 자신을 멸망시켰고, 자신에게 사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보통의 인간은 복수를 생각할 것이다. 권력욕이 발달한 인간이라면 그 원한은 더욱 사무치고 복수심은 더욱 강렬할 것이다. 회빈 장씨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부계혈통의 소생을 생산하는 데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복수의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고의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던 집요함이 반대편에 서면 복수를 위해 자식을 해치는 악독함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자기 자식 4명을 죽인 여자 이야기도 있다. 메데아,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조국의 왕 아버지를 숙일 만큼 뜨거웠던 여자. 남편의 나라로 왔으나 냉대 속에 지내야 했던 메데아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끝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모조리 죽인다.

자기 자식을 죽이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된다. 신문에서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엄마들의 이야기이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이 엄마들의 손에서 죽어갔다. 여자 중학생도 있고 가난한 여자도 있고 미혼모도 있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여성도 있고 윤락녀도 있다. 이들 모두 기를 대책이 없기에 죽였다고 말한다. 이들을 잔인한 범죄자라 손가락질할 것인가? 이들

에게 생명의 존엄을 설득할 것인가? 고관대작들의 집에는 무수한 보석과 현금이 쌓여 있다는 나라에서 미혼모나 윤락녀들은 왜 자기 자식 한 명을 기르는 데에 절망하고 죽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야 했을까? 개인의 부도덕을 탓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야 할 부분이다. 생명을 부여받고 태어난 아기들을 거두지 못하는 사회적인 무책임이 개인의 부덕 이전에 질타되어야 할 일이다.

'인간의 이름'으로 포용되어야 할 나쁜 엄마들

역사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엄마들이 존재한다. 명백하게 사악한 엄마에서부터 모범적인 엄마 노

한가위 KOREAN RESTAURANT

어머니의 정성을 한상에 담았습니다

역삼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스포월드 골프연습장 후면에 자리한 한가위는 순수 토속 음식 정이다. 여주인 이혜자씨의 음식에 대한 자존심과 솜씨도 뛰어나지만 3개국어에 능통한 이씨의 외국어 실력 때문에 해외 손님들 집대하기에도 적격이다. 편안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의 별실을 여러개 갖추고 있으며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아 한층 입맛을 돋운다. 한가위의 토속적인 맛은 밀반찬에 있다. 각종 장을 직접 담그며 산지직송한 무공해야채를 쓰는 등 최상의 재료선택에 큰 비중을 둔다. 낮에는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 심비로 점심식사를 내놓고 있다. 신선한 해물로 끓인 해물 된장찌개가 5천원, 불린 닭콩을 맛물에 갈아 돼지갈비와 삶은 우거지를 넣고 구수하게 끓여 새우젓 양념에 간을 해 그 맛이 일품인 콩비지도 5천원이다.

특히 외국손님들에게 인기가 높은 영양돌솥밥(8천원)은 약수에 인삼 삶은 콩로 밥을 얹혀 밤, 은행, 대추, 인삼, 단호박 등이 들어가며 구수하고 담백한 된장찌개가 곁들여 나온다. 한가위의 자랑인 간장 계장 등의 밀반찬은 피로에 쌓인 도시인들의 잃어버린 입맛을 만족시켜주기엔 손색이 없다. 고향집 안방같은 분위기에서 깔끔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값이 싸서 오히려 손님들에서 미안해하며 해물파전이나 복어찜 등을 따로 청해 들기도 한다. 한가위에서는 잃어가는 우리의 토속미각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 나오는 요리 중심의 한정식 또한 어느 것을 들어도 입에 잘 맞는다. 이밖에 술안주감으로 내놓는 모듬전, 굴전, 해물파전, 복어찜, 제육 굴보쌈과 홍어찜 등도 정성을 들인 깔끔한 먹을거리들이다. 자체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연중무휴다.

예약문의 : 555-8375

뜻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일그러진 엄마에 이르기까지 나쁜 엄마의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다.

나는 이 나쁜 엄마들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포용되기를 원한다. 엄마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훌륭한 모성'이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다다르기 힘든 초인간적인 모습들이다. 거의 모든 인간적 욕구를 부정하는 고행 뒤에야 다다를 수 있는 곳에 훌륭한 엄마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아래서 엄마들은 '잘못됐다'는 느낌으로 갈등하고 위축되며 불안해하고 있다.

나쁜 엄마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우선 여성들 자신이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인간은 사악하기도 하고, 욕망이 앞서기도 하며,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또 드문 경우지만 한없이 숭고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헌신적일 수도 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이런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이 '엄마라는 이름의 인간'에게도 예외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나쁜 엄마들의 이야기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들을 여성 자신의 이야기로 조명해 볼 때 우리들은 인간의 다양성을 알게 되고, 엄마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이해하게 된다. 나쁜 엄마들을 변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간의 이름으로 포용하자는 것이다.

나쁜 엄마 아래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렇다. 내 친구 한 명은 고아원의 교사로 일한다. 그 고아원에는 미혼모의 아이도 있고 엄마가 아이들을 버린 기아도 있고, 또 진짜 고아도 있다. 가끔씩 '엄마'라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오는데 그 전화를 받는 아이들의 자세를 보면 가관이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버려진 존재라는 생각 속에 성장한 아이들,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엄마를 엄마로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라. 이들의 엄마에 대한 불신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불신을 용해시키지 않는 한 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아이들이 나쁜 엄마와 화해하는 길은 '엄마도 인간'이라는 걸 이해하는 시점일 것이다. 비록 자신의 엄마가 사회가 기대하는 바와는 다른 길로 살아갔고, 때로는 비난을 받았고, 때로는 자신을 버리고 학대했겠지만, 그것만이 엄마라는 존재의 모든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독립된 인격체로서 엄마와의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쁜 엄마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자유와 힘을 얻는다. 엄마를, 사람을, 여자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 엄마에 대해 무수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 많은 이야기에 정작 엄마가 침묵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엄마로 살아온 여자들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자. 그 맥락 속에 나쁜 엄마들이 존재한다. ■

김효선

이대 여성학파 대학원 졸업,
현재 여성신문 편집국장



김효선

이 땅의 여성 여러분—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왜 왜 주인노릇을 못하지요?

그 이유와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은광순 시집

어느 안티미스코리아의 반란

내가 숨쉬고 싶은 세상은 폭력과 비아냥이 없는 사회, 차별과 불공정이 없는 사회이다. 호주제라고 하는 악법이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보다 우월하며,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는 존재이다'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아름다운 전통이며 명절이며 제사라는 것이 여성을 도구로 하는 과거지향적 남성문화로 고착되어있는데, 그래서 쓸데없다며 일년에 3만명씩의 여태아를 골라서 죽이고 있는데, 집안의 성차별이 집밖의 성차별로 확산되어 있는데, 내가, 우리들 여성이 어떻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살 수 있겠는가. - 머리말에서 -

고은광순 지음 / 값 6,000원

인물과사상사

전화 471-4439 팩스 474-1413 우편 134-600 서울 강동 우정국 사서함 164호

홈페이지 <http://www.inmul.co.kr> e-mail: PRONDEA@han1.net

어머니의 독이 아들을 죽인다

한국사회 모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

4 는 우리에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한다.

간혹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어머니를 한번 불러보시지요"라는 진행자의 목소리를 접할 때가 있다. 그리 낯설지 않은 대사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남자들이 주로 남자다. 나는 한 번도 여성이 이 요청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은 "어머니~!" 하고 한스럽게 외친다. 또 한때 텔레비전 인기프로였던 <우정의 무대>에서 진행자 코백이가 "자, 다 같이 어머니를 한번 불러봅시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득 모인 씩씩한 군인들이 "어머니~!"라고 외치는 장면을 독자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나는 한번도 한국 여자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남자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이 애타게 부르는 어머니와 실제 있어야 할 어머니와의 사이에 엄청난 괴리현상을 본다.

만약 내 아들이 나를 저렇게 부르면 소름이 끼치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기에 저 아이가 저렇게 한스럽게 부를까' 싶어 두 눈을 크게 뜰 것 같다.

한국남성들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한 명씩 들어있다. 몸집이 아무리 건장해도 상관없다. 웬일일까?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잡히는

것일까?

내가 들었나?

아들을 떠받드는 가부장제는 '떠받들기만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잘난 아들들의 영혼을 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한스럽게 부르며 울부짖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아들에 매달려 집착했던 대가로 아들들의 영혼은 자라지 못하고 거지들만 잔뜩 들어찬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거지들이 아내와 딸에게 구걸하고 흡혈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내와 딸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시 다른 여성들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희생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달기까지 50여 년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다.

"어머니~"를 외치는 남자들

생명은 죽는 날까지 당당한 어머니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머니로부터 오는 '정서적 기반'이 약하면 절대로 그 아이는 당당하게 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어머니가 겨우겨우 가족논리의 켄



바퀴만 열심히 돌리고 있으면 절대로 그 아이에게 '인간정신'이 생겨나지 않는다. 사회성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이 이유가 바로 왜 여성을, 어머니가 될 여성을 억압해서 키우면 안되는가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또 이 이유가 가부장제와 호주제도는 왜 안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아직은 어머니가 없다라는 발언을 감히 한다. 여성에게는 더더욱 없다. 어머니들은 딸을 남의 집 사람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그 뿐인가? 한국 아낙네들의 스타일과 언어는 어찌 보면 그렇게 비슷한 뿐일까? 어찌 보면 쓰는 언어가 그토록 평면적일까? 어찌 보면 그렇게 정신이 이익에만 가 있을까?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 같이 제사라면 사죽을 못을까?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들에게만 가 있을까? 어찌 보면 그렇게 공격적인 마음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그렇게 자식에게 먹으라는 소리와 돈 얘기밖에 할 줄 모를까?

그렇다면 교육받은 여성들은 이 뿐에서 해방되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중산층여성들도 이 뿐을 기본적인 뿌리로 딛고 자신들의 나무를 키우고 있다. 그들에게 있었을 정신 영역은 과연 누구에게 빼앗긴 것일까? 그들의 혼은 과연 어디로 증발해 버린 것일까?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은 여성 자신이 만들어낸 현상일 리가 없다. 그렇다. 이것은 가부장제라는 귀신들의 장난이다.

그러니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이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이유가 돈인가? 손만 댔다 하면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가 돈 문제인가? 온 산천을 쓰레기더미로 만드는 것이 돈 문제인가? 온 산천을 무덤으로 뒤덮어버리며 몸을 잡는 게 돈 문제인가? 남의 자식(여성)을 호적을 바꾸어 내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돈 문제인가? 여성을 희생의 개념으로 보는 것

이 돈 문제인가? 여성을 온전한 인간으로 늙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시선이 돈 문제인가? 한 반에 60명을 때려놓고 등수를 매기는 게 돈 문제인가? 남성이 결혼하면서 자신들의 가족까지 창피한 줄 모르고 끌고 오는 것이 돈 문제인가?

이렇게 의식 없음, 천박함은 바로 우리 사회에 당당한 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강자의 논리인 가부장제 귀신이 어머니의 영혼을 빨아먹었기 때문이다.

나의 두 어머니

나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른들의 언어 때문에 너무도 내적인 고통을 하며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두 어머니(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들은 내가 필요한 언어를 내게 한번도 공급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이프 7호 「나의 제사적과기」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17살에 그 당시 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남편과 만나 그로부터 6년 후에 결혼하였다.

그 당시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시키는 결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부모님은 나를 돈이 엄청나게 많고 권력이 있는 아버지 친구 집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애를 쓰셨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 결혼하면서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섰다. 웬일인지 그 때는 아버지를 따라가면 죽어버릴 것 같은 위기를 느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런 나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미모를 대단하게 믿고 있었고, 그 시대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듯 어린애스럽도록 무식했고 또 끊임없이 반항하는 나를 조정할 언어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아버지와 오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랑감으로 생각하는 남성관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남성관으로 본 내 신랑감은 너무나 생소했고 너무도 나이가 많았고 너무도 가난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스승이었다는 것도 어머니의 윤리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나는 어머니의 첫딸이었고 어머니의 허영심은 귀한 첫딸을 그런 곳에 내주기에는 너무나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에 젖어 있었다. 나는 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또 내 지고지 순한 사랑의 자존심을 그렇게 박살을 내버린 어머니에게 분노했다.

그 때 어머니는 위험한 생각까지 했다. 임신한 아이를 유산시키고라도 이 결혼은 안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강제로 산부인과로 끌려갈 뻔했다. 나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가없게도 어머니는 그것이 자식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신 거다. 그건 훈련된 사랑이 아니다. 만약 어머니가 훈련된 주체적 언어를 쓸 줄 알았다면 나는 같은 상황에서도 그토록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 시어머니에게서 절망감을 느꼈던 때가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하는 줄 아나" 하는 말을 했을 때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일이 잘 풀린다면 나도 매일 기도만 하겠다. 그러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런 말보다는 "너희들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뿌듯하다"라는 말을 해주기를 더 바랐다.

"그런 너 자신에게 공평하지 않아"

나는 사실 유학시절 시부모로부터 라면 한 봉지도 또 그 정도의 언어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어디 그것뿐인가? 되레 돈을 보내도록 압력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시댁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의 뼈아픈 한숨소리를 들어야 했던 기억도 갖고 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 낯선 땅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린 나에게 전화를 해서 "그들 부모 안 모실려고 도망간 거제! 너는 좋겠다. 내 아들 따라 미국 가서 사니 너는 좋겠다!"라고 외쳐댔다. 나는 그 때도 그 말이 얼마나 부당

나는 시어머니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나'
하는 말보다
'너희들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뿌듯하다'라는 말을
해주기를 더 바랐다.

한 것인지 몰랐었다. 그냥 천근만근 내려누르는 그 빌어먹을 놈의 죄의식에 시달림을 받았을 뿐이다.

내가 결정적으로 시대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 그리고 내가 시대호적에서 내 이름을 제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15년간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특이하게 느꼈던 언어 중에서 'Oh! No! It's not fair for you'라는 말이 있다. 그들은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 누군가 희생을 하려고 하면 그들은 "그것은 너 자신에게 공평하

지 않다"라는 말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사실 자라면서 이처럼 감격스럽고도 인간적인 합리성을 쟁취한 언어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을 쓰면서 공평성을 배워나갔다.

나는 이 언어가 우리 사회에도 종종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의 피를 빨아먹고 싶어 전전긍긍이다. 상까지 쥐가면서 부추긴다. 상을 줄 정도로 좋은 일이라면 제 자식부터 그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상을 왜 남자들이 독차지하려고 아우성이지 않는가? 결국 여성 중에서도 최고 약자인 여성에게 이 상복을 강요하고 있다.

누군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면 거지들처럼 두 눈에 전등불을 켜고 달려든다. 그리고 "고생이 많네, 그러나 우짜노, 여자니까 해야지" 하며 으히히 웃는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남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생이 많다고 생각되면 그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어찌자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한 생명체에게 강제로 뒤집어씌우는가? 우리는 그런 일을 고양이에게조차도 하면 안된다. 도대체 공평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이 거지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나는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남성들의 눈빛 속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이 거지의 모습을 본다.

남성은 거지가 아니다. 남성은 빛나는 영혼을 가진 동물이다. 그러나 마음 속에 거지가 잔뜩 들어 있을 때 남이 희생을 하면 입이 함박만큼 벌어진다. 그 장면은 웬일인지 남의 희생의 피를 빨아먹고 입가에 피를 묻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서 있는 드라큘라를 연상하게 만든다. 결국 어머니가 잘못 가르쳤고 어머니가 아들의 마음 속에 한을 심어주었다. 이 한은 희생의 피를 빨아먹고서야 휴식을 취하는 성질의 심리적 문제다.

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으려면 내가 희생하려고 몸을 잡더라도 '안된다. 그건 너 자신에게 공평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 만약 그랬다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풍부한 빛을 발하며 그 집안 사람들과 후손들을 돌봤을 것인가.

남성은 거지가 아니다

시어머니는 울음으로 내 20대와 30대의 내면세계를 황칠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너무도 깊은 상처를 나에게 남겼다. 시어머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울음을 울어 나의 내면에 상처를 남겼다. 그 울음을 해결하려면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나는 아마 평생 그 황칠을 벗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그토록 막강한 권력자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시어머니를 시종일관 불쌍하게만 보아온 것이다.

그러니 우선 이 사회 전체를 명들게 하는 효의 개념을 극복해 내야 한다. '효의 개념'은 어른이 어른인 것을 포기하는 개념이다. 그 말은 우리 사회를 씨족사회로 머무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으실 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 내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이를 효도의 개념으로 키우고 교육시키고 바라본다면 이 아이의 영혼은 나를 돌아보느라고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부모는 아무도 낳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한 생명체를 자신들의 결정으로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키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 아이를 가정에서 사회로 마음껏 헤엄쳐 나가도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있었겠느냐"라는 언어는 마치 자식에게 '나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빛을 길어라. 그러므로 효도하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한국의 남성과 여성들은 부모들을 몰아낼 정신적 힘을 가져야 한다.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부모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짐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정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른임으로, 어른은 무엇이 옳느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를 넘어 설 수가 있다. ■

이하천

충북 제천 출생. 20~30대에 걸쳐 15년간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

7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 한국문인협회에서 동인활동을 시작해 그곳에서 60여편의 시를 지상에 발표했으며, 연술가 이장성 선생과 함께 토론토에서 극단 〈열〉을 창단하고 연극활동도 했다.

90년 이후 부산 근교에 여섯 가지 '해방개념'이 들어간 실험집을 짓고 그 곳에서 여러 종류의 동물과 생활하며 글을 쓰고 있다.

소설 『조용히 살아라 대지는 깊이 잠들지 않는다』(통나무 출판), 『불타는 대지』(중앙)를 낸 바 있다.



딸들아! 엄마도 사람이데이

60대 엄마의 인간 선언



“엄마, 그 때 엄마가 훌쩍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갑자기 떠났을 때 그 심정을 이제 알 것 같아! 우리 셋 키우며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 결혼생활 10년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딸은 그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엄마의 반란’을 이제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알겠다는 표정이다.

어머니들은 남편도 몰라주고 아들도 몰라주는 그 답답한 여자살이의 한을 딸에게서만은 이해받고 싶어 한다. “너라도 날 좀 알아주라”는 심정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심정은 때때로 생판 모르는 며느리에게 같은 기대를 하게 되며, 이 기대가 지나쳐서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하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 미움으로 치달기도 한다.

딸들아, 우리가 엄마로만 보이니? 아니면 너희들같이 꿈이 있고 나름대로의 시간과 인생을 즐기고 싶은 사람으로, 여자로 보이니? 뭐 우리가 하는 말이 우습다 이거지?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엄마는 엄마 그대로가 좋다고? 그래, 너희들도 가끔은 엄마를 여자로,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가 있지. 그렇지만 너희들의 이해가 달려 있는 문제에선 아주 냉정하지. 엄마 나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있어줘. 엄마가 좀 포기해 줘.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평생 너희 아버지 하자는 대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고 희생하고

그러다가 이 나이가 됐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라서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했으니 이제 손주도 보고 보람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 보람 있지.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게 아니야. 아들 딸 잘 되고 살 집도 있고 행복하지, 그래 행복해.

그렇지만 딸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있잖아. 우리도 이제는 책임이 엄청 무거운 엄마노릇은 그만하고 가볍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고 싶다는 거야. 이런 말 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 홀로 집에’ 좀 쉬고 싶다 이거야.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돌아가보고 싶다고. 그래, 이해하기 힘들 거다. 너희들에게는 ‘한번 엄마는 영원히 엄마’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콕 박혀 있어서 우리를 보면 엄마 외의 다른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울 테니까. 그래도 이제부터는 엄마노릇 속에 가려져 있는 인간을 봐야 해. 사

실은 우리는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 홀로 집에’ 좀 쉬고 싶다 이거야. 오랜만에 나 자신으로 돌아가보고 싶다고.

실은 그게 나야. 진짜 나.

엄마도 딸이었던 때가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 권리가 대단하셨어. 당신 딸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셨고, 마음대로 쥐고 흔드셨어. 우리 엄마는 당신의 딸들에게 엄마이기만을 고집하셨지. 나중에 키워주고 교육하고 시집보내 준 유세가 대단하셨어. 딸이지만 가르쳤다는 거지. 당당히 어머니의 권리를 요구하셨어. 어떤 때는 빗쟁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부모인데 어쩔 수 없잖아? 복종하며 사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배운 것이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는 나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어머니들에게는 “다정한 모녀사이”라는 말이 맛이 간 소리로 들리는 거지. 드라마 〈아들과 딸〉 봤지? 후남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말도 못하게 구박을 받고 억울하게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차별을 당했잖아? 엄마에게 그런 고초를 당한 후남이들이 어떻게 엄마와 ‘다정한 모녀간’이 될 수 있겠니? 딸로 길러지면서 어머니를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어른이 되었다고 그것이 그냥 없어지겠니?

아들중교의 광선도격인 귀남이 엄마가 세월이 흘렀다고 갑자기 딸이 살갑고 예뻐서 다정한 모녀간이 되겠니?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아버지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들신양에 매달린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관계해소는 힘들어. 물론 시집살이로 고생한 ‘여자 일생’을 못 면할 딸에 대한 연민이 없어야 했겠어? 어머니의 이중성이 뻔히 들여다보이지? 사연이 어떠한 ‘다정한 모녀사이’라는 선전문은 단순히 억압적인 불편한 모녀관계를 은폐하는 신화의 냄새가 짙게 난단 말이야.

성차별적인 경험으로 성장기를 거친 육십 전후의 딸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물어봐. 혈육

관과 착한딸 콤플렉스. 효 사상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말 못하고 가슴 속 깊이 감추어두었던 어머니에 대한 용어들이 나이 먹으면서는 밖으로 거침없이 분출되더라니까. “솔직하게 나는 우리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난 우리 엄마 좋아하지 않아. 엄마하고 별로 정이 없어. 엄마 생각 하면 지금도 가슴에 불이 올라와” 등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는 여자들이 많아. 나이들고 늙어지면 감정도 삭고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딸의 어머니에 대한 애증이고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에 대한 시집살이 한이더라!

나와 내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면 차별받고 구박받은 경험이 없는데도 말이 안 통하고 정이 잘 안 통하거든. 너희들에게는 좋은 외할머니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정도 많고 잘 해주셨는데도.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딸이란 틀 속에 집어넣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한 어머니에 대한 억압된 기억 때문일 거야. 그리고 어머니의 그 이중성이 나를 질리게 했거든. 물론 내게도 문제는 있어. 어머니를 대하면 모녀사이를 속으로 자꾸 빠져버린단 말이야. 내쪽에서는 어머니를 여성 의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판판이 빛나가고,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상에 고착되어 자식을 분리시킬 줄 모르고, 해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 적이 없어. 어머니는 나를 못된 딸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고분고분 당신 말을 긍정하면서 안 들어주거든.

그렇다면 우리 세대 모녀관계는 어떻게? 모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 자연스럽게 저절로 다정해지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세대가 충분한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일이고... 우리 딸들은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물론 계층별 가족별 개인차가 있겠지.



어머니? 우리 딸들은 엄마가 전통적인 어머니 자리에 계속 남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어머니들이 자기의 생활을 위해 이 틀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자녀들의 불평이 쏟아진다고 고충을 털어놓더라고. 예를 들면 자기네 시집에 친정 어머니가 '제대로' 해주기를 은근히 눈치를 주며 바란다는 거야. 아니면 자기네 결혼생활의 윤활제 및 완충조절제로서 장모노릇을 잘해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적지 않다는 걸 들 수 있겠고, 그외에 어머니의 희생정신을 사당하지 말고 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십사 바라는 것도 들 수 있지.

최근 새로운 풍조로 떠오른 어머니 노릇 가운데 특기할 만한 노릇은, 시집우선 사상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결혼한 딸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육아가 드거운 감자로 떠오른 거 알지? 어머니 역할이 줄기는커녕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나서 고민인데 거기다가 신(新)어머니 역할까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딸이 시어머니에게 직장생활 금지령을 받지 않고 시어머니 귀찮게 하지 않고 자손 잘 키우는 묘안으로 자청타청 친정어머니가 '싫어도 다시 한번'의 모모직을 수행하게 돼버린 거지. 아들 손주는 사돈마님이 키우고 나는 또 딸 자식 키우고, 결론적으로 다 늙은 어머니들 고생이 널줄째 주렁주렁 열렸단 말이지.

우리 사회, 국가는 여성인력 쓰고, 육아는 노인네에게 떠맡기고 핑 먹고 알 먹고 체면이 그래서 되겠어? 우리 세대가 안 먹고 안 입고 딸들을 고등교육시켜 사회

에 내놓았으니 똑똑한 딸들이 데모를 하든지 국회를 가든지 알장서서 목청껏 소리를 내고 해결해 봐야 할 게 아닌가!! 우리 어머니들도 (급하니까) 힘껏 도움 거야. 모녀간에 걸린 육아문제 다정한 모녀들이 뭉쳐서 해결해 보자. 명심해!!

우리는 애 키워줬다고 유세 떨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들처럼 자식들에게 빚 독촉하듯 기대어 살 생각도 애당초 없어. 바람이 있다면 자네들도 우리들에게 수퍼마더가 되어주십사 하는 곤란한 청탁일랑 자제하고 자네들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 경험으로 역할변화는 양쪽이 함께 노력해야 상처도 적고 관계도 좋아지지. 단 자기개혁에 따르는 고통은 감수해야 해. 모녀, 고부, 시누이 율제가 가부장적인 상하 가족질서와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용기 있게 포기할 각오를 가져야 하겠더라고. 아들 결혼 때 시어머니의 기득권을 포기해야지. 아니면 들고 돌아서 다시 자기가 당하니까. 대신 젊은 세대인 딸들도 노력해야지. 어머니의 딸로 남아 있지 말고 성인으로 독립해서 자기네 삶을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딸들이 '역할' 보다는 인간으로 만날 수 있다면, 서로의 형편을 이해해 주고 서로(일방적이 아니라) 돕고 지지도 해주고 하면서 의지하고 살 수 있다면, 정말 다정한 모녀 대량생산체제로 돌입하겠지? 얼마나 근사해. **II**

구윤모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모두 출가시키고 분당의 산 밑에서 살고 있다. 딸을 여럿 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딸들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한다. 난 딸을 하나 둔 덕에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도 부족하여 내 딸과의 관계밖에는 모른다. 여성학을 공부했고 요즘은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노년의 삶에 관심이 많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조안 라이언 / 박광순 · 유현숙 옮김 / 각권 6,800원

아버지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링컨에서 빌 코스비까지 52명이 쓴 인생의 지혜

요즘 주변에서 접하는 고개 숙인 아버지 이야기가 아닌 진취적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들에 대한 신선하고 진지한 이야기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의 격랑을 헤쳐나갈 힘을 주는 소중한 책!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모음!

- 책 캔필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어머니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케네디가에서 키플링까지 58명이 쓴 인생의 지혜

조금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머니 이야기가 아닌 재치있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이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위하여 한 번쯤 읽어야 할 책!

어머니의 젖이나 닭고기 수프처럼 영양가가 풍부한 책!

- 책 캔필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저자



일본군 위안부 김순덕 할머니의 작품 <꽃다발 꽃>

한(恨)만을 남기고 가야 하네

전 일본군 위안부 김순심 할머니의 모녀 3대 이야기

칠 부지 어린 소녀 왜놈에게 끌려가
성노예가 되었던 몸 한(恨) 맺힌 사연들.

추억을 더듬으면 한(恨)만이 쌓여 있네.

아련한 추억 속에 맺힌 한
내 청춘 종점에서 한(恨)만을 남긴 채
한(恨)만을 남겨둔 채 떠나야 하나.

한 많은 나라 우리 한국전쟁 속에서 태어난 기구한
운명. 내가 배우고 싶었던 간호학교 영원히 가지 못한
채 한만을 가슴에 안고 세월을 보냈네. 어렸을 때 배우
려고 결심했던 간호학교, 일본군에게 끌려갔기에 영
원히 가지 못한 채 아쉬움만 남기고 가버린 세월 너무
나도 원망스럽고 한이 된다.

열네 살 어린 나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한 많
은 세월을 눈물로 보냈네.

원망스럽고 한스러웠던 내 어린 시절 그 악랄한 일
본군에게 밤이면 밤마다 성폭행을 당했고 내 몸과 내
젊음은 한만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네.

한 많은 내 청춘, 일 년 삼백육십 일을 하루도 변함없
이 일본군에게 시달리고 지옥 같은 나날을 혼자서 울
며 한 많은 세월들 가슴에 맺힌 사연들 그 말 한마디 누
구에게도 하지 못한 내 마음 한만을 남긴 채 살아왔네.

한 많은 내 젊은 세월들, 말 듣지 않는다고 두들겨맞
고 옷을 다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불구가 되도록 맞
고 살아온 내 몸, 가슴에 맺힌 한을 일본정부는 아는지.

일본놈에게 끌려가 두들겨맞고 온몸이 불구가 된
여인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내 몸, 평생을 불구가 된
채 살아야 할 내 육신, 원이 되고 한이 된다.

평생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야 했던 한 많은 여인네
의 인생, 성병이 남아 있는 몸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어미로 인하여 청각장애아로 태어난 내 딸, 누구에게
도 말 못할 어미의 마음, 나 혼자 울며 살아온 이 여인
내 심정, 한이 맺힌 내 가슴 속, 영원히 한만을 가슴에
안고 가야 하나. 병신 몸에 한이 되어 자식 낳기 원했
건만 그 몸에서 태어난 자식 병신으로 태어났네.

왜놈에게 맺힌 한을 어찌 풀 수 있겠는가. 한이 많은

시국에 태어난 여인네 한 많은 사연을 누구에게 하소
연하겠소.

정신대에 끌려가 멍이 든 몸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내 딸, 어미로 인하여 말 못하는 청각장애아로 태어난
내 딸 예숙,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나만이 알고 혼자
울며 살아온 내 아픔, 철천지한이 맺힌 내 마음.

한 많은 세월 속에 태어난 잊을 수 없는 가엾은 내
딸, 영원히 말 못한 채 이 땅에 남겨두고 나만이 가야
할 내 마음, 한 많은 세상에 살아도 할 말 못하는 내 딸,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한 많은
세월을 어찌 살리.

한 많은 내 어머니, 한만을 남겨
둔 채 영원히 가셨군요.

악랄한 왜놈들에게 어린 자식
빼앗기고 가슴 속 맺힌 한을 어찌
안고 가셨나요.

한 많은 세상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악마와 같은 왜놈에게 어
린 자식 끌려가 생사도 모른 채
세월을 눈물로 보내시며 살아오
신 우리 어머니, 화병으로 코 속
에 흑이 돌아나 숨도 잘 쉬지 못
하시고 고통을 받으시며 사시다



(배앗긴 순정), 김덕경

가신 우리 어머니, 그래도 당신의 아픔은 생각지 않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딸의 앞날만 걱정하시다 세상을
떠나가신 우리 어머니, 가슴 속 맺힌 한 어찌 잊고 가
셨는지요.

가시밭길 속에서 허덕이며 청춘이 만 리 같은 세월을
혼자 살고 있는 딸만을 남겨 둔 채 한 많은 세상을 가슴
에 안고 떠나가신 우리 어머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
지 못한 채 가슴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된 우리 어머니, 이 불효 여식을 용서하여 주세요.

한 많은 세상에서 태어난 정신대 늙은이 가슴에 맺
힌 한을 어찌 잊고 가겠소.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대 늙은이들 가슴에 맺
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는 없는지.

야속하고도 모진 일본군 일본정부.

한 많은 이 정신대 늙은이들의 한을 영원히 남기려나.
겹겹이 서려 있는 이 몸의 한을 누구에게 말하리오.
한 많은 이 세상을 눈물로 떠나리요.

멀고 먼 중국 땅 얼마나 울고 얼마나 외쳤는지.

내 가슴의 한과 눈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리.

풀뿌리만도 못한 내 인생 한만을 남기고 가야 하네.

한 많은 세월 속에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가엾은
내 딸만 남겨둔 채 어찌 눈을 감고 갈까. 한 많은 이 세
상에 누굴 믿고 가겠나.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11

김순심



이 원고는 전 일본군 '위안부' 김순심 할머니가 3월 25~27일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미주한인학생대회에서 '한'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기 위해 쓰신 원고이다. 이 강연을 통해 한인
학생들은 물론 비한인 학생들까지도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아이처럼 꿈
많은 표정을 지으시는 할머니,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하시고 난 이후에도 당신의 삶을 일기장에
차곡차곡 채기시며 또 다른 글을 준비하시는 할머니. 그럼도 그리고 싶고, 영어도 배우고 싶고,
널리널리 여행도 다니고 싶으신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맑은 꿈과 고귀한
인격을 간직하실 수 있었던 그 강한 생명력 앞에 설 때면 일종의 경건함까지 느낀다.

(이 필자소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조민아 간사의 글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 어머니”

정신의학계의 ‘엄마죽이기’ 이론

정신과 진료실의 낮익은 풍경 하나. 청년환자와 그의 면담이 끝난 후 보호자가 호명되어 들어온다. 부모는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의 모습이다. 아버지는 그래도 당당하려 애쓰지만 엄마의 표정은 가히 죄인의 표정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잘못 키웠는지...”로 시작되는 눈물과 자책으로 얼룩진 기나긴 고백을 듣는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옆에 있는 4월 30일자 신문에는 ‘사랑과 희생으로 다시 돌아온 당신’이라는 제목 아래 “무한한 인내로 자식과 가족을 지키고, 자식이 잘못하고 배신해도 감싸주는 희생의 어머니”라는 글이 보인다. 환자의 어머니는 이를 실천하지 못해 아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죄악’을 막 고백하려는 것이다.

풍경 둘. 월요일 늦은 오후 대학병원 정신과 의국 열 회의실. 정신과 증례회의(case conference)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으로 제시된 환자는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21세 남자환자이다. 레지던트는 두 달 이상 씩씩해서 얻어낸 자료들을 증상, 치료과정, 경과의 순으로 나열해 나간다. 그리고 가장 긴장된 순간. 그전 여태까지의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하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이론은 어려울 것 없다. 그

러나 정신역동적 분석은 매우 매우 어렵다. 환자의 증상 그리고 가족, 친인척들로부터의 정보를 다양한 이론들에 근거하여 해석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증례회의 시간의 클라이맥스이자, 레지던트가 얼마나 열심히 환자를 보고 공부해 왔는가를 만인 앞에 증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한 ‘피박살’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용어가 있으니, 그것은 정신분열원(原) 엄마(schizophrenogenic mother)이다.



즉 정신분열증을 만드는 엄마를 통칭하는 단어이다. 레지던트는 엄마의 문제점과 환자의 증상과의 관계를 정교하게 조직해 나간다. 주임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돌아본다. 그건 “excellent (아주 잘했다)!”를 의미하며 동시에 다른 레지던트에게 “재갈이 좀 해라”라는 몸짓이기도 하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찬란했던 내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나오는 한 장면이기도 하고 또한 현재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중의 하나이다.

정신분열증을 만드는 엄마

‘정신분열증을 만드는 엄마’라는 개념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정신의학계에서 원인론적 이론으로서 주류를 이루었다. 이 개념은 철저히 환경론적 입장에서 정신세계의 형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당시 후기 프로이트학파의 창립과 함께 사회적 조류에 극히 친화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신분열증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 혹은 성격적 특성에 대한 설명까지 엄마-아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예를 들어 강박성경증은 엄마가 대소변 훈련을 위해 잔혹하게 괄약근을 통제함으로써 항문적 성격이 형성되어 만들어진 질병이고, 동성애는 엄마가 가정에서 너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아버지를 가지절함으로써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성공적인 동일시를 하지 못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야뇨증은 어떠한가. 자신에 대한 사랑이 동생에게 이양되는 것에 따른 분노로서 엄마를 꿀당먹이기 위하여 한밤중에 이부자리에 쉬를 한다고 하였다.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은 엄마와의 초기 애착관계를 형성치 못해서 만들어진 성격이다. 자폐아의 경우는 이런 설명의 극치를 이루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냉담하고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엄마에 의하여 아이는 자기방어적 반동형성으로 자폐증에 ‘걸린다’고 하였으니!

가장 무자비한 해석은 아버지-딸 근친강간의 경우에 일어난다. 엄마가 성적으로나 아내로서의 역할에 무능하며, 딸에 대한 무의식적 적의가 있어 은밀하게 근친강간을 유발하거나, 성적 무능함을 보상하기 위하여 딸을 아버지에게 ‘진상’한 것이거나, 아니면 소아기호적 변태욕구를 대리만족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도 저도 아니면 딸을 보호하지 못한 엄마의 무능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계급이나 경제적 상태, 가족과 사회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이요, 엄마 개인의 역사적 심리적 상황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녀 사냥’의 망령이 1940년대 정신의학계에서 ‘엄마사냥’의 모습으로 과학의 탈을 쓰고 부활한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엄마에서 시작되고 엄마에서 끝났으니 엄마는 인격 형성의 알파요 오메가였던 것이다. 그러나 엄마의 권력은 부정적이고 사악한 측면에서만 효능이 있었고, 긍정적 결과에서는 무시되었으니, 그 효과는 일방통행적인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엄마의 무소불위의 부정적 권력을 말할 때 거의 모든 문헌에서 인용되는 것은 프로이트였는데, 기실 그 이론들은 프로이트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아버지가 가정 내 모든 정신역동적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다. 즉 부-모-자식의 삼각관계에서 엄마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일 뿐이며 아들의 성적 대상에 불과하다. 반면 아버지는 아이의 심리적 결정에 가장 막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시대적 산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고 아버지를 아동 정신발달의 핵심에 올려놓은 사람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어머니는 단지 자비롭고 무력한 존재로 나타나며, 아이가 구강-항문-남근기의 정신성적 발달과정 중 겪게 되는 갈등에서 의지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며, 단지 병

적인 상황에서만 그 단계에 애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의 예방'이라든가, '최선의 양육' 따위의 의미와는 무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엄마의 권력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크게 높이는 데 공헌을 한 셈이다.

프로이트가 실제로 엄마사랑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모성에 대한 견해에서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여자아이가 남자보다 작은 자신의 성기를 발견하고 남근선망에 빠지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으로 남근선망을 대치시킨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모성은 여성발달의 목적이자 아이를 원한다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원(原) 엄마와 같이 냉혹하거나 잔인한 어머니가 있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충동이론과 모성에 대한 이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정신세계에 대한 무지는 엄마사랑을 위한 이론의 바탕을 형성하기에 충분히 왜곡, 이용될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죽이기』에 가담한 학자들

엄마사랑의 이론적 시발점은 1927년 설리반(Harry Stack Sullivan)이 세웠다. 자신이 정신분열증상으로 고통받았던 그는 정신분열증을 정신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병이 엄마와의 초기경험에서부터 비롯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단 6명의 정신분열증 청년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명백히 프로이트 이론과 대립하는데, 왜냐하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예고 불과의 정도가 심하여 정신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1931년 레비(David Levy)는 정신분열증이 아닌 다른 환자의 연구에서, 아이를 과보호하는 엄마의 해독성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의 연구 결과는 비교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레비의 과보호 엄마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여성 역할에 분개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연연해한다. 그녀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을 방해하고 유아화시킨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유능하며 책임감을 띠고, 남편을 평가절하한다..." 엄마가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자기주장적이라는 것'이 아이의 발달에 해가 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 카사닌, 나이트, 세이지(Kasanin, Knight, Sage) 등은 레비와 설리반의 개념을 연합하였고 드디어 정신분열원 엄마가 탄생한다.

그 후 정신질환을 만들어내는 엄마에 대한 이론은 줄지어 나타났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정신과 의사도 이에 큰 몫을 하였으니, 그 이름들을 열거하자면 그 유명한 라이히만(Frieda Fromm-Reichmann)을 위시하여, 팔리타피모우(Szalita-Pemow), 리즈(Ruth Lidz), 스피츠(Lene Spitz), 보울비(John Bowlby), 베틀하임(Bruno Bettelheim), 보웬(Murray Bowen), 레이차드와 틸만(Reichard & Tillman), 로센(John Rosen), 리멘타니(Davide Limentani), 와인(Lyman Wynne), 베이트슨(Gregory Bateson), 설즈(H.F. Searles)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로부터 나온 용어들은 지금도 환자의 정신역동적 측면을 얘기할 때 써먹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들은 예컨대, 재앙을 초래하는 지배적 엄마(disastrous domineering mother),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거부하는 엄마(covertly rejecting or overtly rejecting mother), 탱줄 증후군(the silver cord syndrome), 가짜 사랑(pseudolove), 변태적 모성본능(perverted maternal instinct), 악의적 엄마(malevolent mother),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tedness), 엄마의 교리(the mother's indoctrination), 이중적 의사소통(double bind communication), 결혼분열과 왜곡(marital schism & marital skew)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숨막히게 하는 엄마(smothering mother) 등등이다.

이들은 정신과학 교과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는 이름들이며, 따라서 의과대학의 악명높은 시험에서 유명한 '만년 야마' 틀릴진대, 모든 정신과 의사의 머리 속에 이들의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든 단단히 박혀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중 설즈의 저작 제목은 가히 단언적이다. 『아동 정신병: 엄마의 안녕을 위한 개인성의 희생(Child psychosis: a sacrifice of his very individuality for the welfare of the mother)』이라고 되어 있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엄마들이 없는 죄를 눈물로 고해성사하는 것은, 30여년 전의 사(死) 지식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의사를 탓임을 나 역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옳고 그르고 반격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몇 명의 환자만을, 그것도 남자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비교군이 없었고, 연구의 틀이 짜임새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학연구의 형태로서 오늘날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프로이트의 정신성 발달의 이론을 차용하고 있으나, 기실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근거는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부터 30년간 휘몰아친 엄마사랑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개념이 만들어진 곳, 바로 미국의 당시 사회분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산업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슬레징거(Arthur Schlesinger)의 표현에 의하면 "여성성으로부터 도망치는" 사회였다. 여성혐오적 언설들이 보수적 남녀 성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부정하는 여성들에 대하여는 과학의 이름으로 비난이 가해졌다. 또한 전쟁 직후 일어난 '아동운동'은 미소냉전의 시기에 미래를 보장해 주며, 전쟁으로 파헤쳐진 현실을 따듯한 과거로 보상받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프로이트의 정신성 발달이론을 차용한 정신분열원 엄마는 성역할을 탈환, 확보하는 데

더없이 적합한 이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은 전세계의 정신과학 이론을 주도해 나갔다.

정신분열원 엄마에 대한 반격은 1964년 미국의 스텔라 체스(Stella Chess, 지금은 Stella 할머니로 애칭되는)의 논문 『Mal de Mère(엄마의 마성)』를 필두로 시작됐으며, 여기에 여성운동까지 합세했다.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생물학적 현상들이 밝혀짐에 따라, 그 전까지는 '강통대가리의 몽상가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천대받던 생물정신의학이 득세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신분열원 엄마의 퇴조에 일익을 담당했다. 결국 1977년 뉴욕에서 열린 'Beyond the Double Bind Conference'에서 정신분열원 엄마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 사망선고를 한 버거(Berger)의 각 뜻이 예의를 갖춘 우아한 선언문을 여기에 적는다면 "1955년 베이트슨이 한 예언적 말은 1978년까지도 대답이 없다.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의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배우 도덕적이고 결단력 있는', '야심에 찬', '성취의욕이 높고', '책임감 강하며', '지나치게 잘 적응하며', '자기주장 강한' 그리고 '남편을 우습게 아는' 정신분열원 엄마는 사망선고를 받고, 대신에 그 자리에는 '능력있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의 여성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망령은 죽었는가

그런데, 과연 '그 엄마'는 죽었는가. 분유광고에 나오는 슈퍼엄마, 모 유치원 입학에 위해 텐트 치고 밤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

'진짜 미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이 소설 안에 있습니다.

김신영숙 장편소설

신국판/값 7,800원/도서출판 이프(557-7941)

새는 극성엄마, 온갖 교육교재를 다 사들이지 않으면 불안에 떠는 엄마는 혹시나 '그 엄마'가 부활한 모습은 아닐까. 육아입문서, 『천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위의 책을 흘린 듯이 들여다보는 엄마는 혹시나 '그 엄마'의 흔에 신들리려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잘 키운 아이'라는 사냥개를 앞세우고 누군가가 이 엄마들을 사냥하려 나설 것이다. 그뿐이라. 부활의 조짐은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요즘은 삼차원 초음파까지 나타나 뱃속의 아기 얼굴까지 찍어대는데, 심지어 임신도 하기 전에 좋은 아기 만들기 작전들이 개시된다. 이제는 난자도 수술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활의 징조는 경제위기 속에서, 문화적 격변과 함께 과학문명의 발달을 등에 업고, 복고의 무드 속에서, 과학의 이름하에 살아나려 하고 있다. 다시 살아난다면 이번에는 좀더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리라. 아마도 테크놀로지의 가면을 쓰지 않을까. 인간복제의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이다.

최보문

아이들이 (터미네이터2)에 푹 빠져 있던 무렵, 유괴사건 보도를 듣고 큰 아이가 곧 꿈 하나. 피한에게 쫓겨 도망쳐오니, 엄마가 머신건을 톡 뽑아들더라. 그런데 머신건의 투경을 열고 꺼낸 것은 우유병이더라고. 그걸 듣고 배꼽 잡고 웃었다. 그 때는 엄마의 공격성파 양육성이 코믹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성의 모순과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까 자문하고 있다. 엄마를 그려달랬더니 작은 아이가 원더우먼같이 그려놓았다. 중2인 이 애에게는 아직까지 엄마가 예쁜 총집으로 보이니보다. 큰애는 엄마를 할머니로 보고 있는데... 아이들을 통해 엄마로서의 나의 변천사를 들여다보고 있다.

부활은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효도사상'과 육아입문서, 정신분석의 사지식과 정치적 과학논리 속에서 성장한 우리 자신 속의 엄마는 과연 어떤 엄마일까. 세상과 자신을 저주하며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다고 절망할 때 원망에 찬 시선으로 반사적으로 돌아보는 엄마는 혹시나 '그 엄마'가 아닌지. 깊은 밤 술에 취해 전봇대를 끌어안고 "어머니—" 하고 적적대는 청년의 울음 속에서 찾고 있는 엄마는?

우리 모두는, 어린 내 얼굴 내려다보며 젖 주던 엄마로부터 쉽사리 자유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한없이 무력하던 어린 나를 살려낸 양육자, 바로 우리의 엄마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인 합일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엄마를 단지 신화 속에 가두지 말고, 과학의 이름으로 사냥하지도 말 것이며, 그리워할지언정 닮아지는 않을 '자연의 엄마'를 살려내자는 말이다. ■



Magazine / Book Design / Annual Report / Advertising / Pamphlet / Brochure

Total Communication

긴 호흡으로 이미지를 일구는 넉넉한 그릇—인우기획

브로슈어, 매뉴얼리포트는 클라이언트의 얼굴입니다

귀사의 수확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출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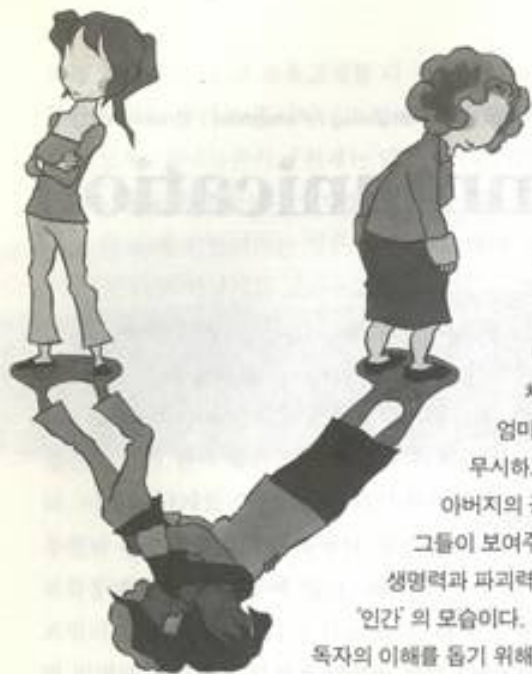
오래된 책의 정거장에서 멀티미디어 세대의 감성까지...

센세이션을 일으킨 잡지들은 (주)인우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철고 진보적인 대학문화, 넓고 진취적인 기업문화—

(주)인우가 표현하는 '문화전력'입니다.





남자의 어머니와 여자의 어머니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 사회 남자들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대부분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된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에게
어머니란 얼마나 자신(아들)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로 요약되는 사모곡 일색이다.
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돌아가야 할 고향인 것이다.
그러면 여자의 어머니는 어떤가. 8명의 다양한 사례글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자에게 어머니란 단순한 사람의 대상이 아니다. 딸들이
체험하고 기억하는 어머니는, 가부장제사회에서 욕망을 거세당한
엄마에서부터 살모사의 악령에 시달리는 딸, 오빠의 강간을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허용하는 엄마, 이혼한 엄마의 성행위를 견뎌야 하는 딸, 구타하는
아버지의 공동피해자로서의 엄마와 딸에 이르기까지 편차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모성상도 극과 극을 달린다. 한 마디로 딸이 경험하는 엄마는
생명력과 파괴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 극단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글로 보는 '여자들의 어머니'와 책에서 발췌, 인용한 '남자들의
어머니'를 함께 실는다.

왜 나만 당해야 돼?

신정욱(가명, 23세, 만화가)

엄마와 딸의 관계? 딸인 나와 엄마 오정순씨와의 관계? 청탁을 받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결론밖에 나온 게 없다. 과연 딸과 엄마의 관계를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 이 가부장사회에서 배우고 익힌 언어로 엄마와 딸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 낱아준 한 쪽 성이란 의미 이상의 그 복잡하고도 끈끈하고 속 깊은 관계를 과연 난 표현할 수 있을까? 세번째 쓴 글을 다시 다 지우고 든 나의 생각이 다. 이거 혹시 불가능한 부분을 내가 언어화하려고 허튼짓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사실 엄마를 보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낯설고 막막한 느낌. 왜냐하면 엄마에 대한 나의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난 집을 나와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엄마가 있는 집엔 한 달에 한 번 간다. 목적은 돈 받으러, 작년 말까지는 집에 갔다오면 심각한 정도로 우울해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말도 하질 싫어하고, 심란해하고, 애인도 생활비 때문에 나에게 집에 갔다오라는 말을 미안해하고 안되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사실 그 때까지는 내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론 내가 그 저주스러운 집에서 엄마를 구해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짜증과 무기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엄마 그 집에서 구해내고 싶다는 사명감이 내 인

생 대부분의 열정의 원동력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마에게 그렇게 전폭적인 애정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 분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애정보다는 작았지만). 이 분노는 오래 전 거슬러올라가서 시작된 것인데 엄마의 학력에 대한 허영심 때문이었다. 다른 대학을 다니다 재수해서 동국대를 들어간 나에게 삼수해서 서울대를 들어가라고 끊임없이 말했다. 그 때 동국대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실망과 운동권 분위기에 대한 실망,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문제들로 고민하는 것이 었보였는지 얼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수해서 서울대"를 노래 불렀다. 내가 더 화난 건 엄마가 그렇다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아빤 도박에 미친 사람이어서 생활비는 거의 가져다주질 않고, 하루에 만원, 이만원 갓다주시는 놈이라서 사실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고, 여하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정순(엄마)씨와 신성문(아빠)씨와 매일 싸우고 부셨으니까.

여하튼 엄마에 대한 애정과 동시에 난 엄마를 저주스러워했다. 고3 때 미쳐서 정신병원에 간 일이 있었다. 그녀와 그는 새벽 6시30분쯤이 되면 잠든 나를 사이에 두고 싸웠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부모가 싸우는 걸 평생 본 사람은 그 노이로제와 스트레스를 짐작할 것이다.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걸 보면 엄마가 불쌍하고, 아빠가 못된 인간이야 하면서 엄마와 자아동일시를 했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새뇌당한 면도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커가면서 엄마에게 분노가 더욱 커져갔다(아빠란 존재는 그 때 이미 제쳐져 있었다). 왜 저렇게 싸우면서 자식들을 괴롭히는 걸까? 왜 항상 나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걸까? 왜 저렇게 자식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걸까? 여하튼 그 때 나의 생각은 엄마와 아빠의 게임에서 내가 희생양이 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어려서 나를 버리고 나가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 때문에 엄마에게 죄스러워하던 나는 커가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나갈 용기가 없었던 거잖아. 그걸 왜 나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야? 왜 날 괴롭히는 거야"라고. 하지만 이런 분노들보다 엄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했기 때문에 집에만 갔다오면 심란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랬다.

이런 엄마에 대한 애증에 혼란이 온 것은 올해 초에 성폭력 치유를 시도하면서이다. 나는 많은 후유증을 갖고 있다(물론 예전엔 그게 그냥 나의 성격인 줄 알았지만). 우울증이 심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잡아뜯고, 몸을 부정하고, 자기부정과 비하가 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방법을 모르고, 남을 믿지 않고, 항상 외롭고, 몸의 반응을 잘 못 느

남자의 어머니

김지하(시인)

한 가지 추억만 되살린다면, 17, 18년 전 내가 죽기 직전의 상에서 3년 동안 폐결핵 요양원에 있을 때 무척 어려웠던 시절이었을 때, 내가 입이 작다로워 동치미를 먹고 싶다고 하자 증보라치는 한겨울에 그 동치미 한아리쯤 이고 잡이지 못 버릴을 여러 시간에 걸쳐 물리온 어머니의 모습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 하나에서 나는 보편적인 모성을 체험하였으며 동시에 생명을 날라 키우고 그 생명이 되돌아와야 할 고향이며 그 생명을 보살피고 감싸주는 위로자인 어머니, 즉 구체적인 나의 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함세웅(신부)

나는 외아들이다. 학년에 내가 신학교에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억지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불쌍함이 내가 중도에서 길을 바꿀 것이라고 믿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다. 성직에 첫발을 댈는 작발때 예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뵈을 수 있었다. 그 때 어머니는 미사 동안 읊던서 거도를 바친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담화를 들려주었다. "그래, 남자가 한 번 택한 길, 변함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오늘날부터는 다른 걱정이 생겼다. 내가 중도에서 길을 바꿀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택한 그 사제의 길을 충실히 걸도록 내가 기도하마!"

이 상(시인)

나는 24세. 어머니는 바로 이 나이에 나를 낳은 것이다. 성.예.마.스.리.안.과.갈.이.아.를.다.운.동.영.로.오.자.복.생.불.교.의.목.사.를.담.은.박.내.주.이.어.머.니.는.우.리.를.3.인.에게.인.도.복.안.의.고.학.을.말.해.주.었다.

나는3인을 대표하여—드디어—

어머니 우린 좀더형제가있었음싶었답니다.

끼고, 폭식을 하고, 분노할 줄 모르고, 분노를 느껴도 말을 못하고... 등등, 더 이상 치유를 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친강간(오빠와 삼촌에게 당했다)을 입으로 말한 지 3년만에 치유를 시도했다. 치유 전문서적을 보면서 혼자 많이 힘들어하던 날들이 있었다.

그 때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엄마였다. 강간 피해자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나 어렸을 때 근친에게 당하는 생존자는 자기부정과 자기비하가 심하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 두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노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나는 더 심해서 10년을 넘게 기억을 하지 못했다. 가끔 이빨을 닥거나 밥을 먹을 때 켈라치오를 당하는 영상이 플래시백이 되면 이걸 꿈이야라거나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다. 여하튼 그 책에서 아이가 자기부정이 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가족 내에서 무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아채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읽었을 때야 기억이 떠올랐다(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왜냐하면 난 중2 때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다). 엄마와 내가 빨래를 접을 때 엄마가 나에게 하던 말들이, 아빠가 자신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라도 같이 재워서는 안 된다고 했더니(우리집은 평생 한 방에서 살았다), 엄마 별 더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온다는 식으로 아빠를 욕했다. 난 그 때 엄마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어두운 표정이 되었다. 또 하나의 기억. 오빠란 새끼에게 켈라치오를 당하던 날, 이불 속에서 당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들어왔다. 아편 뽀하냐고 물어왔고, 이불 속에서 재빨리 옷을 입은 오빠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난 아빠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다. 여하튼 난 엄마에게 계속 그런 눈치를 보였다. 오빠 옆에 가기 싫어하고, 자기 싫어하고... 등등. 그 때의 기억에 난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했다. 그 책에선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황당하고 기겁할 대목은 근친강간이 일어난 집안은 암묵적으로 그 아이에게 강간을 해도 좋다는 허용이 있다는 것이다. 기억이 난다. 내가 오빠에게 항상 맞고 지낸 날들, 그리고 날 때려도 한 마디 안하던 엄마의 모습. 여하튼 여기까지 오면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엄마가 사실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서울대 가라는 말이 나오지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관심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까지도 엄마를 그렇게 미워할 수는 없었다. 엄마 아빠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엄마가 겪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았으니까. 엄마 항상 지금도 아빠의 도박에 분노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버리고 온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어찌된 이윤지 엄마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어쩌면 마지막 의지치를 버리고 싶지 않은 아니면 상처받고 싶지 않은 나의 방어막이 작동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도 집에서 나를 이해하고 아껴주었던 건 엄마였으니까. 내가 심적으로 그나마 의지한 것도 엄마였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엄마에 대한 감정을 유보하고 있는 요즘 난 엄마에게 또 다른 분노를 느꼈다. 나는 사랑중독증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남자와 사귀고 동거를 하면서 나의 고민은 하나로 압축되가고 있었다. 나는 왜 남자에게 의지하는 걸까 하는,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스스로를 경멸하고 부끄러워했다. 페미니스트로 살고 싶고, 독립적이길 원했는데, 끊임없이 애인에게 의지하는 거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 태양이 떠날까 항상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난 이 문제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랑중독증에 관한 책을 어렵게 찾아냈

다. 그 책에선 그 원인을 가족 내로 보고 있다. 이런 가족이면 사랑중독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열거된 원인 11가지 중에 난 6가지가 해당되었다. 그 중에 가족 내 강간이 속하고 부모의 신경전과 싸움도 속한다.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분노 그 이상의 분노. 내 인생에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내가 지금 삶을 영위해나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에 대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엄만 모를 것이다.

가끔 꿈을 꾸다. 오빠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 옆에 모르는 척 앉아 있는 엄마의 모습. 내가 "엄마, 나 오빠한테 강간당했어"라고 말하면 "그래?"라고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모습. 꿈에서 깨어나면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다 지쳐서 잠이 드는 날들의 연속. 그럼에도 한편으론 엄마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엄마도 어렸을 때 너무나 권위적인 집안에서 온몸이 과량도복 묶여서 맞았단다. 채찍으로. 엄마가 아빠와 게임을 하는 식으로 계속 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그 연결 지점에 대한 설명은 이 지면에서 다 못하니 궁금한 분은 위의 책을 구해서 봐주시길).

그러나 나는 내가 분노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엄마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에 화가 난다. 나는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분노를 못 느끼는 나를 만들었다. 이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들었다. 엄마에 대한 관계를 쓰라고 하는데... 난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다. 엄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뒤흔드는 작업이다. 옛날엔 엄마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서러움이 가득한 눈물이다. 지금의 난 엄마에게 돈을 타오는 것을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더 이상 엄마와 자아동일시를 하지 않으려 하며, 할 수만 있다면 분노를 느끼려고 한다.

엄마와 딸의 관계에 관한 멋진 글을 쓰고 싶었다. 엄마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에 대한 유지한 기준으로 쓴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지만 내가 현재 엄마와의 관계를 정말 모르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다 썼다고 글을 끝내야 할 지점인데도 난 여전히 엄마에 대한 나의 감정을 확실히 모르겠다. 이 곳 같은 가부장사회에서 썩어빠져 문드러진 가족 공간 내에서 같이 억압받고, 각자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엄마와 딸이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동지적 관계를 쉽게 말했던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음을 이제 안다. 그래, 엄마가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학력에 집착하고, 오빠가 나를 때려도 가만히 있고, 나에게 의

남자의 어머니

드디어 어머니는 동생 비공으로 입대하자 6개월로써 유산한 말을 고백했다.

그녀는 사내였는데 올해는 19(어머니의 한숨)

3인은 서로 들어 알지 못하는 형제의 환영을 그려보았다. 이만큼이나 컸지—하고 형용하는 어머니의 팔목과 주먹은 수척하여 있었다. 두번씩이나 격렬한 내내 냉정(冷情)을 과하고 있는 가족을 위하여 멀리한데로 보았어야겠다고 초조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24세. 나도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던 무렵인 나를 낳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육친(肉親)의 장(葬)』 중에서

이규재(조선일보 논설위원)

어머니로부터 애무를 받아온 기억이 없다. 꽤 끌어안고 싶고 볼때기를 비비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마는 감정을 노출을 약력시킨 탓에 모랄이 끌어안고 싶은 어머니의 양손을 잘라버렸고 또 볼때 대고 싶은 감각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도 살아 넘도록 나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외 말을 말해본 적이 없다. 꾸준히 지기 나를 대로 빛이 되어달라고 주종해 왔던 아버지보다는 아무런 주종도 없이 그저 우리들 위해 묵묵히 일해주었던 어머니가 나에게 있어 얼마나 안도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수다스럽게 의견이 너무 많은 다른 현모를 보다는 의견이 없는 우리 어머니 쪽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모른다.

박법신(작가)

나는 외아들로 태어났다. 내 위로 누님 한 명, 동생이 네 명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장을 났고 나서 유년 때 나가 살았으나 어머니까지 모두 데리고 이사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덕분에 딸 셋과 아홉 두 살에 남은

지하기를 원하고, 항상 아이처럼 때를 쓰고... 그런 것이 다 아빠와 아빠가 속한 사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려 하지만 감정은 그리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고민은 내가 당신이 낳은 아들에게 강간당했다는 것을 엄마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서럽게 혼자 울 일인지... 엄마에게 있는 나의 마지막 애정이 소리치고 있다. 정말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어선 안돼. 엄마 충격과 비난 속에서 죽어갈 거야(우리 엄마 건강도 아주 안 좋고, 나이도 65세다).

그러나 한편에선 자아가 소리치른다. 그럼 넌 뭐야? 왜 너만 이렇게 당해야 돼?

딸의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

변혜정(35세, 학생)

난 결국 화를 내고 말았다. 엄마 말대로 화낼 일도 아닌데 괜히 짜증을 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괜히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짜증이었다. 엄마는 외할머니 놀러가시는데 큰돈 예약 좀 해달라고 하셨다. 이것은 엄마의 그리고 나의, 철쭉꽃이 피고 단풍이 아름다울 때 항상 하는 연례행사이며 나는 언제나 그것을 군말 없이 해냈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엄마 말대로 예약하는 번거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외할머니의 잘난 아들, 며느리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신경 한 번 안 쓰는데 놀러가는 것뿐만이 아닌 모든 신경을 엄마가 쓰는 것 같아서 화가 난 것이다. 물론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딸이 쓰는 아들이 쓰는 자식이면 당연히 가져야 할 관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을 베푸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이러한 나의 분노에 엄마는 항상 너무 따진다고 이야기하신다. 엄마는 "아무리 뭐라 해도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야" 하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신다. 이것이 나를 아무 말 못하게 하면서 더 화나게 한다.

우리 엄마를 낳아주신 나의 외할머니는 삼녀사남을 생산하셨고 그 중 엄마는 딸딸이다. 엄마는 외할머니의 아들딸 차별로 인하여 상처가 있지만 정작 본인인 외할머니는 당신이 아들, 딸 차별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 단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신다.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 당신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하신다. 전쟁 이전에는 풍족해서 아들딸 똑같이 대했으며 다 교육시켰고, 보통의 딸들처럼 엄마는 동생을 업고 다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몸이 약한 엄마를 위해 외할머니는 초등학교 때는 따뜻한 밥을 해서 학교까지 날라 엄마를 보살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대지주였던 외가는 토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하면서 그 이후 외할머니는 아들 위주로(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재편하셨다. 이모는 외할머니의 눈을 피해 도망가서 정말 힘들게 이대를 졸업하셨다면 엄마는 이모와 달리 아무것도 못해 공부를 더 하지 않았다. 이것이 단지 엄마의 유약



한 성격 탓일까?

항상 공부에 고집하신 엄마는 우리 남매들의 공부에 우리들보다 더 열심이셨다. 일례로 나는 고2 때 물리화학을 엄마한테 배울 정도로 엄마는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다. 환갑이 훨씬 지난 요즘도 장학퀴즈와 낱말퍼즐 맞추기, 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 또한 (아빠가 독자서서) 딸 넷을 낳고 아들 하나를 낳기는 낳았지만 아들중심인 우리 사회가 문제가 많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천명하셨다. 그 덕분에 우리 딸들은 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자랐다. 어쩌면 이것은 아들중심인 외할머니에 대한 엄마의 무언의 저항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즘,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우리들에게 키워주신 엄마가 외로워하신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아들 타령을 하지 않으셨던 엄마가 아들 잘 키운 친척동생을 부러워하시며 아주 가끔 씁쓸해하신다. "딸 넷은 그냥 그러저러 키워지지만(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집 딸들은 변변하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 가방끈이 짧다고 하시면서) 왜 그 엄마는 딸들 교육에 신경 쓰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지금부터 적어도 10년 전에는) 다 시집 잘 가고 아들 하나 금지육업 키워 의사 만들었다"며 이제 와서는 그 이모를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에 항상 이모가 "언니는 이상해. 왜 아들한테 그리 신경을 안 써? 딸들은 다 소용없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아들이 잘 되야지" 했을 때 엄마는 항상 자신의 선택에 프라이드를 느끼며 그 이모가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우리집 아들이 소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엄마는 자신의 반생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회에서는 역시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역시 외할머니 선택이 자신의 선택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일까? 사회적 평가기준에 의해 (아들 잘난) 엄마보다 (아들 평범한) 엄마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는 것일까? 딸은 평가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혹 엄마가 요즘 이런 갈등을 하신다면 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엄마! 잘난 아들, 며느리 둔 엄마의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보여? 난 외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행복하게 보이는데... 엄마의 선택은 아주 훌륭해. 엄마 아들도 곧 제자리를 찾을 거야. 누구나 다 외롭지만 그래도 엄마는 덜 외로울 거야" 라고 말이다.

남자의 어머니

어린 막내 외아들을 데리고 제다가 놓아가지 치으면서 고향을 지켜야 했던 건 어머니였다. 조용히 울고 있거라. 나를 낳을 때 어머니는 너무나도 졸음을 쫓아냈다고 한다. 진통은 한참쯤에 시작되었다. 만약 낳은 자식이 고추를 달고 있지 않으면 그 즉시 없어질 것인즉, 막내 내가 낳았으면 머리끄덩이를 잡아 쥘까 봐 겁났다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졸음을 쫓았다. 어머니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나를 낳았으며, 나는 고추를 달고 있었다. 이제 내가 밥을 하면서 술뚜껑 소리를 크게 내라고, 내 고추를 확인한 뒤 어머니는 은근히 말했다. 이웃집에서 아기 낳았다는 걸 알도록 하라는 뜻이었다.

이호철(소설가)

시집모자마자 딸 넷을 내리달아 낳은 어머니는 새로 아기를 잉태하고 낳았다. 딸이면 천지신명재 빌어서 나를 낳았다. 요즘 같은 남아선호 정도가 아니라 그 무렵은 아들을 못 낳은 며느리는 집안 망쳐먹는 마를 취급을 당하던 시절이었다. 당신께서 온전하게 살아갈 길은 오로지 아들 하나를 낳는 길밖에 없었을 터이니. 그래서 나는 칠성님의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자승에서까지 나를 위해 쉬임없이 비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 덕으로 살아간다.

안병욱(송실대 명예교수)

남편의 재정을 받지 못한 어머니는 만아들인 나를 유년의 사랑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사랑을 모두 내게 쏟으면서 살았다. 나는 어머니의 절실한 지주였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학대받고 참아지고 슬스스하고 길어진 다. 악한 마음이 생기거든 어머니를 생각하라. 타락의 위기에 부딪쳐거든 어머니를 생각하라. 70세의 노경에 도달한 나의 간절한 소원은 어머니 무덤 앞에 끌어앉아 잡초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다.



살모사와 흡혈귀의 은밀한 모사(謄事)

마희수(가명, 30세, 회사원)

아 직 얼굴을 모르는 은주씨에게
Blood sucking—흡혈, 남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정이 넘은 시간, 당신과 통화를 하고서 터벅터벅 밤산보를 즐기다가 돌아왔네요. 희한하게도 아직 얼굴도 모르는 당신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문이 트이는군요. 당신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드라이박한테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살모사'의 악령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잔뜩 빨린 종이더미에서 당신이 과제물로 제출한 습작만화 'Blood sucking'을 내밀더군요. 아버지를 찾아간 딸이 다짜고짜 피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흡혈'을 읽어다가는 동안, 살비늘이 일어날 것 같은 소름이 돋더라구요. 죽은 개를 토막쳐서 음식을 만드는(그런 일로 돈을 벌어 자식을 먹여살리는) 요리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아간 딸이 목에 송곳니를 대고 피를 빨고 있는 기이한 장면을 보고 있

자니, 온몸의 뜨거운 피가 머리 끝으로 올라가서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온몸으로 퍼지는 듯 싸늘한 냉기가 흘렀지만 그 지독한 느낌만큼 위로가 되더군요. 나 역시 부모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란 흡혈적 존재이겠거니, 그들의 피와 살로 만들어졌음에도 끊임없이 당연한 듯이 피(돈과 애정)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겠거니 생각이 많았지요.

걸진 육담이라고 하면 거의 인간문화재감인(판소리 사설도 못 따라오는 전라도 사투리의 원단) 우리 엄마가 나의 하극상이 심해질 때 하시는 욕 중 하나가 "저런 잡아(쩍어)먹을 년!"이었어요. 엄마에 대해 원색적인 성토를 하러니, 예리한 종이날에 손을 베일 때 느껴지는 아릿한 아픔과 함께 섹션섹션한 쾌감이 가슴 속을 긋고 지나가는군요. 좀 살벌하죠? 전라도 토박이인 데다 6·25전쟁으로 인해 소학교를 다니다 만 게 전부인 엄마한테는 육담이 생활어에 가까웠지만,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이후부터 드세고 걸진 엄마의 욕성은 쇠괴쟁이처럼 내 머리 속을 푹 푹 찔러대서 내가 그녀를 가장 경멸하는 이유가 되었지요(영화 <시계태엽오렌지>의 알렉 볼드윈이 음악 소리로 고문당할 때 내지르던 비명이나 몽크의 '절규'를 생각해 보길).

언젠가 엄마로부터 '느리고 속터진다'는 의미로 "저런 깟버리지 같은 년"이란 욕을 듣고서 온몸에 깟버리지(누에고치의 애벌레보다 훨씬 크고 얼마나 징그러운지)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것 같아서, 하루종일 뻘뻘 구토를 해대며 내가 깟버리지만 엄마는 뭐냐고 악악 대들다가 죽도록 얻어맞은 기억이 나네요(아직도 아파오는 듯).

그 여자 흥폭하다!

유복한 한약방 집안에서 성장한 엄마는 어찌다가(아빠 쪽 사람과 알고 지내던 한약방 친척의 중매로) 쪽정이만 남은 가난한 종가집 장손며느리로 들어와서 뒤늦게 거친 삶에 내던져진 탓에 굶던 얼굴과 심성이 완전히 찌그러져 갔다나봐요. 해병대를 나온 아빠는 활발하고 담대한 남성적 기질과 내성적이고 섬세한 여성적 기질이 뒤섞여서 호남자로서는 멋졌으나, 천하한판인 우리 할아버지와 문자향 하는 종주할아버지와는 족보전쟁에 질린 탓인지

일체의 사심을 버린 무욕의 사내가 되어, 아비나 남편노릇은 개점즉시 폐업하다시피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술독에 코를 치박고(!) 사셨죠('인간실격'의 다자이 오사무의 피폐한 표정을 상기하시라). 반복되는 아빠의 입원과 퇴원, 그러는 동안 고스란히 생계의 짐을 떠맡은 엄마는 강박한 삶에 지칠 때마다 자신의 무거운 짐덩어리인 우리들에게 정도를 넘어선 잔소리와 매질, 참담한 욕지거리를 서슴치 않았지요. 지금으로서야 그녀의 살인적이고 엄격한 노동량에 연민이 들지만, 어렸을 땐 그녀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거친 입담에서 온 것이라 여겨져서(심지어 아빠의 알콜릭까지 엄마의 잔소리 탓이라 여김) 그 송악한 말투는(제발) 달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되어, 어릴 때부터 자외로 TV나 책 속에 나를 법한 표준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마저도 '~했당개', '~그랬당가?', '~그러지라우' 사투리를 썼던 벽촌(전북 고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꾀꾀하게(!) '~했니?', '~하셨어요?' 하는 서울 말씨를 썼는데, 글썽을 뜬 후부터 '글썽기'는 엄마에 대한 필사적인 항거였죠. 시골에선 어린 자식도 귀중한 일손인 데다 공부 잘하는 딸은 오히려 돈벌레라, 책 볼려고 있는 나를 불러치면 엄마는 "강태공 같은 년", "책귀신이 된 년" 작대기로 후들겨쌌는데, 훗날 생각하니 딱히 화풀이만이 아닌, 자식이 벌어먹게 될까봐 책이 밥이 되지 못한다는 경제관념에서 나온 징계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구요. 교육 혜택을 못 받은 탓도 있지만 여느 시골아주머니보다 유난한 엄마의 성마른 욕담은, 약체의 알콜릭 남편과 5남매를 둔 억척어멈의 전투적인 생활고에서 나온 욕증이 농축발효되어갈수록 점차 어리굴젓이나 황새기젓에서 나오는 비릿하고 짭짤한 맛이 더해갔는데, 단칼에 혀를 찌르는 요설의 힘마저 갖추자 9남매와 7남매의 두 작은집 당숙고모들은 물론이고 동네 아저씨들도 엄마 앞에선 꾀소리로 못했죠.

저런 잡아먹을 년!

그까짓 욕 때문에 험난한 역경을 헤쳐온 엄마를 '악녀'로 몰아세우는 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예요!) 엄마의 욕 속에는 자식에 대한(아빠가 포기한 부권까지 합쳐) 엄청난 지배력이 실려서 자식이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주지 못했을 때는, 지저리 복도 없는 년이라는 한풀이성 푸념과 칼을 물고 죽겠다는 회유성 협박까지 내 의식의 근저를 뒤 흔드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녔어요. 내 몸을 불살라 너네들 밥이 되었는데 몰라주는 정당성 감정요구는 고단한 세월을 깊이 파내린 만큼 어

남자의 어머니

장 리슈렐(18세기 시인)

한 소녀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누가 그를 비웃었다.

"당신은 두려워하는가?"

소녀가 요구했다.

"오늘 당신 어머니의 머리를 땀방에 달아 자려다줄 수 있나?"

그 젊은이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피로 붉은 심장을 꺼내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심금했던 젊은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심장은 땅바닥에 구르면서 애처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심장이 복드러온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이, 다치지 않았나?"

김동진(작가)

어머니는 철재일이 일을 하였다. 교회에 달린 조그만 밥을 일구어 집안이 먹을 재소를 가꾸고 누를 치고 베풀었으며 마느일을 하였다.

김우종(문학평론가)

나는 어머니가 쉬는 걸 거의 본 일이 없다. 낮이고 밤이고 끝없이 일만 하였다. 큰누이가 항상 나를 달고 다닌 것도 어머니가 낮이고 밤이고 베풀어 마느일 일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김형석(전 연세대 교수)

오늘은 죽을 결심을 했는데, 평생일이 악한 내가 지구만 눈에 어른거리며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금이 늘 아닐 때까지 끝까지 먹었다. 내가 요는 것까지는 보아야 하겠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소처럼 근면한 어머니는 지상에서 돌아간 집에서 죽어났을 터

가 북 뛰어나와 방패가 된다.

어찌됐든, 언니와 나에게만은 만만했을 터인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언니 앞에서도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되었다. 50이 넘어 야단맞는 아이가 된 엄마... 나이들면, 돈 벌면 우리 엄마 호강시켜 주겠다고 다짐했던 나 역시 답답한 세상에 쫓기면서 집에서 뛰쳐나오기 바빠졌다. 이제 엄마는 내게도 사정을 한다. 제발 집에 들어와 달라고... 외롭다고...

엄마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 아빠에 대한 나의 반항에 왜 엄마가 별별 멀어야 하나? 내가 때로 아빠에게 굴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부름은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전장할, 옆에서 평평 우는 엄마 때문이다.

그런 엄마가 불쌍한 건 나만은 아닌가보다. 아빠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내게 와서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좀 도와야 하지 않냐고 다그친다. 난 애써 평화로운 태도를 취하지만 가끔은 이런 말들을 퍼부어주고 싶다.

-그럼 왜 아픈 엄마를 돌지 않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차 끓여와라 밥해라 시키기만 하죠?

-그렇게 불쌍하다면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죠? 엄마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어디 여자가 남자 앞에서..." 하면서 구박만 하죠?

-당신의 딸들도 똑같이 불쌍하게 만들고 싶나요? 엄마를 불쌍하게 만드는 건, 당신과 당신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나요?

-엄마에게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줘! 엄마의 생각을, 의견을, 색깔을, 꿈을... 당신과 우리들이 뻗어간 모든 것을 이제 그만 들려줘!

난 가끔씩 엄마와 단 둘이 사는 미래를 생각한다. 엄마가 학창시절 꿈꿔왔음직한 모든 계획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상상한다.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 엄마가 행복해질 것 같지는 않다. 엄마는 내가 돈 잘 버는 남자에게 시집가서 평평거리고 살기를 바라시겠지. 난 영영 엄마의 바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엄마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별로 기대할 수 없겠지. 엄마와 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엄마가 나를 친구로, 동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수밖에.

참을 수 없는 내 생각의 끝

정나리(가명, 23세, 대학생)

키보드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니 말이 막힌다.
'엄마'와 '나'라는 아주 '특별한' 화두...

많은 관계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나. 하지만 그 무수한 일상의 관계를 속에 어느 한자리도 차지하고 있지 않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다른 이들은, 너무나 가까이에서 있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머리가 좀 컸다고 함부로 대대놓고 뒤돌아 후회한다는, 가끔은 '여성'으로서의 강한 동지애도 느낀다는, 나에겐 너무나 먼 그런 존재—우리 엄마, 그리고 그만큼 서먹한 우리사이...



돈이 좀 필요했다. 그럴 때 생각나는 엄마. 없는 돈을 탈탈 털어 만원 짜리 전화카드를 샀다.

'전화번호를 어디에 적어놓았더라? 아... 여기있군. 001-1-XXX-XXX-XXXX...'

전화번호를 외우는 데 천재적인 기질을 보인다고 자랑하던 내가 유일하게 외우지 못하는 건 우리 엄마 집 전화번호...

'Hello?'

아니? 웬 영어? 남자 교환인가?

'Hello? (헬로우 나 - -) 여보세요? 전 '나리'라고 하는데요.'

'아... 잠깐만요.'

그곳의 시차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화를 건 내가 잘못이긴 한데... 가만있자. 지금 거기는 '이른' 아침이 아닌가? 전화를 받는 저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지? 외삼촌인가?

'저, 지금 엄마가 요 앞에 잠깐 나간 것 같네. 들어오면 연락하라고 할게요.'

'저어, 혹시 삼촌이세요?'

'...아...네대요.'

아니라구? 그럼 누구야?

그리고, 며칠 뒤 내 얘기를 들던 친구의 '뜨악'한 말.

'넌, 왜 엄마의 성생활에 '개입'하려드냐?'

뭐, 개입? 제도로 규정된 '결혼'으로만 사람들의 성생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매매춘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엄마의 '그이'를 순순히 인정하랴? '개입'하지 말라구? 내가 뭘 어쨌다구? 내가 그동안 부모님의 삶에 개입한 게 뭐가 있단구? 난 나름대로 피해자였어! 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도 견뎌냈지. '아빠, 우리 왜 엄마랑 살지 않지?'라는 어린 시절 어찌면 당연한 질문도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 고분고분한 아이가 바로 나였구, 이혼가정 자녀를 무슨 장애아로 취급하는(결혼가정? 감사한 지칭 용어이기도 하셔라!) 사람들이 싫어 '빠져'보일(?) 짓은 한번도 하지 않았던 (단,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이지만...) 나였다. 이제는 철든 양 아빠에게 새로운 결혼을 권유(?)하는 나라구. 이런 날더러 뭐가 어쨌? 개입?

그런데 가만있자. 왜 난 엄마의 '그이' 앞에서 이렇게 필요 이상 힘이 빠지는 거지? 내가 그 동안 '성'과 '사랑', '여성'과 '결혼', '사회'에 대해 집짓 아는 체했던 건 결국 위선이었나? 엄마는 자신의 결단에 따라

남자의 어머니

서경보(소설가)

이십 세를 전후해 출가를 결심하자 할아버지는 집안이 대가 끊겨 망했다고 핑계 댈려고 아버지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꼭다 출가하여 불교공부 잘해 출중한 대사가 되어야 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니 이것은 이 무식한 어미도 알고 있다'고 용기를 북돋워주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지학순(주교)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죄를 지으면 어머니 생각으로 눈물이 난다.

조병화(시인)

어머님의 종교를 믿어야 죽어서 나도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생각이 나의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어머님께에서 나와서 어머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창준(소설가)

치매에 걸린 90세의 어머니는 작은 옷보통이를 싸들고 집을 나서서 '인자 우리 집에 갈란다. 내가 너무 넋을 빼고 놀다가 우리 어머니 아복지 날 기다리시느라 눈이 다 빠지셨다.' 끊임 속처럼 중얼거리며 그 손보통이를 세상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다.

서정주(시인)

'애기야...'

태임어가, 길 잃은 애기를 어머니가 부르시면 어떤 말 수줍은 하리 급히서 앞으로 다가오며 그 가슴 속쳐지는 불로 애기의 발자취를 지키고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이혼과 독립을 결정했고, 이제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개인을 억누르는 제도와 권력에 대해서는 잔뜩 눈살을 찌푸리던 내가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무슨 횡포를 부리는 거지? 엄마에게 뭐 강요하는 거지? 부모님께 내 삶과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면서도 막상 부모의 취향과 선택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지?

며칠을 뒤숭숭하게 보냈다. 학교 언론사 후배들에게 일일 자료를 뒤적거리다가 발견한 글귀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제부터 인용할 부분은 독립해가는 자녀들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불안심리를 서술한 부분이다.

"자녀들이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곧 독립적인 존재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 때 부모는 자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또는 이제까지의 친밀하고 정다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데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자녀가 자신들로부터 떠나가는 시점을 늦춰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마 그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아이들이 늘 아이들로 머물러 있는 것일 겁니다. (『섹스북』, 쿼터 아덴트 지음, 박영출 출판사 1995)

이 글을 읽으며, 20대의 나는 부모가 나의 (성)생활에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며 '개입'하려 든다고 얼마나 불쾌거리며 '광분' (?)했었는지가 기억난다. 그러나, 이 인용글에 등장하는 '부모'란 말을 '자녀'로, '자녀'란 말을 '부모'로 바꿔보면 그것이 얼마나 요즘의 내 생각과 닮아 있는지...

'보수'라는 말은 나이의 구분에 따라 쓰이는 말이 아닐 것이다. '젊은 보수'라는 말도 있듯이 적어도 부모님의 '성'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너무 보수적이지 않았을까, 별거와 이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부모의 이혼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 이면에 항상 존재했던 부모님의 성과 사랑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주려 한 적이 있었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며 자유연애를 주장하지만 막상 자신의 부모님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얼마나 매도하고 욕했는지... (누군가에게 매혹되고 연정을 품는다는 것이 평생 어떻게 단 한 번일 수 있을까? 문제는 그것이 '결혼생활', '가족'과 어떻게 관계맺음 하느냐가 아닐까), 더군다나 나의 부모님과 같이 법적으로 또 심적으로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경우에 그들에게 나는 무슨 권리로, 그들의 독립적 삶에 '개입'하려 한 것일까, 더군다나 힘겨웠던 결혼생활과 이혼의 과정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어야 했을 엄마의 상처에 대해 난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한 적이 있었나? ...없었군.

오랜동안 떨어져 있었기에 엄마와의 아기자기한 추억도, 가슴 찡~한 경험도 남아 있진 않지만, 난 요즘 내 안에서 23세 우리 엄마의 젊고 발랄했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무슨 일이든 참 열심히 하려던 사람, 작은 것도 소중히 할 줄 알던 사람, 분위기가 잡히면 멋지게 노래 한 소절 부를 줄 알던 사람, 여느 멜로영화 부럽지 않은 열렬한 연애를 경험해 본 사람(그 결과물이 바로 이쁘고 총명한 '나'라네, @_@:), 제2의 인생을 위해 힘겨웠던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던 사람, 타국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이젠 영어도 유창한 사람, 그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바로 나의 모태(母胎)라는 사실이 든든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쯤 함께 있을 엄마의 '그이'가 그 동안 상처투성이었던 우리 엄마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으면...(아저씨! 배신하문 죽음이야!!).

불합리한 또 하나의 권력, 시어머니

이지영(가명, 35세, 주부)

시어머니는 당신이 안주하는 반경에서 여왕님이다. 4대 독자였던 아버님과 결혼하여 그 당시 아들 다섯을 내리 낳으신 바람에, 지극한 시할머니의 배려와 사랑 탓에, 타고난 어머니의 카리스마적인 성격(?) 때문에, 성실하고 몸을 아끼지 않는 아버님이 공인한 권위로, 이미 아이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큰형님 덕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인신공격까지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입김에 항상 얼굴이 편안치 않고 부부싸움이 잦았던 둘째형님네까지 철저히 어머니 중심이었다.

셋째였지만 마지막으로 결혼한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나는 안하무인인 어머니의 어처구니 없음에 체질적인 거부감을 느꼈는데 결국 단순한 거부감에서 끝나지 않았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게 된 나는 첫아이를 낳았다는 경외감과 기쁨까지도 접어들어야만 했다. 병원 선정부터 문제가 생겨 아이출산을 한 시간 남짓 남겨놓은 분만실에서, 몸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됐던 고부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는 결국 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유세하느냐고 큰소리를 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언뜻언뜻 삭였던 분노와 수치감을 이기지 못했던 나는 크게 울고 사흘을 굶었다.

서른여덟에 첫 아이를 본 남편은 기쁨에 들뜬 기분도 잠시 서슬 퍼런 어머니와 벌어진 긴장관계 속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와서 쓰러져 잤고 밤에 무거운 몸으로 아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자괴감—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남편과 싸우고, 아이와 함께 배려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마음과 입지가 다 불편하게 되어버린 내 상황이



남자의 어머니

돌아온 애기를 미안하시면
꽃 뒤에 꽃을
별 뒤에 별을
.....

『어머니 날에』 중에서

정현모(시인)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그 동그란 광택의 여를
아들들의 가슴에
심어주신다.

씨앗은 아들들의 가슴 속에서
번창 지람
찾아드는 그리움
때로는 저편 아픔으로 지나나
드디어 눈이 부신
진주가 된다.
태양이 된다.

...

어머니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어머니 날에』 중에서

김영재(시인)

맛춤법이 엉망인
고향에서 온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면
나의 마음은
편일일까
가을 물결처럼
눈물겹다.

『어머니의 편지』 중에서

싫어 느껴야 했던—에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뢰감과 애정마저 거두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혼하고 삼년이 좀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아이 때문이라도 내 입장을 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비호를 받아 황당하게 사람을 괴롭하게 하는 넷째 다섯째 동서들과 거리를 두었고 지금은 남편과의 동의하에 일년 가량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누군들 나름대로 최선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마는 그리고 특히 아이의 주변관계와 남편의 부담스러운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가능하면 극단적인 관계 설정은 피하고 싶었지만 관계를 유지해 봤자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다는 생각. 인간적인 이해의 도모와 상호작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어머니라는 한 개인을, 또 한 여자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내 어린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종종 내 의지를 침해하고 왜곡했던 하나의 불합리한 권력이었다. 결혼해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

우리 엄마 '나연식씨'

이숙경(37세, 여성학강사)

우리 엄마 '나연식씨'는 배운 것도 없고 글자도 겨우 읽는다. 나연식씨는 싸움도 잘하고 속에 있는 말도 아주 잘한다. 우리 엄마는 새끼 알기를 꼼짝이 하면서도 팔로는 나꺼 내꺼를 꼭 따진다. 우리 엄마 나연식씨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 남편을 꼼짝하게 위하면서도 "쫓쫓... 보이는 게 저러니 사람이 속이 좁아터지고 남의 사정을 모르지!"라고 대놓고 빈정거린다.

그런 우리 엄마는 나에게도 아주 모질게 대했었다. 어려서는 "계모가 아냐?" 싶었다. 다섯 살 어린 남동생에게는 그 비싼 바나나를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먹고 싶어하면 나연식씨는 "그게 돈이 얼마데. 너는 누나니까 참아라"며 눈을 흘겼다. 어려서 엄마한테 받은 구박은 밤을 새워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만큼 많다. 땀뻘 게 많았던 나는 늘 엄마한테 냉랭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역사적인 대 격투의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닐 때인가? 이십대 중반의 어느날 저녁, 마침 집엔 아무도 없었다. 그날도 엄마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는데—아마 내가 설거지한 뒤끝에 엄마가 깔끔하지 못하다고 잔소리를 했던지 뭐 그런 시비였다—평소와 달리 나는 엄마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갖고 그래!" 하며 책 소리를 질렀다.

평소에도 통명스러운 말이었지만 이렇게 혐악하게 대꾸하긴 처음인지라 나연식씨는 잠시 당황한 눈치였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어 속사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나쁜년.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리지. 이 년아. 그렇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그러고는 달려들어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때리는 엄마의 손목을 붙잡아 "내 몸



에 더 이상 손대지 마!" 하고 소리를 또 질렀다.

우리 엄마 나연식씨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이성을 잃고 내 머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나는 괴성을 지르며 엄마의 옷자락을 되는 대로 잡아당기며 버티었다. 부지직~ 우리는 옷도 젖고 머리털도 뽑으면서 소리소리 지르며 한판 격투를 치루었다. 한판 싸움은 나의 승리로 끝났다. 어느 순간 엄마가 맥을 놓더니 방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ปัง' 닫았다. 안방에서 "어이구! 내 팔자야. 딸년이라구 하나밖에 없는 게~ 어찌구. 저찌구. 중얼중얼. 어이구~"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안에 앉아 듣고 있자니 나도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날 이후 우리 모녀의 관계는 '혁명적'으로 변해갔다. 나연식씨가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자기 울화를 터뜨리고, 잔소리를 하거나 때리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서툰이 넘어 아이를 낳자 엄마는 치녀시절 아버지를 만난 이야기며, 그보다 훨씬 전에 동네에서 막내딸로 선머슴처럼 컸던 이야기들을 마치 친구에게나 하듯 끝도 없이 풀어놓았다.

우리 엄마 나연식씨의 입장에서 보면 좀 배웠답시고 고상하게 잘난 척이나 하는 딸년이 몰사나왔을 거다. 딸이 딸을 낳고 '산다는 것'이 뭔지 조금 아는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엄마는 어린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사무쳤는지 내 딸에게 정을 퍼붓는다. 나는 자라면서 엄마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엄마는 우리집에 저녁마다 전화해서 딸애를 찾는다. 레파토리가 너무 편한 이야기—밥 먹었느냐, 무슨 반찬이나, 지금 뭐하니—끝에 엄마는 손녀딸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

우리 엄마 나연식씨는 싸움도 아주 잘한다. 싸움이라기보다는 늘 엄마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는 남자, 동네 부랑인, 못된 택시운전사들에게 '철썩'을 가하는 식이다.

우리집 앞에 소변을 보다 걸린 한 남자는 불일을 보고 바지를 추스리기도 전에 '철썩'하고 귀방망이를 세계 얻어맞아야 했고 "개새끼! 너 같은 놈은 X를 팔라야 돼!"라는 험한 소리도 들어야만 했다. 대문을 걸어차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구걸하던 어떤 아저씨는 갑자기 달려든 엄마가 겨드랑이털을 '꼬아서 비틀고 잡아당기는' 바람에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골목길을 "이쪽, 저쪽" 하면서 돌고 들어가게 한 엄마에게 중얼거리며 불평하던 택시운전사는 "야, 내가 너 돈 벌여줄라고 택시 댔지 그냥 댔냐?"는 한 마디에 기가 짝 죽었다.

우리 엄마 나연식씨는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진 않았지만 '내 새끼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둘 거야'라는 느낌으로 옆에 있었다. 그게 거추장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어쩌랴. 우리 엄마 나연식씨는 좀 배웠다고 볼 사람게 구는 나하고는 달리 생각보다 몸과 맘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인 것을. 아직도 천천만한 웃음과 장난끼를 잃지 않고 있는 우리 엄마 나연식씨는 자긍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내게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남자의 어머니

고은(시인)

.....

아들 셋 포르르 나서
내년이면 큰놈이 공주사대예 갈지도 모르니
처로도 좀 수그러져야지
20년 동안
평일에 농사짓느라
남머리지 지식 짓느라
열 바가지가 플라스틱 바가지 되어
기껏해야 60리 길 천정 한 번도 못한 세월
사방농사 안 지으려고
평택장은 고상하고
천정 한번 못한 세월
이내 밭갈 땀 남으듯이
천정 아버지 어머니
세상이나 떠나야 그대나 부락부락
20년 전 새색시로 한 머리 들고 갈며
가야지

'재물이 어머니' 중에서

이상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대문학),
"한국의 자상 27인이 말하는 나의 어머니" (자유문학사),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도서출판 일신기획),
"어머니" (작가정신) 등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택시운전사나 청소부아저씨하고 싸움질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눈으로 보고 느낀 게 학교에서 배운 교양교육보다 위력이 있나 보다.

합법 왓, "망할 놈의 영감쟁이 질기기도 질거!!"

성주리(가명, 37세, 이벤트 기획)

	아빠	엄마
외모	한무+이주일	나랑 똑 같이 생겼다. 한마디로 한 인물 한다.
학력	확인 불가능한 대 중퇴	특수교육 전공
집안 환경	가난한 집안의 3남	외할아버지가 택시를 했었는데 당시 택시운전사는 돈을 푸대로 벌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땅도 재벌 있다.
성격	변사또와 동기동창	전원주+박원숙
취미	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함	결혼 전에는 문학소녀였다고 한다. 결혼 후에는 설거지와 청소가 취미생활이 되었다.
특기	모든 물건을 무기화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결혼 전에는 베드맨턴과 기타였다. 결혼 후에는 10분 내에 국, 찌개, 고기를 한꺼번에 차려냄
가치관	품생품사	남은 생애 즐기며 살아보자!!

주 절주절 집안 얘기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잠시 고민을 했다. 하지만 37년간을 엄마의 곁에 있었던 아빠의 이야기 없이 엄마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결국 난 아빠의 이야기를 들먹거리게 되었다.

변사또라는 별명답게 당신만이 진리라고 믿는 아빠의 폭력과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나는 고교 2년에 가솔을 했다. 18년 동안 아빠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기 위해 친구에게 빌린 옷과 가방만을 걸치고 용돈과 통장은 안방 문 앞에 두고, 변기에는 한 무더기의 똥을 싸고 그것을 아빠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물도 내리지 않고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취생활은 많은 변화를 주었다. 현실적으로 나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와 나는 더 이상 딸년과 엄마라는 관계가 아닌 아빠에게 시달리는 두 여성으로 만날 수 있었다.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야만 하는 엄마는 10분 거리의 내 집을 자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가끔씩 찜과 김치 보따리를 갖고 때로는 울음보를 갖고 새벽녘 달려오곤 했다. 엄마와 나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다. 반지하 작은 방에서 아빠에게 얻어터진 엄마의 몸을 딸년이 약 발라주기도 했고 서러워 우는 딸년을 엄마는 마냥 끌어안아주기도 했다. 딸년과 예미의 관계가 아닌 편안히 울 수 있는 관계였던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오자 엄마는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 고통과 외로움이 엄마의 인생을 확 바꿔놓기는 했지만 말이다.

외로웠던 엄마는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다. 동네 이발소아저씨하고 눈이 맞아 잠자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엄마는 난생 처음으로 오르가즘을 느꼈다고 한다. 그 때까지 아빠와 20여 년을 살면서 이게 오르가

즘이었지라고 느꼈던 것이 말쑥 뽀이었던 것이다. 억울한 마음에 엄마는 40대 후반에 과감히 아빠와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오르가즘의 문제만으로 별거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아빠가 선거에 연속으로 떨어지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엄마의 언어가 많아졌다. 돈을 벌기 시작하고 엄마가 집안 생활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오르가즘의 문제까지 겹쳤으니, 게다가 아빠의 바람끼는 결혼 내내 있어왔던 일이었다. 참고 지내왔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자 엄마는 별거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후일 들은 이야기다. 엄마는 처음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 이후 아빠와 몇 번의 관계 시도를 하면서 느껴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별거를 하면서부터 엄마는 아무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별거가 10년쯤 지난 어느날 아빠는 위암과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엄마는 자신이 아빠를 미워해서 병이 생긴 것이라고 믿고 울며불며 아빠를 극진하게 간호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아빠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남은 3개월을 엄마는 10년을 미워했던 마음을 담아 열심히 간호를 했다. 그러나 아빠의 병간호가 8개월을 넘어가던 어느날 엄마는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울며 화를 내셨다.

"돌팔이 의사새끼, 3개월이라고 하드만 벌써 이게 몇 개월이야. 어영영... 이 놈의 영감쟁이 질기기도 질거. 죽기만 죽어봐라. 내가 꽃단장 하구 이놈저놈 다 붙어먹구 다닐 거다." 60살 된 엄마의 하소연이었다. 사내놈들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을 했다면 난 충격을 덜 받았을 거다. 그런데 울면서 한다는 말이 이놈저놈 붙어먹을 거라고... [1]

일러스트 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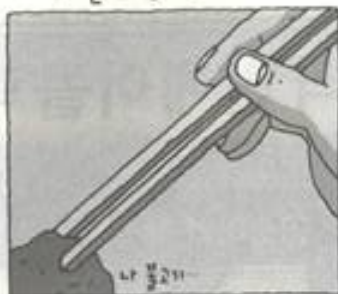
라인헤어컬렉션 Line Hair Collection

곱슬머리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20 화랑빌딩 5F
예약 및 문의 : TEL. (02)544-1991 FAX. (02)545-9366
영업시간 : AM 9시30분~PM 8시 (일요일 점심 영업)

나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자주 먹을 수 있는 형편은 못되지만
엄마가 해주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아버지도 형도 엄마가 만든 불고기를
좋아한다.



엄마가 만든 불고기를 싫어
하는 사람은 엄마 자신뿐이다.



엄마는 이상하게도 은근 김치를 불고기보다 좋아한다. 엄마의 식성은
정말 까다롭다.



이상한건 마누라가 엄마의 식성을 닮는 것이다. 광우생각 드네.

어무이이—



...나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자주 먹을 수 있는 형편은 못되지만
엄마가 해주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엄마 일이나
돕지
필 그러고 있어!

아버지도 오빠도 엄마가
만든 불고기를 좋아한다.



엄마가 만든
불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없다!

남으면 먹어.
고기 모자라!



엄마는
안 먹네?

김치가
제일 좋대!



당신
고기
싫어하지?

여기 김치
있어~!



남편은 내 식성이 자기 엄마를 닮았다고 한다. 난나 생각.

눈부신 광기와

서늘한 카리스마를 지닌

여자, 이혜영



그 여자의 눈은 분명 동양인. 그것도 나팔거리는 흰 속곳이 '땡땡' 아래 서럽디 서럽던 우리 여자의 눈빛을 지녔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그 여자의 눈빛을 붉은보라로 떠올린다. 어둡고 장중한 서재 같던 어느 카페 안. 인터뷰 내내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너무 뜨겁고 부셨던 까닭이다. 그것은 첫내 나는 날카로움과도, 막연한 이글거림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 눈빛은 햄릿의 부정하고도 아름다운 어미, 거트루드로 그가 다시 무대에 섰을 때 더욱 도드라졌다. 흰옷과 검은옷을 갈아입으며 그녀가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유없는 탄식이 나왔다. 그랬다. 역시 그녀는 무대를 가득 채웠다. 배우 이혜영, 나는 드디어 그를 만났다.

햄릿에 대하여

"이제 시작이다 싶어요. 그 전에 연기를 할 땐 그저 그 역할만 충실히 해낸 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감독이었던 만큼 연출자를 많이 믿고 따른 편이었지요(그의 아버지는 〈만추〉, 〈삼포 가는 길〉로 널리 알려진 감독 이만희이다). 아버지를 아주 존경했고 사랑했으니까요. 그 분은 자식들의 자유를 알고 존중해 준 진짜 예술가였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의 말을 너무 믿고 절대적으로 따른 면이 있어요. 제가, 어느 배우나 그렇겠지만 전 좀더 그랬던 것 같군요. 음, 배역을 내 것으로 하기보단 감독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저 충실히 움직였을까요? 그런 게 음, 돌아보면 좀 아쉬워요."

아주 오랜만에 선 무대인데...

"햄릿에선 좀 달랐어요. 연극 이야기 하기 전에, 사실 나는 요즘 들어 이따금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집중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자기정체성이라 할까...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좀 알 것 같은데, 이제까지와 다르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관성이랄까, 왜 있잖아요. 앞으로 막 달리다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잘 서지 않는 것처럼. 방향을 갑자기 틀려는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그대로 빙글 회전해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나를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머리 속에서 분별은 더 잘 되는 거죠. 지난 세월 속에서 경험도 깨달음도 좀더 풍부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따금 좀 괴롭죠. 후후. 〈햄릿〉에서도 그랬어요. 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접근했고 책임도 느껴졌고 그만큼 생각도 많이했어요. 야, 이혜영, 정말 너다운 연기는 뭐지? 너, 잘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해야 하지? 그런 물음들..."

아니, 그녀는 아주 잘 하고 있는 듯했다. 특유의 고혹적인 발성, 사람을 빨아들일 듯한 그 눈빛으로. 아이를 낳고도 더욱 가냘팠던 실루엣으로. 그 몸매 탓일까. 이혜영의 거트루드에게선 그 어느 때보다 처연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아니, 처연함보다는 다른 이미지의 거트루드로 비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대목에선가는 왕비가 당당하게 자기 합리화를 해주었으면 싶은 대목도 있었고, 그 요염한 왕비의 행동 이면에 차갑게 타오르는 권력욕도 드러나기를 바랐었다. 물론 지금 이대로도 거트루드는 왕과 아들을 단단히 휘어잡는 매력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은 이

혜영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적 힘이려 여겨졌지만.

“맞아요, 거트루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은 건 여자 햄릿이에요. 왜 유럽의 극단에서 그렇게 성역할을 바꾸는 시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아주 만족해요. 정말 하고 싶은 연극이었고 배우도 스태프도 모두 다 좋았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 내가 무대에 서 있는 것이 새삼 신기했고 스스로 놀랄 만큼 멋진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전에 많은 역을 하고 바쁘게 살아갈 땐 음미할 줄 모르던 일의 기쁨, 연기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깊이 느끼고 호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햄릿〉은 한 마디로 배우가 말하는 무대였다. 권성덕, 유인촌, 정규수, 이해영, 방은진... 이런 배우들의 힘이 무대를 열정과 광기로 가득 차게 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놀리지 않고 빛을 뿜어냈다.

“아, 이번엔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연기는 더 이상 잘 되질 않더라는 거죠. 물론 전체 극의 기본과 조화는 충실히 따르지만 내가 무대에 설 땐 그걸 넘어서 진짜 내가 왕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여자가 되는 거죠. 음,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난 이 극이 뭘 말하는지 알아.

그런데 이 부분에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 이게 더 잘 맞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음대로 표출되었을 때 연기에도 신명이 붙고 물이 올라요. 예를 들면 옷에 붙이는 장식 하나도, 하나 둘 할 건지 하나 둘 셋 하고 둘 건지 하는 결음결이도, 찌르듯 노력할 건지 감정을 반 호흡 누르면서 지그시 바라볼 건지 그런 시선도 모두 다 내가 진짜 거트루드가 된다면 저절로 배어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누르고 숨기려고 해도 그럴 때 난 내가 가장 나답다고 여기게 되죠. 그래요, 이해영과 거트루드가 한몸에서 마구 어우러지는 거예요... 때론 사이 좋게 때론 불꽃을 뿜기면서... 아, 정말 연기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사실 예전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배우는 맛있게 보여야 한다?

“이만희 감독의 딸이 어린 나이에 데뷔를 준비한다고 하니 전부터 알던 기자들이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야, 여배우는 모름지기 먹음직스러워야 돼.’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 때 난 속으로 결심했지요. 이런 판에서 내가 과연 영화를 할 수 있을까? 얼른 이런 생각이 들때

요. ‘그래, 난 연극을 하자. 연극판은 뭔가 다를 거야.’ 물론 영화판도 지금은 전보다 달라졌고들 하지만...”

그래서였을까? 이해영은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처음 배우가 되었다. 1981년 유관순 기념관, 작품은 〈사운드 오브 뮤직〉, 윤복희의 후보배우 격이었다. 비록 더블캐스팅은 아니었지만 큰 가수의 옆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았고 현대극장과 좋은 인연도 맺게 되었다.

“신문 공고를 통해 공개 오디션이 있다는 걸 알고 제발로 찾아가 응시했어요. 선발되었을 때 정말 뭘 듯이 기뻐하고 이만희의 딸이 아닌 제 스스로의 힘으로 무대에 섰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지요. 물론 절 뽑아주셨던 어른들이 아버지를 전혀 모르시진 않았겠지만요.”

그가 지금도 무대배우로서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데뷔 이후 연극무대에서 거둔 화려한 수상 경력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86년 서울연극제 신인상, 88년 〈사의 찬미〉에서 윤심덕 역으로 동아연극상, 94년 〈문제적 인간 연산〉에서 장녹수 역으로 역시 동아연극상 수상, 그외 백상연기대상까지.

“그런데 영화에선 그다지 상복도 작품복도 없는 편이에요. 82년 〈엄마 결혼식〉으로 데뷔했고, 인상에 남는 작품이라면 〈맹벌〉이 있겠고 임권택 선생님과 함께한 영화들이 좋았고, 〈개벽〉이라든지 〈티켓〉이라든지, 그런데 대체로 내 연기는 조연상 수상을 많이 했어요. 이장호 감독이랑 함께 한 〈명자, 아키코, 소냐〉도 좋은 작품이었는데 조연상이었지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하지만 뭐 어때요. 상보다는 내 연기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작품을 잘 만나야 하고 그렇죠.”

그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자 한동안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영화도 TV도 연극도 광고도 그를 필요로 했고 그렇게 조명받을 때 영롱히 빛나는 순간들을 그는 어릴 때부터 꽤 좋아했던 듯하다.

“어릴 때부터 잔치 분위기가 아주 익숙했어요. 늘 상 온 집안에 사람이 들끓었고 심지어 목욕탕 욕조에까지 맛난 음식이 차고 넘쳤어요. 아버지 언제나 배우들을 집에서 가르치셨고 그걸 한구석에서 편히 바라보던 날 이쁘다, 이쁘다며 쓰다듬어주던 어른들, 학교에서도 난 언제나 스타였죠. 누군가 날 사랑하는 건 언제나 아주 자연스러웠고... 물론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가끔 우울하기도 했지만 내 안의 우울, 분노, 외로움 들도 사람들 앞에 서면 어디론가 날아가버리는 거였어요. 신이 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길 위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아난데, 여기가 아난데... 다들 어디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그럴 때면 다시 가슴이 막막해져서 어디엔가 자꾸 취하고 싶어졌죠. 꼭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보들레르의 시에 있잖아요? 취하세요, 어디엔가 취하세요. 노래는 시든 사람에든... 하지만 그 땐 내 열정을 집중해 쏟을 만한 그 무엇을 잘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주위에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짜 사랑다운 사랑은 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나고 몰자 그냥 빙글

‘야, 여배우는
모름지기
먹음직스러워야 돼.’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 때 난 속으로 결심했지요.
그래, 난 연극을 하자.
연극판은 뭔가
다를 거야.



웃기만 한다.

“나는 어디 있나? 나는 누군가? 계속 되물으면서... 시간이 확히 지나갔지요. 난 중심을 잃고 버스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온갖 풍경은 확히 지나가는데, 아, 저기가 정말 멋져 보이네. 그만, 난 여기서 내리고 싶어. 난 그렇게 달리는 차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리고 싶어도 잘 내릴 수 없었고... 그럴 때 한전에서 사람들은 날 이렇게 말했어. 이해영은 도발적이다. 제멋대로다. 요부갈다... 아예 막 나가는 여자 취급도 심심치않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 또 이려는 거야. 그 여자, 아주 지적이고 단호한 데가 있잖아? 멋있다고들 하대, 개성있고 쿨대있고.”

그래서일까? 그는 영화로는 <성공시대>를, TV프로로는 4년이나 진행했던 <뮤직박스>를 끝냈다. 그 둘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은 이해영을 말해준다.

뉴스나 토론 프로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내용과 형식이 따로 놀았으니까 그건 분명 잘못된 거였어요. 난 다시 말하지만 어느 쪽으로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더 정직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기자 출신이 아닌데 뉴스앵커는 해프닝이었고, 아직 제 철학이 분명하게 정립되지도 않았을 때 토론프로는 시기상조였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이라면 모를까, 물론 그 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뉴스에서 제몫을 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들도 대중에 비친 이미지는 기실 연예인과 다를 바가 없죠.”

메디아가 어울리는 여자

주위의 친구들, 주로 여자들에게 이해영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을 때, 옆에 아홉은 그를 좋아한다고 했다. 다들 당당하고 개성있고 멋지게 보인다고 전했더니 그는 다시 수줍으면서도 어색하게 활짝 웃는다.

“그건 내가 예쁘지 않아서야. 내가 말예요. 자기들 남자친구를 절대 뺏을 수 없을 것같이 생겼잖아요. (이미 그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던 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손을 휘휘 젓자 그는 활짝 웃으며) 아냐, 난 내 얼굴이 정말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좀더 생겼으면 한대거나 누구를 부러워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난 그저 나일 뿐이니까.”

언젠가 어느 선배가 회람신화의 비극적 여주인공 메디아를 극에 올리고 싶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메디아가 가장 어울리는 여자로 그를 꼽았던 적이 있다.

“글쎄, 여자들이 날 좋아해준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여자들이 제 자신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내가 앞서 ‘드디어 그를 만났다’는 표현을 썼듯 나 역시 어릴 적부터 이해영을 참 좋아했다. 왜, 그는 뭔가 다른 여자배우들과는 달랐으니까. 생김도 답답하지 않았고 말씨도 꾸민 것처럼 여뒀어지지 않았고 눈빛도 정말이지 강렬했었으므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물론 이따금 내 자신보다 좀 과장되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나답다는 것, 이해영답다는 것, 그걸 억지로 가둔다고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맞아

요. 나를 페미니즘 부사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필릭 뒤흔었지만 당당하게 사는 여자. 제 일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가 여성주의적 관점에 맞는 거라면 별로 이의는 없겠군요. 나 역시 개성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자들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구체적인 꿈요? 연극에선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햄릿 같은 역. 무엇보다 남자배우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압도하는 여성캐릭터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것도 서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말이예요. 전 이야기 스케일이 큰 걸 좋아하거든요. 모노드라마보다는요. 모노는 자기과시 같아서 좀 꺼려지거든요. 역사성이 있고, 비극성이 있고, 뭔가 세월의 콘텍스트에서 나만이 말할 수 있는 강하고 장렬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한 많은 여인이거나 남자한테 짓밟힌 피해자 여성 같은 것 아주 싫어요. 반대로 남자한테 적대적이거나 너무 예민한 것도 싫구요. 인간성 자체가 담대하고 멋진 여자의 이야기, 그런 것을 한 번 꼭 만들고 싶어요. 역사 속의 여자예술인들을 재현하는 것도 좋아요. 지난 번 무대에서 전옥이라든지, 최승희라든지.”

하지만 영화에서 그의 꿈은 조금 달랐다.

“아무래도 아버지질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 찍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사실은,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음, 흑백으로 <만추>를 다시 찍는 거예요. 만추는 ‘가느란 희망이라도 잡으려’ 삶의 정서가 쓸쓸하게, 아주 스산하게 관객에게 스며들 수 있는 영화예요. 이제는 필름마저 사라진 아버지의 대표작이죠. 나, 상대역도 생각했었어요. 누군지 짐작해 보세요. 어? 맞았어요. 어쨌, 그래요. 박신양. 그 사람 연기 봤는데, 아주 진지하고 깊은 배우예요. 죽기 전에 언젠간 찍을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나이 먹기 전에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영화배우로서 제 가느다란 희망이에요.”

주위사람들과 일상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는 칭찬을 톡 잘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었다.

“동료 가운데 장미회를 좋아해요. 남들은 그의 연기에 대해 말이 많지만 그처럼 초지일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진짜 스타라는 증거라구요. 윤석화씨는 움직이는 작은 극장이예요. 기획에서 조명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에 비하면 난 그냥 연기만 하는 거죠. 참 그 분 대단해요... 요즘도 영화를 하고 싶단 생각 많이 해요. 근래 함께 해보고 싶은 감독으로는 이창동 감독,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도 좋았지만 <초록물고기>는 더 감동적이었어요. 참, 영화를 찍으려다 보류된 게 있어요. 제 개인 사정 때문에. <송어>라고. 좋은 작품일 것 같았는데...”

그리하여 끝으로 조심스레 세간의 화제였던 아이와 결혼에 대해 물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은 단지 하나, 이해영은 역시 마돈나나 조디 포스터의 면모가 있어!라는 것이었으리라. 그는 말을 잠시 돌려 파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파리의 하늘일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신나게 걸었어요. 세상의 온갖 강아지들도 실컷 구경하고 개똥도 원없이 밟았지. 그런데 배운 너무 막막했어요. 외로웠어. 무대에 다시 설 힘도 없을 만큼 외로웠어요. 파리는 건물이 낮아서인지 하늘이 무척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그럴 땐 모처럼 편안하기도 했지... 그렇게 고요하고 외로운 가운데 생애 처음으로 번쩍이는 경험을 했어요. 무언가 내 안에 꽂차는 기쁨과 설렘. 막막한 외로움의 끝에 만난 그 설렘이 이전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2년 가량 머물던 파리의 하늘 밑에서 그는 어느 따스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했고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품안에 아이를 받아안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낄 만큼 충격과 흥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면서 다짐한다. '아무도, 그 무엇도 이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 그랬다. 여전히 그 앞에선 한없이 설레는 한 남자와 딸 하연이를 그는 누가 뭐라든 품에 꼭 안고 지키고 싶은 거다.

"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내 가족만은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았음 좋겠어요. 물론 난 배우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라고 할 수 없겠지. 그런데 그 관심의 실체가 과연 뭐죠? 단순한 호기심, 편의적인 해석,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수근거림... 다 '인간에 대한 예의' 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한 쪽에선 가십거리로, 한 쪽에선 의미심장한 선언적 행위로 그의 사랑과 출산을 거론했다. 맞다. 어느 쪽도 진실은 아니었다. 우리는 온갖 억측과 편의적 해석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맞게 배맛 추진 말자. 다른 배치가 저지르는 슬한 폭력을 진정한 페미니즘 배채라면 조금도 흥내내려 하지 말아야겠단 생각이 더욱 분명해진다.

어둡고 습한 밤. 휘황한 강남 거리 조금 뒤편 아담한 극장 유를 걸어나오면서 그 여자 이해영을 생각한다. <햄릿> 공연 내내, 인터뷰 내내 마치 모노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빨려들던 그 매력의 실체는 무얼까. 꼭 막힌 남자들은 내놓고 싫다고 하고, 좀 트인 남자나 대다수 여자들은 좋다고 말하는 배우 이해영. 그것은 이 나라에서 인생과 연기에 대해 이렇게나마 말할 수 있는 진짜 광대가 너무도 드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모순이에요. 모두가... 연극에 등장하는 모든 배역을 봐요. 전부 모순투성이잖아요. 다시는 칼을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금방 결투를 하고, 세 치 혀로 참회를 하고 이내 부정한 잠자리로 들어가버리죠... 당신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모습이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진 김민숙

이숙인

8월 14일자,
소설가.



그래,빙그레

'지구가 둥글다'는 맨 처음 생각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건강을 전하는 행복의 메신저

빙그레의 '맨 처음생각'이
'최초 제품'을 만듭니다



요구르트를 바꾼 요구르트! 최초로 유산균을 캡슐에 싸 장내까지 살아서 가게 만듭니다.

아이스크림을 바꾼 아이스크림! 최초로 생우유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의 맛과 영양을 높입니다.

라면을 바꾼 라면! 최초로 콩유 대신 콩기름으로 라면을 만듭니다.



빙그레



Marks & Spencer
the largest retail
organisation
in Great Britain
since 1884 has become
a global retailer with
the highest integrity for
Quality,
Value and
Service.

STORES:

- Lotte Sogongdong 8F 02-319-8971
- Hyundai Apkujung B2 02-3449-5161
- Hyundai Chunho 1F 02-488-2920
- Hyundai Banpo 3F 02-3477-3422

MARKS & SPENCER

하루한번 화장실 변비에는 아락실!

"화장은 매일 하면서 화장실은 왜
매일 못가는 거죠?"



결 화장만큼 속 화장도 하루한번 신경 써 주세요!

화장은 매일 하면서 화장실은 왜 매일 못가세요?
결 화장만큼 속 화장도 매일매일 신경 써 주셔야죠!
가장 건강한 배변습관은 하루한번 꼭 가는 것!
결 화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배먹지 않는
규칙적인 배변습관입니다. 장도 깔끔하게, 아셨죠?

장도 깔끔하게 하루한번 가꿔주세요!

아락실은식이섬유소가 대장에서 팽창하여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장의 운동리듬을
되살려줍니다. 새로워진 아락실 장마사지로
장도 깔끔하게 하루한번 비워주세요.
하루한번 화장실, 변비에는 아락실!



식이섬유성분의 상쾌한 변비약
아락실과립



여자가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이가 아플 땐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녀도,
정작 내 몸은 제대로 한번 돌본적
없지 않으십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먼저 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월 2~3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성들의
각종 질환을 중점 보장해 드립니다.

- 여성특정암(자궁, 유방, 난소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시 2,000만원까지 보장
-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골절), 관절염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고액보장
- 장기입원시 장기간병자금 및 건강회복자금 지급
- 재해로 인한 골절발생시와 교통재해 입원시
응급치료비 지급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문의, 계약 등 11개 일간지 782회 상동 센터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
■ 전화보상팀: 02-3800-3114 ■ 동부지역본부: 02-3800-3131 ~ 8 ■ 강남지역본부: 02-3800-3131 ~ 8 ■ 서울지역본부: 02-3800-3131 ~ 8 ■ 부산지역본부: 02-3800-3131 ~ 8
■ 대구지역본부: 051-260-0505 ~ 8 ■ 울산지역본부: 052-230-0531 ~ 5 ■ 충청지역본부: 042-225-0121 ~ 7 ■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맛있고 재주많은 식초’

첫 번째 이야기

문득 새콤한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다.

가볍게 입맛을 돋우고 싶을 때, 피로할 때면 더욱더 먹고 싶고 봄철 춘곤증에 시달릴 때도 그렇다.
음식 맛을 상큼하게 만드는 식초, 1백 퍼센트 자연발효식품인 식초는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실 식초는 생활의 곳곳에서
다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요모조모 쓸모있는 식초 활용 아이디어 다섯가지를 소개한다.

짭짤을 덜어주는 식초 맛차차차,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네? 음식 간이 세어졌을땐 식초를 조금 넣어보세
요, 식초가 짭짤, 매운맛을 약하게 만들어 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또 햄은 요리에 사용하기 전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식초를 함께 넣어주면 향이 좋아지고 짭짤이 줄어들답니다. 시든 야채의 맛을 살려내
는 식초 냉장고에 오래 두어서 맛이 떨어진 오이, 야채가 있다구요? 빨리 꺼내서 식초를 살짝 뿌려 두세요.
가족들의 입맛에 맞춰 소금, 식초, 설탕, 참기름, 통깨 등 양념만 해주면 시들었던 야채 맛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입맛 돋우는 도시락 반찬으로도 그만이에요. **영양소 파괴를 막는 식초** 시금치를 데칠 때 냄비에 식초를 몇
방울 넣어보세요. 시금치의 색이 더 푸릇푸릇 선명해지고 비타민C의 파괴도 막을 수 있거든요. 참, 다시마로
요리를 하실때도 식초를 넣어주면 좋아요. **달걀지단을 잘 부치는 비결**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지단없이 요리 맛도, 모양
도 안 나고...' 고민이 많으셨죠? 이제부터 달걀 지단 부칠 때 잊지 말고
식초를 조금 넣어주세요. 지단이 찢어지지도 않고 또 잘 퍼져거든요. 얇
고 평평한 지단, 식초가 그 비결이에요. **감자를 늘하얗게 하얗게!** 감
자껍질을 벗기고 난 후 까맣게 변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자를
처음 그대로 하얗게 보관하시려면 식초를 몇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담가 놓으
세요. 식초가 감자의 색이 변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알로에는 사랑입니다

‘복한 동포에게 뜨거운 형제애를!’
 남양알로에가 실천하는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자연을 무기로 질병과 싸우고
 사랑을 무기로 인류의 행복을 지키는 일-
 남양알로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명입니다.
 이제 남양알로에는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동포에게 쌀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그 사명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을 위한 꿈나무교실 운영과
 생활건강설계사의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더 많은 사랑 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남양알로에의 사랑 나눔 운동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Nature's Best
남양알로에
 www.namyangaloe.co.kr
 고객센터 (080) 022-7575

세계에 진출해 있는 남양알로에 ■ Aloecorp(Texas, USA) ■ Aloecorp(Tampico, MEXICO) ■ Aloe Research Foundation(Texas, USA) ■ 루고보에, 노로제비한스키 농장(러시아 연방)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뉴스같은 두통약, 참 좋겠죠?”



전 꼭 타이레놀이예요. 믿으니까요.

전 머리 아플 때 꼭 타이레놀을 선택해요.
 단일성분으로 두통을 말끔하게 없애 주거든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뉴스같은 두통약-
 전 꼭 타이레놀이예요. 믿으니까요.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사람의 잔여물과 함께
 소화된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타이레놀 보자기
 형태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의: 702-1919)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처방량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ssamzie

홍승혜, 유기적 기하학 'Enjoy ssamzie', print on canvas, 45X61cm, 1999.

태평양제약 최우수기업상 수상 (98 한국경제신문)
www.pacifictop.co.kr



관절속이 콕콕 쑈신다구요?

관절염, 문제는 관절속입니다 관절속까지 약물이 쏙쏙, 케토톱!

캐내십시오! 관절염은 관절속에 염증이 생긴 숙병! 그래서, 관절속까지 약물을 전달해야만 관절염을 캐낼 수 있습니다. 케토톱은 관절염에 좋은 케토프로펜 약물을 관절속 깊숙이 전달하는 기술로 선진 6개국 특허까지 받은 약효가 좋은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제 관절염을 딱딱 캐내려면, 태평양 케토톱을 꼭 확인하세요!



대장까지 쏙쏙 캐내는 케토톱-케토톱 캐내십시오!
케토톱



한국 NO.105487 미국 NO.550956 일본 NO.2546996 영국 NO.2273044 독일 NO.4241874 프랑스 NO.25498787



본약은 의사-약사에게 처방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을 꼭 읽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사랑이 보약인 가족



행복한 가족을 위한 첫번째 보약이 사랑이라면
두번째는 맛과 정성이 담긴 음식입니다

醫食同源 /의 /식 /동 /원

『醫食同源』이란 '좋은 음식과 보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뜻으로 우리 선조들의 '食醫'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동원산업은 이 의식동원의 정신으로, 모든 제품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 동원이 만듭니다

동원산업
<http://www.dw.co.kr>



강남 최고의 명소!

한우 한 마리의 내장증
위 부분인 양을 잘라내어
껍질을 벗기고 지방을 제거하여
구이용으로 고르면 미처 서근이 못됩니다.
바로 양깃머리입니다.
지방이 적고 담백하며
소화 흡수가 뛰어나죠.
이 양깃머리를 적당히 썰어
참기름, 마늘, 양파 등으로
복합된 양념에 버무려 굽습니다.
강남골은 설량을 쓰지 않고
과일즙만으로 단맛을 내며
모든 김치류는
산수음료로만 만듭니다.



전화: 539 - 6510~1

대형 주차장 완비, 대·소 연회(단체예약)석 완비, 일요일·공휴일 단체예약 할인(가족과 함께)

온달의 덕

평강공주가 울고 있는 까닭은?



Start

신세대 평강공주의 온달을 만나다



캠퍼스 라이프 - The end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전문학교

ILSA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THE DISABLED



가르치고 서로 배우며 함께 커 나가는 이 배움의 터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인, 능력있는 직업인이 됩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소속 일산직업전문학교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전용 공공직업전문학교로서
1991년 3월에 첫 개교를 한 이래
1년 기능사 양성과정 210명을 교육훈련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응용기계공과 전자공과 의상디자인공과 인쇄매체공과 인터넷어공예공과 귀금속공예공과 멀티미디어공과

411-32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11-14 TEL 0344)915-6601~5 FAX 0344)915-6608

천리안 ilsanh • 하이텔 ilsanh • 유니텔 kepad12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lsan.or.kr • E-mail : master@ilsan.or.kr

그녀의 36가지 스캔들, 클리오 립스틱

CLIO
PROFESSIONAL

칼라 스캔들



오늘 내 입술은 '짜릿한 칼라'에 빠져든다.



(주)클리오

본사 02514-0056

이대점 02312-5531

부천LG백화점 0321320-7159

부산그랜드백화점 0344910-2113

창원백화점 051417-0834

천안백화점 0417559-9130

영광백화점 02968-9085

대전백화점 042556-3073

부산지사 051909-7731

대구지사 053427-6461

광주지사 062267-8071

대전지사 042627-4179

한국아쿠르드
http://www.yakult.co.kr



헤이즐넛 자유

산타페 한모금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순간 '자유'의 향, 그리고 나

작은 컵속의 자유 - 산타페

Santa fé



우수 아파트

- '98년 제3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 '99년 대한주택공사 선정 우수 시공업체
- '99년 광주광역시 선정 우수아파트 수상

행복을 그려요, 금호건설



건설회사가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매일 매일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 빌딩, 교량, 도로들.
이 곳에서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금호건설은 한 단계 높아진 품질과 기술로,
건설에 앞서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 중심 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행복을 만들어요, 금호건설



고객과 함께, 자연과 함께

금호건설

<http://www.kumgun.co.kr>

시집 권하는 여자

객원기자 권혁한



『부드러운 감옥』 이광형 · 문학지성사

한 권의 시집을 다 읽어도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의 시가 아무리 삶에 대해 투덜거린다 해도 삶에 대한 나의 열정을 사들게 하지는 못한다'는 시인 자신의 말과 아주 단순한

시 한 편이 좋다.

한 때 그 여자가 작업대의 꿈을 가졌을 거라고 이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늘 따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듯, 세상엔 구부러진 길밖에 어떤 길도 알려 있지 않다는 듯, 여자는 몸을 움직여 몸 속의 뼈들을 낚김없이 휘어왔다...



『대머리와 사랑』 송이정 · 세계사

마치 어린애처럼, 뭘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댄 산문적인 시들이 들어 있다. 쉽게 읽히고 재미있게 지나가는데, 다시 다른 시를 읽어보게 하는 힘이 있는 시들이다

나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나를 미운 오리새끼라고 확신했다. 누가 시켰다면 나는 나를 절대로 미운 오리새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언뜻엔 비친 나는 보통 오리새끼였다. 이후 나는 뒤늦게 보통 오리새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했다.



『원손을 위한 협주곡, 달걀 속의 생』

김승희 지음 · 문학사상사 펴냄

제목에서부터 남다르다. '오른손'이 아닌, '원손'이라는 것, 모든 허락된 것, 옳다고 여겨져온 것, 바르다고 판단되는 '오른' 쪽이 아닌, 금기된 것, 적악시되는 것, 소외된 것, 깊이 생각되지 않은 '원손'을 위한 작가의 뼈저린 깨달음이 모두 다 시가 되었다. 딸로 태어나 여자로 살아가다 엄마가 된 이후까지, 김승희의 시를 읽으면 묘한 힘이 솟는다.

...언일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그대선 정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정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바닥이 나를 받아주네』

양재권 지음 · 창작과 비평사 펴냄

시집 한 권이 4부로 나뉘어져 있다. 소재물은 몸, 이모에게 가는 길, 일하는 여자, 발들은 다정다감해 되어 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여자라는 몸에 대해서, 일하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 듯.

그렇군 나는 여자였고 생리 심한 날 하얀 번개 한 폭에 무겁게 가라앉은 피를 보며 그대 나는 여자였지...

네, 전 돈도 없고 몸도 한 줌도.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 있지 않은 여자지요. 보호자가 없는 독신녀구요. 나 자신의 가장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죠...



『즐거움 일기, 이 시대의 사랑』

최승자 지음 · 문학과 지성사 펴냄

출판 '시인'이란 이름만으로 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 최승자. 몇 권의 시집에도 그의 얼굴 사진은 볼 수 없었다. 선 몇 개의 커리커처로만 그려져 있는 얼굴. 시집 전체에 걸쳐 있는 내뿜는 듯한 말투와 방기해버린 듯한, 그러나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

일찍이 나는 출러가는 것은 머리가 지리라고 생각했었다. 다른 사람들이 깊이로 깊이로 출러가는 동안 나는 깊이로 출러가는 것만이 라고... 하지만 이런 게 살일 줄 몰랐다고 말하지 말자, 서른세 살(나는 서른넷) 나이에 그렇게 말한다는 건, 범죄행위다...



주인공은 '큰 물건'으로 포르노업계에 진출해 왕으로 군림한다. '거대한 물건이 온다'라는 커피의 영화 포스터

포르노디아스포라 시대의 〈부기나이트〉

창 작품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보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나 코카콜라 깡통도 팝아트 클래식 작품이 되고, 변기도 어떻게 변형해서 설치하느냐에 따라 예술이 되는 시대에 '어떻게'의 문제는 작품의 수준과 질을 가늠하게 해주는 관건이다. 어떻게의 차원에서만 잘 풀어낸다면 포르노라고 안될 게 없다.

그런 맥락에서 〈부기나이트〉는 타의 모범이 된다. 포르노가 전용관의 계도를 벗어난 세기말, 포르노 제작, 유통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에서 인터넷 포르

노스타 노랑나비도 한국 태생이면 국가를 빛낸 애국가 스타가 되는 시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조회전수가 포르노사이트라는 것이 놀랍지 않은 시대, 몰래카메라 포르노가 누구나 보는 비디오가 되어 포르노 디아스포라(diaspora)를 구가하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부기나이트〉는 70년대와 80년대를 빌어서 포르노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인간적이면서도 사회학적인 틀에서 풀어내려 한다.

요즘 유행하는 대중문화 연구 차원에서 포르노를

화두로 내건 이 영화는 포르노 스타와 포르노업계라는 재료를 포르노영화가 아닌 것, 즉 포르노영화 찍기에 관한 것,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포르노에 대한 메타담론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포르노 스타 하면 한국산 노랑나비나 노랑머리 살냄새 나는 여자를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성기의 크기가 매우 큰 포르노 남자스타를 아이콘으로 내세우는 발상의 전환도 해보인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이 남자가 그 큰 것이 불거져나온 섹시한 모습으로 옆으로 반쯤 누운 채 노란 모피를 걸친 모습으로 등장한 아한 포스터를 두른 시내버스가 서울을 누비고 다닐 정도로 홍보에 신경을 썼고 저널리즘에서도 매우 우수한 영화라고 호평을 했다. 그런데도 영화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문화지 『롤링 스톤』에선 98년 최고의 영화로 〈타이타닉〉에 이어 이 영화를 2위로 선정했고, 제목부터 오락 냄새가 나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는 〈타이타닉〉보다 〈부기나이트〉가 더 위대한 영화라고 격찬하기도 했다("영화사상 가장 뛰어난 개!"). 진보적 정론 시사잡지 『뉴스위크』에서도 "98년에 나온 가장 유쾌하고 짜릿한 영화"라고 격찬했다. 그런데 영화보기는 확실히 문화적 코드의 지배를 받는가 보다. 그래서 영화는 국제적 언어가 아니라 문화적 언어이다. 〈타이타닉〉이 대단한 히트를 기록한 한국에선 〈부기나이트〉가 기대 이하의 흥행지수를 기록하고 대중문화 분석을 흥미삼는 이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지 못했다. 하긴 많은 사람들이 보고픈 것은 포르노 자체이며, 자칫하면 포르노의 환상을 켜 포르노 메타담론은 시장성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포르노를 대하는 사람들의 이중심리가 아니겠는가.

이쯤에서 영화의 주변부를 서성이는 걸 멈추고 영화 텍스트 자체로 옮겨가보자. 〈부기나이트〉는 포르노 스타와 포르노업계의 변화과정을 포르노가 필름에서 비디오로 넘어가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다룬다. 이런 과정은 MTV적 이미지 연출과 편집, 타란

티노 같은 좌충우돌 해체정신으로 영화 속 영화와 영화 속 현실을 통합해 내면서 매우 개방적인 구조 속에 담긴다.

우선 포르노 스타 에디(마크 월버그)를 중심으로 보자. 때는 디스코시대인 70년대 미국, 에디는 이소룡과 셰릴 티그로의 사진으로 도배한 자기만의 방에서 가끔 자신의 특별함을 보장하는 큰 성기(33cm)를 거울 속에서 과시하며 대스타를 꿈꾼다. "넌 잘 될 거야"라고 자기최면을 걸면서,

그러나 자기만의 세계를 벗어난 에디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나이트 클럽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큰 성기 보여주기'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챙기지만(영화에선 그 자체를 마지막까지 아껴두고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 포르노가 아니라 진지한 영화니까), 집에선(특히 어머니에게)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다. 에디가 학교도 그만두고 밤늦게 빈둥대다 집에 들어오고 행실 나쁜 여자와 자고 다닌다고 어머니는 호되게 야단을 쳐 그를 집에서 내쫓는다. 이런 광경을 보노라면 관객은 저절로 에디를 편들



엠버는
에디의 상대이자
영원한 구원의
어머니상이다.
엠버는 포르노를 위한
섹스를 할 때도
자상하게 에디를
보살펴주고,
실제로 그를
'베이비'라고 부른다.



〈부기나이트〉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은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이들이 사실은
음지에서 소비되는 물건을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
그런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의 난잡함과 마약복용으로 양육권을 빼앗긴 이혼녀이다. 엠버는 자기 아이를 보고픈 마음에 에디와 (가족에게 상처받아 어려서부터 포르노배우가 된) 물리결과와 관계로 보상받으려 한다.

그러나 포르노가 필름에서 비디오로 넘어가는 80년대의 변화는 이 업계에 속한 이들에게 시련을 준다. 스타의식에만 가득찬 오만한 태도

와 마약복용으로 무력해진 성기능으로 에디는 업계에서 추방당한다. 에디는 그와 잘 맞는 동료 두 명과 음반취업으로 업종전환을 시도하지만 자본과 재능 부족으로 좌절된다. 이제 에디 일당은 거리 매춘에서 마약강도로까지 추락한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에디는 다시 책 호너 감독을 찾아가 비디오 포르노세계의 공동체에 합류한다.

이런 에디의 인생유전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포르노업계 사람들과 그들 공동체에 대한 통찰력 있는 묘사, 그리고 포르노를 즐기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는 위선적인 사회의 모습이다. 개인들, 그들의 직업공동체, 사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통과하는 이 영화는 포르노업계에 대한 상식적 편견을 버리면서 내러티브를 전개하고 관객도 그렇게 되게끔 만든다.

우선 70년대 디스코세대의 사회풍속도 속에 이 공

동체를 위치시키면서 영화를 풀어가는 전략으로 포르노의 사회적 의미를 제기한다. 이들이 하필이면 왜 손가락질당하는 포르노에 몸담게 되었는지, 이 이상한 업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평범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성행위를 일삼는 일상생활을 통해 펼쳐보인다. 그중에 끼어든 포르노 가족 이야기는 포르노가 인간을 병들게 하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대목이다. 포르노 배우인 아내와 포르노 제작실무자인 남편은 아이까지 돈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내

는 포르노영화적 기현장 밖—침실과 파티 등—에서도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외간남자와 섹스를 즐겨 남편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결과는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쏘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영화에



동료 포르노 배우들이 주인공의 큰 물건과 '죽이는' 섹스연기를 보고 있다.

서 유일하게 상징적인 교훈과 함께 포르노세계의 허망함을 알려주는 대목일 것이다.

30세도 채 안된(약관 27세의) 폴 토마스 앤더슨(제작, 각본, 감독)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게 개인과 사회를 함께 성찰하면서 포르노업계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동정의 시선을 갖고 시나리오를 썼고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 앤더슨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은 일을 하면서 먹고사는 이들이 사실은 음지에서 소비되는 물건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 그런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포르노업계를 떠나 정상적인 가족을 꾸려 생활하려는 한 커플의 삶은 이런 앤더슨의 인간적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변호

한다. 작은 비즈니스라도 하려고 용자를 받으려 은행에 간 이들은 곧 거절당한다. 이유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포르노 배우에게는 용자를 해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얼굴을 알아본 그 은행원은 포르노를 봤다는 뜻이 아닌가. 포르노 고객인 은행원에게 고객대접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런 류의 이중적인 편견에 시달리지만 결국 포르노세계를 떠나 사회에 적응한 유일한 인물이다. 적어도 도너츠가게의 강도에게 불상사를 당하기 전까지는.

포르노는 육하더라도 그걸 만드는 이들을 쉽게 매도할 수만은 없다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의제에 관객은 갈수록 설득된다. 돌아온 에디 일행과 80년대 비디오로 거듭난 포르노공동체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는 해피엔딩

도 다행스럽게 보인다. "관객은 섹스, 스타, 해피엔딩을 좋아한다"고 가장 반할리우드적인 영화를 할리우드 안에서 만드는 로버트 알트만이 간파했듯이, 지지해온 인물의 해피엔딩은 관객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필자는 영화 중간에 몇 번인가 잠깐씩 의혹의 시선을 던졌던 것들이 이 부분에 와서 확 깨지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돌이켜보면 에디의 어머니를 악녀로 만들고 포르노 스타 엠버는 상처받은 성녀로 만들어가는 이분법이 걸리기도 했고, 에디 주위를 맴도는 게이를 바보스럽게만 묘사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했다. 비디오시대에 맞추어 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즉흥섹스를 물레카메라 스타일로 찍는 장면에서도 영화

는 폭력적으로 포르노 편을 든다. 물러감과 과거 그녀를 희롱했던 남자를 다시 우연히 만나게 해서 그 못된 남자를 혼내는 것까지는 통쾌하지만 포르노된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용호하기 위한 과잉설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포르노업계 사람들은 모두 선인이 되고 포르노를 즐기면서도 포르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이들은 모두 악인이 되는 지나치게 단순한 이분법이 어느 순간 드러난다. 특히 엠비가 에디에 대해 찍은 다큐멘터리는 '상처받은 인간들의 쉼 곳은 포르노'라는 메시지를 서정적으로 증명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런 설정들은 포르노에 농락당한 수많은 여배우들(아마 남배우도 있겠지만 주로 여자들의 증언만 출판되어 있다)의 증언과 고백, 그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80년대와 90년대의 포르노산업에 대한 신랄한 논쟁, 그 결과로 인한 반 포르노법 제정과정을 잊게 만들거나 무시하게 만든다.

에디의 파트너이자 정신적 어머니로 설정되는 엠비의 캐릭터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마약과 포르노 때문에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격을 실격당한 그녀가 사실은 가장 모성적인 여성이라는 관점은 매춘부여성론(모든 여자는 매춘부 기질을 타고났으며,

매춘부로서 남성을 대할 때 가장 여성적이고 모성적이며 인간적이 된다는 해괴한 여성론)의 부록처럼 보인다.

포르노를 선악가치로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을 존재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의미와 인간의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부기나이트>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여성을 매춘부 모성상으로 설정하고 신비화하면서 아버지의 권위(책 호너 감독은 포르노공동체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설정된다)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포르노를 감싸안으려고만 한 <부기나이트>는 포르노시대를 해체하기보다 강하게 옹호한다. 오랫동안 처벌을 받지 않고 여자장사를 해온 이들이 이제 어린 소녀들, 그리고 소년들까지도 동원해서 포르노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에 포르노는 상처받은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인간적으로 감싸안아야 한다는 주문은 정치적 온당함(political correctness)의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기나이트>는 포르노에 관한 심오한 메타담론이 될 뻔하다가 머뭇거린다. 그리고는 "포르노는 미워하되 포르노를 만든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래리 플린트>식 궤변의 울림으로 추락한다. [11]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 영화학 교수,
본지 편집위원.

11 조미란

당대비평

2000년 여름호



권두대담/인문학 또는 우리 정치 공동체의 민주적 영혼을 위하여 김우창·홍윤기
논단/노사정위원회는 좌초할 것인가-사회적 합의주의의 복원을 위하여 윤진호
책사 되는 인간? -생명복제기술의 의미를 묻는다 구영모

특집/잠복된 전쟁: 아만의 시나리오에 저항하라

- ▶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상성
- ▶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를 위한 제안 이종석
- ▶ 중화(中華)는 평화를 구하는가: '중국적 프리즘'에 대한 제안 문홍호
- ▶ 평화를 만든다는 것 토미야마 아치로

시론/유고 폭격: 그 수사학의 이면 노암 촘스키

비평

- ▶ 다시 재일에게 국적이란 무엇인가 김석범
- ▶ 국민 국가의 안과 밖: 국민 국가, 국가, 주체 이호덕
- ▶ 바꾸는 일, 바뀌는 일, 그리고 백두산의 시 장남영
- ▶ 반(反)중앙 권력의 논리는 가능한가 박홍규

21세기 한국 사회 대안 논쟁3

위기와 대전환: 신자유주의 보수 혁명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 이병천

주제서평

- ▶ 두 개의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와 J.S. 밀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김균
- ▶ 우리, 대한민국의 아만을 잊었는가 '서승의 죽음 1945' 문부식

춘평

- ▶ 구조조정 공세와 신진 각국 노동 운동의 대응들 '구조조정의 정치' 정이현
- ▶ 개안(開眼), 그 뒤끝의 고통 '인족주의는 반역이다' 지수걸
- ▶ 전사, 강준만의 일인 유격전 '하야후는 태를 기다린다' 한수영
- ▶ 잊혀진 홀로코스트 '난징대학살' 정재숙
- ▶ 스타 크래프트 신드롬 속에 숨겨진 광기 이원태

시 최하림·박상률·유용주·이원규

소설 달빛 고양이 윤영수, 새 전성태

07

삼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9-4 삼행빌딩 / 전화 322-1845, 팩스 322-1846 / 천리안·유니텔 h3952, 하이텔 rh04

입맛을 올리세요? 입맛을 돌려줘요!

대중매체 요리열풍, 어떻게 볼까



SBS 매주 금요일 저녁 방영했던 <최고의 밥상>

홈 페이지 관리를 잘 하기로 소문난 소설가 김영하 사이트에 한 번 구경갔다가 일산에 사는 그가 집 근처 빵집에서 파는 바게트가 입에 안 맞아서 신촌 이대 앞에 있는 단골 빵집에서 바게트를 사간다는 글을 읽고 꼭 까다로운 사람이군 생각했다. 식성은 성격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 그는 단순히 바게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촌에 있는' 빵집의 바게트의 향과 부드러운 맛을 즐기는 모양이다.

음식문화에 대한 사유를 통해 인간의 역사를 재해

석하고 있는 「음식문화의 수수께끼」의 저자 마빈 해리스는 문명의 진보라는 것이 '보다 나은 음식'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진단한다. 새삼 가히 혁명적인 전언이다(현대성이 고작 음식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라니!).

외로운 요리?

음식은 때로 언어보다 더 육감적이고 원초적이며 감성적인 코드로 정서를 반영한다.

지리한 오후, 유시진의 만화 「마니」를 보다가 헛헛한 심사가 몸 안의 감각을 휘젓고 지나가는 통증을 느꼈다.

— 주문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 저는 외로운 요리를 주세요. 아주 뜨거운 걸로요. 외로운 요리라니, 흠 이걸 그럴 때쯤 실연을 한 게 아, 아니라면 이런 대사를 건져낼 리가 없지 싶다(한수 배웠군). 이 때까지 외로울 땐 단 것을 먹어야 기분 이 좋아지는 줄 알고서 초코파이를 먹거나 '살아가는 맛, 살아 있는 맛'을 돌려준다는 차디찬 카스를 마셨다(그래선지 더욱 외로웠다). 요리라는 즉물적인 단어에 '외로운'이라는 감정형용사의 수식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한편으론 절묘하게 어울린다. 대개

TV나 잡지 속에서 세련된 화면구도, 화려한 조명 앞에 적나라하게 벗겨지고 비쳐지는 음식은 '쾌락을 누리려는 의지'를 자극하는 즐거운 눈요기감으로써 끈덕지게 끈끈하게 보는 사람을 유혹한다.

의 경우, 요리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라는 인간관계를 연상시키거나, 뭔가 허기를 채워주는 욕구충족의 대상을 내지 그런 것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인 동시에, 음식에게 자신이 먹히는 묘한 피드백 작용을 한다(나의 경우, 배고플 때보다 외로울 때 더 자주 먹는 폭식증이 있는데, 음식에게 내가 먹히는 것 같아 끔찍할 때가 있다). 실제로, 문화라는 일련의 활동이 인간에 의한 음식의 지배 같지만, 인간에 대한 음식의 지배가 더 설득력이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책을 읽느라 꺾꺾한 머리를 혹사하는 쪽보다, "우리 할머니는 이런 걸 먹었다"를 분석하느라 요리책을 뒤적이는 데 더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밥식인가, 밥넉인가 아니면 밥진인가?

그래서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나오는 각종 요리책(하도 많아서 열거를 포기했다)이나 쿡킹토크쇼의 인기로 과다편성된 요리 프로들, 심지어 요리로 개그를 한답시고 음식을 요리책 조리책 던져가며 오버액션을 남발하는 추태까지 연출해 가며 이른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지지고 볶고 난리다.

그런데, 하필 생존권을 박탈당한 결식 노숙자들이 급증하는 경제비상계엄령 IMF체제하에서 우리에게 음식이 일상을 들춰내는 포르노그래피('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아무 것도 감추지 않으며 '모든 것'을 기록하여 우리의 시각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르로서의 의미)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모든 포르노그래피는 개걸스런 도박성과 탐욕스런 관음증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TV나 잡지 속

에서 세련된 화면구도, 생생한 음향, 화려한 조명 앞에 적나라하게 벗겨지고 비쳐지고 있는 음식은 '쾌락을 누리려는 의지'를 자극하는 즐거운 눈요기감으로써 끈덕지게 끈끈하게 보는 사람을 유혹한다.

어느 일간신문 문화부 기자는, PC통신 식도락 동호회의 어느 회원이 '자장면' 어원이 '쓰촨면'임을 북경에 가서 중국인으로 부터 확인했다고 자랑했다가, 자장면 어원은 '작장면'인데 무슨 잠꼬대냐고 비판한 다른 회원과 5일간 논전을 벌인 끝에 패배했다는 기사를 다루면서, 지금 미각세계에서는 요리에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음식메니아들이 각자의 내공을 바탕으로 무인들처럼 '맛의 달인'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진지하게 고민한다. <최화정의 맛있는 이야기>에서는 내로라 하는 요리협재들이 출연해서 똑똑한 MC와 격조있는 유머를 뽐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해 놓으면 요리평론가(송희라)가 재료의 선과 색깔까지 세밀하게 음미해 가며 '최고의 밥상'을 선정해 준다. 외국에서 생활비를 아껴 유명 레스토랑을 돌며 익혔다는 학구파 요리평론가가 '허탈미학'으로 각 재료들과의 궁합과 음식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 음식을 둘러싼 상대방과의 친밀도까지 거의 시적인 묘사로 기차게 품평해서 그저 입맛이나 즐기는 날나리 식도락가와 차별화한다. (한 쪽에서는 다이어트 열풍으로 식이요법사가, 한 쪽에서는 요리 열풍으로 요리평론가가 새로운 전문직으로 주목받는 진풍경이라니!)

요리가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키워준다고 해서 문화센터마다 어린이 요리강좌가 초만원이고, 초등학교 꼬마요리사가 유명 출판사에서 요리책을 선보였다. 점심을 굶고 있는 결식아동 돕기를 호소하는 보도와

함께, 모 호텔에서서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창의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모차르트 이펙트'를 음식 만드는 데 활용해서 요리사가 모차르트 교향곡을 들으면서 만든 '모차르트 효과빵'을 보통 빵보다 10% 정도 비싸게 팔아도 잘 나간다는 뉴스가 나온다. 언제부터인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최저생계비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투쟁적인 아빠보다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요리를 해주는 섬세한 아빠가 멋진 아빠로 바뀌었다. 말쑥하게 잘 생긴 총각 레지던트의 '뭐 먹지?'라는 이야기 요리책을 보고나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고 믿는 족속들은 모두 멸종된 게 아닌가 착각마저 든다. 역사인류학자 시드니 민츠는 '설탕과 권력'을 통해 그 동안 한 명의 요리사에 의해 유지되던 하나의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전통적 의미의 '식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앞치마를 두른 남자들은 모두 카메라 속으로 잠적해 버리고(카메라가 먹었나?) 아직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예외 없이 주부(아내, 어머니)

나 집안의 여성들(누나, 여동생, 할머니)이 그 한 명의 요리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시간투자와 노동력으로 혹사당하고 있다(오히려 주부에게 요리사가 아니라 스타 셰프 마술사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말 지금 모두들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칼질을 해대며 자신만의 '최적 음식' 찾기에 열을 올려도 될 만큼 살 만한가?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 먹는다는 순환론적 생활철학이 이렇게 간단하게 '즐기기 위해 먹는다'로 절편하게 미화되고 가차없이 난도질당해도 되는가?

동서양의 조리방법 중 장점을 뽑아서 새로운 맛

을 창조한다는 퓨전푸드(Fusion Food), 퓨전키친(Fusion Cuisine)이 인기 많아서 퓨전벨트까지 생겼는데, 남아도는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보내주는 푸드뱅크(Food Bank)와 자주 헛갈린다. 우리에게 아직 '보다 나은 음식'이 문제가 되는 사람보다 '최소한의 음식'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경제난의 시대에 음식이 환각제로 보일 만큼 지나치게 현란하다. 그래서 모처럼 가장 일상적인 것이 문화의 화두로 등장한 음식담론에 선불리 침을 뱉을 생각도 없지만, 헛되게 침 흘릴 생각도 없다. 음식에 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말을 한번 더 되새김질해 보다가 다시 우울해진다.

"음식에서의 취향은 각 계급이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 즉 육체의 힘, 건강,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범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은 육체의 모양보다는 힘에 주의할 기술을 가지고 싸고 영양가있는 음식을 찾는

데 반하여, 전문직 종사자는 흥미있고 건강에 좋으며 기쁘지지 않은 음식을 선호한다." 나의 식성이 나의 의식과 계급을 결정한다는 말이군.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네그러.

시장이 반찬이다

오늘, 음식을 소재로 한 영화 <북경반점>과 <신장개업>이 개봉된다는 포스터를 보았고, 무라카미 류의 요리소설집 『달콤한 악마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에 우리 음식 삼계탕에 대한 글도 들어 있다는 서평을 읽었다. 웬지 자주 배가 고파진다. 시골 구석구석 오지마을까



MBC에서 방영했던 <최화정의 맛있는 요리>

지 다 뒤져서 순진한 시골아줌마를 토속음식 연구가처럼 추켜세우며 요리조리 구워삶는 리포터의 헛바닥은 이제 징그럽다. 길고 우울한 밤, 그저 배가 고프다. TV에선 "입맛을 올리세요, 업그레이드 몽쉘통뽕" 풍나게 꼬시고 있다. 저절로 먹으면 기분이 좀 좋을까? 아니 저, 외로운 땀 뜨거운 걸로!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후다닥 슈퍼로 달려가서 강렬한 매운맛을 자랑하는 '쇼

킹면'을 사왔는데, 뉴스앵커가 미국에서 어떤 의학자가 오랜 임상실험 끝에 밤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다.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하거나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은 수면을 취하려고 몸에서 스트레스 방어기제 호르몬이 분비되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는단다. 이런 사람은 낮보다 밤에 주로 음식을 먹는다나... 이젠, 순전히 내 얘기잖아(질병이라네!), 식욕이 달아난다. 켄장 어떤 할 일 없는 작자가 그런 쓸데없는 연구를 해서 내 입맛을 앗아가는 거야? 뉴스앵커가 날마다 비타민 E를 복용하면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이는 동안, 냄비의 물은 두껍까

지 들쭉이며 건더기를 재촉한다. (밤음식은... 게다가 이렇게 기름지고 썩 걸 먹으면?) 쇼킹면의 봉지는 도색감지보다 더 빨갛다. 환상의 매운맛! 봉지에 찍힌 조리사진 속의 붉은 고추가 알싸한 맛을 상기시키며 중추신경을 자극한다. 자, 그런 말에 속지 마. 온몸에 퍼지는 뜨거운 맛을 느끼고 싶지? 건더기 넣고 스프 풀어! (헛헛) 시장이 반찬이다. [1]

김정복

우습게도 나는 '단념'이란 말을 처음 경험했다. 그 전에는 그게 단념인 줄 알았는데, 청리였거나 상처로 위장한 미련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액이 탁 풀렸다.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와서 밤새 영영 울다가 웃다가 서글퍼졌다. 이제 자주 누군가를 놓고 싶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닌가. 착하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은 거의 같고 거의 다르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색녀열전

북 치 는



글. 평 / 장차현실



여기서 잠시 과거들의 생활상을 보자.







BOOK review

REVIEWCINEMA

〈택시〉와 〈아메리칸 히스토리 X〉

REVIEWTV

SBS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REVIEWBOOK

이가 립은 여름의 책

REVIEWMUSIC

이가 '팍팍' 미는 여성가수

the CINEMA

EXHIBITION and the TV



현실을 빼닮은 영화의 교훈

〈택시〉와 〈아메리칸 히스토리 X〉



이명인

현실과 영화의 간극. 그 긴장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두렵다. 현실은 그냥 평범하고 평화롭게 남아, 영화를 더욱 영화답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극이 빨리 종결되길.

영화를 능가하는 현실의 시나리오가 가끔 우리를 당혹시킨다. 유고의 대통령 밀로셰비치의 민족주의가 전세계의 인권옹호와 평화수호를 명분으로 미사일과 폭탄으로 무장하도록 나토군을 떠밀고 있고,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검은 외투의 마피아'라는 무정부주의적인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동료학생들을 썩어한 주검으로 물고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현실의 잔혹함이 이 정도면 만들어진 이야기로 오감을 자극하려는 영화의 극단주의는 오히려 약파란 생각이 들 정도다. 인종분규와 그 악순환은 이제 인류가 떠맡게 된 오래된 원죄처럼 느껴진다.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지만 아무런 교훈도 후대에 남기지 못한 것일까? 현실의 교훈이 이리할진대 영화의 교훈이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영화는 여전히 예견하고 경고하고

근심한다.

스페인의 살아 있는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은 백색유럽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신나치주의 자들에 대한 공포를 한 소녀의 시선에서 보여준다. 18세 소녀 빠즈는 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지고 실망감에 긴 머리를 삭발한다. 택시운전사인 아버지 벨라스코는 그녀에게 택시운전을 강요하고 빠즈는 돈벌이에 나선다. 택시운전사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빠즈는 어린 시절 친구 대니를 만나고 둘은 사랑에 빠진다. 벨라스코가 참여한 택시기사들의 모임 〈패밀리〉는 극우 파시스트들의 조직. 마약중독자, 매춘부, 게이, 유색인종을 마드리드 거리에서 청소하는 것이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사명감에 휩싸여 이들은 거침없는 살인을 저지른다. 이들은 거리청소에 나선 스페인판 '택시 드라이버'들이다. 마약중독자의 습격으로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를 보살피는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택시〉.

대니는 적개심으로 패밀리에 가담하게 되고 아랍인 마을을 습격하던 중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빠즈는 어렵듯이 '패밀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 대니를 떠나려하지만, 대니는 빠즈를 통해서야 비로소 변하려 한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을 갖춘 영화지만 카를로스 사우라는 〈택시〉가 거대한 주제의식으로 치장되기보다는 한 편의 러브스토리이길 바랐다. 그는 세상을 깨우치기에 아직 서두른 두 젊은 남녀의 사랑이 어떻게 현실의 방해로 상처받게 되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준다. 현실의 편견과 독단은 사랑의 순수성을 믿는 이들에

게 심한 절망감을 안겨준다. 현실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냉정한 묘사를 해온 카를로스 사우라는 거친 현실과 본능적 인간이 빚어내는 모순 사이에서 인류를 구제하는 길은 초현실적인 사랑밖에는 없다고 결론내린 듯하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변화시킨다는 사우라의 이상주의는 잔혹한 나치주의에 대적하기에는 무모한 감상성을 띠고 있는 있지만 이런 사랑의 낭만성과 맹목성이야말로 파시즘의 끝없는 편견의 벽에 가로막힌 젊은 세대의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우라의 영화는 늘 그렇듯 평범함과 진부한 낭만성 틈새에 강력한 메

사우라의 영화는

늘 그렇듯

평범함과 진부한

낭만성 틈새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니는 빠즈에게 사랑을 느낀다.

풍요의 땅 미국에서
기생하는 유색인종을 향한
테러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하층민
백인아이들의 영웅이 된다.

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거장
감독의 연출력이며 사우라의 리얼
리즘이 내뿜는 힘이다.

그렇다면 신세대 감독은 오늘날
인류의 원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메리칸 히스토리 X>
는 CF감독 출신의 토니 케이가 만
든 현란하고 감각적인 데뷔작이
다. 지금껏 미국영화에서 인종문
제는 주로 스파이크 리를 비롯한
흑인감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
다. 이들의 블랙무비는 흑인 빈민
가의 빈곤한 현실과 잔인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신들의 목소
리를 거침없이 내왔다. 여기에 비
해 백인 하층민의 생활 속에서 그
들이 바라보고 겪는 인종문제에
접근한 <아메리칸 히스토리 X>
는 얼핏 가벼운 듯 보이긴
해도 그 문제의식

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작문
시간에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제출한 고등학생 대니는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새 리포트 과제를 맡는다. 대니가
새롭게 써내려가는 리포트는 「아
메리칸 히스토리 X」. 바로 대니의
우상인 형 데릭의 이야기이다. 데
릭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인 DOC에
가담해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킨
다. 풍요의 땅 미국에서 기생하는
유색인종을 향한 테러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하층민 백인아이들의
영웅이 된다. 어느날 차를 훔치려
던 흑인을 참혹하게 죽이게 되고
감옥에 간다. 이제
형 데릭은 감옥
에서 새로운 세
상을 발견하고 자
신의 편견을 버리지만, 동
생 대니는 형이 없는 동안 그 빈자
리를 메우며 편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데릭이 출감
한 3년 후, 형제는 다른 모습으로
만난다. 형은 동생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변한 데릭의 가슴에
여전히 남겨진 지울 수 없는 나치
의 문신처럼 현실의 광기는 형제

감옥에 간다. 이제
형 데릭은 감옥
에서 새로운 세
상을 발견하고 자
신의 편견을 버리지만, 동
생 대니는 형이 없는 동안 그 빈자
리를 메우며 편견의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데릭이 출감
한 3년 후, 형제는 다른 모습으로
만난다. 형은 동생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변한 데릭의 가슴에
여전히 남겨진 지울 수 없는 나치
의 문신처럼 현실의 광기는 형제

에선 블랙
무비 못지 않게 진지하다.

영화는 그 동안 주로 악역의 캐
릭터로 전횡화되던 스킨헤드족의
이야기다. 한 형제의 운명과 이들
의 짧은 개인사 속에서 영화는 인



◀(아메리칸 히스토리X)에서 형 데릭 역을 맡은 에드워드 노튼.
▲(아메리칸...)의 동생 대니(에드워드 팔롱).

에게 비극을 안겨준다.

영화의 촬영까지 맡아한 토니
케이 감독은 현재는 칼라로, 과거
는 흑백으로 표현하며 자유롭게
시공을 넘나들고 교차편집, 들고
찍기, 다양한 카메라워크 등으로
감각적이면서도 선동적인 화면을
잡아내었다. CF와 뮤직비디오 출
신의 감독다운 감각적 영상은 마
치 젊은 세대에게 직설법으로 말
하는 듯하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이런 식의 과잉된 형식은 비난받
을 만하지만 <아메리칸 히스토리

X>의 방식은 동세대에게 말 거는
화법이다.

<텍사>와 <아메리칸 히스토리
X>는 이처럼 전혀 다른 세대의,
전혀 다른 문법의 영화이다. 그러
나 세대와 영화언어를 가로지르는
두 영화의 근심은 같은 지점에 있
다. 두 영화는 모두 파시스트의 내
부, 가해자의 입장, 문제의 전원지
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비극은
피할 수 없고 변화는 힘들지만 다
행히 영화에서는 주인공에게 회개
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

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영화로 선악을 가리
고 가치판단을 내리고 관객을 설
득하기란 훨씬 쉬운 일 같다. 현실
의 비극은 아무리 잔혹하게 흘러
간다고 해도 시비는 여전히 가려
지지 않고 점점 더 미국 속으로 빠
져들고 있으니 말이다. 현실이 우
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결론이
아무 것도 없는 요즘에는 정말 영
화 한 편이 남기는 교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크게 다가온
다. 17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아! 옛날이여

SBS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권혁란

할아버지들은 장수퀴즈에서 '별'을 '별'이라고 하고, '별'자로 시작한다고 힌트를 주면 '별'이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먹으면 힘나는 것 중 '비'자로 시작한다고 하면 답인 '비타민' 대신 '비알~'이라고 어쨌든 웃기고 재미있다. 그러고도 공연히 눈사물이 뜨거워지거나 화가 나는 것은 그 강촌 시골 어디엔가 내 철순의 父母가 그 모습, 그대로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주름 뒤에 감춰진 '속내'를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마음도 시간도 약간 여유가 생긴 토요일 오후. 그 동안 이러저러한 일로 도움을 받은 동네 아줌마친구에게 신세도 갚을 겸, 더 도와달라는 아부도 할 겸, 책이나 한 두어 권 사주려고 함께 서점엘 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파스텔 풍의 잔잔한 그림과 짧은 시들로 이루어진 동화책 같은 거였다.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SBS)의 마지막 장면에서 간혹 눈시울을 훔치게 하는 '고향 생각'을 모아 펴낸 책이었다.

"김치 반찬이 싫다고 투장을 부렸던 어린시절... 홀려내린 김치 국물이 책갈피를 적셔서 속상했던 그 날들. 가난한 살림을 꾸리느라 별 말썽이 없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파스한 사랑이 한없이 그림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워서 너나없이 허덕였던 그 시절을 아련한 향수

로 불러내는 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한없이 착하기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가는 것만을 삶에서 이루어낼 가장 큰 일이자 의미 있다고 굳게 믿는 그녀가 갖고 싶어할 만한 책이었다. 원하는 대로 그저 선물할 수도 있었지만, 난 조용히 그녀의 손에서 그것을 뺏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박완서의 '너무도 쓸쓸한 당신'과, 그녀의 아들을 위한 과학책을 쥐어주고는 서점을 나오며 기어코 한 마디 하고 말았다.

"아주 아름답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모아져 있지만, 난 그 책을 사주고 싶진 않아"라고.

토요일 오후 7시. 각자의 생활에 쫓기다가 오랜만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식사라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엔,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를 보는 건 일단 재미있고 유쾌하다.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지구를 지킨다고 외치는 <독수리 오형제>나, 방울을 조롱조롱

매단 천사 같은 소녀들의 사랑타령을 듣거나, 로봇 태권V를 들고 나와 알랑한 애국심에 호소하는 노래들을 듣고 보는 것보다는 '사람 사는 냄새'가 조금 나는, 덜 인위적인 이 프로를 보는 게 그나마 정신건강에도 이롭다는 예기다.

간혹 뉴스프로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값이 폭락한 배추밭을 갈아엎거나, 폐사한 닭들을 처연하게 바라보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시골어른들이 잠시나마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맘껏 웃는 걸 보는 것은 기분 좋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 프로가 일본의 한 프로그램들 통째로 표절했다는 명백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들을 '갖고 논다'는 비아냥도 한쪽에 잠깐 접어들 만큼 좋은 프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즐기게 설파하는 '가정의 화목'을 위한 봉합수술 과정을 보는 것은 조금 짜증스러워진다. 이 프로가 얼마나 온건한 가정을 깨닫추기 위해서 억지를 쓰고 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예고방송에서부터 음악은 30, 40대의 가슴을 흔들며 들려온다. <Sealed with a kiss>.

이제 지금부터 옛 시절, 돌아올 수 없는 옛날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분칠 없이, 생생하게 보여질 것이라는 예감을 주면서 방송은 시작된다.

사회자는 두 명, 서세원과 신은경.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역할도 비중은 비슷하지만 이 프로는 신은경의 것이 아닌, 서세원의 것이다. 사회자 신은경의 모습은 상당히 회화화되어 있다. 누군가는 '다정한 오누이'의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노인들이 특산물이라고 바리바리 싸온 음식을 게걸스럽게(담스럽게라든가 북스럽게가 아니다) 탐식하는 모습이 부각되어 보여지고, 서세원은 "이 여잔 못 먹는 게 없어"라며 별별 회한한 음식을 먹어대는 신은경을 구박한다.

한입에 삼킬 수 없는 많은 양의 음식을 진행자의 입에 우걱다짐으로 집어넣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 무안한 장난은 이미 <전국노래자랑>에서 송해가 당하는 걸 많이 봤던 터라 좀 둔감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아서인지 이 프로에서도 진행자가 노인들에게 꿀탕을 먹으면서 난감해하는 모습이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장면들이 연출된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자꾸만 먹이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만 같다.

이어 '유치원에서 온 편지', 유치원 어린이들이 카메라가 위치한 저쪽에서부터 마구 뛰어와 몇 마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코너다. 뛰어오는 사이에 외운 말을 잊기도 하고 카메라가 낫설어서 울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는 말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아옴에루로 우리 아빠가 힘들어해요, 엄마 잔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동생 하나 낳아주세요", "수빈아,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나랑 결혼하자", "노래 하

이 프로는

신은경의 것이 아닌, 서세원의 것이다.

사회자 신은경의 모습은 상당히

회화화되어 있다.



나 불러 드릴게요.” “아빠 담배 너무 피우지 마세요, 일찍 죽는대요...” 그냥 넘어가자. 어린이들이 벌써 남녀의 역할에 대해 영악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는 건 별로 유쾌하지 않다는 말만 하고.

다음은 ‘고향에서 온 편지.’ 보조진행자 최성훈은 시골노인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심심산골까지 찾아와 잔치를 열어주는 방송국에 노인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가 가감없이 그려진다. 꽃무늬가 나뉘된 나이롱 티셔츠, 몸매바지, 정자나무에서 쉬고 있는 할머니들, 동네의 초고령 할머니들, 험령한 ‘츄리닝’과 ‘난닝구’ 바람의 할아버지들. 마당에 둘러앉아 빈 대역을 부쳐먹고 민물고기를 잡아 구워 술 한 잔 하는 모습은 정겹기 그지없다.

부부가 함께 서서 도시에 나간 자식들의 이름을 줄줄이 사랑처럼 읊으며 “나 방송국 나왔다”고 소리치며 그 어려운 에스비에스를 발음하지 못해 어눌하게 더듬거리

는 모습이 나와도 웃어버리면 그만이다. 궁상맞거나 무식한 모습도, 그 모습 그대로일 테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 꼭 마지막에 끼워넣는 결손가정의 모습은 좀 신경질이 난다. 가장은 죽고 마누라는 집 나간 지 몇 년, 남루한 옷 한 자락을 걸치고 지팡이를 든 병든 할머니 곁에 주눅들고 불쌍한 모습으로 훌쩍이는 아이들, 소식 한 자라도 전해달라는 할머니의 눈물겨운 하소연. 그리고 화면 가득 굵게 떠오르는 글씨, “민수, 민정이 엄마,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돌아오세요.”

하도 궁핍해 보이고 가없어서 짜증이 나는 가운데에도 눈시울이 젖어올라치면 화면은 금방 바뀌어 신은경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클로즈업되면서 시청자 대신 신은

경이 울어준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아내는 집을 나갔겠는가. 아이들을 데어 두고 간 그 여인은 얼마나 사정이 호전되지 않았으면 연락 한 번 주

지 못했겠는가. 만약 도시 어딘가에서 고단한 삶을 꾸리고 있을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아픈 가슴이 더 찢어지듯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무작정 눈물꺠듯 다 짜게 해놓고 돌아오라고 호소한다고, 집나간 여인이 돌아오진 않는다. 게다가 그 여인이 집을 나가기까지 겪었을 어떤 정황도 설명 없이 아이들과 할머니가 궁상맞고 슬픈 이유가 다 그 여인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부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우리는 ‘결손가정’다운 그 가족의 이미지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결손가정들을 전형화시킬 뿐이다.

장안의 화제가 된 ‘장수퀴즈’ 코너. 시골에서 예선을 거쳐 조금 말발이 세고 재치 있고 재미있는 분들이 스튜디오에 초대되어 퀴즈를 푸는 시간이다. 사회자의 설명에 의하면 옛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이다.



하도 궁핍해 보이고 가없어서 눈시울이 젖어올라치면 화면은 금방 바뀌어 신은경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클로즈업되면서 시청자 대신 신은경이 울어준다.

똑같이 노인이라고 해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지식 수준은 상당히 차이나는 걸 알 수 있다. 그나마 할아버지들은 식자(?) 깨나 익혔고 할머니들이 잘 맞추는 문제는 시사문제나 정치문제가 아닌 생활문제다. 할아버지들은 군대 얘기, 바람피운 얘기, 할머니 구박한 얘기로 나이가 지긋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허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 사회자(서세원)의 역할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를 극명히 드러낸다. 부부로 나와 앉아 있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바람기와 노름과 술타령에 짓눌려 “꼴도 보기 싫다”거나, “다시는 이런 남자와 결혼하기 싫다”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기면(?), 그는 넌지시 할아버지에게 권유한다. “한 번 꼭 안아주세요” 혹은 “뽀뽀나 한 번 해드리세요”라고.

아니 싫다는데도, 아주 넌더리

가 난다는데도 기껏 하라는 것이 칠순의 노인에게 뽀뽀나 포옹이라니. 이전 황혼이혼을 신청한 할머니에게 ‘해로하시라’고 등 떠밀며 가정을 지키라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할머니들이야 남보기 우세스러워 끝까지 싸우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뽀뽀를 당하거나 한 번 뽀뽀하다가 안기는 걸로 웃고 말지만, 생활력도 없는 난봉꾼 남편과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살아온 그 신산스런 삶의 궤적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 보기에 안쓰러울 지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당히 슬프고 아련한 옛 아버지 어머니, 삼촌, 동네 아저씨의 모습을 향수 어린 말로 버무린 시까지 나오면서 프로는 끝난다. 엉뚱한 모습의 노인들을 보면서 한바탕 웃었고 한 시간이나마 고향생각에 푹 빠졌다가 돌아왔으니 어쩔 다 된 건가. 그걸로 족한 건가.

이 프로가 볼 것 없는 토요일 오후에 작은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바란다면 돌아올 수 없는 옛날의 모습들을 아름답게만, 인정스럽게만 그리진 말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가슴이 시켜멀게 타도록 고통스럽든 말든 한없이 인고하며 지켜낸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가. 호시절 청춘을 밖에서 탕진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팔난봉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고맙다”거나 “그래도 당신밖에 없다”는 말을 하면 몇십 평생 쌓인 할머니의 한은 정말 깨끗이 씻기는 건가. 시청자들의 한바탕 웃음처럼 그들의 삶은 그렇게 가벼웠을까. 그렇게 어설픈 땀줄을 보고 우리는 감상적인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되는 걸까.

그러나 미봉책으로 해놓은 땀줄은 안에서부터 부글거리는 압력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21세기다. [11]



if가 뽑은 여름의 책

육아서

'아이는 몇 살까지 때려도 될까', '때론 자유보다 구속이 아름다운 이유' 등 실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세심하게 짚어주고 있는 『영동한 아이가 성공한다』(김은혜 지음·명진출판 펴냄), 소아과 전문의인 저자는 점점 표정도 없는 '애늬아이'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21세기는 AQ(유추지수)가 높은 아이가 필요하므로 아이들의 영동한 발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주자고 주장한다. 10대 딸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딸들이 자라서 엄마가 된다』(수지 모르겐스텐/알리아 모르겐스텐 지음·최윤정 옮김·웅진출판 펴냄)를 읽어보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엄마와 딸이 갖게 되는 감정, 분노, 오해 등을 릴레이식으로 써내

려갔다. 많은 사랑을 쏟아붓다가도 때때로 치미는 미움 때문에 어찌지 못하는 엄마와 브래지어 하나 빌려주는 걸 아까워한다고 투덜대는 딸의 모습은 바로 웃음이 절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다. 어찌지 못하는 부모자식간의 세대차이를 그나마 좁힐 수 있는 엄마와 딸의 글쓰기 방법을 여러분도 실험해 보시라. 『청소년 문화 읽기와 말 걸기』(영산원불교대학교 소태산 사상연구원 펴냄·구입문의 0686-352-6346)는 청소년문화를 이해하는 것부터 적극적인 말 걸기까지, 아이들과 함께 만화방, 비디오방을 탐방하는 등 실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소태산 사상연구원에서 마련한 제3회 청소년지도자교육프로그램을 묶은 것이다.

에세이

공동의 관심사를 발전시키면서 각자의 관심사도 존중해주며 53년간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 헬렌과 그의 동반자 스코트 니어링의 자전적 에세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헬렌 니어링 지음·이석태 옮김·보리 펴냄)는 제목처럼, 거친 노동을 마다 않고 스스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 스물한 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지배하지 않는 사랑, 100세 생일을 앞두고 스스로 음식을 끊음으로써 평화롭고도 위엄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마무리까지 참으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혁명가이며, 시인인 김남주 시



인은 가고 없지만 그의 아내 박광숙이 아들 토일리와 강화에 내려가 농사꾼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의 편린들을 모아 『빈들에 나무를 심다』(박광숙 지음·푸른숲 펴냄)에 담았다. 처음엔 봄이 다시 온다는 사실마저 분노했던 그가 '인간이 노동에서 멀어지면 타락해 간다'는 시인의 시구를 떠올리며 강화행을 결심하고, 신명나는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한 활동까지 하고 있다. 땅의 생명력을 달아가는 그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한다.

백 퍼센트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미국을 바로 보는' 책인 『나는 미국이 싫다』(김현아 지음·중앙M&B 펴냄). 의학자인 저자는 뿌리깊은 인종차별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지금이라도 미국이 하는 모든 것에 의문 부호를 붙이고 따져보자고 주장한다.

색깔이 건강, 심리, 성격, 공간 장식, 마케팅에 어떻게 속속들이 응용되는지 재미있고 친근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김민경 지음·명진출판 펴냄). 21세기의 성공책 7가지는? 내게 가장 어울리는 베스트 컬러는? 잘 몰랐던 색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설

『숲속의 빈터』

최윤 지음·작가정신 펴냄

무언가 청량감을 줄 것 같은 제목과 달리 그 숲속의 빈터에서 백주 대낮에 벌거벗은 남자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다면?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우연을 가장한 폭력으로 과거와 무관해 보이는 현재의 사람들까지도 피해자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편소설.

『기차는 7시에 떠나네』

신경숙 지음·문학과지성사 펴냄

지난 과거 중 한 부분만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기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소설의 에필로그처럼 '청춘의 상처'는 치유되고, 정말 세상은 더디게라도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

『황홀』

이남희 지음·세계사 펴냄

자본주의의 경쟁논리를 강요하고, 남녀간의 사랑만 정상으로 인정하는 획일적 사회에서 훼손되고

파괴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젠더를 넘어선 것이든 혹은, 섹스를 배제한 것이든 이 세상을 살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랑'을 감추려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작가는 말한다.

『바람집』

황선 지음·한겨레신문사 펴냄

사이버섹스 상담소 '바람집'에서 '소리3호'라는 예명으로 익명의 남자들의 성적 경험과 욕망을 들어주는 일을 하는 미진은 성폭행의 경험으로 미지의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끝없는 환각에 시달리는데...

『암행지』

마리 다라치에크 지음·정창진 옮김·열린책들 펴냄

직장을 잃게 된 가난한 젊은 여인이 향수가게에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며 많은 돈을 벌지만 어느날 갑자기 돼지로 변신한다. 실업으로 인한 불안과 혼란, 극우세력에 대한 비판 등 프랑스의 정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꽃의 기억』

김민숙 지음 · 문학동네 펴냄

정숙하고 착한 여자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찢어발기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기도 하고 물질적 욕망 또한 버리고 싶어하지 않는 '나'의 가슴 밑바닥에 자리잡은 파스한 마음—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문희경 소설집 · 창작과비평사 펴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을까? 낭만적 사랑에 대한 냉소, 불륜을 내포하고 있는 결혼, 그리고 가족제도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명백히 부도덕한 사랑」 등 7편의 단편이 실려있다.

『종이꽃』

정갈면 소설집 · 이룸 펴냄

사랑을 찾아 떠난 남편, 예기치 않은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방황하지만 아이로 인해 희망을 잃지 않는 아내의 이야기 「얼음바위」, 모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부부

간의 불화를 다룬 표제작 「종이꽃」 등이 실려 있다.

『러브버그』

김다은 지음 · 해냄 펴냄

유려하고 매끈한 문체가 매력인 「당신을 닮은 나라」로 등단한 김다은이 「푸른 노트 속의 여자」부터 다소 실험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더니, 「러브버그」에서 그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독자가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해석자, 창작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한 작가의 경제적인 시선과 영민함이 장점이지만 지루한 것(의도적인 전략 같지만)이 흠이다.

『지난 봄날의 블루스』

박영민 지음 · 통인 펴냄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유년의 기억을 찾아가는 성장소설. 그곳엔 우리의 현대사가 녹아 있고, 얼 굴 한번 안 보고 혼인한 아버지와 전형적인 옛날 여자인 어머니의 삶이 아쉽게 자리하고 있다.

카메라로 읽는 여성문화

『꼭 보고 싶은 여성영화 50선』

육성희 지음 · 여성신문사 펴냄

사진과 함께 실린 '좋은 영화' 특히 여성의 삶이 녹아 있는 '여성영화 읽기'는 그대로 즐거움이고 위로가 된다. 모처럼 시간이 났을 때 아니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보자.

『멜로드라마란 무엇인가』

유지나 펴 지음 · 민음사 펴냄

50년대 〈자유부인〉에서 지난해 (8월의 크리스마스)까지 한국 멜로영화 대표작 20편을 분석, 멜로영화의 사회성을 읽어내고, 새로운 멜로드라마의 전형을 만들고자 하는 영화 연구자들의 바람을 담았다.

글 윤숙경



섹슈얼리티 이론서

평소 'SEX'라는 단어를 '성행위(sex act)'의 의미로 쓰고 있는지, '생물학적 성차(sex difference)'의 의미로 쓰고 있는지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여자·남자라는 생물학적 구별을 떠나 여성·남성·중성을 아우르는 통성의 의미로서의 'GENDER'와 'SEXUALITY'의 다양한 코드(성적 욕망, 성적 정체성)를 익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여자, 여성, 여성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함부로 개칠을 해대는 데(廢美니즘이라는 냉소까지), 돌아볼 일이다.

각설하고, 전투적인 여성운동 신문기사나 페미니즘 이론서들의 원칙적인(이 사회에서는 원칙적이면 선정적이다) 면모만 부각시켜서 파격, 파벌 운운하는 이들에게 가장 무난하게 이성적(異性的) 호기심까지 충족시켜줄 『르네상스의 미인들』(오카다 아쓰시 지음·오근영 옮김·가람기획 펴

냄)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적)' 이미지가, 사실은 미인은 이러해야 한다는 오래된 남성 위주 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을, 르네상스시대 그림 속의 미인을 분석해 가며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여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학문과 예술의 영원한 주제·안티테제일 것이다. 두꺼운 양장본의 부피만큼이나 내용이 알찬 『파우스트의 여성적 본질』(안진태 지음·열린책들 펴냄)은 『파우스트』를 비롯한 괴테의 일련의 저작들과 토마스 만 등 독일문학에 대한 텍스트 소화를 전제로 하지만, 각 장마다 해당 예문들을 친절히 싣고 있으므로, 이 책만 읽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듯싶다. 괴테의 여성성 예찬이 비록 모성적, 자연적, 신화적 여성관에 머물러 있지만, 여성비하를 서슴지 않았던 그 당시 지식인들의 아둔함에 비하면, 여성적인 것이 영원히 우리를 이끈다고 말한 괴테의 혜안은

높이 살 만하다.

『태초에 유방이 있었다』는 전언을 시작으로, "유방은 과연 누구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유방의 역사』(매릴린 엘름 지음·윤길순 옮김·자작나무 펴냄)은 제목에서 풍기는 '유방+역사'라는 부조화만큼이나 많은 상상력을 제공한다. '유방'을 단지 생명의 급유원인 밀크탱크나 에로틱한 페티시 대상, 질려 거리는 낭만의 환타지를 돋궂줄 소도구로 여기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어머니, 누이, 아내, 애인의 '젖통이'들이 마치 자신의 전유물(專有物)인 양,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주 또 함부로 낙서를 해대거나 주물러댔는지 알고 나면 낮이 뜨거울 것이다. 유방의 역사는 곧 유방을 가진 여성의 역사이기도 하며 여성의 수난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이고 명쾌한 인식안으로 풀어내고 있다.

여성의 권리장전을 외치는 투쟁이 대세였던 시대를 건너서 탄탄

한 이론정립과 철학적 인식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다. 대안적 페미니즘 이론과 문화론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온 여성문화이론연구소(소장 고갑희 한신대 교수)에서 반년간으로, 『여/성이론』(여성문화이론연구소 지음·여이연 펴냄)을 창간했다. '젠더/섹슈얼리티/주체'라는 특집주제와 '글쓰기와 성적 주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성이라는 현재의 정체성을 만든 역사에 균열과 틈새를 내겠다는 의미에서 제호의 '여'와 '성' 사이에 빗금(/)을 그었다고 한다.

이런 인식론적인 접근이 일상의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된다면, 구체적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들을 소개한다.

먼저, '우리는 왜 성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여성·몸·성에 대한 여러 측면의 철학적 틀거리를 제시하고 있는

『여성·몸·성』(장(윤)필화 지음·또 하나의 문화 펴냄)은 오랫동안 성문화 연구에 천착해온 저자의 열의를 엿볼 수 있다. 성지식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부터, 성희롱, 매매춘, 결혼제도, 남성의 성경험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 및 성윤리까지 곳곳에 예리한 분석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특히, 2장에서 한국의 왜곡된 성문화의 주범인 남성 성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거리가 일품이다.

다음으로, 열 명의 열정적인 현장과 여성학 필진들이 사회문제의 암적인 보균요소들에 대해 항균방역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섹슈얼리티 강의』(한국성폭력상담소 위음·동녘 펴냄)는 구체적인 사례나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포르노 그라피, 다이어트, 성 매매, 낙태 보고서, 성폭력 동등 문제를 적나라하게 투시하고 있다. 딱딱한 문제만큼 진지하고 성실한 학문적 성찰이 저자의 만학열을 말해주는 『한국여성학연구서설』(강숙자 지음·지식산업사 펴냄)은 동서양

여성사의 비교, 체험자로서의 여성적 삶과 결혼제도 고찰 등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문식 서술의 고약한 컨벤션을 따르고 있어서 끝까지 읽는 데 상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과연 '성(성)'이란 인간상호관계에서 사회적 권리일 수 있는가? 『국가와 성』(이영애 지음·법문사 펴냄)의 저자는 성(性)이 국가권력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는지, 권력자가 성(性)을 무기로 어떻게 개인을 통제하고 있는지, 논리정연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암울한 미래사회에 감성성, 가상성, 여성성이 희망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긍정적 세계관을 지지하면서도 정보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가, 하는 난제도 놓치지 않는 치밀함이 매력이다. 각 장마다 '생각해 볼 문제'를 제안해서 주제적인 사고를 독려하는 배려가 미덕이지만, 성인지적 시각보다 정치사적 재해석에 치중한 면이 아쉽다. ■

글 김정복



주목받는 책

오랫만에 만난 '진짜' 원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김경일 지음/비다출판사 펴냄

아, 왜 이런 책이 이제야 나왔을까. 김경일 교수(41, 상명대 중문학과)는 왜 이제야 이런 책을 썼을까, 아니, 아니, 이제라도 이런 책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김경일 교수에게 납득있고도 절이라도 하고 싶다. 김교수는 10살 때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타이완, 동경, 북경 등에서 공부하고 연구활동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갑골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양문화의 기원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왔다. 동양의 고대문화에 능통한 그가 말한다. "유교는 곰팡이, 공자는 바이러스, 주자는 사기꾼이다."

유교의 씨앗은 기원전 14세기에 루타타로 왕권을 정당한 중국 은나라의 조갑이 정치적 탐욕을 감추기 위한 '갑박쇼'를 통해 뿌려졌다. 이전의 황하신, 천신 등에 대한 제례를 폐지 하고 자신의 직계혈족들의 제례만을 강화하면서 '주검의 숭배'를 시작한 것이다. 이어 은나라를 물리친 주나라는 왕통족보를 다시 다듬었고 천명(天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천자(天子)의 많은 아들들을 각 지역의 제후로 보내기 위해 부계혈통만 강조하는 종법제(宗法制), 속첩제도, 남존여비 사상을 강화했다. 그들의 '부도덕'은 기록의 부재로 인해 감추어지고 700~800년 후에 태어난 공자에 의해 새롭게 정비된다. 공자는 과거 역사를 미화하여 '남성', '기득권자', '주검숭배'를 위한 도덕을 강조하고 토론을 용납하지 않았다(따라서 유교는 '힘있는 자'와 '돈 가진 자'를 위해 봉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1899년 허난성에서 밭을 갈던 농부의 땅에 걸려 튀어나온 갑골문 조각에서 유교문화의 족보 만들기, 족보게기가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났다. 은나라 출신의 무당집단인 유(儒)는 목숨을 연명기 위해 주나라 왕실에 잔머리를 굴려 비굴하게 아무것도 이러한 작태가 수백 년 후에 태어난 공자에 의해 터무니 없이 아름답게 위장되어 왔음이 땅 속에 파묻혀 왜곡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갑골문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은나라 출신 무당집단 유(儒)의 비굴한 처신과 이를 미화한 공자 때문에 3,000년 가까이 동양여성들은 남성애에 예속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는!).

그러나 아들의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려던 주나라의 카리스마는 3,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한국의 호주제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외도해서 낳은 핏덩이 아들이 딸들과 처에 앞서는 법적 지위를 얻는다. 이 얼마나 웃기는 희극인가?

토론을 원천봉쇄하고 '아랫것'에게 일방통행으로 하달되었던 '진실'은 가짜라고 저자는 말한다. "가짜의 천적은 진짜다. 진짜들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가 여성들의 좋은 원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은광순

if 가 '팍팍' 미는 여가수 음반

우리 가요계에서 여성가수는 여전히 깜찍한 외모의 소녀와 마돈나 타입의 섹시심벌로 나뉜다. 이런 현실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대중성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음악을 내보이는 여성가수들이 있다. 1집의 작은 성공에 힘입어 당당히 2집을 선보이는 여성가수들이 바로 그들. 자우림의 김윤아, 박정현, 김현정, 김정은, 임현정, 박기영 그리고 여성밴드 마고 등. 아직은 어리지만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물론 중견가수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권진원은 4번째 앨범, 이선희는 11집, 페티김은 그녀의 40년을 결산하는 앨범을 발표했다. 또 하나, 한영애도 5월 말에 새 앨범을 발표한다는 반가운 소식.

자우림 〈연인(戀人)〉

영화 〈꽃을 든 남자〉의 타이틀 곡인 〈헤이헤이헤이〉로 다가온 자우림의 2집, 세 곡에 걸쳐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을 하면서 겪는 모습과 갈등을 표현했다. 학교 문제, 가정폭력, 노숙자, 주한 미군 등 사회고발 내용을 담았다. 1집에 비해 여유로웠던 제작기간 덕인지 보컬 김윤아와 나머지 멤버들이 잘 어울린 느낌.



박정현 〈A Second Helping〉

작은 몸에서 폭발적인 음성을 토해내는 R&B 가수 박정현의 두 번째 앨범. 소녀적 분위기의 1집에 비해 이번 앨범은 전체적으로 한층 성숙한 느낌이다. 노영심이 작사한 〈편지할게요〉 외에, 스트링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한껏 돋보이는 〈고백〉, 〈이젠 돌려줄게〉, 〈Ordinary〉의 3곡은 그녀가 직접 작곡한 곡들이다. 앨범에 쓴 "내 목소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처럼 그녀의 매력적인 음색을 맛볼 수 있다.

김현정 〈자유선언〉

98년 여름 〈그녀와의 이별〉, 〈혼자 한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김현정의 2집. 시원스럽고 건강한 목소리와 당찬 외모는 여전히 트레이드마크. 경쾌한 댄스음악인 〈되돌아온 이별〉, 〈실루엣〉과 부드러운 발라드인 〈몽중인(夢中人)〉이 담겨 있다. 우울할 때 그녀의 파워풀한 음악을 크게 틀고 함께 불러본다면 모든 스트레스는 사라질 듯.



김정은 〈두번째 프로포즈〉

상큼하고 깔끔한 음색의 김정은이 1집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앨범. 그녀는 94년 크게 사랑받았던 마로니에의 〈카테일 사랑〉의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2년 동안 나를 묶어놓았던 시간들을 이제 아름답게 풀어놓으려 한다"는 그녀의 말대로 전곡에 걸쳐 직접 작사를 하는 등 세심한 노력들이 엿보인다. 넥스트 멤버였던 김세황의 기타가 돋보이는 〈오렌지 나무〉, 힙합인 〈Tonight〉과 보사노바, 람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수록했다.

임현정 〈가위손〉

74년 호랑이의 힘찬 포효 1집 〈양철북〉에 이은 임현정의 두 번째 앨범. 〈Intro〉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에서 보이는 전자음악과 앨범사진들은 세기말적 이미지와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려는 그녀의 생각이 엿보인다. 그래서 앨범 이름도, 냉소적이면서 슬프고 때로는 따뜻한 영화 〈가위손〉에서 빌어왔다. 특히 〈고백〉, 〈5월의 꿈〉 등에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전곡을 직접 작곡, 작사한 실력있는 싱어송라이터.





박기영 <Promise>

타이를 곡 <시작>으로 다가온 박기영의 새로운 앨범. 전체적인 분위기는 록이다. 곡마다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창법이 돋보인다. 멜로디를 잘 표현하는 것이 장점. 오석준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손무현의 프로듀싱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다. 마빙혹기라는 독특한 아프리카 악기를 사용한 <사막의 문>, 기타 반주가 압권인 <밀레니엄>을 비롯 그녀가 직접 작곡한 3곡을 포함해 김종서가 작곡한 <With Me>, 경쾌한 모던록인 <약속> 등이 실려 있다.



권진원 <Difference>

편안한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은 <살다보면>의 가수 권진원. 사실 그녀의 행로를 보면 80년대 '노찾사'의 활동과 자신만의 음악적 주장이 강했던 3집 등 약간은 무거웠다. 이번 <Difference>는 대중성을 많이 생각한 앨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물음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그녀의 시대적 감수성이 엿보인다. 멜로디가 예쁜 <Happy Birthday To You>와 낭만적인 선율의 <비오는 거리>는 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노래.



마고 2집

페미니스트 록밴드 <마고>의 두 번째 앨범. '자아'에 대해 노래하는 록 발라드인 <나는 나>, 허난설헌의 원시를 가사에 그대로 인용한 <허난설헌>과 성폭행의 아픈 기억을 아름다운 멜로디에 담아낸 <벽>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앨범은 억압적인 여성의 삶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는 자유에 대한 희망과 세상에 대한 포용이 담겨 있다. 1집에 비해 음악적 수준이 놀라울 만큼 성숙했다. [E]

글 김보미

페미니스트인가 레즈비언인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1970년대,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레즈비언들을 여성단체에서 쫓아냈었습니다.

"레즈비언으로 오해받는 것이 싫다!"

하지만 지금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이고, 여성학의 책에서 '레즈비어니즘'이란 단어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레즈비어니즘'에 대해서 말하는 레즈비언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페미니스트가 아닌 레즈비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 당신은 페미니스트임은 당당히 알리면서 레즈비언임은 뒤로 감추지 않으십니까? 또는 '레즈비언'은 하위문화라 말하며 묘한 우월감이나 분리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동성애 전문지 버디로 오십시오!

BUDDY

전화: 02)2232-3045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776호 (110-607)

버디 홈페이지 <http://www.buddy79.com>

Email: buddy79@buddy79.com

참을 수 없는 포르노의 지겨움

참가자: 인과, 웅보, 보단, 애로, 징악, 달인, 부기, 국물
등 8명의 여자(기혼 4명, 미혼 4명)
일시: 1999년 4월말 오후

웅보: 근데 이번에 O양 비디오,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왜 그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안하는 거야?

보단: 그거는 오현경이 워낙 유명한 사람 아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현경이 안 유명한 사람이고 남자가 차인표였으면 거꾸로였겠지.

애로: 다르지. 이렇게까지 이슈화는 안 되지. 왜냐하면 이미 남자들한테 섹스나 포르노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래서...

웅보: 그러니까, 개는 하나도 기스가 안 나네. 그 남자도 결혼 안 한 놀임 텐데 말이야.

애로: 지진출두했잖아. 지가 먼저.

웅보: 지가 또 막 고백한다고, 온갖 잡지 에다가 자랑스럽게... 근데 오현경 애는 죽을 죄지은 것처럼 뭐, 막 그러잖아. 성경험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이번 일로 보여지는 거 같애. 언제나 여자만 문제야.

인과: 함윤상이라고.

웅보: 응? 함윤상이야? O양 남자가?

애로: 오현경 비디오 없는 사람이 없네. 나만 없는 것 같애.

보단: 여기서 본 사람 없어.

웅보: 근데, 그걸 그렇게 봐야 되니? 난 그거 보는 사람도 나쁜 거 같애.

애로: 보는 사람도 웃긴 거지. 이거는 물레카메라지, 포르노로 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지내들이 한 행위를 지들이 찍어 놓은 건데, 그거를 보는 건 마치 관음증처럼...

웅보: 그게 자기 현실에서 이를테면 사랑이나, 성생활이나 부

부관계, 이런 거에 몰만

아라서 그러냐?

달인: 아니, 이전 연출된 포르노비디오 자체는 재미가 없는 거겠지. 식상해서...

부기: 재미있네. 오현경 비디오가, 재미 있다는 거야.

애로: 나는 <빨간 마후라> 보고 울었는데, 그 여자에 불쌍해 가지구.

인과: 그래서 제가 본 사이트가 그거예요. 무료 사이트인데 연인들이 자기네가 하는 거를 찍어서 보내. 그럼 그걸 주최측에서 콘테스트처럼 뽑아. 애네는 각도가 좋고, 애네는 사운드가 좋고...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보면 개네가 하는 게 한 30초간 나와요. 그걸 보는 거야. 그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출품해.

보단: 국내 웹사이트가 아닌 거지?

인과: 네.

애로: 근데 남자들은 포르노 찍구 싶어하는 거 같애. 나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 있는데, 개도 섹스하고 나면 그렇게 사진을 찍자는 거야. 사진기 대고서 '야, 우리 한 방 찍자. 한 방 찍자'. 안 그래, 부기 신랑?



부기: 찍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한 적 있어.

애로: 그렇지? 남자들이 이상하게 어떤 필름으로 담아놓으려고 해.

달인: 왜 그럴까?

보단: 오현경이는 뭐가 원치 모르고 너무 찡찡해가지구, 정말 그냥...

달인: <빨간 마후라>도 보면 자기네들이 찍어서 남기고, 또 자기네들끼리 그걸 보고 이러는 게...

보단: 그렇게 파문이 날지 모르고...

달인: 그게 유행인가 같애. 일종의, 요즘 여자애들에게도... <빨간 마후라>도 보면 여러 명이 찍으면서 같이 보고 그랬잖아요. 그 둘만 자기네끼리만 찍은 게 아니라...

보단: 둘이 아니라 여럿이죠. <빨간 마후라>는?

국물: 여자 한 명에 남자가 셋인가?

웅보: 남자애가 여럿이지.

애로: 그 여자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성폭력 누구한테 당해가지구,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솔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웅보: 근데, 그런 애들이 많아들 윤간당할 거야. 그리고 날나리가 되는 거지.

애로: 응.

달인: 그리고 윤간이 성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지.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웅보: 그렇지. 대부분이. 윤간이나 강간이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배우는 거지. 그렇게 당하면서.

애로: <나쁜 영화> 있잖아. <나쁜 영화>에서 강간하는 장면 있잖아.

부기: 어디 있었어? 난 보다가 너무 재미 없어가지구 3분의 1인가만 봤는데?

애로: 근데 미국에서 그 영화 나왔으면 아마 여성단체에서 고소했을 거 같애. 이건 포르노라고, 포르노인 데다가 강간을 아예 방치시킨 상태 아니야.

부기: 난 못 봤어.

웅보: 실제로 강간했대?

애로: 실제로 한 거예요.

달인: 여자가 울고불고 그러잖아.

보단: 영화 촬영중이?

애로: 응, 그거를 찍은 거고, 장선우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옥상에서 뽀 때라구 그러잖아.

웅보: 장선우는 워낙 <꽃잎>도 그렇대. 개는 워낙 강간 장면이 많아.

국물: 쓸데없이 많아요.

웅보: 근데, 이번에 이윤택 <바보각시>도 보니까 그게, 남자들의 일종의 환상이기도 한 거야. 그 바보각시가 여러 놀한테 강간당해 갔구 애를 임신했는데.

그것도 미화시키는 거지. 이를테면, 임신이 됐는데 당신들 여러 명이 했으니까 당신 중에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라. 애를.

근데 다 싫다고 그러니까 애가 자살을 했어. 실제로 어디 신도림인가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 그 사건갔구 쓴 거야.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가 임신했는데, 누가 죽여 갔구 파묻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건 갔구 만든 건데, 나중에 거기서 미

미미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성이 강간이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원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모성신화로 숭배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더라구.

애로: 뉴욕 어떤 미국인 교수를 만났었는데, 그 교수가 그러는 거야. 종교가 뭐냐.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얘기했더니만 '하느님은 강간범이예요'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마리아한테 섹스하겠다고 한 마디도 안 해놓고 임신시켜놓고 나서 지 뭇만이 보내가지고 '너 임신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잘 키워'.

웅보: 허허하. 그리고 '내 아들이야'.

달인: 그런 진짜. 지금 생각난 건데 여자가 왜, 악령을 임신하고 싶지 않았는데 끝내는 임신하게 되는 거하구 비슷하다. 성경이라서 문제가 안 된 거지. 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애로: 그렇지. 하나님도 정말 사랑을 했으면 '마리아야, 내가 좀 이려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겠니?'

웅보: 그럼, 제우스지. 그럼 기독교가 아니지.

달인: 이런 얘기 썼다가 돌 맞겠다.

애로: 그 교수는 자기가 기독교 신자였었는데. 정말 정말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강간과 포르노그라피가 보인다는 거야. 성경책을 읽다보면 포르노를 보는 거지...

달인: 맞아.

웅보: 근데, 뭐 그리스신화에는 제우스랑 신들은 다 강간하잖아. 여동생도 하고, 뭐 온갖...강간의 역사야. 그래도 그게 더 나. 기독교보다는... 인간적이라.

달인: 근데, 그 왜 포르노 보면 우리 남편도 에로틱 서스펜스 스릴러 좋아하는데, 그 왜 살인과 성관계가 같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 왜 좋아할까요?

보단: 섹스하고 폭력하고 죽음이 어떻게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 같애.

달인: 그러니까, 그게 어떤 미학이 있는 걸까?

웅보: 나는 그게 남자들의 섹스의 경험이 다른 거 같애. 여자하고. 그래갖구 남자들의 섹스의 경험은 질정이라는 게 육체적인 섹스에서 질정을 느끼고 그리고 허무하잖아. 언제나 과거잖아.

애로: 응, 맞아.

웅보: 그래서 남자들의 섹스 경험을 죽음과 동일시하는 게 굉장히 많고.

보단: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오로 가슴을 딱 느끼고 나면...

웅보: 아니, 여자는 그게 출산으로 이어지잖아.

애로: 예를 들면?

보단: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웅보: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는 늘 출산하고 연결되지. 임신에 대한 공포도 있고...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여자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 뭐야, 난 장정일 작품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똥 나오잖아. 똥 나오고 폭력적인 거 나오고,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창조

의 경험이라는 게 여자와 다른 거 같애. 근본적으로, 그게 동과 정액 방출 그것밖에 없어. 얼마나 허무해. 언제나

그건 지나가버리고 아니까. 그래갖구 예술도 일종의 폭력적인 건데, 극단적인 그 형식 실험을 많이 해. 형식적인 데서 극단

을 그 치달리는 게 창조에 대한 경험이 일상과 생명, 살하고 유리된 남성들의 체험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폭력적인 거, 영화와 <다이하드> 같은 것도 그렇고, 왜 다 죽이구 그러는 거, 너무 지겨운데 왜 그런 걸 만드나?

부기: <쉬리> 응, 지겨워.

달인: 나는 죽이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게 꼭 섹스하고 연결되는 거 있잖아. <왕

들의 침묵>에서도 좀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난 근데, 그런 영화 보

면 완전히 잠이 확 깨거든?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재는 저런 상태에서 섹스하고 싶을까싶구. 칼을 들이대고 여자를 학대하면서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본능인가?

웅보: 그런 폭력이지.

달인: 아니, 그런 게 남자들 영화에 많이 나오요. 그런 포르노도 아닌데.

보단: 섹스 자체가 파괴적인 측면이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부기: 나는 그냥 포근한 게 좋아. 포근한 섹스가 좋지 않아?

달인: 막 긴박한 상태에서 섹스, 이 여자를 죽일지도 모르는 남자와의 섹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때?

웅보: <원초적 본능>.

달인: <원초적 본능>은 여자가 죽이는 거지.

보단: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구 유럽에서 그게 물어져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던 건데?

웅보: <관능의 제국>인가? 뭐가? 육체의... 감각인가?

보단: <감각의 제국>. 그거 보셨어요? 거기서, 그게 나와. 이 남자가 거의 절정에 오를 때 여자한테 목을 조르게 한다고, 응?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게 그 폭력이나 이런 거 하구 연관이 굉장히 있는 거 같아요.

달인: 근데, 여자도 그럴까? 여자 느낌에도 그런지가 궁금한 거지.

국물: 학대를 당하면서 학대가 아니라는 거지.

달인: 나는 그게 남성성이라고 비판했거든. 폭력적인 어떤...

보단: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달인: 학대하는 거?

보단: 응. 자기의 어떤 힘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지...

달인: 워낙 여자, 남자의 성관계가 지배

받고 지배하는 관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한다는 거죠?

보단: 그렇게 발전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것이 주는 쾌감도 있는 거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인간이 아니라 완전히 동물 수준이 되는 거지.

달인: 그런 동물이 어딴지. 지가 섹스하고 잡아먹는...

보단: 있잖아요. 암컷이 잡아먹는 거 많지. 거미, 전갈 이런 거는 암컷같이 잡아먹잖아요.

웅보: 많지. 벌도 있고.

부기: 그런 모성본능이라던데.

보단: 아니,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대.

부기: 그러니까 단백질 때문이래잖아요.

보단: 그런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섹스라는 게 심층, 무의식으로 들어가버리면 뭐, 굉장히 복잡한 거 같애.

달인: 그런 거 같애. 근데, 여자들도 진짜 그럴까? 폭행하고 싶은 욕망 같은 거...

웅보: 있겠지. 여자라고 없을 게 없지.

보단: <원초적 본능>에서 죽인다며...

달인: <원초적 본능>만 해도 남자가 만든 영화적 상상력이 아닐까?

에로: 난 본능이라기보다 학습인 거 같애.

보단: 그렇지. 여자들은 그런 공격성을 전혀 학습을 안 하고 자랐으니까.

달인: 나는 너무나 섹스하기 싫을 때 하면 폭력성이 늘어.

보단: 하하하... 때려?

달인: 아니 때리는 게 아니라 아우, 지겨워서 막...

에로: 동물들도 폭력성이 나오는 게 딱 한 번이야. 배고플 때 외에는. 호랑이를 도배 터지게 먹고 나면 옆에 토끼가 놓든 사슴이 지나가도 그냥 얼렁뚱 이렇게 잡아.

웅보: 그거야, 당연하지.

달인: 근데, 인간은 이제 한없이 죽이지.

죽일수록 더 죽이고... 참, 인과씨도 포르노비디오 봤지, 요번에 본 게 처음이야?

인과: 아니.

모두: 그럼 또 언제 봤어?

달인: 알맹이로 생겨가지구 포르노만 보고 있구. 저거는...

모두: 하하하...

인과: 인터넷에서 봤어.

달인: 징역이?

징악: 나는 못 봤는데...

달인: 어? 못 봤어? 넌 나가.

모두: 하하하...

보단: 아니, 본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웅보: 나도 못 봤어.

보단: 한 번도?

웅보: 한 번도 못 봤어.

인과: 근데,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

웅보: 아니, 안 본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럼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야.

모두: 하하하...

달인: 보셨어요?

보단: 나야 봤지.

달인: 국물이 <터보네이터> 봤다며, <터보네이터> 말고 또 <전라도의 힘>도 있단구 그렇지?

국물: <웅의 국물>도 있단구.

인과: 그건 에로비디오지 포르노가 아니잖아.

징악: 에로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달인: 포르노에 국한시키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 뻔해서, 오히려.

국물: 도대체, 뭐가 에로고 뭐가 포르노지?

보단: 에로도 뻔해. 에로도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지 뭐.

에로: 에로고 포르노고 차이는 별로 없어. 성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지.



징악: 그건 에로지.

인과: 그건 권선징악이라는 커다란 뜻을 갖고 있어.

모두: 하하하...

부기: 근데, 거기서 권선징악이 뭐야? 어떤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거니?

달인: 포르노의 권선징악이란...?

인과: 그럼 인과응보...

모두: 하하하...

국물: '씨 뿌리면 거둔다'야?

징악: 콩 심은 데 콩 나고...

보단: 아니야, 거기선 씨 뿌려도 절대로 안 곁어.

달인: 그래, 곁지는 않아. 뿌리기만 하지.

보단: 인과응보의 법칙이 철저히 무시되는 게 포르노야.

국물: 아~~~~.

보단: 그렇지.

달인: 포르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줄거리 없이 그냥 막...

인과: 맞아.

보단: 아니, 줄거리 있는 것도 있어.

달인: 아니, 물론 그런 것 있어. '섹스의 달인을 찾아서 떠나는 여자' 이래가지고...

징악: <웃음>섹스의 달인을 찾아서?

국물: 아, <옥보단>, <옥보단> 나 그건 봤다.

달인: ...이 남자, 저 남자 찾아가 지고, 만날 때마다 한 판씩 하구.

국물: <옥보단>은 포르노가? 예쁜가?

달인: 있잖아, 내가 처음 어떻게 포르노를 봤냐면... '그 섹스의 도사를 찾아서 떠나는' 그 포르노 비디오를, 친구네 집에 갔다가, 친구가 포르노를 보고 싶대, 나보고 빌려라는 거야. 그래서 비디오가게를 가가지구 아저씨한테, '아암... 포르노비디오 있어요?' 그랬지. 웅감한 척 하느라구...

모두: 하하하...

국물: 그래서?

달인: 그래서 빌려갔구 왔다, 아저씨가 너무 기가 막해하더라.

부기: 뭘, 빌려주려고 비치해 놔구만.

달인: 아니, 근데 보통 '포르노비디오 있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지.

국물: 그렇지. '아한 거 있어요?' 그러지.

보단: 아니, 근데 빌려줬어?

달인: 응, 빌려줬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였으니까. 또 친구네 단골 비디오가게였거든. 개가 내 뒤에 서 있었거든.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

보단: 아니, 동네 비디오가게에는 포르노는 없잖아요.

에로: 있어요. 다 있는데... 잘 안 빌려주지.

인과: 좀 조용히 해봐!

웅보: 아, <젓소부인>은 포르노가 아니야?

모두: 아니지, 그건 에로지, 에로.

달인: 에로사항이 많은 에로비디오야.

국물: 에로랑 포르노랑 차이가 진짜 그거 차이야?

부기: 성기가 보이냐 아니냐 하는 거지.

국물: 그래서, 그 다음예요.

달인: 근데, 그랬는데, 그 날이 개 아버지가 집에 계신 날이었거든.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워가지구, 애들을 개 패듯이 때리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거실에서 손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서...

웅보: 그 집 방 안에서 포르노를 때린 거야?

달인: 친구 고모하고 친구 엄마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디오 빌려왔다!' 막 이러면서, 네 명이 본 거야, 이 거를.

부기: 너희 진짜 웃긴다.

보단: 아니 엄마랑 딸이랑 같이 봤었던 말이야?

달인: 심지어 고모랑, 아버지의 누나랑, 보다가 막 나가더라?

부기: 아니, 근데 포르노가 뭔지 몰랐던 건 아니잖아.

달인: 얼마하구 고모가?

부기: 아니 너가.

달인: 알지만, 난 그걸 본다는 것도 부끄럽잖아, 별로 그냥 호기심에...

부기: 처음 본 거야?

달인: 응, 처음이지.

부기: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 거지.

보단: 진짜 포르노? 에로가 아니구?

달인: 진짜 포르노, 그냥 이런 구멍하구 작대기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거 있잖아.

모두: 하하하...

달인: 그렇게 보는데, 먼저 고모님이 슬 나가시더라? 그러고 나더니 이제 엄마가 '나도 간다!' 이러면서 나가는데, 친구가 아버지가 들어오면 자기 죽으니까, 아버지가 막 들어올 것 같으면 '어! 애들아!' 하고 밖에서 신호를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엄마한테 부탁을 했었어. 그래가지구 열심히 보고 있었다. 막 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엄마가 문 밖에서 내놓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두들 두들 걸어들어오는 거야.

모두: 어? 왜!

인과: 정말?

달인: 걸어와서 문고리까지 막 잡은 거야. 그랬더니 밖에서 '어보! 어디가요'

불잡는 소리가 나더라. 리모콘을 내가 들고 있었거든.

모두: 하하하...

달인: 그 때 난 리모콘을 처음 만져보는 거였거든. 난 수동으로 항상 하고 있었을 때라. 10년 전쯤 일이니까.

웅보: 첫 경험이야 뭐든지.

달인: 친구가 아버지가 오면 리모콘으로 쉴 딱 누르래. 근데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모두: 하하하...

달인: 아무리 놀러도 작동이 안돼. 어우. 그 아버지 등치가 이렇게 크고...

웅보: 그건 바로 앞에서 해야되는 거야. 대각선으로 하면 안돼.

달인: 개네 아버지 되게 무서웠거든.

모두: 하하하(거의 자지러진다)...

달인: 근데 마침 이 비디오 내용에서 이 여자가 웃을 입고 도사를 찾으러 나왔거든.

모두: 하하하... 잘 됐다.

달인: 내내 벗고 있다가, 아버지 들어왔을 때 막 딱딱한 가죽옷에 일명 웃을 입고, 신글라스 끼고 있었어. 그래서 난 그냥 앉아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리모콘을 포기했어.

모두: 하하하...

달인: 근데, 그 아버지가 내 표정이 이상하니까, 계속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런다?

모두: 하하하...



달인: 그러니까, 친구가 "암... 도를 찾는 건데... 뭐... 비디오가 내용이 이상하네..." 그리고 개가 텔레비전 앞으로 가자구 직접 눌렀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쫓 쳐다보더니 그냥 나간 거야.

보단: 미치겠다!

달인: 이게(리모콘이) 안되면 가서 꺼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안되니까 기가 너무 질려가지구...

정악: 얼었어.

달인: 근데 그 장면이 바뀌어서 살았지. 아버지가 있는 동안 그게 나왔으면 개는 완전히 맞아죽었다. 개네 아버지 애 진짜 잘 배가든요.

국물: 교사라고 하셨죠. 그 아버지.

달인: 고등학교 선생님. 그것도 체육선생님.

국물: 죽지, 죽어.

달인: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죽일 것이 하는 소리가 개네 고모하구 엄마하구 개가 사람이나? 그러더라. 어떻게 기집애가 남의 집에 와서 포르노를 그렇게 말평하게 보나구.

부기: 그런 말 나을 만두 하다 아.

달인: 아니, 지가 꼬서가지고 보고서는 지네 엄마, 아버지 다 끌어들이고는.

보단: 아니, 보통 친구랑 놀아 보지, 엄마랑 봐?

달인: 그렇게 처음 봐가지구 나 진짜 아랫도리 후들후들하게 봤다. 진짜 아랫도리 떨리더라.

모두: 하하하...

부기: 다들 포르노의 첫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남편 이야기 나와서 못하겠어.

보단: 왜?

부기: 나는 남편이랑 포르노 사러 청계천에 갔잖아.

보단: 언제? 하하하...

달인: 같이 갔어? 혼자 아니고?

국물: 둘이 손 꼭 붙잡고 갔어?

인과: 아니, 혼자 사다가 그냥 보라고 그러지.

국물: 남다르잖아. 애정이 남달라.

부기: 이젠 잘라야 되는데...

국물: 이젠 꼭 찔러요? 언제 얘기해.

부기: 아니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남편이. 이 사람은 자기는 성적으로 늘 억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 제대로 못 보고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랑 속옷패션쇼 이런 데 같이 가고 싶어해.

모두: 하하하...

국물: 아주 독특해. 아주 독특해서. 근데?

웅보: 근데, 빌리지는 못하고 사야 돼? 아, 두고두고 보려고.

달인: 가게에서 요즘은 못 빌려.

국물: 근데...

예로: 샀어?

부기: 샀지.

달인: 그래서 봤어?

부기: 봤지.

예로: 어땠어?

웅보: 그래서 효과가 있어?

예로: 따라했지. 그것도 고대로?

국물: 에이, 지자분해서 하기 싫었지? 분명히 그랬을 거야. 성격상.

부기: 난 진짜 싫었지. 사는 것도 얼마나 싫었는데. 호기심은 있었지. 호기심도 있어서 같이 갔지. 근데, 얼마나 민망해. 가가지구 "비디오 있어요?" 물어보는 거. 가격이 얼마예요?

달인: 아예로 사니까 그렇지. 뭐, 아니 <부부성생활> 이런 비디오는 합법적으로 팔잖아.

국물: <부부리서치>?

웅보: 근데, 그런 건 재미없대요. 또.

정악: 그래, 그게 뭐니... 촛불을 켜놓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서 우아하게 앉아서 마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야.

국물: 그냥, 그게 끝이야?

정악: 응, 애들 다 있잖아. 막 1학년 때 대학 입학하면 다 그걸 보러 가. 손을 잡고 나란히. 막 갔는데 물 속에서 수영하고 돌이 같이 이려고 나오는 거야.

국물: 거기서 성교를 하는 거야?

정악: 성교를 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잡는 거야.

달인: 어디를 손잡고 가?

정악: 비디오방에.

웅보: 단체로?

정악: 아니요, 몇 명이서. 맘 맞는 애들끼리 가서.

웅보: 여자애들끼리?

정악: 여자애들끼리도 보고 남자, 여자 같이 섞어서도 보고. 괜히 북스러우니까 여러 명이 보러 가요.

예로: 옛날에는 막 들어왔잖아.

보단: 어디, 여관에서?

부기: 지금도 여관에서 들어줘요.

달인: 왜냐면 옛날에는 학생회에서 밤에 회의한다고 여관을 많이 잡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밤이면 텔레비전 틀어보면 나와.

보단: 그건 예로잖아.

달인: 포르노도 들어줘요.

예로: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다 가터벨트 하잖아?

모두: 응.

예로: 그 가터벨트 하는 이유가, 성기를 가장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 왜 그 검정스타킹하고 그 가터벨트하고.

달인: 액자를 만들어주는구나.

예로: 그래, 액자야. 이게. 그래서 거기만 집중되는 거 있잖아.

국물: 진짜 액자구나. 그게, 액자.

예로: 색칠하잖아. 그리구.

인과: 어디에?

예로: 엉덩이하구. 메이킹을 해. 파운데이션으로. 그리고 뽕꼬는 까맣게, 칠해주고.

보단: 아, 배우가, 포르노배우가?

예로: 그리고 털도 원만하면 다 뭐잖아. 포르노배우 나오는 여자 중에 털 있는 여자 거의 없잖아. 거의 다 백이거나.

웅보: 그럼 깎아 그걸? 보이게 하려고.

예로: 그것도 있고 또 남자들 심리는 어린이 같은 느낌이 든대요.

웅보: 아, 맞아. 그런 얘기 있어.

예로: 털이 없으면 어린 여자애들 성기 같기 때문에 오르기 싫어 더 생김새. 욕구가 더 생기기 때문.

달인: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 털 없는 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부기: 근데, 일본포르노 봤는데, 묶어놓고 옷도 스타킹도 꼭 하고 뽕꼬면서 하는 거 있잖아. 묶어놓고 감강하는데 여자는 처음에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좋아하는 거 있잖아. 감강당하는 게 좋다고 보여주는 거지.

웅보: 남자들의 환상이지. 남자들의...

부기: 또 하나는 뭐니면 음침한, 몰래비디오처럼 한 거 아니면 애를 잡아갖고 와서, 감제로 찍은 포르노 같애. 그런 굉장한 상태도 안 좋고...

달인: 그거 굉장히 기분 안 좋아.

부기: 그 답에 여자애 얼굴이 잘 거의 안 보이고, 이렇게 가려져 가지구. 무슨 여관방 같은 데서 찍은 거 같은데. 분명히 감제로 잡혀와서, 동양여자였는데, 한국 여자인지 일본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잡혀와서 찍힌 거 같은 느낌이 드는 포르노가 있었어.

예로: 또 일본 것에서 안 좋았던 것이 여자를 흠뻑 눕혀놓고 혀를 한 상을 씹 차린 거야.

인과: 일본 애들이?

국물: 여자 몸 위에?

웅보: 포르노가?

예로: 그래서 그 혀를 질에 한 번 넣었다가 이래서 먹구...

모두: 응...

예로: 다 먹고 지들끼리 떠들고 놀아, 놀

다가 회 먹고 나서 여자까지 먹는 거야. 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음식이야.

국물: 아~~

웅보: 남자들한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먹는다'고 그러잖아.

예로: 한 번은 일본에서 포르노를 몰래 사가지고 왔었거든?

달인: 아휴...

예로: 그걸 뽕뽕뽕 말아서 골드 그림 속에 숨겨가지고 와서 봤다? 근데 제목이 일어로 써 있는데 '너무합니다' 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봤는데,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고 김수희 노래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걸 일본으로 수출한 걸 난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다시 사온 거야. 너무 웃긴 게, 남자에 팔에 일심(一心) 이렇게 써 있고, 카메라가 '야, 빠진다, 빠진다' 이런 소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구.

모두: 하하하...

부기: 진짜 너무한다.

예로: 나는 애들 가르치려고 집에 한 여섯, 일곱 개가 있거든? 근데, 보면 너무 웃겨. 대만 거가 또 웃기는 게, 딸이 시집가는데, 아니 아들네이까 장가가는 날인데 아들이 막 고민을 해. 대만어로 그러니까 중국어로 얘기하면 자막을 영어로 떠. '아, 아버지, 결혼해서 첫날밤 어떻게 해요?' 하고 막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래, 그거 참 문제가 크구나."

부기: 스토리가 있네.

예로: 여동생을 불러, 그러가지구, "니가 오빠를 위해서 오늘 연습을 해봐라" 아빠가 가르쳐줘. 그렇게 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잠가자구.

달인: 뭐라고?

국물: 근친상간.

웅보: 아니,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대상으로 섹스를 하는 거야?

애로: 아니, 아들한테 시키는 거야. 아들이랑 해보라구.

웅보: 아...

국물: 한 가족이네. 다 같이.

달인: We are the world.

웅보: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나? 포르노 노래도 그거가 있잖아. 무슨 기준. 뭐 공론 이런 거.

애로: 없어.

국물: 포르노는 원래 공론심의 있는 거 아니야? 영화만 공론 있는 거 아니야?

웅보: 아니, 어차피 불법인가?

보단: 대만도? 미국은 아니잖아. 등급을 매기잖아. 등급을.

웅보: X등급이 있잖아. 트라플X.

보단: 그렇지.

애로: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인이 덴마크인가 거기는 성기가 나온다고 해서 포르노가 아니라, 여성을 얼마나 비하시켰느냐에 따라서 포르노구 아니구가 결정이 돼요.

인과: 그럼 만약에 그 성교 장면이 없어 두, 맞거나 막 확대하면 포르노로 가는 거야?

부기: 근데 남자들이 보고 나서랑, 여자들이 보고 나서랑 느낌이 달라? 어떤 거 같애?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

애로: 내가 처음 대학 강의 갔을 때.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보여줬거든? 시작하자마자 토하러 나가는 애들.

보단: 어떤 장면에서? 정상적인 포르노야. 아니면 수간이야?

달인: 근데 정상적인 포르노는 없어. 대부분.

징악: 아니, 정상적인 포르노가 뭐예요?

웅보: 예로영화 수준이겠지.

보단: 예로영화 수준인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다 보여주고 그러지만, 스토리는 그렇게 억겹지 않은 거.

달인: 그런 건 없어. 다 집단 성관계고.

보단: 집단 성관계라도 합의된 것처럼 돼

있기 때문

에...

웅보:

아, 그

러니까, 포르노는 정말로 하는

구나.

보단: 그렇지, 정말로 하는 거지.

애로: 이제야 안 거야?

모두: 하하하...

달인: 포르노의 어원, 이런 게 뭐 있나?

징악: 포르노 플러스 그래픽.

부기: 그게 뭔데?

애로: 매춘그래픽.

징악: 참녀라는 뜻이 있잖아. 참녀들의 그림이지.

애로: 그리스어로 포르노가 어원인데.

모두: 오오...

애로: 근데, 포르노를 보면 안 좋은 게 따라할려는 거 있잖아. 포르노를 보면 따라하려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부기: 진짜 억겨워.

달인: 뭐가 억겨워? 어떤 부분이 억겨워?

애로: 나는 다섯 볼 엄빈 거. 입으로다가 한 명이 하고, 한 놈은 항문, 한 놈은 박구, 그리고 두 놈 양쪽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달인: 응. 맞아 맞아.

웅보: 몇이야 그림?

달인: 다섯이지.

웅보: 양쪽이 어떻게 해?

달인: 손으로 잡고 마스터베이션 해주는 거야.

보단: 자세가 가능해?

웅보: 근데, 그거는 정말 어거지로 하는 거지.

달인: 그런 건 비디오에서 많아.

국물: 욕, 너무 싫다. 그건 쾌락이 아니라 확대당하는 거다.

보단: 다섯은 너무 심하다. 난 셋까지는 봤어도.

모두: 하하

하...

부기: 릴레

이로 쪽.

국물: 인과

아, 나가자.

욕, 못 앉아 있

겠다.

웅보: 아니, 폭

력적인 건 좋지 않

지만, 그 뭐. 성기 나온다고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고...

달인: 그건 그렇죠.

웅보: 아니 그것이 인간의 섹스와 그 사람들의 쾌락에 기여한다면 뭐 나쁜 건 아니지.

부기: 근데 기여해?

달인: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남자 성기가 이만한 게(전화기를 들면서)...

모두: 하하하...

부기: 여기서 전화기 들었다고 꼭 얘기해야 돼.

모두: 하하하...

달인: 이만한 게 나오면서, 이건 진짜가 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거 풍성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국물: '예구' 뻑차다.

달인: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구 아퍼라'...

인과: 그거(전화기)보다 컸어.

국물: 미치겠네.

달인: 그리고 상대애가 그 왜 동양여자애 왜 뜨고만 여자애 있잖아. 개가 흑인남자 하구, 이렇게 앉아 있는데, 비디오를 찍기 전에, 포르노비디오 찍으려고 처음 온 애 같은 표정인 거야. 근데 남자가 그 포르노배우가 발기를 이만하게 시켜가지구...

국물: 와! 그렇게 커?

인과: 크기 이만해. 진짜.

달인: 자기 성기를 잡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 여자애를 보게 하는 거야. 보라구 근데, 애는 처음 찍어서 그런지 얼굴이 공포가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워하구.

인과: 그래, 물어보잖아. '이렇게 큰 거 본 적 있나' 구. 본 적 없다고. '어떠냐구' 물으니까 웃었어.

달인: 웃는데도 일그러져서 막 우는 것처럼 보였어.

국물: 둘이 여관 갔어? 둘이 어디서 봤어?

달인: 근데 비디오 본 반응이 여자애들은 하나같이 '아우, 너무 끔찍하다', '지겹다' 뭐 이러면서 '남자가 너무 싫다' 이러고 남자애들은 '평소에 본 거다' 이러고...

보단: 포르노비디오 본 반응이 남자 여자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달인: 응.

애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액을 얼굴에 막 뿌리고.

달인: 그러면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표정으로 그걸 막 받아먹구.

보단: 정말?

웅보: 눈에 왜 넣어?

애로: 눈에 넣는 게 아니라 눈에 휘어붙여가는 거지.

국물: 그거요, 눈에 그 단백질 들어가면, 단백질 제거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모두: 하하하...

국물: 렌즈 그거 매일 닦기도 힘든데, 눈에 단백질 들어가면, 아휴... 오 마이 렌즈, 오 마이 갓. 이젠 정말 오 마이 갓이다. 진짜...

부기: 아니, 사실 처음엔 흥분되지 않나? 처음에는 흥분도 돼.

국물: 그 비디오를 보면?

부기: 포르노비디오가 흥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젠 이제 몸 지나가며는 억겨워지구, 그래서 아까 내가 남자를 불러나 그렸을 때, 다시 별로 보고 싶어지지 않는다구. 근데 우리 한 2년 정도

집에 있었는데, 포르노 비디오가 4개 있었어.

징악: 계속 봤어? 두고두고?

부기: 계속 안 봤어. 근데 뭐야, 난 한 번이나 두 번씩밖에 안 봤는데, 남편은 계속 그걸 봤던 거야. 사실은, 자기가 혼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봤던 거야.

보단: 아.

부기: 그러다가 한 번 또 일이 있었지. 그러구 찾아놓고 나간 거야. 우리 엄마가 애 보러왔다가 TV를 막 켜니까 막 나온 거야. 우리 엄마는 처음 본 거지, 포르노를.

보단: 노인네가 놀라셨겠지.

부기: 갔다왔더니 엄마가 "그, 아, 테레비를 켜더니 이상한 게 나오더라" 그래갖구 내가 지랄지랄했지. 남편한테, 애 넣고 금방이었을 거야. 그 뭐야. 연말 맞이해갖고, 우리 새해에는 이런 거 보지 말자. 다 부수고 이제 버렸거든.

국물: 그런 거 부수지 말고, 남편한테 좀 주지. 그런 건 몸...

징악: 하하하...

보단: 근데, 남자들은 그거 계속 그렇게 안 보지 않을 걸? 또 어디선가 보고 그럴 거예요.

애로: 아니, 그거 보는 게 억혀려고 그러는 거 같애.

보단: 아니, 그런 충동이 더 여자들보다 그 쪽을 더 원하는 거 같애.

애로: 포르노를 자주 보니까, 이제는 '아, 이' 이 소리가 막 소름이 끼치는 게.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 아픈 고통스러운 소리 있잖아.

보단: 원래 그래. 다 가성(假性)이잖아. 그죠?

애로: 예, 그러니까 아파하는 소리지.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구.

웅보: 근데, 실제로 한다면, 포르노는...

애로: 실제로 해요.

웅보: 그러면 실제 반응이잖아. 소리

가...

보단: 아니, 근데 연기라니까.

웅보: 아, 연기야...

국물: 그럼, 연기조. 오버하는 거죠. 남자들 생각에 여자애들이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통통 갔으면 좋겠는 거죠.

애로: 근데 남자들은 딱 구멍만 찾는 거 같애. 딱 구멍.

웅보: 그렇지.

국물: 어디다 넣을까?

애로: 항문이란 입이란 성기든 중요한 게 아니라 구멍만 있으면 되는 거지.

달인: 하하하...

부기: 그 때 그 이프에 실린 원고도, 빨발에 구멍만 보이면 넣는대잖아. 구멍에 대한 돌아가고 싶은 그, 귀의하고 싶은 그런 거 있겠지.

달인: 박고 싶겠지... 그렇게 보면 여자들이 민담에 있잖아. 가족방망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구, 가족을 씹히가지구 그냥 놀릿감아...

웅보: 가지, 오이, 뭐...

달인: 방망이만 보면 눈에 띄는 거지.

애로: 에이, 그것도 남자들의 환상 아니야? 난 안 그럴텐데...

달인: 근데, 포르노비디오를 보고 처음에 흥분이 돼? 난 처음에는 전혀 흥분이 안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게 아하다는 느낌이 들던데...

애로: 뭐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

구기자 아가씨, 벚치 아가씨, 배아가씨, 고추아가씨, 꽃아가씨, 참외아가씨, 담배아가씨... 당신은 '미인 공화국'에서 행복하십니까?

김신명숙 장편소설
신국문/갈 7,800원/도서출판 이프(557-7941)

달인: 학습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

보단: 아니, 나는 처음에 봤는데 흥분되는데? 난 처음에.

달인: 어, 그래요?

보단: 놀랐는데, 놀라면서 흥분이 됐다고.

모두: 아...

보단: 처음에 결혼한 친구 집에 갔는데 보여줬어요.

달인: 근데, 어떤 거에서 흥분이 돼요?

보단: 그런 정상적인 거였어요. 무슨 폭력적이란지 순간이란지 뭐어놓는다는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물이 만나서 눈이 짙 마주쳐갔고는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클로즈업시켜서 보여주는. 전혀 스토리나 이런 데서는 거리낄 게 없고, 그 보여준다는 것뿐이었는데, 나는 그거 보구나서, 아 굉장히 흥분되는 거구나.

부기: 그런 아주 교과서적이니까 그렇겠지.

애로: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애. 포르노에서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잖아. 그래서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막 리드하구, 막 이런 걸 보면 흥분이 되거든?

보단: 근데, 난 그 때부터 이상했던 게 왜 여자가 여자 뽀는 몸을 보면 더 흥분을 하난 말이야.

웅보: 여자들은 사회전체적으로 미인대회도 그렇고 여자를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가 대상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자 몸을 봐도... 남자의 몸은 섹스의 상징이 아니니까...

보단: 남자의 페니스를 보고는 흥분이 안 되는 거야. 크든 작든 간에.

국물: 나도.

보단: 여자의 질을 볼 때 오히려 흥분이 되니까 난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그런 건지, 내가 레즈비언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페니스를 보고는 흥분이 안 돼. 전혀. 이상하지?

웅보: 난 비디오로 질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나는 그 포르노를 보면 싫어할 것 같은 것이 근까 연애와 섹스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싫어. 불쾌해. 그래서 나는 포르노를 보면 불쾌할 거 같애.

부기: 포르노에는 사랑이 없어요.

웅보: 그러니까, 그리고 파괴적이고 배설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런 게 싫어.

보단: 근데,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랑 그런 거 탁 떨어버리고 육체로만 그냥 딱...

애로: 근데 포르노가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게 뭐니면 보통여성들한테 아님 일반남성들한테 오컬섹스를 대중화시킨 건 포르노영화인 거 같애.

웅보: 응, 그 말은 맞을 거 같다. 그치? 옛날에는 오컬섹스가 무슨 변태라고 그랬으니까...

애로: 근데 해무는 거 있잖아. 포르노 보면 페니스를,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섬뜩한 게 저러다가 여자가 확 깨물까봐 너무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보단: 하하하...

달인: 그러니까, 튀어나온 것에 대한 거 세공포증이 남자나 여자나 있나 봐.

애로: 하하하...

웅보: 아니, 그러구 남자는 더하지. 남자는 늘 그렇지. 복상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지. 여자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두 신화에서 그런 게 많잖아. 이빨, 거대한 이빨하고, 입이야.

달인: 성관계하기 전에, 나는 유두에 대한 거세공포증이 있던데.

보단: 아, 월남여자들 이빨 다 뽑았잖아. 그래갖구, 오컬섹스 때문에 이빨을 다 뽑어요. 매춘부들을. 자들 쾌락을 위해서... 아,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한국남자들이 가가지구.

웅보: 그러니까 가서 뽑는다고? 창녀촌에 가서?

보단: 아니, 그 여자애들이 이빨을 뽑고 틀니하고 나온디니까, 서비스하려고, 애로: 너무 싫다.

부기: 실제로 죽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야, 아아. 월남여자들이 막...

애로: 강간당하는 데 확 물어뜯고 싶지 안 물어뜯고 싶겠어?

보단: 아니, 남자들도 이빨이 있는 것보다 잇몸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냐고.

국물: 아이고 치가 떨린다. 근데 포르노 하니까 왜 이리 재미없냐?

웅보: 글썽말아.

애로: 미국의 포르노 <옥구멍 깊숙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그게 구멍이야. 진짜 구멍을 찾아서.

웅보: 린다 러브레이스지, 개가?

달인: 나는 그래서 막 헛갈리는 게 그 놈의 성기가 기본적으로 가학적으로 생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애로: 권총 모양도 × 모양하구 똑같잖아. 대포도 똑같구.

웅보: 그러니까 총이랑 그 문화가 다 공격적이고.

보단: 아니, 근데 궁극한 게, 여자의 성적인 환타지가 남자들하고 다른 게 여자들한테 독자적으로 있어? 따로?

애로: 아직까진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보단: 아니, 난 궁금해.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포르노비디오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 <에로티크>는 봤는데, <에로티크>는 말고.

웅보: 페미니스트가 만든 건데, 나는 그거는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데렐라가 왕자 구두를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자기한테 맞는 그 신발을 찾듯이 남자를 찾는 거래. 궁까 포르노 신데렐라야. 그래서 여러 남자하구 해보는

거야.

달인: 자기 질에 맞는 남자?

웅보: 응, 그거야. 내 질에 맞는 남자는 누구냐. 그게 있대. 그거는 좀 보고 싶더라. 어떨지는 모르지만...

달인: 근데, 그것도 질을 맞춘다는 게 성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거잖아. 성기 크기와 상관없이 느끼는 쾌감이 있는데,

인과: <국물 하품하자>하품할 때가 아니지, 지금.

애로: 애는 이런 거 하품해. 하하하.

웅보: 학습할 때야, 학습할 때.

보단: 근데, 섹스에서 성기가 가장 중요하잖아. 가장 중요한 게 성기지, 사실.

웅보: 중요하지.

달인: 근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바로 성기로 가면 아무 관심이 없대. 아무 흥분이 안 느껴지는데, 상상력을 막 자극해주면 너무너무 흥분을 느낀다는 거야.

웅보: 아, 맞아.

달인: 응,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애. 개인적으로는.

부기: 사람마다 다르겠지.

애로: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애무를 몇 번 받아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르잖음 느끼는 데가 어디인지인가 파악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근데, 정말 알뻔해 극하게 그렇게 서너 번 하지 않으면 내 성감대가 어딘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 근데 난 처음에 귀가 빠리해가지구, 귀가 성감대인 줄 알았는데 귀 알구도 정말 많은 거야.

모두: 하하하...

달인: 그리고 있잖아, 그런 것도 있어. 어떤 상대나에 따라서 어느 곳이 성감대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애로: 맞아맞아.

부기: 당연하지.

달인: 그러니까 여자들 판타지가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봐.

보단: 여자들의 그런 성적 판타지도 사실

다들 남자들이 다 만든 거 아니예요. 『플레이보이』 같은 데 보면 다 그러고 나오잖아. 여자들이 강간당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그랬다가 나중에 너무 좋아가지고는 뭐...

웅보: 응.

달인: 여자들은 크게 별로 공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강간이라도 당하는 그런 환타지를 갖는 거지.

보단: 나는 생전 해도 강간 당하는 환타지는 안 생기더라.

애로: 나도 그런 환타지는 없어. 강간 당하는...

웅보: 싫은 사람하고 더군다나 참자리까지 섹스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보단: 그래.

달인: 아니, 싫은 사람이 아니라, 낯선 데 근육질의 남자가 있으면,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아섯집 나르던 남자가 근육이 이렇게 보이니까, 런닝셔츠만 입고 하는데 너무 덩기더라. 그런 남자가 날 밀치고 들어와서 한다 이러는 환상을 가질 수 있지.

웅보: 너무 싫을 거 같애.

보단: 자기가 호감을 갖는 상태는 괜찮지.

애로: <레인 볼스>라는 영화가 그거잖아. 일본에서는 감히 주부들이 남자랑 바람을 못 피는 거야. 대신에 굉장히 보이쉬한 여자를 있잖아.

웅보: 일본에 그거 바도 있잖아.

애로: 네, 가능하면 남자같이...

웅보: 옛날에 '타카라주키' 그거처럼, 남장하는 것처럼. 그 바에는, 여자들이 다 남장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그게 여잔 줄 알면서도... 진짜 남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근데 요게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그래갖구 실제로 언제 실현해서 가고 그러면 위로받고. 정말 켜켜켜 죽더라.

부기: 그럼 매매춘이 있어야 되는 거네?

남자나 여자나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웅보: 매춘이라기보단도 서비스산업이지. 뭐, 각종 서비스가 다 있는데. 그게 정서적이고 색취할만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거거지. 뭐,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즘에서도 일각에서는 "그 창녀들 자기 몸 갖고 돈 벌어 먹는데 뭐가 나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부기: 그러니까 나는 독신여성한테는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남자들한테는 너무들 열려 있잖아. 사실 이쪽을 너무 옹호하다 보려는 이 반대쪽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로: 만약에 우리 나라에서 호스트바를 인정해 주자 이렇게 돼서 인정을 하게 되면 남자들이 매춘 반대운동 할 거야. 궁까지 줄줄 때면 괜찮은데 여자들이 호스트바 가면 매춘은 나쁘다고 들먹거리면서 이에 뽀뽀뽀도 없애버릴 거야.

웅보: 그렇지.

부기: 진짜 그럴까? □

일러스트 난나





검은색 웨딩드레스를 아시나요?

서구 혼례복 변천사

봄 온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계절로 알려져 있다. 햇살이 눈부시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봄, 사진의 배경으로 좋아서일까? 올 봄에도 역시 고궁에서는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신랑 신부들의 분주한 모습이 낯설지 않게 눈에 띈다. 게다가 새 천년을 눈앞에 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밀레니엄 베이비'라는 유행까지 생겨나 올해엔 시집, 장가는 처녀, 총각들이 더욱 많단다. 결혼을 앞둔 여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는 뭘니뭘니해도 '웨딩드레스'다.

웨딩드레스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믿는 결혼식용 의상인 만큼 지금까지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도 화려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드레스에 대한 환상과 선망이 큰 우리네 생활문화의 영향이 보태져, 단 하루만 입고 마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투자까지 서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여성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결혼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나날이 사치스러워지는 웨딩드레스와 결혼식장 분위기는 어쩐지 씁쓸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웨딩드레스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변해왔을까? 웨딩드레스는 처음부

터 그렇게 하얀 색깔이었을까?

새하얀 웨딩드레스의 기원은 1820년 영국 빅토리아여왕이 그녀의 결혼식 때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것에서 시작됐다. 그 당시 화가들의 그림 속에서 보이는 왕실의 결혼식, 혹은 스타들의 결혼식 장면에서 우리는 당시의 대표적인 웨딩드레스 형태를 엿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부 역시 일생에 단 하루뿐인 결혼식날을 위해서 오늘날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예뻐 보이도록 하는 특별한 옷을 지어 입었다. 위에 말한 대로 드레스의 색상이 흰색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지만 그 이전에는 청색, 붉은색, 자색 등과 같은 짙은 색의 드레스나 울긋불긋한 수장식이 놓인 것도 있었고, 금은사로 된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 붉은색이 악마를 쫓아낸다고 믿었던 그리스에서는 붉은색의 베일을 신부에게 쓰도록 했다.

하얀웨딩드레스, 누가 입었을까

베일에 대한 언급이 있는 참에 얘기를 좀더 해보자. 원래의 베일은 순백의 물(망사 소재)로 된 것인데 오렌지색의 꽃으로 머리에 고정시켜 착용했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즉 남편이나 신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여자가 베일을 쓴 것이라고도 하고 결혼식날 다른 남성들의 괜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외국의 결혼식에서는 아직도 신부가 식이 끝날 때까지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의 베일을 걷어올려주고 입맞춘다. 그런 다음에야 신부는 얼굴을 드러낸 채 신랑의 팔짱을 끼고 퇴장하는 것이다.

다시 웨딩드레스로 돌아오자. 중세 때 부와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는 표현수단으로 신부가 입는 웨딩드레스에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을 수놓았다. 이 때의 신부는 남자에게 재산의 일부분이었다. 오늘날의 웨딩드레스는 중세기 드레스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목선이 사각이나 하트형 등으로 파여 있고 상체는 조이며 허리선은 V자형으로 디자인하고 스커트는 주름과 개더 등으로 크게 부풀려져 있다. 또 소매는 폭 끼거나 퍼프(puff)를 넣어 윗부분만 부풀리고 뒤편 부분에 다른 천을 덧대어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것도 중세 드레스 뒷자락의 불필요한 장식이었던 트레인(train)의 한 형태.



20세기에 들어설 무렵에는 입은 레이스와 꽃으로 지나치게 장식했다.



1434년 안 반 아이크의 <Aronoffini의 결혼식>. 이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는 배가 볼록 튀어나온 스타일이 유행했다.

‘일생에 단 한번뿐인데...’ 하는 생각으로 지나치게 화려해지고 있는 웨딩드레스! 정숙성이 강조되던 시대에는 신부의 목이 노출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되었고, 가톨릭국가에서는 드레스의 앞부분이 많이 드러나도록 디자인되는 것도 꺼려했다. 우리는 가끔 영화 속에서 재현된 당시의 웨딩드레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 개봉되었던 <세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기네스 펠트로가 결혼식날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지금의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웨딩드레스의 흔적을 보여준다.

1804년 나폴레옹의 대관식에서 조새핀이 입고 있는 드레스를 보면 무척이나 심플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슴에 띠를 두른 하이 웨이스트의 드레스에 작은 퍼프소매가 귀여운 이미지를 준다. 근대 초기에 접어들면서 드레스의 인위적인 부풀림이 사라지고 간소화되기 시작했던 것. 하지만 패션은 그 시대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이 돌고 돈다. 새로이 왕정이 들어섬과 동시에 여자들의 드레스는 다시 허리가 조여지고 소매와 스커트는 지나치게 부풀려지기 시작했다. 요즘 드레스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여러 겹으로 층층이 덧댄 주름장식은 이 당시 로맨틱한 스타일의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 중 하나였다. 과다한 스커트의 부풀림은 크리놀린(crinoline) 스타일을 낳게 했는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렛의 드레스를 연상해 보면 될 듯.

웨딩드레스도 개성시대

19세기는 서서히 현재와 같은 웨딩드레스의 모습으로 굳어가는 시기가 된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동안에 검은색이 웨딩드레스의 색상으로 출현했던 적도 있다. 그 배경은 역시 여왕마마인데 3년 동안이나 상복을 계속 입었던 빅토리아 여왕. 급기야 검은 상복이 유행(?)되자 검은 드레스 차림의 신부까지 등장한 것이다.

새하얀 드레스에서 특히 흰색이 주는 ‘순수’, ‘창백’, ‘순결’과 같은 의미는 신부의 처녀성과 청순함을 더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드레스의 흰 여백에 다양한 칼라로 된 꽃장식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흰색 대신 아이보리나 금, 은색의 화려한 자수를 놓기도 하는 등 순백의 웨딩드레스 개념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도 젊

최근까지도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을 지탱해주는 크리놀린(crinoline).



장식이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라인의 30년대의 웨딩드레스와 인위적으로 스커트를 부풀린 흔적이 엿보이는 1870년대 드레스 머리장식에도 큰 변화를 보인다.

은이들에게 순결과 순수가 선행의 대상이 될지는 주목해 볼만하다.

20세기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문화, 패션에 대한 감각도 크게 달라졌다. 몸을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스타일이 파리 디자이너들에 의해 제시되기 시작하자 웨딩드레스도 한층 모던해졌고 신체의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듯한 디자인이 선호되었다. 자락이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웨딩드레스는 한층 짧아졌고 지나치게 어깨를 강조한 디자인도 사라졌다. 스커트는 부풀려지는 대신 그냥 헐렁하게 디자인되거나 직선으로 떨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날씬한 모습을 띠는 슬림한 드레스가 나타난 것. 또한 디오르의 뉴욕 발표 이후엔 남자의 재킷칼라인 테일러드형, 셔츠칼라형 등 일상복의 어느 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웨딩드레스의 디자인에 살려지기도 했다. 급기야 60년대 미니스커트의 열풍은 웨딩드레스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80년대,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다이아나비의 웨딩드레스는 또 다시 로맨틱한 드레스의 유행을 탄생하게 했다.

서양 역사에서 보자면 웨딩드레스는 여성들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조금 더 예쁘게 치장한 의복이어서 따로이 웨딩드레스 형태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들의 전통의상이어서인지 영화나 TV에서 보면 그들의 웨딩드레스에는 환상과 그에 따른 거품이 없어 보인다.

외국에선 웨딩드레스를 아직도 대대로 물려받거나 가정에서 만들어 입기도 한다. 그리고 결혼식 후에 벌어지는 댄스파티에서 신부는 드레스를 입은 채 신나게 춤추고 논다.

결혼문화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서양의 웨딩드레스 외양만 빌려와 우리식의 결혼풍습을 만들고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과연 어떤 웨딩드레스 그리니까 혼례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호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1



최근에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유행한다.

이재진

언젠가부터 내 자신이 무척 한심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의상학을 전공하고 일본과 파리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며 패션을 공부했지만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패션을論하는 일이 쉽고 힘든 건가로 느껴진다.





J.O.T에 대한 몇 가지 깨달음

고은광순(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인터넷 <http://myhome.net.go.com/tcolor>을 치면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홈페이지가 나온다(검색어에 그냥 '호주제'라고 쳐도 된다). 어떻게 알았는지 '어라'라고 자기 이름을 적은 녀이 들어와 이렇게 휘갈겼었다.

"어라? 뭐 이따위 홈페이지가 다 있냐? 차라리 강간죄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나 만들어라. 남자는 총동을 참을 수 없어서 그런다는데 말이지. 이런 데 시간을 쏟느니 집에 가서 네 애비 좆이나 빨아라!—강간죄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총무 씀"(그의 글은 시삽도 모르게, 분노한("내 아내를 모욕해!") 시삽 남편의 손에 의해 삭제되었다. 아쉬울 남음. 그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이름을 바꿨다. "어라의 실명은 나진석임...전혀 풀리는 거 없음...메일 주소 바힘.(turbine@sbsmail.net)")

내 애비 X나 빨아라?

어라, 강간죄 폐지는 하고 싶은 자네가 하게. 노력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나. 인터넷에 홈페이지도 만들어보라구. 우리 거기까지 좆아가 '호주제 폐지 운동이

나 해라. 이런 시간 있음 네 애비 좆(혹은 네미씽)이나 빨아라!"라고 말하지 않겠네. 왜냐하면 우리는 '가부장제'라는 '똥'에서 알을 낳 '쉬파리'가 아니거당. '똥' 같은 가부장제와 '쉬파리'에 대해선 저 뒤에서 다시 야그함세.

그의 '일깨워줌'에 따라 이번 글의 화두는 '네 애비 좆이나 빨아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좆'으로 정했다. 한국 말 중에서 '좆'처럼 푸대접을 받는 것이 없다. '좆같이...', '좆 같은...', '좆 같애...' 등 엉망진창인 것, 뒤죽박죽인 것, 차마 기분 더러워서 못 보아줄 것을 '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다.

정말 한국 땅에서 '좆'은 '좆 같은 대접'을 받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몇몇 욕설에 사용되는 '좆'만 푸대접을 받을 뿐, 한국 땅에서 '좆'은 '하늘'이요, '신앙'이다. 아니라고? 비약이 심하다구? 아래 천리안에 실린 관광상품 광고를 살펴보시라.

[등록자] 터사랑

[제 목] 삼척의 해신당과 무릉계곡 삼화사
삼척의 성신암 해신당과 무릉계곡 삼화사(삼척, 동

해) 관광코스를 소개합니다. 제왕운기의 산실 두타산 천은사에서 산사의 새벽을 맞습니다. 삼척 끝 바다 어촌마을의 독특한 성신암인 해신당에서 동해일출을 맞이한 후 육향산에 올라...어찌구...

처녀는 무엇을 원하는가

삼척시에서 남쪽으로 33km 떨어진 원덕 바닷가 언덕에는 해신당이 세워져 있다. 400년 전 미역을 따러 갔던 처녀가 빠져 죽었다던가, 일행과 함께 섬에 놀러 갔다가 혼자 뒤떨어져 굶어죽었다던가. 마을에 흉사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가웃거렸고 급기야 처녀귀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해신당을 세워 처녀를 모셨다. 처녀여! 무엇을 원하는가? 울다구나. 자지로구나. 나무로 정성스레 깎아 제사를 지냈다(그물건을 보고 사람에 따라 목쫂, 목남근, 나무자지, 나무쫂, 우든페니스라 부르더라).

그러나 그 처녀는 사랑하는 정혼자가 있었다. 혹은 그름날 밤 소나무 밑에서 뉘들들에게 겁탈당한 후 남자공포증이 있었다. 혹은 처녀막을 보물처럼 여긴다.

혹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밥과 떡!...이러저러한 처녀의 입장은 그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처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그걸꺼! 그녀는 '남근결핍증'으



강원도 원덕의 해신당 언덕에 깎아놓은 남근들.

루 시달릴꺼. 들이대면 좋아할꺼!"

삼척시청이 나섰다. 관광개발과, 산림과, 문화공보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내 고향 빛내기 관광상품 개발작전'을 세웠다. 무엇이 좋을까? 울다구나. 자

지로구나. 지난해부터 정월 대보름 전국 의 장인들을 불러 모아 자지깎기 행사를 벌였다. 구경을 시키려면? 커야지. 3m가 넘는 제목으로 2인 1조가 자지를 깎았다. 깎은 물건은? 해신당 언덕에 세워놓았다. 2000년에 3억의 예산을 들여 남근공원을 완공한다. 자지깎기 대회도 매년 하겠다(이 대목에서 잠깐,

그들은 절대로 '자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남근깎기, 남근공원... 더 스마트한 건 페니스파크일까? 자지, 남근, 페니스 이런 모두 다른 '물건'을 말하는 걸까?).

해신당 언덕에 세워놓은 3m 이상 하늘로 뻗친 자지들의 행색을 보자. 엇! 엄뎀머어~ 싹뿔줄까정 만들었어. 구멍두 있구우~. 어라? 까만 자지두 있네어~. 육! 기도하는 여잔 줄 알았더니 머리가 귀두야아~. 우와! 하나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새끼 버섯처럼 아래쪽에 가지두 쳐어어~. 어랍쇼? 콘돔모자를 쓴 것두 있네어~. 오마나! 天下大男根(천하대남근)이라구 글자두 새겼어어~.

그랬구나. 그랬어. 해신당 처녀귀신을 달랜다고? 이념들아! 이게 처녀귀신 달래자고 하는 짓거리들이냐? 자지 뽕내기, 남근축제, 페니스페스티벌 아니냐 이 말이지.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래 네들이 기저귀 내던지고 돌사진 찍을 때부터 알아봤어. 여학교 뒷담에서, 인적 뜬한 골목길에서, 캄캄한 다방에서 바지



기도하는 여자 형상의 남근.



검은색 남근. 흠뻑스며들기까지 하다.

까내리고 보여줄 때도 알아봤다구. 이젠 사시 사철, 밤낮없이 바닷바람 맞고 우뚝 서서 '나는 천하에서 제일 큰 자지다. 으하하하' 소리치고 있겠단 말이려다. (난 자지동산을 민동산으로 만들 방법을 안다. "그거 깎아서 삶아 먹으면 비아그라 저리가그라다아~" 이렇게 대나무 숲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되겠냐고.)

삼척시장님! 해신당엔 우선 3m 남근을 '포

용' 할 수 있는 거대 처녀귀신두 나무로 깎아놓아야 합네다. 그래야 팔 흔들며 만든 '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꺼 아냐? 글구 가슴에 한 번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먼 바다 나가서 죽은 처녀가 많잖나. 총각이 많잖나. 총각귀신두 생각 좀 해줘야 할꺼 아냐? 그러니까 보지공원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구요. (음, 화창한 날에 이런 글을 써야 하는 나도 참 따분하다.)

'쉬파리'를 찾아서

인터넷에서 부딪힌 '쉬파리'가 던진 화두 '쫄' 이야기. 여기까지. 이젠 다시 '가부장제 똥'에서 알을 까는 '쉬파리' 이야기로 접어든다. '쉬파리'란? 한 마디로 지난호에 인용한 글들을 쓴 부류들 통신클럽이 일컫는 말이다. '쉬파리'들은 여성단체, 여성동호회의 토론방이나 게시판에 불쑥 끼어들어 이런 글을 쓴다.

"미국에도 호주제가 있다... 명칭만 여성들이 알겠나???—최영실" (세상에서 호주제가 있는 나란 한국

밖에 없다. 알겠니?), "남여평등...? 말세로고... 여자야... 남자에게 잘해라.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최병일(stringm)", "여성들이여, 사람이 되라? 음 아 주 밤에 드는 의제야... 훗 또 다시 암컷개떼들이... 썩 그리 물러와 나에게 욕을 해대게군. 젓어라. 그대들이여...—변동남(dnbyun)"

한편, 쉬파리들과는 다르다며 짜잔~ 하고 나타난 남성이 있으니...

"삼국연의"의 적벽대전에 보면 오나라 주유가 제갈량을 궁지에 몰려고 화살 십만 개를 만들어 바치라 한다. 제갈량은 '지혜를 발휘' 하야 안개 길은 새벽에 계속선 수십 척으로 조조진영으로 다가가 김중사격을 받고 군선에 꽃힌. 십만 개를 흠뻑 넘어서는 화살을 확보한다. 고은광순은 '영악하고 교활한 제갈량의 꾀'로 신정모라류에 대항해 쓰여진 온갖 남성들의 '우매한 글'을 갈무리하여 다시 공격하고 있다. 이런 류의 가짜 페미니스트들이 벌이는 추잡한 페미니즘의 상업적 이용과 남녀 성대결구도를 고착화시켜 이간질을 일삼는 행태는 증오스러운 것이며 강 넘어가기 어려운 바다. 자꾸 그렇게 성대결구도를 만들면 나는 '쉬파리' 편에 붙지 않을 수 없다!—AntiHero"

보라, 우리가 인터넷에 썩은 생선냄새를 풍기고 알짱거리며 나전석(어라)이 '에비 쫄...' 이야기를 꺼내던가? 페미방의 '쉬파리'들은 초대받은 손님이던가? 저런 패거리주의라니...

이보게 친구, 한국에 웬 쉬파리들이 그리도 많은지 아는가? 지독한 파쇼적 남성중심 가부장제 때문이라네. 가부장제는 '똥'과 같아서 쉬파리들을 많이 생산해 내지. (후후, 생각해 보게. 운전하는 여자에게 팔뚝을 흔들며 "에펜네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하는 남정네가 지구촌에 얼마나 있겠는가.)

나는 엄청난 쉬파리들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가부장제가 '똥발'임을 알리려 하네. 우리가 입을 부르트며 애써 가부장제를 깨고자 함은 그런 쉬파리들이

알을 까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은가? 향기로운 공기를 들이쉬고 싶지 않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양성평등사회에서 숨쉬고 싶지 않은가?

남성과 여성의 꼴을 더 파놓을 뿐이라구? 여성이라는 존재가 약자라 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태조차 보호하고 감싸안아 준다면 그들은 강하게 크지 못한다구? 호호, 쉬파리 편을 들겠담 할 수 없지.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네.

"저는 성차별주의자의, 고은광순님이 인용하신 그

되도 안한 미친 소리를 지껄인 사람들의 친구이거나 아니면 친구의 동생의 친구이거나... 이렇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여성운동의 적이거나 적어도 적들의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체제의 그 부정의에 의해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왔고, 앞으로도 누릴 사람들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CHANHONG"

나, 찬홍님의 아름다운 글을 읽고 눈물 절끔 흘렸다능 거 아녀. ◆

(polar님을 비롯, 제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제공 장김현주

웃 자!

무서운 가족

1. 절벽에서 엄마와 아들이 차를 밀고 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이 차 왜 미는거야?" "쉴! 아빠 깨시겠다."
2. "엄마, 아빠가 너무 빨리 달려." "잔소리 말고, 조준이나 잘해서 한 방에 보내."
3. "엄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닥치고 오븐에서 나오지나 마!"
4. "엄마, 늑대 인간이 뭐야?" "시끄러운 소리 말고, 얼굴이나 빚어!"
5. "엄마, 나 할머니 싫어." "왜 편식을 하니? 할머니 오도록씨가 얼마나 맛있는데..."
6. "엄마, 나 할머니랑 놀고 싶어..." "그만 좀 해.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이나 파냈잖아!"
7. "엄마, 조숙한 게 뭐야?" "닥치고 담배나 꺼!"

텔레토비 한시(漢詩)

- 高(고)高(고)摩(마) 馳(태)來(래)討(토)非(비)
(높게 높게 갈고닦아 태풍을 불러 비속함을 토벌한다.)
- 保(보)邇(리)道(도)理(리)
(도와 이치를 보호하여 순행하고)
- 罷(부)非(비)
(비속함과 싸우니)
- 那(나)憫(나)

〈어찌 나태하리요!〉

- 保(보)興(오)
(나라 안을 지키리다!)
- 馳(태)來(래)討(토)非(비)
(태풍을 불러 비속함을 토벌하고)
- 馳(태)來(래)討(토)非(비)
(태풍을 불러 비속함을 토벌하니)
- 我(아)以(이)助(조)我(아)
(나로써 나를 조질하네.)
- 중간 생략...
- 進(진)求(구) (물)岸(안)軍(녕)
(배풍고 구함이 언덕과도 같으니 편안하리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있었다. 장난하기를 좋아했던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했고, 반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잘 아는 마을주민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또 한 번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 양치기 소년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나무 밑 그늘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었다. 하늘에 4대의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다. 양치기 소년은 외쳤다. "늑대다!" 이 소리를 들은 주민은 양치기 소년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양치기 소년은 죽음을 맞이했다.

들어보셨나요,

‘송경덕표 골뱅이무침’?



엄마와 내가 요리책을 쓰기로 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난 부엌일에 제로인 것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변순이’였고 엄마는 천성적으로 요리는 잘 하지만 부엌에서의 유능함보다는 부엌 밖에서의 자아실현을 백배나 소중히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연말 엄마와 나의 공통분모인 일단의 손님들을 우리집에 초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만 2년이다 되가는 내 결혼생활 얘기, 그리고 명절과 그와 시대행사에 얽힌 여자들의 슬픔을 얘기하게 됐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다른 친정엄마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소중한 딸이 그토록 불합리한 고통을 받는 것을 왜 묵인, 방기하느냐고. 나아가 그런 고통을 잘 감내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지름길인 것처럼 왜 하느냐고. 그러면서 결혼한 딸의 인간선언을 위한 자신의 처방법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성향이 워낙 진보적이라 박수를 치며 그 ‘혁명적’인 처방법들에 공감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요리책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엄마가 내놓은 요리들이 워낙 맛있었던지라 이 제안은 참 그럴듯해 보였다. 그래서 엄마는 내친 김에 기존 요리책들의 ‘먹방’—정확한 재료량 표기, 기껏 따라 만들어봐도 기대한 것보다 맛이 없다는 등—을 없애줘 손쉽게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하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결혼의 속박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요리책이면 금상첨화겠다고 야심을 불태웠다! 이런 엄마의 계획이 설득력있게 진행되려면, ‘나의 통찰’도 필요했다. 그래서 난 시집에 철저히 찍힐 각오와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게 ‘제 의무도 제대로 못해내면서 무슨 페미니스트 운운하고 있어!’란 비난을 감수할 각오로 이 일에 끼어들었다. 지금까지는 시집식구들이 (좀 보수적이라) ‘이프’를 못 봐서 그런지 별 심각한 후유증은 없다. 그런데 ‘이프’에 난 ‘음식모녀’ 첫 회를 보고 남편이 딱 하루 동안 (정말로 너무 기각 막해) 입이 안 떨어질 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평소 우리가 미묘한 언성을 벌이던 그 미묘한 ‘시집문제’에 대한 내 생각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글로 표현되리라곤 꿈에도 생각할 못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의 ‘검열’이 꼭 필요하다고 즐거이 주장한다. 자신이 관련된 얘기들이 태반일 테니까, 그리고 자신은 ‘말뭉개’는 정말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번 호 원고도 그의 검열없이 보냈으니, 이번 호를 보고 그가 빈나칠쯤은 또 입을 달고 있지 않을까.

박형욱 · 박이은경



“아들아, ‘사랑받는 남편’이 되거라”

나의 아들은 주남을 잘 섬기는, 30대 초반의 능률한 사회인이다.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의 감정을 소리없이 상대방에게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수용하고 존중하며 생활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절대로 ‘사회적 남성’으로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교육목표였다. 아들 자신도 성격적으로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더 많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한다.

오누이간 정도 남달라서, 누나가 결혼한 후에도 사위 앞에서 어린애처럼 서로 장난을 치며 즐거워한다. 아마 가족사의 여러 굴곡을 같이 지나오며 동지 의식이 굳어진 것 같다.

나의 첫아이인 딸아이에게 낯답지 않게 끝까지 엄격한 교육방침을 고수했었다. 별 말없이 잘 자라는 아이였지만 나의 지나친 욕심 탓인지 ‘사랑의 때’라는 어리석고 관념화된 가부장적 수단을 휘두른 했다. 딸아가 노력을 게을리해서 성적이 잘 안 나왔거나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가, 혹은 만화방에 간 것을 알게 됐을 때 등등. 딸애는 지금도 유치원 시절, 남의 집에서 저녁을 먹지 말라는 내 엄명을 어겨 어두컴컴한 연탄방에 잠시 갇혔던 벌을 기억해 내며 나를 툭툭 찌르곤 한다. 그런가 하면, 종아리를 모질게 맞아 한동안 맞은 자국 때문에 미니스커트를 못 입었던 초등학교 4학년의 어느 여름날도 되뇌인다. 그애 말에 따르면, 이런 내가 게모인 줄 알았는데, 한밤중 우연히 눈을 떠보니 내가 안티프라이팬을 그애 다리에 발라주며 물어

생모인 것을 확인했다. 어쨌든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딸애는 엄마의 때에 대한 열정 덕분에 그나마 자신이 자제력있는 인간이 됐다고 위로 아닌 위로도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 혹은 대세가 개개인의 생각을 은연중 조종하고 있다.

난 첫아이에게 저지른 ‘실수’를 둘째인 아들아이에게 다시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눈물의 때’는 단 한번이었다. 당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친구네나 친척들과 함께 적당한 영화를 골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에 가고 영화가 끝나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곤 했다.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스>라는 영화로 기억된다. 모처럼 친정엄마도 모시고 갔는데, 엄마는 몹시 좋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참상을 사시켰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아이는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고, 달래보아도 막무가내였다.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느닷없이 아들을 옮겨주고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빗자루가 다 뭉그러져나갈 때까지 그애에게 아픔을 주었다. 요즘도 애들이 농담삼아 말하는 ‘여름날의 잔치’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 그후 난 다시는 아들아이를 때리지 않았다. 처음이자 마지막 때였던 셈이다.

여성의전화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빌미로 가혹하게 행해지는 ‘사랑의 때’ 역시 구타의 한 형태임을 깨달았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나는 지금도 이 ‘사랑의 때’를 믿지 않는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그 어린아이가 인격을 갖고 있는

A. 새우, 브로콜리, 감자 샐러드

딸의 결혼식 때 처음 소개된 대호평을 받은 후나의 단골 메뉴가 됐다. 이 요리는 무엇보다 복잡다단한 소스만들기가 관건이다.

재료 : 감자 5개, 중간새우 20~30마리, 브로콜리 중간 크기 1송이, 소스 재료(양파 10개, 마요네즈 1컵, 레몬 2개, 백포도주 1~1/2컵, 백후추, 소금, 설탕 약간)

조리법

1.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썰어 큰 작두기 모양의 크기로 썰어서 소금을 친 끓는물에 살짝살짝하게 삶아서 대소쿠리에 건져놓는다.
2. 중간새우(큰새우도 가능) 냉동시킨 것을 끓는물에 데쳐서 소쿠리에 건져놓는다.
3. 브로콜리도 신선한 것으로 골라(전체가 새파랗고 단단한 것)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찜통에 끓는 물에 약간 익혀서 소쿠리에 건져 식힌다.
4. 1, 2, 3을 차례로 식힌 후 접시에 골고루 섞이도록 담고 아래 만든 소스를 끼얹는다.
5. 소스 만드는 법
① 양파를 잘게 썰어서 마늘 가는 기계에 넣어 같이 되면 거즈에 싸서 국물을 꼭 짜버리고 건져기만 쓴다.
② 레몬을 절반 잘라서 손으로 꼭 짜서 즙을 낸다.
③ 백포도주나 마주양 1컵을 준비한다.
④ 1, 2, 3에 마요네즈 1컵을 섞고 설탕, 소금, 후추로 맛을 낸다.
⑤ 넉넉히 만들어 병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급할 때 쓰면 좋다(15일 정도 보관 가능).

이것만은 조심할 것!

1. 브로콜리와 감자를 너무 익히지 말고 삶아서 차게 식혀야 좋다.
2. 양파 간 것을 거즈에 싸서 잘 때 즙을 잘 짜내야만 건더기가 쓰지 않다.



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힘을 행사해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의 생각을 바로 잡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지식 있는 자가 지식 없는 자를,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섬김의 자세일 뿐 아니라 겸손한 마음의 자세라고 믿고 있다.

아들아이는 언젠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며 많은 갈등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여성운동을 하는 엄마의 생각과 누나의 같은 여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동감하면서 자신도 여성을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했단다. 그러나 또래집단이나 남성적인 사회조직은 정반대일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진 자신을 비웃으며 남자답지 못하다고 몰아부치더라. 이것이 그를 제일 속상하게 했단다.

지난 날 직장생활을 할 때 아들아이는 넓은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도맡아 하면서 나를 잘 도와주었다. 요사이 내 집에서 모처럼 전업주부로 머무르고 있기에 전처럼 아들의 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나 누나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나나 누나가 무엇무엇을 잘 먹는다면 회근 후 헬레빌백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가기도 한다. 그 아이가 매형을 좋아하는 이유도 지극히 단순하다. 직장인인 누나를 잘 이해하고 아끼며 도와준다는 것이다. 여가엔 남자답거나 호탕하거나 의리가 있다거나 성실하거나 사회적으로 유능하거나 등등의 일반적인 이유는 들어가 있지 않다. 반면, 누나를 잘 보조하지 않으면 매형이 백 가지 천 가지 장점이 있어도 도로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다.

근래 나는 아들아이에 대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곧 내 곁을 떠날 아들을 위해 먹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다. 유난히 맛난 음식을 좋아하고(그것도 즉석요리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행복해하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제 마음이 뿌듯하기보다 걱정이 앞선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들이 아내같은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전문직 여성을 원하는데 엄마가 해주는 배려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그들 부부가 각자의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아들아이에겐 특별

훈련을 강행해야 하지 않나 고민도 해본다. 그러나 피곤에 지쳐 안식을 찾아 집으로 돌아온 아들아이를 대하면 선뜻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언젠가 딸에게 "경덕이(사위)도 매일매일 집안일을 분담하도록 말해.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계속 못 하겠다고 해라" 했더니, 어떻게 일에 지친 사람에게 술물릴 틈도 주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렇게는 오래 못 버틴다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아마 딸애도 내가 아들아이를 대하는 심정과 비슷한 심정을 느꼈을 게다.

이래서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우리 모녀는 우리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모성적 감성으로 가부장사회의 지친 남성을 끌어안느라, 아니면 엄격히 원칙을 적용하느라 두근거릴 판이다. 딸애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남편이 일 안하면 나도 일 안하고 그러면서 버티다가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함께 공동노동을 하면 편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그래서 어쩌다 딸네 집에 가면 사흘 묵은 설거지거리를 심심치않게 본다. 그래도 성인들이라면 자신들의 주거지를 깨끗이 할 의무는 있는 법인데, 그마저 너무 힘든 모양이다. 아니면 딸애는 딸애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각자의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훈련을 덜 받았다고 할 수밖에.

딸애는 벌써부터 "엄마가 아들 길 잘 들여와서 며느리에게 꽤나 사랑받겠다"고 경고조로 놀린다. 나와 딸아이는 아들에게 "아내가 엄마 같을 것이란 기대는 애시당초 버리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네 매형을 보면 모르니?"란 말을 종종 해주곤 한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혼자 덧붙였다. 처음부터 기대와 관심을 끊는 것이 시어머니 되기 첫걸음이라고.

이제 나는 딸아이를 아들아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딸과 아들은 부모라는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스스로는 사이이다. 또 서로 공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는 살살이 년이 넘게 독성과 화성만큼이나 동떨어진 환경에서 어느날 문득 내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려면 소리없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른다. 결국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라의 승리 아닐까?

B. 굴뱅이 무침(4인분, 예상시간 30분)

남편의 요리법을 대신 정리한다. 남편은 내가 치커리나 양배추 등을 섞으면 맛있겠다고 제안해도, 뱃기가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일각이 있어서인지 늘 고정재료를 고집한다.

아내가 섞인 요리가 늘 그렇듯이 미리 야채를 씻어서 채에 발쳐두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데, 초가에 남편은 내가 미리 야채들을 다 씻어놓은 것을 보고서야 손을 씻고 요리를 시작하곤 했다. 이런 것 관행이 깨졌다!

(박이은경)

재료 : 유동굴뱅이 1캔, 맛살 7개, 오징어채 두 용량, 갯잎 7장, 상추 5장, 파 큰 것 2대, 당근 1개, 오이 1개, 가는 국수

조리법

1. 씻어놓은 갯잎, 상추, 파, 당근, 오이 등을 가능한 한 세 썰듯이 썰어놓는다.
2. 맛살은 2~3등분 해서 손으로 가늘게 찢어놓는다.
3. 식성에 따른 적당량의 가는 국수를 삶아서 찬물에 헹구고 채에 받쳐놓는다.
4. 청요리 접시 같은 큰 접시 한 가운데에 삶은 국수를 동그스름하게 놓고, 주변에 오징어채, (종 잘게 찢은) 굴뱅이, 맛살, 갯잎, 상추, 파, 당근, 오이를 취향에 맞게 배치한다.
5. 밥공기 만한 그릇에 소스를 만든다. 식초와 간장의 분량을 2대 1로 하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좀 짭짭하게 준다. 그리고 순가래 2개 분량으로 설탕을 푼다.
6. 재료를 담은 접시에 소스를 붓는다.

이것만은 꼭 지킬 것!

1. 파는 다른 재료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재료다.
2. 소스는 식초 냄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뿌려 손님을 앞에서 버무려야 한다(남편의 말이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야채가 식초 때문에 빨리 시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3. 특정회사 제품을 선전할 생각은 없지만, 굴뱅이는 꼭 '유동굴뱅이'여야 제맛이다. 유동굴뱅이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미' 된 것이고 하나는 '구슬굴뱅이'이다. 이중 꼭 '가미'된 것을 택해야 한다.

C. 패주(貝珠) 볶음요리

재료: 패주 10개, 청정배추 3포기, 핵후추, 맛소금 약간, 참기름 약간, 버터, 식용유 약간, 진간장 혹은 우스터소스 약간

조리법

1. 패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손질한 것이나 냉동시킨 것을 구입해도 좋다. 크다고 생각하면 납작하게 반으로 쪼갬다. 패주에다 핵후추, 맛소금, 참기름을 약간 뿌려놓는다.
2. 불에 달구어놓은 후라이팬에 버터와 기름을 약간 섞은 것에 청정배추를 3등분하여 썰어서 볶아놓은 것을 넣어 살짝 볶으면서 1을 넣자마자 진간장이나 우스터소스를 넣어 간을 맞추고 곧바로 접시에 담아 내놓는다.

이것만은 조심할 것!

패주를 잘 골라야 하며 살짝 익혀야만 질기지 않고 연하고 맛있다.



식도학가는 타고난 요리사!

신혼여행을 다녀온 97년 5월 10일 경부터 본격적인 '새댁' 생활이 시작됐다.

사실, 엄마는 내가 갑작스럽게 결혼 결심을 한 이후부터 은근히 마음을 졸이셨던 것 같다. 자타가 공인하는 페미니스트로 요리는 전공필수가 아닌 '전공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엄마의 맛깔스러운 음식에 길들여진 내가 콩나물국,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끓일 수 있을까 사뭇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은경아, 페미니스트의 기본조건은 모든 면에서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 독립성이라. 그런데 넌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인 '식' 문제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며 "이제 어떡할래? 널 내버려둔 내가 잘못이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그뿐만이 아니다. D데이 한 달 전부터는 식탁머리에서 내가 첫 갈질을 하는 음식마다 이런저런 요리법을 읊으셔서 기사마감과 예비남편과의 미묘한 실랑이로 골치가 아픈 나를 정말 열받게 하셨다. 나 역시 온연중 걱정이 감염되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식이었고, 예비남편 역시 자신의 음식기호가 까다롭지 않고 정 힘들면 근처에 맛있는 식당들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고 장담했다.

실제 생활에 돌입해 보니, 남편은 소위 '집의 밥'에 강하게 중독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 아들이 새벽 1, 2시에 들어와도 자동반사적으로 일어나 그 집의 밥을 먹어야 안도를 하

시는 분이었고, 남편은 새벽 6시 좀 넘어서 출근할 때도 꼭 밥을 챙겨먹어야 하루를 견딜 수 있다는 미신에 중독된 상태였다. 물론 그는 신혼여행 일주일 동안 내내 잠에 빠져 허우적대는 내 모습을 보며 '새벽밥'과 함께 시작하는 출근길에 대한 환상은 희명하게도 접었다. 그러나 밤 10시가 다 돼서 귀가한 날도 집에서 하는 오붓한 저녁식사에 대한 소망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 역시 남편의 욕구에 별 거부감이 없었다. 오히려 일에 허덕이는 그에게 자그마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같아 기쁘기까지 했다. 그래서 허덕이며 퇴근해서도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요리조리 메뉴를 생각하며 데드라인 없는 저녁식사를 차리곤 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고마워하기까지 했다. 그는 타고난 '맛보기 선수'였던 것이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집에서 김장을 담그거나 특별요리를 할 때면 그 간보기는 어김없이 자기 몫이었다며 미각의 섬세함을 뽐냈다. 그래서 난 초보적인 음식가치를, 콩나물국, 두부와 호박이 들어간 된장찌개, 김치찌개, 소세지볶음과 낙지볶음, 닭도리탕 등 초기메뉴들을 그의 간보기 평가에 의지해 정신없이 해내곤 했다. 남편은 정말 약았다! 음식마다 일일이 한없는 칭찬을 했고, "넌 정말 너희 엄마 닮아서 요리솜씨를 타고난 것 같아"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온근히 이를 자랑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음식이 입에 안 맞고 고통받는 남편들의 얘기가 시리스로 이

어지곤 했다.

남편은 닭도리탕 정도에서 정그러운 생닭을 칼로 토막내서 썰어 끓여내주는 정도의 수고만 했지만, 난 주위 누구에게나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여자인지 공표하고 싶어 그야말로 입이 근질거렸다. 신혼생활 몇 달간 내 직장동료들은 "선배, 음식은 제대로 돼?"라는 의례적인 것을 물어보았다가 자세한 요리법이며 얼마나 남편이 식성이 좋고 간을 잘 보는지까지 들어줘야 했다. 그리고 "선배는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배워갔는데, 참 다행이야"란 말을 듣고서야 그들을 풀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음식 관행에 변화가 생겨났다. 구체적인 동기는 이번에도 엄마가 제공해 줬다. 사실 엄마는 내가 결혼한 직후엔 우리집에 올 기회가 별로 없었다. 결혼 전엔 직장에 있는 나를 대신해 초보운전자인 이모와 함께 매일이다시피 자유로로 아슬아슬하게 달려와 집안을 꾸며주셨지만, 그래서 엄마의 기억에 남아 있는 우리집은 늘 무대세트같이 말끔한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늘 집안, 특히 화장실, 베란다 등을 깨끗이 간수하라는 신신당부는 적지않은 스트레스가 됐고, 나와 남편은 엄마가 우리집에 오신다면 마치 '내무사열' 받듯 마음을 줄여야 했다. 그래서 내가 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지원은 최소화할수록 독립이 쉬워지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군대상사 같은 엄마지만 내 결혼식을 치른 두달 후 한달간의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느라 우리 부부에 대한 주문사항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엄마는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재작년 8월 어느날 우리집에 오셔서 점심식사를 드시게 됐다. 나는 나름대로 엄마가 한 달간 맛을 못 보았을 한국식 요리를 한다고 동분서주했다. 두부호박찌개, 닭도리탕, 낙지볶음, 샐러드 등. 그래서 공항에 마중조차 못 나갔다. 남편은 엄마가 오기 전까지는 요모조모로 나를 도와주었는데, 장모님이 현관에 들어서시는 순간부터는 손님의 대화 상대만 하는 집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가 다 되가는 때늦은 점심식사 준비로(당시 엄마의 절친한 친구까지 함께 오셨으니, 그야말로 내 요리 솜씨에 대한 공개적인 심사가 치뤄지는 기분이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정신없었던 나에 반해 남편은 여유롭게 했다. 엄마는 참 많이 참으셨나 보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얼핏 본 엄마의 표정엔 짜증기가 가득했다. 이런저런 여행 얘기를 묻는 사위에게 엄마는 갑자기 이러시는 것이 아닌가. "경덕아, 너 왜 여기 앉아 있니? 은경이하고 같이 일 좀 해라"라고. 순식간에 남편의 얼굴은 달아올랐고, 결국 내 곁에 와서 함께 식탁을 차려냈다. 엄마가 돌아간 후 남편은 손님이 아무 상대 없이 밥상 차려내오기만 우두커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단다. 나는 속으로 "부엌에서 설치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라고 덧붙였다. 그의 손님에 대한 '예의' 타령은 들어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다가도 제3자만 들어서면 앞치마를 즉각 풀어버리는 이중성에 대한 충분히

D. 개성식 동그랑땡찜전

재료: 두부 2모, 쇠고기 1근, 달걀 5개, 밀가루, 식용유, 마늘, 파, 후추, 소금 약간

조리법

1. 두부를 으깨어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양념한다.
2. 대집살 쇠고기에 물을 약간 끼얹으며 굵게 다진 후, 파, 마늘, 소금, 후추, 참기름으로 주물러서 양념한다.
3. 1과 2를 섞어서 주먹 크기만 한 정도로 빚어 찜통에 찜시 내놓는다.
4. 3에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서 후라이팬에 전처럼 지져서 내놓는다.
5. 식은 후에 칼로 굵게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



한 변명이 됐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몰랐나보다. 아내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편이 부엌에서 앞치마 차림인 채 화덕의 열기에 빨갛게 그을려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후 남편은 적어도 처가 식구들 앞에선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밥통에서 밥을 푸는 것은 으레 그의 몫이고(그는 정말 밥을 맛있게 푼다!), 그의 국이나 반찬나르기 등의 잡다한 식사준비, 후에 상 치우는 것과 뒷설거지는 당연히 그에게 떨어졌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다! 아마 작년(98년) 초여름쯤으로 기억된다. 남편은 이상하게도 대형마트에만 가면 '유동골뱅이' 캔에 손이 가곤 했다. 처음엔 골뱅이가 이미 가미된 것이어서, 그냥 회처럼 먹으려고 했더니 남편은 이렇게 저렇게 따로 간을 맞추고 국수를 삶아서 함께 차려내는 것이 정식이라고 주문한다. 그래서 당신이 시범을 보이면 한 번 해보겠노라고 했고, 우연히도 엄마와 남동생이 온 어느날 저녁 남편의 시범 요리가 시작됐다. 결과는 대성공! 남편은 그간 호프집에서 눈으로 입맛으로만 익힌 골뱅이무침인데도, 먹을 때 아쉬웠던 이러저러한 점을 보충해 풍성한 재료와 함께 대한민국 제일의 골뱅이무침을 만들어냈다. 호프집에 한 술한 부자가 헛되지 않는 맛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난 믿는다. 식도락가인 남자들은 이미 타고난 요리꾼이란 것을. 단지 적절한 기회와 자극이 안 주어졌을 뿐이다.

이후 엄마와 동생은 기회만 있으면 '송경덕표 골뱅이무침' 타령이다. 엄마가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동생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먹고 싶은 음식 1순위가 바로 이 골뱅이무침. 설상가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사위가 하는 기막힌 요리 좀 맛봐야 한다"고 선

동하셨다. 어쩌다 대형할인점에 장을 보러가면 엄마의 장바구니엔 어김없이 이 유동골뱅이 캔이 몇 개씩 들어가게 된다. 나중에 사위에게 해달라고 할 요량으로, 엄마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이 맛은 나도 못 따라가겠어" 어찌구하신다. 언젠가는 좀 미안하셨는지 옆에서 배우는 시늉도 하셨는데, 결론은 "역시 경덕이 손맛이 제일이야"다. 나는 이렇게 엄마가 재빨리 새로운 요리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사위에게 일감을 주고 싶어 꽤나 오버액션하시는구나 하고,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한편, 남편이 골뱅이무침을 만들 때의 진지한 표정은 정말 볼거리다! 참기름 분량 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맛살은 어떻게 대파는 조렇게 썰며 양배추 분량은 너끈히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등 까다롭기가 이를 데 없다. 골뱅이무침의 비법 중 하나가 대파를 채 썰듯 해서 많이 넣는 것인데, 남편은 이 채썰기가 잘 안돼 엇비슷하게 대강 썰어놓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날 대형마트에서 독일계 수입 채썰기칼의 성능시험을 보고는 반한 나머지 그 칼을 떠날 줄 몰랐다. 저 칼만 있으면 골뱅이무침이 얼마나 더 맛있게 될까 하면서, 판매원에게 요모조모를 물어보다가 가격이 3만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다봤다. 아내인 내가 어쩌다 먹는 별식 요리장비치고는 너무 비싸다고 억지로 소매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때를 회상하면 한편으론 우습고 한편으론 속이 좀 켜진다. 마치 밀려드는 설거지에 손이 부르터 식기세척기를 사달라는 아내의 간청을 묵살한 남편과 같은 생각이 드니까. ■

사진 김민숙



엄마의 결혼식

엄마는 그때... 행복 했을까

하녀가 아닌 둘의 삶으로 들어가던 그 날 엄마는 설렘이었을까... 일생에서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는 결혼식. '행복한'이나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 이외엔 용납하지 않는 결혼식.

그러나 딸들이 전하는 엄마의 결혼식 이야기는 왜 그렇게 슬플까.

당신의 결혼식을 말하는 엄마의 얼굴에서 얼핏 그 슬픔을 보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딸 자신의 결혼식은? 혹 희디흰 웨딩드레스 자락을 권어붙이고 고궁

앞을 걸어가신 신부를 보며, 부럽기보다는 가슴이 싸해지지는 않았는지.

어찌보면 다른 것도 같고 어찌보면 다른 것도 같은, 도대체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가도

지금보다 뭐가 나아졌나 싶기도 한 엄마의 결혼식. 얼마 후면 딸에게 들려줄 당신의 결혼식 이야기.

10호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의 주제는 어머니의 비자금입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호주풍의 전골 스테이크하우스(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의 2만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엄마도 결혼식을 했다고?

아직 잠이 다 깨지 않은 새벽녘, 전화벨이 울린다. 칠순이 넘은 친정엄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란 항상 바빠서 새벽 이외에는 집에 없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엄마는 막내딸의 안부를 묻기 위해 꼭 신새벽에 전화를 한다. 하는 말도 정해져 있다. 차조심 하고 사람조심 하고... 그게 다다. 그리고는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간신히 잠이 깨서 이제 막 입을 때는 딸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신다. 전화번호도 제대로 못 눌러서 항상 "다이얼이 늦었습니다"라는 녹음을 듣고는 옆집 아줌마에게 번호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셨을 모습이 선하게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찡하다. 짜증과 슬픔이 차올라 새벽잠이 다 달아나버린다. 그래서 또 묻지 못했다. "엄마, 결혼식은 올리고 살았어?"라는 말을.

엄마가 잠드시는 초저녁 시간을 피하느라 신경 써서 전화를 건 어느 날 저녁, 한 번도 의심없이 엄마가 결혼식 같은 건 올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엄마도 결혼식을 했단다. 칠십두 살의 엄마와 서른여섯 막내딸의 대화 내용.

"엄마, 그냥 아버지네 집에 와서 산 게 다지? 결혼식하고 혼수하고 그래서 온 거 아니지?"

"아니다. 요새 보기엔 우스운 결혼식이지만, 식은 했다. 떡도 찌놓고 동네사람들도 오고 맞절도 했어, 그러고 같이 살기 시작했지."

"그랬어? 엄마네 아버지가 그냥 떨궈놓고 가셨다며? 밥이나 굶지 말라고, 일이나 시키라고 두고 간 거라고 들었는데..."

"사진을 안 찍어서 그렇지, 하긴 했다. 왜 안해? 우습지만 했다."

엄마 결혼식 사진은커녕 나 어릴 적 사진도 하나 없어서 옛 기억은 나 혼자 만든 것이거나 언니 오빠에게 전해들은 얘기들을 조합한 게 다였는데, 그래서 제멋대로 찍힌 사진처럼 조각났거나 어긋나 있기는 했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물 떠놓고 결혼식을 했다는 건, 정말이지 이제야 알았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공연히 내 출생이 정통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마음이 좋아진 사실이다. 불쌍하고 가난한 엄마가 그냥 아버지네 집에 일꾼처럼 들어와 살다가 우리 자식들을 낳았을 거라 믿었던 시절보다 덜 불쌍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사실, 나에겐 엄마 아버지의 결혼식 같은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결혼식의 유무가 아니라 왜 엄마가 아버지 같은 분과 살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엄마는 예쁘지는 않아도 정상(?)인 얼굴이었고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할 즈음 치료를 잘못 받아 사람들에게 거대한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외모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버지랑 살 생각을 하셨을까.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을 한 것도 아니었을 테고 아무리 가난했다고 한들 우리 아버지 아니어도 결혼할 사람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결혼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름대로 툭툭한 두 아들과 네 딸을 두었다. 두 분 모두 바람 한 번 피울만한 주변도, 인물도 아니었고 성격도 그냥 물처럼 흘러넘치는 순하고 자연스러워서 부모로 인해 자식들이 상처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여섯 자식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은 바

로 자신들의 결혼식날이었다. 남보기 부끄러운 얼굴이라고 아버지는 여섯 자식의 결혼식에 한 번도 참석하시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린 그 금쪽 같은 자식들의 결혼식날, 관광버스를 대절해 동네아이들까지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텅빈 동네에서 혼자 들뜬 서 계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난 아직도 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는 것이 죄송할 만큼 가슴에 한이 맺혀 있다. 지금도 생각한다. 큰오빠, 작은언니 결혼식을 따라가면서, 혼자 식사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세 번째로 큰언니가 결혼식 하던 날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남아 있던 날이. 나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코골며 잠들었던 아버지 옆에서 그 고즈넉한 밤을 새우며 난 결심했었다. 나는 꼭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을 하리라고. 몇 년 후 나의 결혼식날, 물론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다. 대신 잘 생기고 부자인 작은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 결혼식날, 신부측 부모석에 앉아 있던 늙고 시골스러운 우리 엄마와 세련되고 멋있었던 작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난 울었던가... 지금은 많이 잊었다. 그까짓 결혼식이 뭐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 싶을 만큼.

어쨌든 두 분이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 사셨으니 이젠 되었다 싶은 기분이 든다. 이제는 자신의 결혼식은 물론 자식들의 결혼식 때문이라도 가슴 아플 일은 없을 테니까. 권민진(34세, 출판사 근무)

엄마가 사랑에 목마르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40년생 용띠다. 3남3녀의 막내딸이며 그 당시 현실적인 능력이 꽤 있었던 이복 출신의 외할아버지와 함께 어린시절 살았던 넓은 집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엄마의 엄마 즉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애정에 많이 목말라하신 것 같다.

내가 알고 있는 엄마의 결혼은 몇 장의 사진과 엄마의 글 속에서 발견됐다. 면사포를 쓰고, 아랫부분이 풍성한 한복차림으로 임신한 배를 가리고, 다정다감하고 현대적인 외할아버지와 외종조할머니 등 외가 식구들을 뒤로 하고 잘생긴 아버지의 팔짱을 꼭 끼고 있는 엄마의 결혼식 사진. 휴가 나온 남동생과 함께 둘이 갖 지났을 첫아이를 안고 서양풍의 현관을 배경으로 찍은 듯한 사진에서 풍기는 약간의 숙연함 등이었다. 그리고 여섯 살 때쯤인가 책과 짐꾸러미가 잔뜩 쌓인 장롱 위에 몰래 숨어서 언이 태어난 동생들 때문에 엄마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서운함을 달래며 한나절씩 놀고는 했었는데 그 중에 신학교 학생이었던 아버지의 라틴어책 한 권에서 나는 오래 오래 잊지 못할 사랑의 갈피를 봤다. 예쁜 아기천사들의 그림이 잘 인쇄되어 있는 삽화 앞면의 이미지도 황홀했지만 뒷면에 엄마가 정성들여 썼음에 분명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맨 윗부분에 십자 성호가 그려져 있고 신에 대한 찬미와 해레나—첫아이의 세례명—를 가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오랫동안 쓸쓸할 때나 심심할 때 장롱 위나 책장 뒤에 숨어서 아버지의 가지 못한 길의 표상인 라틴어 성경책이나 그 책갈피들 속에 숨어 있던 예쁜 삽화와 그 뒷면의 메모들, 그것들이 있게 된 배경과 시간의 저편을 아련하게 돌아다니며 나의 존재를 기쁘게 인식하고 즐겼던 것 같다. 그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더듬어볼 수 있었던 엄마와 아버지의 결혼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부터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엄마와 아버지의 단란함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일요일 저녁 무렵의 대성당 미사 시간으로 기억된다. 엄마는 여전히 미사를 보고 싶어했으나 아버지는 미사 도중 바깥으로 나갔으며 동그란 미사수건을 머리에 얹고 즐겁고 부산하던 나도 곧 엄마의 표정 때문에 불안해졌다. 그 때쯤 우리집은 외가가 있던 부산의 아미동에서 친가가 있는 동래로 이사갔고 곧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엄마는 고생길로 접어들었고 주변의 친인척관계는 두고두고 엄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개가하신 친할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한다. 아홉 살 때 혼자 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일가들 속에서 크면서 인간의 이기심에 환멸과 외로움을 느껴 서울대 장학생을 마다하고 신학교를 가 일단 일상적인 현실을 견뎌야 했던 것 같다.

신부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바티칸으로 가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아버지는 신부님이셨던 나의 큰외삼촌(엄마의 큰오빠)과 사제지간이었다. 엄마는 그 당시 외국계 병원에서 일하며 가끔씩 댄스파티에도 참가하고, 친구들과 영화보기를 좋아했는데 언니 오빠의 권유로 서울에서 다시 공부를 계속한 단계였던 것 같다. 그런데 큰오빠에게 갔다가 아버지를 만나 아이를 가졌고 아버지는 다시 접어들려고 했던 세상의 논리로 나오신 것이다.

엄마는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중요했다. 아버지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는, 나 역시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아오는 지금까지 늘 경험하듯이, 순수한 사랑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사랑의 마음도 우리들 주변에 내재된 많은 굴절된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자유롭고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하는가. 엄마는 순진하게 사랑으로 행복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현실의 논리 속에서 외롭고 허망했던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엄마는 이중의 고생을 하게 되신 것 같다. 엄마가 조금 더 강했더라면 엄마는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었을까.

곽지혜(35세, 주부)

엄마 아빠에게도 사랑은 있었다

6년여의 절절한 사랑으로 결혼한 뒤에야 나는 내 부모에게도 나와 같은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침에 부시시한 모습으로 일어나 화장실에 앉아 휴지가 떨어졌다면서 “휴지 가져와라” 하며 신문을 펼쳐들던 아버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무렇지도 않게 세수하던 엄마. 그 둘 사이에 그 옛날 아련한 사랑이 있었다는 건 어린 시절의 내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밥 먹고 학교 다녀와서 숙제하고 놀다가 잠자는 일상처럼 엄마, 아버지도 그저 덩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다. 지금 내 아이들도 나와 남편이 지난날 열렬한 연인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리라. 그저 밥해주는 엄마, 돈 벌어오는 아빠로만 보이겠지.

다 자란 뒤에야 들은 엄마의 사랑이야기는 늘상 보아왔던 엄마, 아버지의 빗바랜 흑백 결혼사

진을 색고운 컬러 사진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안에는 퐁당퐁당 가슴 뛰는 수줍은 어린 신부의 분홍빛 뺨이 있고 미숙해하며 싱긋 웃는 감색 양복의 꺾다리 신랑이 있다—그 양복은 아직도 깨끗하게 접혀서 엄마의 보물상자 안에 누워 있다.

엄마의 형부는(즉 내겐 이모부가 되시는) 집안의 자랑거리였던 사촌동생을 복스러운 귀염둥이 막내처제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처음 만나던 날 엄마는 형부의 강권에 못이겨 사진관에 가서 뼈적 마른 복학생 아저씨(?)와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그만 그것이 약혼사진처럼 되어버렸다고 한다. 엄마는 너무 어렸기에 어른들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믿거나 말거나). 그 후 내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발령지였던 춘천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엄마는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애절한 사랑을 했단다. 시할머니, 시부모, 나이 어린 시동생과 시누이들, 대가족 속에서 큰집 할머니의 역할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별탈없이 잘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엄마는 스물두 살 빛나는 5월의 신부가 되었고 서른 살 내 아버지는 꽃 같은 어린 신부를 얻는 황제를 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사촌형이 내겐 이모부가 되고 이모는 우리 할머니의 친정 조카며느리가 되는 얽히고설키는 관계가 시작됐던 것이다.

며칠 전 아이들과 TV를 보던 남편이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무리 봐도 정말 못생겼어. 그 땐 왜 이쁘보였을까?” 하는 게 아닌가. 그토록 사랑해서 어렵사리 결혼했던 남편이 결혼 10년만에 내게 던진 한 마디. “아이구, 이 양반아, 나도 마찬가지일세” 하고 차마 대꾸는 못했지만 그 순간 어느 시인의 시귀가 떠올랐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서울에 결혼식장이라고는 두어 군데밖에 없던 그 시절, 하얀드레스 입고 풍나는 결혼식을 올렸던 엄마는 삼십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몇 번쯤이나 해봤을까?

엄마도 결혼식이 현실로 내딛는 첫걸음 바로 직전의 찬란한 마지막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으리라.

행복한 결혼인 줄 알았던 결혼식. 그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왜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났을까? ‘왕자와 결혼해 지지고 볶으며 살았으나 비교적 행복했다’ 해야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미경(36세, 주부)

“너희 아빠를 결혼식날 처음 봤단다”

올해로 아빠와 47년을 해로하신 엄마는 요즘도 아빠와의 결혼은 밀지는 결혼이었다고 주장하신다. 엄마는 꽤 괜찮은 집안의 예쁜 처녀로 달라는 집도 많았던,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잘 나가는(?) 처녀였는데 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다고 투덜투덜 하신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옆에 계신 아버지도 지지 않고 주장하신다.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출세를 엄청나게 하셨다는 주장이다. 강원도 산골의 처녀가 대저인 서울로 시집와서 대학교수 부인이 되었으니 그게 모두 아버지 덕이라고 주장하신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밀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의 결혼은 정말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구식의 결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엄마와 아버지는 선조차 보지 않고, 그냥 어른들의 뜻대로 혼인을 하신 경우이다. 외할아버지의 먼 친척 동생이 큰어머님이시고, 그분의 시동생이 우리 아버지이므로 우리 엄마는 먼 사돈총각에게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100% 먼 친척 아주머니의 발만을 믿고 결혼을 하신 것이다. 아빠가 형수님의 보증을 100% 믿고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결혼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엄마는 미리 아버지를 본 사람들이 아버지가 걷는 것이 이상하다는 등의 말씀을 하셔서 정말 큰마음 먹고 아버지께서 큰아버지와 걸어오시는 것을 담 너머로 넘겨보셨다 한다. 혼인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훑쳐보는 것은 그 당시 처녀들에게는 꽤나 스릴 넘치는 모험이었다고 하신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영화 <졸업>의 더스틴 호프만이나 캐더린 로스처럼 출행할 칠 용기도 없으셨겠지만 미리 훑쳐볼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웃기지만 한다. 한 번도 보지 않고 한 결혼이지만 몇 년씩 연애하고 혼인한 부부보다 더 오래 행복하게 해로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연애혼을 주장하는 나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도 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속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까...

결혼의 과정만큼이나 엄마의 결혼식도 지극히 구식 그대로였던 것 같다. 빛바랜 컬러 아년 흑백의 엄마 결혼사진을 보면, 구식을 넘어서서 역사책 사료를 보는 듯한 시간적 거리감이 느껴진다. 세련된 궁궐 같은 결혼식장도, 그렇다고 장엄함이 느껴지는 교회나 성당 같은 장소도 아닌 강원도 시골의 흙마당에 차려진 결혼식장이 멀리 보인다. 사진 멀리로 잔치 때 치는 차일도 보인다. 여기에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물론 우리 엄마, 아버지요)의 모습은 순백의 드레스와 세련된 턱시도가 아닌 '사모관대'와 '족두리' 차림이다. 그 양옆의 일가친척들도 모두 한복과 두루마기 차림이고 보니, 모든 광경은 낯설기만 하고, 나의 판단양식으로는 세련되지 못한 구식무성이다. 역사 사료 같은 그 사진 속의 모든 것들이 낯설기는 하지만 수줍은 듯, 불안한 듯 고개를 별로 들지 못하고 찍은 젊은 신부인 엄마의 모습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엄마를 영낙없이 닮은 딸이기 때문일까?

우리 엄마의 결혼은 영낙없는 구식이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영락없는 구식 엄마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구식의 우리 엄마가 너무 좋다. 신식은 구식 속에서 생겨나고 구식 속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일까? 신식 엄마인 내가 너무나 힘들 때 가서 마음 푸근히 안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직도 구식의 우리 엄마뿐이기 때문이다.

왕석순(35세, 연구원)

37일만의 선택

마 늘을 땀고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학교 관계로 나는 현재 엄마와 비행기를 타고도 같은 나라 안에서 다섯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엄마의 결혼식 이야기를 3분간 에피소드 위주로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도 엄마는 아빠에게 수시로 "좀 조용히 해봐요", "아니라니까, 저 프로젝트에 필요한 거래잖아" 하면서 자신을 방해하는 일들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엄마는 자신이 아빠를 만난 지 한 달하고 일 주일만에 결혼했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 때 엄마는 대학을 갓 졸업한 스물다섯이었다. 그 때로서는 꽤 잘 나가는 <홀스그릴>이라는 양식집에서 피로연을 마치고 아빠의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 다시 전통결혼식을 치르는데 신부가 인물이 못났다고 수근거리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라는 나의 애기에 가장 객관적인 형식과 의례적인 사실 위주로만 자신의 이야기를 묘사하려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엄마가 말하지 않고 있는 감정들과, 문장의 틈새를 읽어어나가는 데 더 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엄마가 30년 전에 겪었을 결혼 전 정서들에 대한 상상이라든지... 엄격히 말해 여기에 쓰여진 이야기들은 엄마의 결혼식에 관한 나의 이야기이다.

나는 내 방을 뒤적뒤적하다가 3년 전에 작품자료로 쓰려고 복사해 놓은 당시 사진 하나를 찾았다. 정말 엄마와 나는 많이 닮았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명동성당 제대 앞에서 찍은 전형적인 가족사진만으로도 엄마의 결혼식은 분명히 건조하고, 시끌벅적하기 만 한 치레였을 것이다. 물론 엄마한테는 멀리고 어려운 절차였겠지만 웬지 이런 틀에 박힌 결혼식이 엄마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남들과 다르고 조금은 세련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 사진 안에는 이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보이고, 뽕송뽕송한 피부를 한 채 어정쩡하게 아빠와 옆구리 사이로 팔을 걸친 나의 엄마가 웃고 있다.

자신이 처한 위치나 상황에 대해 유난히 예민한(대부분 비관적인) 엄마는 나의 아빠 즉 엄마가 '선택' 한 남자에 대한 위세가 무너질까봐—아버지에 대한 권위의 박탈은 자신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므로—말을 하진 않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대한 많은 생각과 느낌들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엄마가 내린 선택이 여성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모든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다. 우리 세대 역시 풍요롭고도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실상 가능하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 만큼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나리오에 저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결혼과 성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딸을 보면서 "너는 시집도 안 간 애가 무슨 그런 책을 읽니?" 하며 면박을 주던 나의 엄마가 얼마 전에는 『새로 쓰는 결혼이야기』를 우연히 내 책장에서 찾아 읽고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새롭게 배우고 있다고 전화로 자랑을 한다. 딸 자체에 익숙해지기가 힘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술술 읽혀진다는 것이다. 이제 엄마와 나는 서로의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전 어디까지나 나의 바람이고, 엄마와 나는 아직까지도 물방울다리아를 해준 친구의 사위 얘기에서부터 결혼예식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부딪치고 또 타협의 장을 찾는 일을 되풀이한다.

얼마 전에는 내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나의 결혼식에는 정치적인 '해답'인 듯한 동시입장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신랑이 되어줄 남자의 부모, 여섯 사람이 함께 입장을 하는 것이다. 기형적인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한 아무것도 쉽고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것임을 안다. 하지만 상투적이다 싶을 만한 엄마의 결혼식도 나에게도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결혼이 자신의 꿈을 앗아갔으며, 결혼은 곧 고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엄마에게는 결혼 전도 후도 모두 고통이었다.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 더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나의 외할머니가 몹시도 혹독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던 외할머니의 엄마에 대한 구박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심하게 맞는 꿈을 꾸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깬 엄마를 목격한 적은 많았다.

그런 엄마에게 나이 19살에 혼담이 오갔다. 아버지와 또 한 명의 총각이었다. 아버지는—엄마의 기억에 의하면— 꽤 잘생긴 총각이었고, 게다가 사교적이어서 엄마 마음에 그리 싫지는 않았나 보다. 참고로 말하자면 아버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큰형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사문제도 직접 해결해야 했다.

또 한 명의 총각은 주로 그의 아버지가 연락을 하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며느리감인 우리 엄마를 선보고 간 날 밤에 돼지가 우글거리는 꿈을 꿔었다. 그래서 놓치지 않을 생각으로 부지런히 청혼을 했지만 어찌어찌해서 엄마의 신랑감은 아버지로 낙착되었다.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 자세한 사연을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결혼한 엄마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의 폭행과 구박에서는 벗어났지만 새로운 고생길을 걸어야 했다. 아버지는 제주 땅고 인기 많은 사람이라 뭐 하나에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나보다. 자연히 늘 생계문제가 뒤따랐다. 학교 선생님, 사진사, 통역관, 그리고 공무원까지 두루두루 섭렵하셨지만 아버지 남에게 퍼주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곧 실증을 내고는 일을 그만두셨다. 그래서 결혼하고 15년이 넘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뒤따랐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시험공부를 해서 건설계통의 공무원이 되셨고 그래서야 집안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버지가 곧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엄마의 혼례장면이 담긴 사진이 몇 장 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족두리를 쓴 엄마와 사모관대의 아버지. 두 분 다 외모가 출중했던지라 선남선녀의 모습이다. 구식이라고 촌스럽다고 하기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더 슬픈 걸까? 고통스런 친정살이를 벗어나서 뭔가 희망을 꿈꾸었을 결혼. 그러나 엄마에게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인생길의 연속이었을 뿐이다.

송영숙(38세, 주부)



스산김치

내 고향의 맛을 전국으로! 세계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의 맛을 드립니다!

우리땅에서 나는 최고의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전통의 맛!

구분	단위	500g	1Kg	3Kg	5Kg	10Kg
깍 두 기		1,800	3,800	11,400	19,000	38,000
포기김치		2,000	4,000	12,000	20,000	40,000
맛 김 치		1,800	3,800	11,400	19,000	38,000
총각김치		2,300	4,500	13,500	22,500	45,000

◎ 심기가격은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되는 가격입니다

주문처 전화 : 0455)667-2250-3 팩스 : 0455)64-1335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1164(수석농공단지내) 스산식품



겨우 그 정도밖에 못 하니?

음란전화 대처법

생 활 속에서 드물지 않게 한두 번쯤은 당할 수 있는 전화 성희롱.

필시 백주대낮에 나의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고서라면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겠지만—이른바 밤거리가 두렵지 않은, 온몸이 보디가드인 나이기에 목소리로 여성인 것만 확인하면 되는 전화상이다 보니 뜻하지 않게 남자들의 느끼하고 욕구에 변질거리는 구애(?)를 받을 때가 있다.

내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는 첫번째 사건은 바로 통신의 채팅에서였다. 여성전용 채팅실에서 같은 동호회 사람들과 열심히 이야길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청해왔다. 아무래도 자신의 성적채성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적채성의 혼란에 빠진 이 어린양을 구해 주기 위해 기꺼이 비공개 방까지 만들어서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갔다. 언제부터 여자에게 끌리기 시작했느냐, 그건 정신병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등등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데 비해 그 사람은 점점 만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여자를 보면 속옷 색깔이 무엇일까요 먼저 궁금해진다는 등 하더니 급기야는 지금 자기 팬티가 젖어오고 있다며 당신은 팬츠냐고 하는 대목에 이르렀고 비로소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야, 이 미친놈아, 젖었으면 말려 입어라”라고 호통쳐 주기는커녕 어설픈 변명으로 그 방에서 빠져 나오기에 급급했을 뿐이었다.

나는 사실 성에 관해서는 그다지 별칭 ‘까진’ 편이 아니다.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성에 대해서 모르면 모

를수록 더 ‘착한 여자’라는 허접스레기와 같은 사회적 명제에 적당히 부응해 살고자 노력했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성적채성을 깨달아가며 달라졌다. 그리고 나의 이런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여성’으로서 이 세상의 많은 남성들에게 ‘먹이’로 내던져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그 동안 딱딱한 학문적 용어라고만 생각했던 페미니즘을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후로 남자들의 시시껄렁한 성희롱쯤은 되로 받아서 말로 갈아줄 정도의 뻔뻔함도 지니게 되었다. 내 기억에 남은 두번째 사건은 늦은 밤시간에 집으로 걸려온 전화인데, 벨이 울려 받았더니 다짜고짜 “너랑 섹스하고 싶어”, “너를 황홀하게 해주겠어”, “내 걸 넣어줄게” 혼자 별 소릴 다 지껄여대는 것이었다. 오! 나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순진하고 섹스의 색자만 나와도 얼굴이 빨개지는 청순가련형이 아니었으니,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래? 하고 싶어? 그럼 얼른 와!”

녀석은 기가 약간 죽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전열을 가다듬고 30초쯤 후 다시 걸어서 같은 수작을 떨어냈다. 나는 열심히 원맨쇼를 들어주는 척하다 “너 빨리 안 와. 이 새끼야, 하자면서, 그럼 진짜 하든지. 너, 바보 아냐? 입으로 떠들면 다 되냐.” 이 대목에 이르니 그쪽에서 전화가 뚝 끊어져버리는 것이다.

세번째 황당한 경험은 ‘버디’가 신문지상에 소개돼 사무실의 전화통이 붙이 나던 어느 날이었다. 정신없이 구독 안내를 하고 주소를 받아 적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하루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전화를 받으

니 약간 앳된 목소리의 남자였다. 첫 마디가 “너의 얼굴을 하고 싶어, 너의 가슴을 하고 싶어.” 필시 신문에 나간 기사를 보고 레즈비언들이 전화를 받을 줄 알고 건 놈이었다. 나는 피식 웃음을 흘리며 “그래, 할어”라고 대꾸해 주었고 그는 약간의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더 노골적으로 뽐 하겠어, 뽐 하고 싶어, 라며 목소리를 쭉 깔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나 역시 한 마디도 지지 않고 “그래요? 그럼 와서 해요”라고 일부러 존댓말까지 또박또박 써주며 하나 하나 다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웃음을 참아가며 되려 열심히 격려(?)해 주기까지 했다. 1분 정도를 그렇게 웅대해 주었더니 마침내 잠시 가만히 있다 정말 맛있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며 끊는 것이었다. 오호라! 이렇게 귀여운 태가.

물론 이런 전화를 받으면 보통의 여성들이 덜컥 겁부터 나는 건 이 남자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하는 두려움과 정말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니 대체 뭐라고 대꾸해 줘야 될지 몰라 대뜸 전화를 끊어봐도 계속 전화가 걸려오기 마련이다. 이런 일은 두고두고 마음 속에 찔림으로 남는다.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더 죄를 지은 듯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살면서 이런 불합리와 부조리가 싫다. 이 세상에 성욕은 오로지 자신만이 가진 특권인 줄 알고 여자의 기분쯤은 아무렇게나 밟아버리는 놈들. 그런 놈들이 바라는 건, 고작 “너랑 섹스하고 싶어”라는 말에도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당황해 하는 여자의 모습에서 우월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그런 장단에 맞춰 놀아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선 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전혀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렇게 나온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만약 그런 식이 되면 같이 음담패설만 주고받는 수준이 되거나 오히려 남성들을 더 즐겁게 해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언젠가 늦은밤에 섹스할 때를 연상시키는 소리를 내는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뻔뻔스럽고 매스꺼운 소리를 당장 집어치우게 만든 그녀의 기가 막힌 대꾸는 단 한 마디였다.

한숨을 푹 쉬며 “겨우 그 정도밖에 못하니?”

이 한 마디에 그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더라는 것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한창 때인 젊은 남자의 기를 너무 죽여놓은 건 아닌지 좀 불쌍하게 느껴진다는 그녀의 말에 나는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자신의 실력에 한계를 느껴 이 짓을 포기하든지 면벽수도하며 더 열심히 갈고 닦든지 할 그 남자를 상상하며.

전화 성폭력, 익명의 남자에게 나의 몸과 기분과 마음이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여자들도 성에 대해 더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비명 따윈 지를 필요가 없다. 기분이 나빠질 필요도 없다. 자, 이제부터 만약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그 놈이 입이 아프도록 실컷 떠들게 해준 다음 우리들은 고상하게 단 한 마디만 해주면 어떨까?

“좀 더 연습하고 걸어!”라고, 그리곤 화통하게 웃어 주자. 그 놈 약이 파팍 오르도록 말이다. [11]

한재운

동성애 전문지 ‘버디’ 편집장. 어쩌다 여자로 태어나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 더군다나 나는 이 몸종하고 뽀기기만 좋아하는 사내들이 판을 치고 오직 자신이 아는 하나만이 진실이라고 너무 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규정지어지는 이 땅에 레즈비언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레즈비언이란 것이 행복하다. 나의 여성성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녀가 있기에. 지금은 남성이라는 생물체를보단 이성애주의라는 커다란 편견덩어리들과 먼저 싸워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곧잘 일부의 여성들이 적군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우리의 아군이 되어주리라 굳게 믿는다.



상대적이고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남영 지음

정력이란? 힘. 상대가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해버리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놀라운 정력! 우리로선 차라리 모르는 게 힘이다.

인연: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이. 받는 사람이야 어떠랴
만 주는 사람은 기가 막히기 마련. 문제는 주는
쪽이 항상 이쪽인 경우이다.

천생연분: 주고받을 것이 심각한 경우를 이른다. 그로
끝이 좋은 경우가 드물다.

- 궁합: 1. 오랜만에 반찬 만들어놓고 기다리면 십중팔구
외박.
2. 남편이 꽃 사들고 들어오는 날은 생리중.
3. 내 생일은 꼭 출장.
4. 이제 포기하고 적응할 만하니 돌연사.

각서: 서로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양식 중의 하나.
결혼 일 년이면 각서 작성의 달인이 된다.

미운정: 서로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도가 없다.

고운정: 익숙한 방식으로 싸울 수 있어 좋다.

증오의 형태

신혼: 아내—홍, 불려도 대답하나 봐라. 절대 말 걸지
않을 거야.

남편—내가 집에 들어가나 봐라.

오년차: 아내—아이 서너놈 낳아놓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죽어버린다.

남편—부인이 세번째 아이를 남자마자 보란
듯이 먼저 죽어버린다.

십년차: 아내—아이만 없다면 죽어버리고 싶다.

남편—이하동문이다.

황혼: 아내—내 악착같이 붙어 살겠다.

남편—내 아직 안 죽었다.

지능: 이 술자리가 어제의 술자리와는 달리 왜 피치 못
할 술자리인지를 설명할 때 필요한 자질. 만약 지
능이 130이상이라면 사술에 한 번 골로 새로운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 인간이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만의 십자가. 즉
당신의 배우자.

성불: 명상과 수행을 통해 집착을 놓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
비심으로 가득한 부처를 이룬다. 성불의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난하여 선불리나서는 자가 없으나
부처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는 결혼이라는 가시밭길
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는 성불의 과정을 겪게 된다.

정력: 힘. 상대가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해버리는 대한
민국 남자들의 놀라운 정력! 우리로선 차라리 모
르는 게 힘이다.

고독: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조건. 고독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이
른 예가 적지 않다. 주
의할 점은 심심하다는
말이 동의어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만약 오
징어 다리라도 씹어서
마음에 위안이 된다면 그
건 심심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고독하다고 말
해도 무방하다.

다이어트: 밥상을 받기 전에 늘 하는
결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밥상을 받고 나서
생기는 현실 인식. 이만하면 아직은
격정할 수준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

경제적인 고려: 밥상을 물리고 나서 깨닫는 경제적인 피
해. 결국은 큰 바지를 사야 한단 말이지.

자포자기: 옷장을 열어보고 깨달음을 얻다. 중요한 건
인간이지 몸매가 아니야.

상상력: 어머, 저기 저 원피스 날씬한 애들이 입으면 예
쁘겠다.

섹시: 섹스의 영웅사영. 섹스함직한 혹은 섹스하고 싶
어지는 분위기나 몸짓. 강력하게 이성을 자극하
여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칭한다. 발정기인 암캐
는 수캐에게 섹스해 보일 것이다. 결국 종족을 유
지하려는 DNA의 지혜인 셈이지만 인간의 경우
섹스해 보이려는 일념으로 끌어죽기를 선택하는
여자들도 생긴다.

스토킹과 쿠데타의 공통점: 성공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부부간의 섹스: 성행위가 남자
에게는 분노와 폭력성향의 표
출구일 수 있다는 것이 심리
학에서 통용되는 설이다. 여
자들도 사실 억척대며 힘들어
하는 남편을 보는 가악적인
즐거움이 있다. 그로 오랜 결
혼기간을 지나고도 자주 잠자
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남편을
두고 변치 않는 애정의 소유자라고 자
랑하기 전에 무슨 맛을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
는지 의심할 일이다.

중년의 몇: 배신한 남편을 응징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는 얼굴과 몸매.

청춘의 몇: 사랑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어미의 공통점

1. 청소년인 자녀의 잘못된 모두 친구를 잘못 만난 탓
이다.
2. 내 아이가 친구를 때리면 아이들이란 놀 부닥거리며
크는 법이라고 넘어간다. 내 아이가 맞고 오면 강패
같은 친구의 부모를 만나러 출타한다.
3. 내 딸이 시집에 가서 혼자 설거지를 다 했다는 말을
들으면 사돈의 고망을 의심한다. 며느리가 혼자 설거
지를 하면 깨끗이 했는지 검사한다.
4. 사위가 집에 오면 좀더 자주 오라고 부탁하고, 옥 아
들이 며느리에게 휘둘러 사돈집에 드나들까봐 신경
을 곤두세운다.
5. 딸의 친정 출입을 두고 사돈이 아단을 치면 기가 막히
고 며느리가 자기 친정에 가면 은근히 기분 나쁘다.
6. 나는 남편과 늘 싸우지만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대답
하는 꼴은 있을 수 없다.



내 나이 60, 인생은 지금부터!



이현순

충북 보은에서
2대 중치녀로
태어나 현재
진천에서
23년째
살고 있다.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나는 소녀의 꿈을 간직하고 자라났다. 소녀시절에는 가정환경 탓인지 항상 '어떻게 하면 남자 못지 않게 우리 어머니 앞에서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 두었다고 큰소리치는 우리 아버지께 어머니가 더 행복하였노라고 증언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개인 조사표를 주면서 앞으로의 희망을 써내라고 하면 나는 전도사라고 썼었다.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전도사가 되어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루는 어머니와 언니, 나 셋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언니가 내게 다시 확인해 보려고 느닷없는 질문을 던졌다.

"너 정말 앞으로 결혼 안 할래?"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펴 돌았다. 아직까지도 언니는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나 하는 서러움에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다.

그러다가 언니는 모 교회 장로님 만머느리로 시집을 가 목사 부인이 되고 독신을 부르짖던 나는 마음이 변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시골총각에게로 시집을 갔다. 시집을 가고 보니 신랑은 충청도 양반집 새신랑 모범생이었다. 내 어릴 적 소녀의 꿈은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렸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그 완고한 권위 앞에 완전히 뒤집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때 나는 절망에 가까운 실망도 했다. 제 아무리 꿈을 갖고 소리쳐 봐도 여자는 이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그 후 남편은 군에 입대하여 재대를 한 후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졸업 후 다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아이들 5남매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여섯 식구가 모두 공부하려 나간 빈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빈 껍데기, 40대 중년여성의 초라한 내 모습을 거울 앞에서 비춰 보면서 나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때를 회상하며 쓴 씨가 '허무'이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나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다.

여인이란 이름하에 눌리고 무시당했던 나의 설움이 이제는 더 이상 담아둘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남편은 성직자로서 존경받을 만큼 크게 성숙해 있었고 아이들도 3남2녀가 자기들의 전공을 찾아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다만 뒤쳐져 있는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겨를도 없이 제각기 바쁘기만 하다.

내 나이 육십이 되는 해! 나는 밤잠을 설치면서 꿈꿈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쌓이고 쌓여 이제는 넘쳐나는 이 엄마의 이야기들을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아이들! 내 피가 흐르고 있는 저 아이들에게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생각하니 인생이 너무 허무했다.

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머니의 한 평생을 생각해 봤다. 내가 결혼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말년엔 너무나 행복해 하시며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니 내 어머니...! 그 어머니는 항상 이 여러고 약한 딸자식 나에게 가슴 속 한을 이야기하시며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셨다.

나는 소녀시절에 간직했던 꿈을 다시 떠올려보았다. "열 아들 부럽지 않는 딸이 되겠노라"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입으로 '우리 어머니가 자기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역시 내 어릴 적 소녀의 꿈은 내가 성숙한 어머니가 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 노력만이 아닌 어머니의 꿈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한 세대는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는 내 삶의 문제가 코앞에 당면한 과제이다.

내가 세상에 왔다가 흔적이 그저 풀 한 포기 씨 맺고 사그라지는 데 불과할 뿐이다.

1996년도 내가 60이 되는 해, 11월 1일 나는 진천우체국에서 개설한 컴퓨터 무료강좌에 나가 워드프로세서를 배웠다. 토요일,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루 두 시간씩 배우는데 쇠퇴해진 나의 늙은 두뇌로는 너무나 어려웠다.

내가 컴퓨터를 배우게 된 것은 위에서도 조금 비쳤지만 확실한 두 가지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내가 더 늙어지면 외출도 할 수 없고, 친구들의 발걸음도 뜸해지고, 모든 소식이 단절될 텐데 컴퓨터를 배우면 인터넷 정보통신도 할 수 있고 외롭지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두번째는 지금은 너무나 할 것이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오순도순

허 무

이현순

오늘도 밤하고 서러지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이도 학교 가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내일도 또한 그런 것들
지치고 쇠약한 몸과 마음
나의 기쁨은 어디에
나의 행복은 어디에

손은 부지런히 빨래를 비비는데
텅 빈 허전한 가슴은
눈물 공장인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엄마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없더라도 엄마가 살아온 현재까지 이야기들이며 간직했던 생각들을 글로라도 남겨 저희들 시간 있을 때 읽어보게 하자는 것이었다. 읽어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지만 읽어보게 하기까지의 작업은 내가 해야될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 두 가지의 꿈이 실현된다면 나에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딸같이 어린 컴퓨터 선생에게 호된 구원을 들으며 열심히 배웠다.

그러던 것이 그해 11월 20일 종강을 하고 그 날 밤부터 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시라는 단속키로 60년 동안 가슴 속에 눌러담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니 1년만에 100여 편의 시가 쏟아져 나왔다. 이 때부터는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웅어리진 모든 것이 다 빠져나온 듯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항상 기쁨과 희망만이 솟아난다.

인생은 60부터라고 그 누가 말했는지! 정말 실감나는 명언이다. 뒤늦게나마 지금은 정말 바르게 뒤집은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1997년 11월 28일 만 육십이 되는 회갑일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친지를 모시고 막내아들 친구가 운영하는 인쇄소에다 부탁을 해서 『줄부채 향기』라는 시집을 출간해서 선물로 드렸다.

지난날들을 죽 회고해 보면 우리 어머니의 꿈은 어머니와 내대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꿈은 나와 내 딸의 대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의 꿈은 나의 시집이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출간돼 나와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읽어보고 공감하면서 위로도 받고 희망도 갖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실현되리라 믿어진다. ■

일러스트 난나



회 망

이월순

저 하늘에 태양이 이글거리듯
내 마음에 솟구치는 태양의 열기
뜨겁게 뜨겁게 타오릅니다.

한없는 기쁨으로
한이 없는 감사로
솟아나는 생물처럼

저 하늘에 태양이 봄볕을 발하듯
저 언덕에 새싹들이 땅을 뚫듯이
내 마음에 희망이 솟아납니다.



CROSS

세계의 여성들 미국연예인들 아프간여성 위해 나섰다 의
사이버원도우 여성 노동자, 노동운동과의 불행한 동거?
가상리포트 영광, 영광, 큰 영광!
에코페미니스트 대축제 2008!

발굴 동성애, 조선시대 외로운
여인들의 불우한 연애
동굴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페미니즘의 새로운 전선, '남성의 신비'를 깨뜨리다'

베티 프리단, 최근 언론사와 인터뷰

베티 프리단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페미니스트 활동가이며 작가이다. 그녀의 초창기 책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1963)는 현대 여성운동을 탄생시킨 책이다. 그녀의 최근 저서 『The Fountain of Age』는 젊음에 미쳐 있는 세상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했다. 60년대에 『여성의 신비』를 폭로하고 깨뜨림으로써 현대 페미니즘의 새 지평을 연 그녀가 최근 새천년을 앞두고 『남성의 신비』를 깨는 것을 페미니즘의 새로운 전선으로 제시했다.

Q: 30년이 지난 지금, 『여성의 신비』는 여성평등운동을 탄생시켰다. 20세기 후반의 여성의 진보는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이 있는 사회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당신은 여성운동의 성공 열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프리단: 무엇보다도 『여성의 신비』는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

미국에서는 여성참정권을 위한 전쟁을 100년 이상 해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에너지는 술 취한 남편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관심사와 다른 사회복지운동 쪽으로 우회했다. 사회에서 한 남자의 아내, 어머니, 성적 존재, 딸, 주부 이외에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투쟁은 1963년 내 책의 출판으로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여성들은 입센의 『인형의 집』의 노라처럼 문을 뚫고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과 똑같은 인

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때는 인권운동의 정점인 베트남전 반대운동의 시작인 60년대 초라는 것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사회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여성운동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성공했고 내 열광적인 꿈도 넘어섰다. 그 변화를 보진대 경외심이 느껴질 정도다. 오늘날 여성들은 전문적인 지위에서 동등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의 경영자 수준에는 여전히 '유리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이를 깨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남편이 했던 것처럼 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유력한 세력이 됐다. 미국에서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여성들이었다.

우리의 딸과 손녀딸 세대는 여성들이 하찮게 여겨지거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남성에게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성의 신비』를 썼던 때에 비하면 밀기 어려울 정도의 전환이다.

Q: 여성운동의 실패와 우회(迂廻)라면 무엇이 있는가?

프리단: 글썽, 실패는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전환이나 우회는 있었다.

가장 큰 우회라면 인종, 계급의 억압에서 여성의 억압과의 유사점을 이끌어낸 극단적인 성정치학이었다. 이는 여성운동을 남자나 결혼, 모성을 모두 거부하는 주변부의 정치학으로 타락시켰다. 1980년대 초부터 미디어는 이 극단주의를 과대선전 해왔지만 지금은 고맙게도 쇠퇴했다.

한 개인의 성적 기호는 개인의 문제이다. 『여성의 신비』 등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성을 성적 대상과 어머니, 주부와 하인이라는 개념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깨뜨리자는 것이었다.

Q: 1980년대 중반 보수적인 비판으로, 증가하는 이혼율과 가정의 붕괴를 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는'

여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가사노동을 남편, 아이들과 분담하려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반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비판은 "여성은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 여성이 가정과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가족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말과 같다.

프리단: 그것은 단연코 바보 같은 말이다. 그 말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는 남성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여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은 사랑, 섹스, 자녀 그리고 직업도 가질 수 있지만 여성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여성운동은 여성, 남성, 부모 모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남성들은 가장으로서의 부담을 혼자 저었다. 이 스트레스는 남성들을 정신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게 했고 신체적으로도 상처받기 쉽게 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보다 8년 정도 더 일찍 죽었다. 이제 여성들은 그 짐의 절반을 지고 있다. 이제 남성들은 전혀 덜어져서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

요점은 모성은 이제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선택된 모성은 감옥 같았던 예전의 모성보다도 훨씬 더 낫다.

Q: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해보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만약 주택부금을 갚기 위해 부모 모두 일주일에 80시간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이는 좋은 일인가? 가정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프리단: 유동적인 근로시간이다. 또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그리고 적절한 육아 조건이다. 육아에 대한 비판이 무엇이든 간에 탁아서비스 없이는 여성에게 어떠한 평등도 없다는 사실이다. 즉 오늘날은 물질적인 욕망보다 삶의 평등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요즘 미국사회를 보면 물질주의의 찌꺼기로 덮여져 아래서 부글부글 끓으며 피어 있는 연못을 상상하

게 된다.

Q: 스웨덴 사회학자인 고 알바 미르달은 여성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단지 한꺼번에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먼저 모성을, 그리고 나서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의 기회는, 사회가 모성의 부재기간을 차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 생각은 당신의 견해와 다른가?

프리단: 우리는 길어진 인간수명에 맞는 조건을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해 낼 수가 없었다. 오늘날 여성의 평균수명은 80세이고 남성은 72세이다. 가장으로서 혼자 지는 짐의 무게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들은 더 오래 살 수 있다. 오늘날 80까지의 사람들의 삶은 매우 생기가 넘친다. 그러므로 65세 전에 활동적인 삶에서 은퇴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관념은 전적으로 진부하다.

알바 미르달이 예견한 대로 사람들은 앞으로 "다음의 내 직업" 또는 내 "세번째 직업"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만약 60세나 더 늙어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가족을 더 이상 부양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당신은 책임감보다는 당신이 관심 있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은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나는 은행에서 은퇴한 후 간호사가 된 사람을 알고 있다. 또 70세에 음악작곡을 시작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길어진 인간수명으로 당신은 인생에서 좀더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단 한번' 이니까 성공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줄이고 훨씬 더 많은 모험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Q: 만약 여성운동이 그 목표에 도달했다면 그 다음의 과제는 무엇인가?

프리단: 남성의 신비를 깨는 것이다. 여성운동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 사업은 남성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

다. 여성이 가정에 관심을 쏟는 만큼 남성도 관심을 쏟아야 평등은 성취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내 요구와 이슈들은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돼 왔다. 여성운동의 다음 전선은 바로 이것을 남성의 영역으로도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으로 인식돼야 한다.

Q: 그러면 당신은 남성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노력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선두와 중심에서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보는가? 최근 2년 동안 우리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두 개의 커다란 행진—루이 파라칸의 100만 남성 행진과 더 최근인 보수 기독교 세력의 'Promise Keepers' 행진—을 봤다. 둘 다 가정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프리단: 이 운동이 여성운동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실제로 50%의 가정에서 여성들이 가정수입원의 절반 가량을 책임진다는 사실에 대해 남성들은 반응해야 한다. 이는 남성이 책임감을 나누어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금 여성은 일터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으며 따라서 남성들도 가정을 위해 동등하게 책임을 질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 김보미

돈도 명예도 싫다

정재계 은퇴하고 말년에 육아 재미에 빠진
독일 남자들

지난 3월 날벼락 같은 자진사임으로 독일 정계와 여론을 발칵 뒤집어놓은 오스카 라퐁텐(56) 전 재무장관은 묵묵부답이었다. 며칠 후 침묵을 깨고 두 살배기 아들 칸-마우리체를 무릎에 앉혀 기자를 앞에 나타난 라퐁텐의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중상모략과 물신이 팽배한 정계를 버리고 자신의 미래를



오스카 라퐁텐

등진 후 육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제 권력을 휘둘렀냐는 듯 할아버지 나이에 자상한 아빠 역할을 하는 이들이 독일 매스컴과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독일 유명 주간지 '슈피겔'지도 얼마 전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말년에 신생아를 보는 남성들이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독일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독일 신생아의 아버지 중 40세 이상인 사람이 10%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물론 고령의 남자와 젊은 여자 사이에 2세가 태어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것은 고령의 아버지들의 의식변화에 있다. 말년에 얻은 자식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 갓난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며 거리를 활보하는 중노년층의 남성들이 늘고 있다.

또한 어린 2세에게 바치는 교육열도 주시할 만하다. 독일의 유명 갤러리스트 루돌프 츠비어너(65)씨는 92년 첫 아들의 출생을 계기로 자신의 사업을 접어치우고 예보기와 교육에만 전념하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음악, 미술, 문학 교육을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자기 여생의 과제라는 것.

할아버지 역할이 제격일 듯한 저명인사들이 2세를 보는 것이 마치 경사인 양 대중매체에 보도되지만 공공연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세를 마치 자신의 시들지 않은 정력의 증거물처럼 과시한다는 것이다. 혹자는 "할아버지 연령에 갓난아이라니, 자식 생각

코마아들에게 건다는 무언의 시위라고나 할까.

라퐁텐뿐만 아니라 테오 바이겔(56) 전 재무장관, 요하네스 라우(68) 전 노드라인베스팔렌주 국무총리 등 저명 정치인들이 정계를

은 하지 않나..." 하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견에 불과하며 현실과는 거리고 멀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독일 가정연구가 및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령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하랄드 베르테크 아버지연구가에 의하면 원머리가 희끗희끗한 고령의 아버지는 청·장년의 아버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식에게 바칠 뿐 아니라 출세의 욕망이나 스트레스가 적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자식에게 쏟아붓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이는 아이의 정서안정에 더할 수 없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다. 놀그막에 낳은 아이는 아버지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유전인자도 물려받게 되어 영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위험요소 또한 만만한 게 아니다. 프랑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버지가 39세 이상일 경우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3배 정도 증가한다.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의 손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아기를리너에서는 정액 기부자 연령을 34세로 제한하고 있다.

어렸을 전문가들은 독일의 이혼율이 높고(대도시 경우 3쌍에 1쌍 꼴) 가정의 형태 및 구조가 복잡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령에 신생아를 보는 남성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양한주(프랑크푸르트 교포신문 기자)

조선 고서적 모아 책 발간

백커스-김영자 박사가 엮은 『조선왕국이야기』

독일인 및 재독 2세 한국어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교재를 직접 쓰기도 한 백커스-김영자 박사(60)가 『조선왕국 이야기』(서문당)라는 흥미로운 책을 내

놓아 재독교포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고서, 고문, 신문, 잡지기사 등에서 발췌·편역한 것으로 9개의 독일인이 쓴 한국전문기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 전공인 백커스-김박사가 고문들을 발굴해서 편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20년의 긴 세월이 담겨 있다.

고서 수집광인 백커스-김박사가 20여 년 전부터 독일 및 유럽에서 출판된 한국의 관서 고서 및 고문을 모으게 된 것은 남편이 체코여행에서 우연히 발견한 『Korea』(1905년 독일 펴낸 출판)라는 고서와 인연을 맺으면서부터였다. 사학가로서 이 책의 사적인 가치를 금방 알아차린 백커스-김박사는 고딕 인쇄체로 되어 눈이 아플 정도로 읽기 힘든데도 '마파람에 게논 감추듯' 단숨에 읽어버렸다고 한다. '유럽인이 보고, 겪어 유럽 사회에 알린 조선'이라는 테마는 사학자인 그에게도 그 때까지는 신천지였다. 생소하면서도 깊은 인식의 기쁨은 사학자의 본능을 일깨우기 충분했다고. 그때부터 '고서사냥'에 열을 올리기 시작, 독일 내 유명한 고서점은 다 뒤져서 고서를 모아왔다.

조선에 역류되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네덜란드인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1653)를 제외하고는 모두 188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유럽, 특히 독일에서 발간된 것들이다. 『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조선왕국 이야기』라는 제목이 단적으로 말해 주듯이 구한말을 경험한 이방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옛 모습과 일상 내지는 의식이 이 책의 내용이다.



해적 바르테의 글
『오두막바다』가
조선의 서민인간과
함께 실린
(물웅이 이고 가는 여인)

이 책에 실린 전문가들의 발표 시기가 거의 동일하여 저자들의 상이한 시각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 흥미진진하다. 언어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럽인들이 왜곡되게 본 일면도 있어 요즘 외국에 비쳐지는 한국·한국인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도 발동시킨다. 예를 들어 유교문화와 무속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제사를 보고 애송 씨드는 "서울에서만도 수천의 신을 모시고 있는데...유령, 도깨비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 많은 신들은 이 나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산다"고 보도하고 있어 씁쓸한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또 가사에 파묻혀 일손을 놓지 못하는 조선여인들이 강가에서 빨래하는 정경이 담긴 사진 등 일상을 담은 사진도 많이 눈에 띈다. 해썬 바르텍은 조선의 여인들에 관해 "성실, 온순, 부지런하나 천시를 받는다"고 적고 있다. "조선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그 집 노예와 다름이 없고 그저 결혼식 때나 호사를 할 정도"라는 것.

백커스-김박사는 전남 구례 출생해서 65년 독일 유학길에 올랐고 현재는 레겐스부르크대학 한국어 강사, 레겐스부르크시 관광부 자문위원으로 있다. (서문당: 02-322-4916~8)

양한주

미국연예인들

아프간 여성들 위해 나섰다

우피 골드버그, 라이오넬 리치 등 참여

미국 할리우드도 아프가니스탄여성들을 위해 나섰다. 1996년 아프가니스탄의 최고반군 세력인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자 할리우드의 여성연예인들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

고 나선 것.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예인들은 영화배우 우피 골드버그, 릴리 톨린, 캔디스 버겐, 줄리 앤드류스, 르네 젤위거, 가수 폴라 압돌 등. 그러나 가수 라이오넬 리치 등 남성들도 관심이 높다.

미국 연예인 중에는 정치문제에 활발히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독실한 불교신자이며 티벳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배우 리처드 기어가 대표적인 경우. 배우 수전 서랜든도 최근 뉴욕시 경찰이 흑인남성을 무고하 살해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 문제가 인기 주제로 부각된 것은 <페미니스트 마조리티(Feminist Majority)> 회장 메이비스 레노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인기 토크쇼 진행자 제이 레노의 아내인 그녀는 개인재산 10만 달러를 기부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지난 3월 초에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물론 미국 연예계에 때아닌 아프가니스탄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관계자는 물론 일부 인권문제 전문가들도 지나치게 단순하고 편향된 시각을 지적하고 있다. 80년대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과 소련군 간의 전투에서 미국이 반군측을 지원했다는 복잡한 외교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탈레반의 정책을 서방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가보면 여성에 대한 구타, 교육기회 및 의료혜택 박탈 등이 서방세계에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메이비스 레노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인터뷰에서 "세계 곳곳에서 여성인권이 진정으로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 하나라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1]

오애리(문화일보 기자)

모든 부당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월간 「인물과 사상」은 성·지역·학력·장애인 차별 등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차별과 싸웁니다.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으며 이에 침묵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을 비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구체적인 차별을 외면하면서 추상적인 사회정의의 역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인물과 사상」을 정기 구독하시면, 서점 구입시(4천원) 보다 싼 가격 (1권당 2천5백원)으로 매달 서점에 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 3만원, 구독문의 02) 471-4439

조선일보 공화국

조선일보는 정의로운 용정이 없는 한국 사회의 풍토가 낳은 산물이다. 앞으로도 조선일보의 변명은 계속될 것이다. 일반 대중은 '소비 동물'로 전락한 가운데 신문의 이념이나 도덕성을 따지지 않는다. 그냥 '불거리'만 있으면 좋다는 거다. 나름대로 의식이 좀 있다는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조차 언론플레이와 개인플레이에만 미쳐 있다. 그들의 의식과 가치에 반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신문을 용정할 길이 원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는 '조선일보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 머리말: 「정의로운 용정이 없는 사회」에서 -

· 감준만 외 지음 · 값 9,000원

인물과사상사

전화 471-4439 팩스 474-1413 우편 134-600 서울 강동 우체국 사서함 164호
홈페이지 <http://www.inmul.co.kr> e-mail: PRONIDEA@hanet.net

여성 노동자, 노동운동과의 불행한 동거?

상단에 박혀 있는 굵직한 글자가 이 포스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이 포스터에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로 보입니까?

한국 여성노동자들은 1999년 5월 1일 노동절을 매우 복잡한 심경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물론 1886년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면서 산화해 간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이라는 유래 그 자체로 노동절은 이미 의미가 깊지만, 한국 여성노동자들에게 올 노동절은 특히 유례 없이 가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기념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지난 3월 여성특위의 여성차별 신고사례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여성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은 고용 문제입니다(전체 신고 건수의 44%). 한국여성노동자 회의에 따르면, “회사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 여직원들을 바꿔야겠으니 다음달부터 나오지 마시오”와 같은 노골적인 성차별이 뻔뻔하게 벌어지고 있다더군요. 서울의 한 시중은행은 작년 9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대상자 기준으로 아예 ‘부부가 동시에 근무하는 사람 중 1인’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다고 하구요. 이는 IMF 이후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구조조정’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사람 자르기’ 위주로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특히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칼날이 휘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사내부부를 대상으로 감원을 하면서 전체 감원인원 중 90%에 달하는 687명의 여성을 퇴직시켜 노동부의 경고를 받기도 하였고, 기존 여성에 대한 퇴직 강요, 사내부부 우선 정리해고, 강제 계약직 전환 등 부당노동행위가 횡

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와중에 생리휴가는커녕 출산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오히려 출산휴가를 빌미로 한 해고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이런 여성들의 불안을 이용한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살맛이 나질 않네요. 여성들이야말로 IMF 최대의 희생양인 셈입니다.

‘민주노총 포스터 사건’

더욱 비참한 것은 이런 상황이 같은 노동자인 남성들의 목인 속에, 심지어 ‘우리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본격적인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작년 여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의 경우, 결국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조합원을 정리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기로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합의했었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노동조합마저 등을 돌린다면 여성노동자들은 과연 어떤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여성들이 많은 사업장에서조차 대부분의 간부직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반여성성’은 누차 지적되어온 바이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노동조합이 남성노동자들 ‘만’의 조직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인한 것일 뿐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결코 낙관적인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올 노동절에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이던 때, 신문기사에 오르내릴 만큼—주로 보수적인 신문들이 좋아라 기사화했지만—물의를 빚었던 ‘민주노총 포스터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포스터를 잘 보십시오. 여기 ‘고용안정’이라고 쓰인 선명한 붉은 조끼를 입은 한 사람이, 아마도 출근하느라, 가족의 배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편에서 흐릿하게 배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차림새로 보아 아마도 출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상단에 박혀 있는 굵직한 글자가 이 포스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이 포스터에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로 보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노동을 위해’ 출근하는 사람, 남성노동자 ‘만’을 의미합니다.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기 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의 잔인함은, 여성의 존재를 무시함으로 인해 이 포스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포스터에 따르면 희망은 역시 ‘노동을 위해’ 출근하는 사람, 남성노동자에게서 ‘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엄혹한 시절에 맞서는 것은 남성노동자들 ‘만’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 여성해고자, 여성실업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셈입니다.

결국 이 포스터는 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야 말았습니다. PC통신 진보네트워크에 개설되어 있는 민

주노총 방에서뿐 아니라 하이텔·나우누리 등 상업망의 여성 관련 게시판에는 여러 여성단체, 여학생단체, (드물지만) 총학생회의 입장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 ‘배포중단/ 재제작’이라는 말머리를 단 개인들의 자발적인 반대서명 시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싸우고 싶어도 ‘조직’이 없다

이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민주노총이 4월 20일에 올린 해명글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글에서 ‘투쟁의지가 있는 평균적인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실제 겪을 법한 장면을 ‘현실감 있게’ 구성하고자 했다면, “싸우러 나가는 아내를 남편이 배웅하는 모습이나, 나란히 싸우러 가는 부모를 아이들이 배웅하는 모습은 ‘현실’에서 흔한 모습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파문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오히려 여성노동자가 민주노총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이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문제를 처

음 제기한 한 여성 노동운동가는 “IMF 이후 해고되어서, 싸우고 싶어도 조직이 없어서, 노조가 그들의 싸움에 동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의 예봉을 꺾어서, 당당하게 고용안정이라는 붉은 조끼를 구입해 입고 싸우지도 못하는, 남성보다도 더 많은 여성실업자들이 포스터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민주노총이 고려해야 하는 ‘평균적인’ 대상이었을 거예요. 수치적인 평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취지상 가장 소외된 자들과 더불어 싸워야 마땅한 조직이 아니던가요. 그



민주노총이 세계노동절 10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만든 포스터

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배제하다니요. 그것도 자신들이 반대하는 바로 그 자본의 논리대로 말이예요. 말하자면, "여성은 집으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은 도무지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현실이란 또 무엇일까요? 현대자

동차에서 해고대상이 된 식당 아주머니의 70%는 이미 가게를 책임지는 가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IMF 이후 여성들은 해고된 남편 대신 가게를 책임지는 '바깥사람'의 역할을 더욱 요구받고 있지요. 구성애씨까지 동원된 광고와 토크쇼, 각종 언론에서 '남편기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여성이 현실적인 '집사람'으로서 희생할 것을 목소리 높여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동안에도 말이예요.

남성중심, 대기업중심 노조

아니, 이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노동'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포스터에서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부과된 노동—가사, 양육—역시 노동입니다. 재생산노동이라고도 하지요. 이 재생산노동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먹고, 입고, 그리고 자야 합니다. '노동'을 위해서는 더욱 말이예요. 그러나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이 재생산노동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로 치장되면서도, 사실은 '출근하는' 생산노동에 비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건에서도 노동조합과 회사는, '식당'이라는 영역이, 그것을 맡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가치가 덜한 노동이고 가치가 덜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생산노동을 남성들만의 역할로 상정하면서 여성을 배제해 온 과정은, 재생산노동을 여성들만의 영역으로 배치해 온 역

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사회 영역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나뉘고 남성과 여성에게 할당되고 무엇보다도 각각에 가치 있는 것과 아닌 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가부장제와 자본의 불순한 결합에서 비롯된 '사건'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구조가 오늘날 여성들을 그들의 자리로부터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여성해고, 여성실업,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악화의 주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로부터 거슬러올라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성노동자들은 분명히 사회에서도 배제되고 있고, 동지들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운동 안에서 노동운동 안에서 그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왔죠. 싸우고 일하는 노동자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여성의 모습이 여성운동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저는 한국 여성운동에서 여성이 다분히 피해자의 상 위주로 상징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진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노동운동 안에서 여성노동자는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생산 노동'의 영역에 버려져 있는 채로 말이죠. 이 상황을 내버려두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뉴스』 52호 <http://picis.jinbo.net>에 소개된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전략들

—국가, 자본, 가부장제에 맞서기」라는 논문에서 암리타 차치, 레넌 피터이라는 여성학자는 여성노동자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때로는 소수 인종으로서, 또 때로는 소수 성적 존재로서—양성에, 혹은 레즈비언이겠지요?—혹은 제3세계 존재로서 여성, 특히 여성노동자는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희망은 있다

까다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분명한 것은 요즘과 같이 노골화되고 있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억압'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복잡한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노동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규직에 비해 '임시직'인 상태에서 임시직이나 취업상태에 비해 '비정규직'인 상태로서의 실업이 존재하지 않듯이, 무엇이 공식적인 노동이고 무엇이 비공식적인 노동인지에 관한 경계도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계약직·파트타임·파견근로, 그리고 실업이 노동운동에서 더 이상 부차적인 주제로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노동의 구분에 대한 페미니즘의 오래된 비판이 구체적인 실효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포스터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즉 "늘 같이 싸워야 하고 그래야 크게 이긴다고 해놓고 정작 싸울 때는 그 내용도 형식도 관심도 책임도 오로지 남성, 대기업, 정규직인 우리 운동은 노조조직률 12%와 여성노조 조직률 5.6%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귀를 기울이는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운동 안에 여성의 입장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각계각층 여성들뿐 아니라 여성노동자 스스로 목소리를 높인 결과, 결국 민주노총은 노동절

하루 전날, 포스터에 대하여 사과했습니다. '우리들의 조직'을 표방하고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딘 여성노조도, 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당당하고 착실한 걸음걸음이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해 보입니다. 모든 여성동지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투쟁!

민주노총의 사과문

시민의 소리(KCTU 32) 「1550/1521」
제 목: 「민주노총」 포스터에 대한 공식입장
올린이: 민주노총(KCTU) 99.04.30 13:23:09 조
회: 29

노동절 포스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세계노동절 109주년 기념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포스터는 노동절대회 최대동원을 주목적으로 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여성문제를 둘러싼 제작 실무진의 불철저한 인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를 차별한 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향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에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 총력투쟁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1999.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한 거미

강한 거미는, 한국 여성학과 여성운동이 이 사회 모든 분야의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미치는 급진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과 조건을 고민하는 '보다 많은' 페미니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거미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단의 활동가들과 더불어 고민하고, 공부하고, 쓰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 큰 영광!

에코페미니스트 대축제 2008!



《농촌여성축제》기간중에 공연한 화순군의 《발노래》 공연 장면

지난 4월 2~3일 이틀간 전라남도 영광에서는

‘여성·미래·생명공동체’라는 이름으로

‘99 농촌여성문화축제가 열렸다.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자리 잡은 영광은 원래 농사와 고기잡이로 소박한 삶을 꾸려가던 전형적인 시골마을로, 원불교의 창립자인 소태산 대종사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평화롭던 마을에는 인류 재앙의 상징인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여섯 동째 건설되고 있다. 동그란 고치 모양의 거대한 발전소가 하나만 들어서도 심리 밖까지 인적이 끊겨버리는 유럽에 비해, 바다와 육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지역에서는 인간과 핵에너지도 사이 좋게 어우러져, 체르노빌이 될 때 되더라도 그 날까지는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여섯 동의 발전소와 비비대며 함께 살아가는 기상천외한 곳이다.

이러한 현장을 ‘생태여성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또 다른 식의 기상천외한 해결을 모색하는 원불교 교무 출신 에코페미니스트 하정남은, 유럽과 북미 연구자들이 결론짓는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 ‘땅의 진정한 소유주, 원주민 여성’들과 머리와 가슴을 함께 모아 그 희망을 실현할 꿈을 일구고 있다. 물론 이 꿈 같은 사업에는 도시 출신 자매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사랑받는 새 시대의 남자자매(⇒여자형제)들도 언제나 대환영이다.

가부장 권력제도의 가장 포악한 얼굴로 상징되는 원자력 에너지발전, 이를 극복할 그 날을 그리며, 나는 10년 후에 있을 법한 축제를 상상해서 가상 리포트를 작성하였다. 스위스의 산골마을 다보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온 세계 부자 남성들의 잔치 ‘세계경제포럼’에 우연히 참석했던 기억에 빚대, 영광 여성문화축제의 10년 후를 나는 이렇게 꿈꾸고 있다.

한 농담 2,000만 원이 넘는 참가 비용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가서 안달들을 하는 ‘지구’를 죽이는 아버지들의 잔치, 세계경제포럼에 대응하는 잔치를 열어 문명의 축을 뒤집어놓는다. ‘지구’를 살리는 여자들이 벌이는 생명의 잔치 ‘에코페미니스트 페스티벌’! (호흡기 환자들의 휴양지인 산골마을 다보스는 열흘간의 행사로 일 년을 우아하게 먹고 산다.)

공포의 원자력 발전소를 생태 여성문명의 요람으로

그녀가 해냈다. 10년 전 그녀의 작은 꿈이 큰 현실로 이루어졌다. 아름다운 서해바다의 청취를 탐해 함부로 난입한 외계인의 식민기지처럼 불안하고 섬뜩했던 여섯 동의 발전소가, 그 동안 간헐하던 하얀 고치의 겹질을 깨고 새 세상을 만난 나비처럼 생명의 궁(宮)으로 변모

하였다. 공포의 원자력 대신 평화의 여성 에너지를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젓은 고장과 수천만 달러씩 미국에 바쳐야 하는 막대한 수선비, 늘어나는 피해자 보상 등의 끝없는 악순환. 그래서 실질적인 운행이 중단된 지는 벌써 다섯 해. 하정남 교무는, 보는 이의 마음을 심란케 하던 역사의 죄물을 재활용하면서, 핵에너지의 공포를 마감하고 여성 에너지의 시대가 개막되는 진정한 후천개벽이 이루어졌음을 온 세계에 공표하였다.

상극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생의 시대를 열어

원자력 발전소가 생명의 요람으로 다시 태어난 올해 행사는 ‘지구 어머니 만세’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모든 실내행사는 땀 흘린 고치 모양의 원자력 발전소 여섯 동을 개축한 건축물에서 진행되었다. 3년 넘게 방치된 폐허를 쓰레기 없이 개조한 건축 기법은 고유의 전통양식과 현대의 절묘한 만남으로, 행사에 참가한 세계 건축문화 회원들로부터 21세기 생태여성 문명의 이상을 온전히 실현한 걸작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1호궁(가이아 평화회의), 2호궁(여자가 하는 과학), 3호궁(어와 동등 내 자궁), 4호궁(웃는 여자가 아름답다), 5호궁(노는 여자가 아름답다), 6호궁(이제 다 뒤집었다)라는 여섯 궁의 명명식에는, 국제 반핵 물리



영광 《농촌여성문화축제》를 주도했던 하정남 교무

학회 회장인 인도의 반다나 쉬바, 여성과학회 공동대표인 이블린 폭스 켈러와 린 마굴리스,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 로즈마리 류터, 그리고 유력한 차기 교황 후보로 지목되는 김현옥 포동포동 미리암 수녀 등 새 문명을 이끄는 지구 정상급의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여 생태여성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시작은 소박하였다. 먹거리와 전

통문화를 생산하는 주체인 농촌여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해 보자. 그래서 지역 여성들을 중심으로, 원불교의 성지이기도 한 전남 영광의 길동리에 여성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살맛 나는 일이 하도 없는 판이니, 책도 읽고 도시여자들처럼 모여 연구도 한담게 머신이 싶어, 배우기 좋아하는 여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매맞는 여자의 수치심은 매맞을 짓을 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손바릇 고약한 놈 바릇을 못 고친 데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는 세상의 이치를 따져볼 적에 집안의 어머니처럼 가장 근원적인 물을 달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또한 식량위기의 문제를 살피면서, 농촌과 도시는 나무와 흙처럼 여자와 남자처럼 떨어져 살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혀냈다. 그렇게 삼 년 동안 공부한 힘을 모아 도시여성을 초대하는 조그만 잔치를 연 것이다.

생태여성 문명의 연원은 인도 시골마을의 칠포 운동

1999년 봄, 농촌과 여성이라는 화두로 초출하게 첫 잔치를 치른 후 해마다 거듭나기를 열 차례, 2008년 올해로 꼭 십 년째인 영광 에코페미니스트 축제. 때는 바야흐로 문명의 대전환기라. “이 분들이 주역이 되어 죽어가는 우리 몸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도탄에 빠진 지역문화를 회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10년 전을 회고하는 하정남 교무의 눈에 깊은 감



화가 서린다.

행사중 줄곧 하교무를 뒤에서 끌어안고 '칠코 만 세!'를 외치던 할머니는 인도에서 오신 바츠나 데 비였음이 밝혀졌다. 그녀는 1977년 마을여인들을 이끌고 공무원으로 일하던 남편의 활동을 지지하는 저항운동을 벌였는데, 현장에서

역사무당 김경한의 '살롱이' 녹취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서사시로 발표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모여든 숲속에서 마을 춘장을 붙들고 건설 소장이 하는 말,

"별목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잖소, 대체 어떻게 된 거요?"

그러자 춘장이 답하기를,

"나리, 이제 모든 게 변했답니다. 오늘 제가 나리께 나

무를 배라고 하면, 저는 집에서 밥 한 술도 못 얻어먹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마을의 우두머리가 아니오?"

화가 난 소장은 여자들에게도 소리질렀다.

"무식한 아낙들아! 숲이 무엇지 알아? 송진과 목재 그리고 외화란 말야!"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숲이 무엇지 아십니까! 숲은 우리 어머니, 흙과 물과 깨끗한 공기입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 숲에 와서 풀과 열매를 모아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무에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21세기의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산골마을의 '칠코 운동', 즉 나무 끌어안기 운동을 시작했던 데비 할머니는 죽어서 다시 몸을 받아 이 마을에 태어나기를 기원한다며, 여성에너지발전소 생명의 여신상 앞에 헌화하였다.

생태여성 문명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 영광

이제 영광의 생태여성 축제는 온 세계 지구의 봄을 알리는 행사로 뿌리를 내려, 행사가 열리지 않는 기간

에도 이 뜻깊은 장소를 방문하려는 관광객의 문의가 특히 외국에서부터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조용한 아침의 나라 사람들이 누려온 안빈낙도의 정신을 전수하고자, 길룡리 생태마을 여성 지도자들은 창포 물로 남의 머리 감겨주기, 원손으로 굴비 가시 발라내고 남의 입에 넣어주기 등 외국인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인 공동체 문화 나누기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영광 생태여성 문명센터 UN의 업무 인수할 수도

한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을 자랑한다 큰소리 치던 독일의 원전들이 하나 둘 폐쇄되기 시작할 무렵, 대책없이 집을 비우고 방황하던 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담당자들도 새로운 시대의 유망 직종인 영성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사오 년 전부터 길룡리 쪽으로 이주해 온 전직 원전 기술자들은, 여성연구소에서 개설한 남자자매 재취업 훈련을 통해 첨단영성과 감성 상품을 개발하는 주역으로 등장하였고, 이 지역은 최근 '생태여성밸리'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는 기이한 현상도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생태여성밸리라는 이름은,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의 언론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특집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80년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빗대 붙인 이름일 뿐"이라면서, 아직도 기술 만능주의 유행을 벗어

떨치지 못한 그들의 용어 남발이 썩 기분 좋은 건 아니라고 부들거렸다.

한편 지난해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인 김대중과 김정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하정남 교무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명이 발표된 직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은 그녀의 홍보담당 모니카 르윈스키를 통해 '새 숲은 새 부대에!'라는 제목의 12쪽 짜리 절절한 서한을 발송하였다.

힐러리의 입장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영광의 생태여성문명센터가 UN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라'는 지구 시민의 요구가 인터넷상에 빗발쳤는데, 이튿날 정오를 기해 각국의 주요 도시마다 인터넷 통신이 두절되는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항의하는 시민들은 도시별로 시가행진을 벌이면서, 지구화합의 시대 정신을 이해 못하는 미국방부와 CIA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소행이라고 규탄하였다.

예상치 못한 분규에 대해 하정남 교무는, 귀여운 악동들의 장난일 뿐이니 크게 나무라지 말자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생태여성문명센터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권력이앙의 형태가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여성에너지의 활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지구문명의 정책기구가 될 수 있는 조직구상을 하고 있다"고 짧게 밝혔다. ■

Cafe' 논지당은 17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던 이야기, 아름다운 추억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연세대 ~ 신촌로타리 중간 (형제갈비 앞) 논지당 392-9527



김재희

■ 편집위원 김재희는 영성과 감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과학의 소개서

『신과학 산책』(김영사)의 저자.

독일의 어느 연구소에서 반생태적 실험에 몰두한 불성실한 남편과 바로 이 곳 영광에서 반핵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아내 사이의 국제전화를 소재로 에코페미니즘 테마소설 『트라무마 X』를 창간호에 발표하였고, 에코페미니즘의 감성과 영성을 소개하는 『가이아의 편지』를 연재하였다. 과학자와 수도자들의 대화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범양사 출판부)를 번역했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로 낚아채고 젖과 꿀을 주시는 하느님 어머니를 기리는 명상의 책 『녹색성서』(가톨릭출판사)를 내기도 했다.

동성애, 조선시대 외로운 여인들의 불우한 연애



조선시대에 동성애를 했다 하여
장차 국모가 될 지위마저 잃은 여인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세종의 며느리였던 세자빈 봉씨.

'사랑'에 대한 상식적이고도 일반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대개는 남녀 즉 이성간의 사랑을 우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남녀간의 사랑과 그에 따르는 결혼 및 성관계를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흔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아닌 동성 사이에도 애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고는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역사상 어느 사회든 정상적이라고 규정되는 사랑이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일탈된 사랑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탈된 것이 비정상적으로 규정되는 순간 그에 따른 탄압과 규제가 따른다. 예컨대 여기서 살펴보려는 동성애도 남녀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 관계로 규정되어 죄악화된 성관계의 일종이다.

금지된 사랑 동성애

역사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에서 동성애는 죄악으로 그리고 의학적인 질병으로 취급되어 19세기 후반까지 사회적 탄압을 받았다. 예컨대 1861년까지 영국에서 동성애는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였으며, 독일에서도 형법 제175조에 남성들의 동성애 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치료자들은 동성애자의 성적 경향성을 바꾸고자 약물치료, 혐오요법, 전기충격, 거세 및 자궁절제 같은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극악한 성범죄의 일종으로 취급된 동성애가 후천적 변태성행위가 아닌, 날 때부터 그러한 선천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의학이 발달하면서부터이다. 더욱이 동성애, 즉 'homo sexual'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도 헝가리 의사 벤젤트가 처음 의학용어로 사용한 1869년부터였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에서 동성애가 처음부터 죄악화된 것은 물론 아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로마시대에 비교적 자유로운 성을 누렸는데, 로마황제들이 동성애를 즐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시기 동성애는 지금처럼 죄악화된 성관계는 아니었다.

또한 고대그리스 문화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파이데라스티아(paidēraistia)', 즉 '남색'이란 단어도 지금처럼 변태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스·로마시대인들은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음란한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 유명한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동성애자였다.

고대그리스·로마시대를 풍미한 동성애가 죄악시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였다. 『성경』은 동성애를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인식하여 심지어 사형을 언급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어느 면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감과 종교적 죄악감은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더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의 역사는 사실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고대사회에서 좀더 죄의식없이 동성애가 퍼졌을 법하다.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미소년에 대한 찬미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신라시대 '화랑'이나 '원화' 같은 집단에서 우정을 뛰어넘는 동성애적 사랑이 존재했을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려 공민왕이 말년에 만들었던 미소년집단 '자제위'도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면이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이전에는 동성애에 대해 금기시하

는 면이 아무래도 약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건강한 성관계로 인식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500년전 궁궐에선...

유교적 풍속교화를 외쳤던 조선시대에도 동성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 시대보다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자료에서는 노골적인 동성애를 벌인 사례들이 거의 없어 실상을 파악하기란 어려운데,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된 동성애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개가금지와 같이 여성 정절이 부각되다 보니 성적 억압에 따른 후천적인 동성애에 빠질 개연성이 많았다. 말하자면, 과부나 궁녀같이 일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야 할 신세에 처한 여성들이 풀지 못한 성욕발산의 한 방편으로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특히 궁녀들은 견습나인을 마치고 관례를 치르고 나면 따로 방을 꾸미고 세간을 장만하여 가정을 가졌는데, 이때 '아이' 또는 '각심이'라 부르는 하녀나 나



한말의 상궁

인들과 동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동거 나인들 사이에 동성연애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에 궁녀들이 '대식(對食)'이나 엉덩이에 '봉(朋)'자를 문신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것은 성적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렇듯 궁중궁궐에 갇혀 지내는 여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성애는 외로운 여심의 탈출구이기도 했다. 폐쇄된 궁중에서 자칫하면 청춘을 덧없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궁녀들 사이에 성적인 일탈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각되면 사형까지 아니지만 곤장 100대를 맞을 각오를 해야 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동성애를 했다 하여 장차 국모가 될 지위마저 잃은 여인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문종의 부인이었던 세자빈 봉씨로서 사건의 내막을 들추어보면 이렇하다.

세자빈 봉씨는 문종이 세자시절 맞이한 둘째 부인이었다. 문종의 첫번째 부인은 요상한 방술사건으로 이혼당하여 폐출되었다.

문종이 첫 부인과 혼례를 치른 나이는 14살이다. 후사를 중요시하다 보니 왕실엔 특히 조혼이 많았고 문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문종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부인과 금실이 좋지 않았고, 이때문에 세자빈의 원망을 받았다. 문종은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지, 아니면 세자빈들이 별 매력 없었는지 첫째 부인에 이어 둘째 부인인 봉씨마저 멀리했다. 둘째 부인마저 멀리한 문종은 일찍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다. 이를 걱정한 세종이 세자인 문종을 타이르고 후사를 빨리 두도록 충고하였으나 모두 허사였다.

마침내 세종은 신하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본부인인 봉씨를 두고 세 명의 후궁을 더 맞아들이도록 했다. 세 명의 후궁이 들어오자 불안감을 느낀 봉씨는 이 때부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임신했다고 거

짓말을 하기도 하고 시녀들이 사용하는 변소에 가서 외간 사람들이 용변보는 것을 벽 틈으로 몰래 보기도 했다. 심지어는, 궁궐 여종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기도 했다.

더욱이 외로운 세자빈 봉씨는 궁궐 여종인 소쌍을 사랑하여 항상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사실은 온 궁궐 안에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빈에서 소쌍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한다'며 궁녀들이 소근했던 것이다. 이 소문은 급기야 세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어느날 소쌍이 궁궐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세자가 소쌍에게 다가가 물었다.

"네가 정말 세자빈과 같이 자느냐?"

"그러합니다."

깜짝 놀란 소쌍이 그만 사실대로 말하고 말았다.

그러나 세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후에도 봉씨는 여전히 소쌍을 사랑하여 잠시라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봉씨는 질투심이 매우 강한 여성이었다. 그 질투심은 동성애 대상인 여종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루는 소쌍이 여종 단지와 서로 좋아하여 함께 자기도 하였는데, 봉씨가 여종을 시켜 항상 뒤를 감시하도록 하고 단지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봉씨는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시종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이불과 베개를 거두게 했는데, 소쌍과 함께 동침한 이후로는 시종드는 여종을 시키지 아니하고 손수 이불과 베개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들이 궁중에서 자못 떠돌아다니며 마침내 시아버지 세종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소문을 전해들은 세종은 며느리 봉씨와 소쌍을 불

미스코리아대회를 폭파하라

울 불 여성계 최대 사건.

한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을 있게 한 바로 그 소설.

김신영작 장편소설

신국판/값 7,800원/도서출판 이프(557-7941)

러 그 사실을 추궁했다.

"너희들이 정말 함께 동침을 했느냐?"

"지난해 동짓날에 세자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계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에서 옥박지르므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에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시녀와 종비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궁중에 금령을 엄하게 세워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곤장을 때리도록 하였는데, 세자빈이 이러한 풍습을 본받아 음탕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다시 서인으로, 죽음으로

차마 믿기지 않았던 세종은 봉씨에게 다시 사실여부를 물었다.

"소쌍의 말이 사실이다나?"

"아닙니다. 소쌍이 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여,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햇바닥을 뽐냈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의 하는 짓이오며 저는 처음부터 동숙한 일이 없었습니다."

"네가 그들이 그러한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세종은 동성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며느리를

나무랐다.

사실, 세종은 며느리 봉씨의 잘못을 대체로 눈감아 주려는 너그러운 시아버지였다. 그러나 봉씨가 궁궐 여종인 소쌍과 동성애를 벌이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었다. 봉씨는 마침내 폐서인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봉씨가 동성애로 궁중에서 쫓겨나자 이 때문에 온 밀히 동성애를 즐기던 뱃물부부 궁녀들도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 소현왕후는 이 일을 계기로 궁중에서의 음행을 살살이 조사하여 없애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폐세자빈 봉씨가 친정집에 이르자 그녀의 아버지 봉여는 자기 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나이 예순, 그때까지 고위관직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딸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딸 탓에 오히려 패가망신을 하게 된 것이다.

세종18년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 10월 어느날, 봉여는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 딸의 목에 감았다.

"자, 목을 매달아라. 폐빈 김씨처럼 세자빈 신분으로 죽는 북마저도 너는 타고나지 못하였구나. 이제 더럽고 요사스런 한낱 계집인 네 눈 앞에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저 세상에서는 부디 잘 살아라. 다시 태어날 때는 사내가 되어서 말이나라!"

양반의 딸로 태어나 세자빈에까지 올랐던 봉씨는 한 지아비만을 바라보며 궁중생활을 해야 하는 운명을 이렇게 잡고 말았다. ■

정성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정서각 연구.

『한국사 101장면』

『조선의 심판』 저자.



새로하는 성교육 4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새로하는 성교육 순서

1. 자신의 몸을 알아! 얼굴을 보듯 성기를 보자!
2. 여성의 성기는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3. 자기의 성적인리듬 알기
4.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

중 고등학교 시절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하이틴로맨스 소설에 빠져들었던 경험은 아마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흥분 이상이었다는 사실도 아마 알 것이다.

그 로맨스소설에는 대부분 미끈하고 잘 생긴, 게다가 부유한 남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수많은 여성들을 사로잡은 바람둥이이기도 하지만 마침내 우연히 만난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주인공에게 순정을 다 바치고 만다. 그리고 보면 얼마 전 종영한 <청춘의 덫>과 같은 맥락이다. 그 잘 생긴 남자들은 주인공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키스를 퍼붓고는 강렬하게 그녀를 포옹하고 그리고 '뜨거운 것'을 그녀 '안으로 밀어넣는다.' 그 농도가 제법 짙어져 이젠 웬만한 포르노소설과 같은 수준이다.

당신도 이런 소설에서처럼 성적인 상상이나 공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또 성관계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상상해 본 적은 없는가. 혹 그런 상상을 하다가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여성의 성적인 판타지(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킨제이, 워델, 퍼머로이와 클라이드 마틴의 「여성의 성적인 행동」이란 보고서를 보면 2/3 정도의 여성이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성적 판타지가 구체적인 장면과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다. 『비밀의 화원(The Secret Garden)』의 낸시 프라이데이는 판타지를 말할 때 여성의 성기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는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잘 생긴 구리빛의 세일즈맨이 진공청소기를 들고 집에 찾아와 상품을 보여준다. 신경정신과에서 짙은 눈썹의 여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가죽끈으로 묶어 성적인 엑스터시 상태로 자극한다. 사랑스런 개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를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혀로 핥는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은 다양한 종류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판타지를 위한 조건

섹스가 판타지를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육체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섹스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만큼 섹스는 정신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의 정신은 성적인 욕구와 충돌할 때도 있다. 여성들은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 즉 내일 해야 할 일들, 직장 문제, 가족관계, 경제적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다. 또 섹스에 몰입하려 해도 아기가 갑작스럽게 울거나 열방에서 나는 누군가의 기침소리, 침대아이들의 늦은 귀가 등으로 호트러질 수도 있다.

판타지를 통해 성적인 활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피곤하거나 화나 있을 때는 판타지를 꿈꾸는 것이 어려

울 수도 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의 경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흥분에 빠져 판타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판타지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적으로 억압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한다.

여성들은 섹스할 때뿐만 아니라 자위행위로도 판타지를 즐긴다. 여성들이 자위행위를 통해 판타지를 갖는 것은 오히려 성관계를 할 때보다 쉬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섹스를 할 때 상대방의 성적인 요구들이 그녀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또 섹스를 성급하게 서두르고 클리토리스를 제대로 자극하지 못하면 성적인 상상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판타지를 갖기를 원하지만 섹스를 하는 동안 상대방이 너무 빠르게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여성은 남성의 즐거움을 위해 수동적인 섹스 상대로 이용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 A는 섹스를 하는 동안에 쇼핑목록을 생각하거나 다음 날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도 한다. 그녀는 남편이 마분해하고 꿀을 잘 내서 지루하기까지 하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말을 하고 좀더 만져주고 좀더 오래하기를 원한다. B는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판능적인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지만 그녀의 파트너는 급하게 흥분하고 삼입하며 곧바로 사정해 버린 후 더 이상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성적인 욕망에 빠져 상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 여성들은 판타지를 일부러 회피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판타지는 완전한 자기 기만이고 파트너에게는 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C는 "나는 한 번도 공상을 해본 적이 없다. 공상을 하면 내 남편에게 불성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여성은 자신의 파트너가 다른 여자를 상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꿈을 꾸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과 섹스를 할 때 나



는 그 사람과 하는 것이지 내 머리 속의 판타지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현실과 판타지의 관계

물론 어떤 판타지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섹스에 몰입하는 것을 어렵게하기도 하고 성적 파트너가 하려고 하는 시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 어떤 여성은, 그녀의 상대가 거칠고 미숙하고 어리석거나 또는 여성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적인 느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세일즈맨에 대한 상상을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여성은 지루하고 심란한 현실을 잊어보려고 판타지에 매달릴 지도 모른다. 성적 파트너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결혼을 계속 유지해 보려는 많은 여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판타지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판타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감추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또 현실의 조건을 바꿔서 관계의 질을 높이거나 사랑의 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한 여성은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잊는데 판타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깊은 숲속에서 폭신한 이끼 위에 누워 있는 것을 상상하거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깔리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햇빛이 빛나

는 들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판타지를 꿈꾼다.

판타지가 종종 이용된다고 해서 당신의 성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든 100% 짜릿하고 열정적인 섹스를 언제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종의 마취제로 판타지를 이용하는 것과 현실을 더욱 풍부하게 하려고 판타지를 이용하는 것 사이의 경계선은 애매모호하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어디에서 이 경계선을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흥미진진한 판타지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 판타지를 꿈꾸고 난 후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을 갖는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의 판타지의 내용이 여성의 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여성을 남성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즉 잔혹한 학대와 강간 같은 판타지가 그것이다. 여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성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거나 변태임에 틀림이 없다고 느끼며 그런 상상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믿는다. 마치 판타지 그 자체가 정신적 강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성이 성적인 관계에서 정말로 찾고자 하는 것과 판타지 사이에는 놀랄 만한 틈새가 존재하는데 여성들은 이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여성들은 그룹섹스를 상상하거나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섹스하는 것을 상상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혐오할 것이다. 생각지도 않게 생기는 판타지에 대해 너무 놀라고, 노출증환자같이 더럽고 부도덕한 생각이 나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당황스러울지도 모른다.

한 여성은 사진작가 앞에서 누드모델이 되는 공상을 한다. 사진작가는 그녀에게 다양한 포즈를 요구한다. 결국 그녀에게 의자 위에 누으라고 말하는데 그 포즈로는 사진작가를 볼 수가 없다. 그는 뒤에서 그녀와 섹스한다. 여성들은 이런 특별한 판타지를 갖는 것에 대해 대단히 당황하고 심지어는 역겨워한다. 비록 수

『미스코리아를 폭파하라』

“페미니스트의 뜻이 뭐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온혜반은 자의식의 소유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온혜반은 자의식의 소유자라. 자의식이 강하다면 힘든 일이 많겠군요...”

김신영숙 정권소설/신국판/값 7,800원/도서출판 이브(557-7941)

많은 여성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판타지를 경험한다고 해도 말이다.

마조히즘, 여성의 본능인가

많은 섹스 판타지들 중에 중요한 특성은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머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당신은 볼 수 없고 묵인 상태로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남편이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하도록 여성을 강요하거나 서로 만든 침대에 묶이거나 눈을 가리운 채 강간당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당신의 파트너가 거칠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생각이 깊고, 예의바르고, 민감할 때 오히려 폭력적인 섹스를 상상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부드럽게 할 때 판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강간 판타지의 정수는 무엇보다 당신이 너무 매력적이고 파트너의 열정에 너무 압도당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섹스할 때마다 마음을 사로잡는 강간 판타지 때문에 역겨워하고 걱정하는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너무나 완력이 강한 상대방에게 지배당한다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트너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을 상상하는 새로운 판타지를 그녀 자신을 위해 꿈꾼다. 그리고 섹스를 하는 동안 이 장면을 일부러 떠올리고 이것으로 강간 판타지를 대신한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더욱 만족하게 되고 어떤 불쾌한 여운도 남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 또는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존재와 관련된 판타지에는 불편해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판타지가 꿈과 같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고 해석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동물을 고문하거나 아이들을 때리는 판타지를 되풀이해서 갖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놀라고 불안할 것이다.

우리의 판타지는 현실과 완전히 유리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적 판타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성적 기준으로부터 발생하고 영향을 받고 그 기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반영한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지배당하거나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판타지를 더 많이 갖는 것 같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 신문 재판대에서 판매되는 잡지 속의 인물들은—그들은 남성 판타지의 대상인데—대부분 처녀(10~14세의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 여학생, 수녀)나 혹은 창녀, 여자색정광(nymphomaniac) 환자들로 묘사된다. 그리고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들은 항복, 지배, 정복 같은 군사적인 은유로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포르노(그레피) 사진들은 여성의 다리나 외음부를 아래위로 훑거나, 육류분쇄기에 여성의 머리나 허리가 통과되어 있거나, 노동자가 드릴로 여성의 질에 구멍을 뚫는 것들을 포함한다. 포르노잡지에서는 가끔 채찍, 채인, 자물쇠, 미친 사람에게 입히는 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옷, 사형집행수 스타일의 마스크와 심지어는 고기를 연하게 하는 기계를 팔기도 한다.

대부분 남성들은 강간과 지배 판타지를 갖는다. 반면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지배당하는 판타지를 갖는다. 이는 여성이 실제로 남성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학대받는 폭력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이 우리의 과학적인(마조히스트적인) 판타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강간 판타지들은 음란할 뿐이다. 어떻게 우리가 더럽고 음

칙한 강간사건들을 신문에서 읽고 즐거운 강간 판타지를 즐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를 많이 괴롭힌다. 나는 곧바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혐오스럽다”고 한 여성은 말한다.

젊은 남자나 여자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는 순결한 소녀나 처녀의 이미지는 판타지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런 종류의 과학적인 판타지는 남성 자위적인 요소들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깨우쳐준다.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들이 만든, 그리고 남성적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규칙에 의해서 게임을 해온 것과도 같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판타지는 또 다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을 일종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록 해주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삶의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인데 나쁜 아저씨가 나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매우 어리고 순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우연하게 나를 찍었어요.”

어떤 여성들은 이런 방법으로 빨리 성적인 흥분을 느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판타지는 어린 아이들과 집안일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섹스에 더 이상 스텔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자주 보인다.

많은 여성들은 두 가지의 모순된 생각 속에 묶여 있다. 자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판타지와 결국 이런 판타지가 우리 사회 남녀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한 쾌락에 다름아니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자신이 강간당하고 지배당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환상적으로 마음에 품음으로써 남성들의 각본에 의한 역할을 기꺼이 수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그리 기쁜 일은 아니다. **11**

『내 마음의 포르노, 판타지』는 10월(99. 가을)에서 계속됩니다.

“내가 캔 산삼 팔아 남편은 여자를 얻고...”

강원도 산골 마을 이장집 아주머니 함선배씨



함선배씨는 도시여자들이 직장출근 때 멋을 내듯 그녀의 평생직장인 밭에 일하러 갈 때 곱게 화장하고 귀고리, 목걸이로 치장을 한다.

몇 년 전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때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 시골서 조용히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한동안 강원도 심심산골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었다.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내 오두막은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 묻히고 만다. 구멍가게조차 없이 20여 가구가 전부인 이 마을은 옛날에 공비가

자주 출몰해 나라에서 산속에 흩어져 있는 오두막들을 허물고 평지에 연립주택 같은 일자집을 나란히 지어주었다. 그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독가촌이라 불리우는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 그런데 내 집은 이곳에서도 독 떨어져 평지도 아닌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집은 우리집 올라오는



산일에 함선배씨네 집이 보이고 저 멀리 산 중턱에 있는 하얀 집이 필자의 집이다.

초입에 있는 이장집이다.

나는 산골의 밤이 무서워 처음엔 이장부인 함선배씨에게 같이 자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다. 이장부인은 집안팎 일을 다 마친 밤중에 빛 바랜 다우다 이불 하나를 들고 내 집으로 왔다. “이불을 뭐하러 들고 오시나?”고 하면 깨끗한 이부자리 더럽힐까봐 덮던 이불을 가져왔다며 요도 극구 사양했다. “산나물이나 산삼을 캐러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산에서 하룻밤을 잘 때도 많았지요. 집에는 식구들이 덮는 이불이 하나밖에 없으니 가마매기를 두 장 들고 가서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고 자기도 했는데 이렇게 지붕 있는 집안에서 요는 무슨 요씩이나...” 하며 맨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구수한 이장부인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산중의 긴긴 밤을 보내곤 했다.

환갑이 넘은 함선배씨는 이웃마을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시집을 온 강원도 토박이다. 그 정도면 산이 지겨울만도 하건만 아직도 산 속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젊은 시절 이장이 산에서 캔 산삼 한 뿌리를 판 돈으로 손수 지었다. “얼기 설기 뼈대를 워고 안팎으로 흙을 발라 지은 흙집인데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애아부지가 군대에 가게 됐어요. 지독하게 춥던 어느 겨울 밤에 눈보라와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냉골에서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업고 엎드려 낄bam을 섰더니 아

어느날 밤에 불현듯
내가 왜 죽나,
그 년놈을 죽여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밤에
낮을 시퍼렇게 갈다가
그만 잠이 깜박 들어요.

침에 다리가 굳어 꼼짝을 못하겠습디다. 궁금해서 들렀다던 시동생이 아니었다면 큰일날 뻔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주머니는 산에서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왔다. 산나물도 뜯고, 약초도 캐고 도토리도 즐고... 그러다 어느날엔 산신 할머니가 도왔는지 산삼을 다섯 뿌리나 줬다. “남편에게 팔아달라고 권더니 산삼 판 돈으로 여자 하나 떼치고 6개월이나 놀다가 빈 손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자를 집에까지 데리고.” 두 사람은 안방에서 자고 아주머니는 바로 옆 굴방에서 자다가 동트기 전에 일어나 집 안팎 갈무리하고 밭일하러 나가고 나면 두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늦은 아침을 해먹는지 마는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죽어버리려고 앞산에 들어갔어요. 마침 집에는 우리 밭일을 도와주던 일꾼들이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하루종일 일하고 허기져 있을 일꾼들이 마을에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지요.”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자 아주머니의 생각도 바뀌었다. “어느날 밤에 불현듯 내가 왜 죽나, 그 년놈을 죽여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밤에 낮을 시퍼렇게 갈아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만 깜박 잠이 들어버렸어요. 정신이 들었을때 이미 동이 뵈러 터버렸더군요.” 얼마나 억울한 심정이었으면 이 순박하기만 한 촌부가 살인까지 꿈꾸었을까? 이제는 웃으면서 살인



함산해씨의 남편은 산골 마을의 이장이다.

실패담을 털어놓을 정도로 상처가 아물었겠지만 나에게
게는 지난날의 아주머니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다.

3년 전에는 이장의 환갑잔치가 있었다. 잔치음식 준비를 위해 아주머니는 사실 일년 전부터 바빴다. 산나물을 뜯어 말려 갈무리를 해두고, 고추농사를 지어 고춧가루를 넉넉히 빨아두고, 참깨 들깨를 심어 거두는 등 도시에서라면 수퍼나 시장에서 사서 쓸 원재료나 양념재료들도 손수 장만했다. 돈이 없으니까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동력을 동원했다. 나는 아주머니가 잔치상에 오를 메뉴 중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 도토리묵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을 감내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우선 산 속에 들어가 도토리를 줌데 도토리 한 자루는 쌀 한 자루보다 훨씬 무거워 집까지 저 나를 수가 없다. 산 아래 길까지 질질 끌고 내려오면 이장이 오토바이로 집까지 실어온다. 마루에 마당에 도토리를 널어 말린 후 땃물에 타서 껍질을 벗기고 커다란 합지박에 물을 붓고 짙은 맛을 우려낸다. 마당에는 동네에서 총동원된 듯한 큰 합지박들로 가득했다. 잔치준비 한다고 발농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어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만 땃물을 돌리느라 밤을 거의 꼬박 새우다시피 하는 나날로 아주머니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꺼칠해져갔다. 그런데도 이장은 초저녁 잠이 많아 밤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짙은 맛을 낸 도토리는 시렉스

라는 농사용 트럭이 있는 집에 부락해 7킬로나 떨어져 있는 읍내 방앗간에 가서 빨아왔다. 묵을 쑤어야 하는 잔치 전날 이장네 부엌은 그야말로 난리다. 커다란 가마솥을 얹은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는데 저기압으로 연기가 역류해 아주머니의 얼굴이 눈물범벅이다. 나는 차를 몰고 읍내 철물점에 가서 연기를 빨아올리는 팬을 사다가 굴뚝에 설치했다. 연기가 콧속 빠지니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좋아했다. 가마솥에 물을 쑤듯 묵을 쑤어 올망졸망한 그릇들을 마루와 마당에 주욱 늘어놓고 묵물을 부어 굳힌다. 아주머니는 두부도 농사지은 콩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 직접 만들었다. 일할 때의 아주머니 손은 정말 '매직핸드' 같다.

아주머니가 이 고생을 해가며 이장의 환갑잔치 준비를 하는 동안 이장은 돈 걱정만 했다. "두 분이서 여행이나 가시지 아주머니 고생만 시키며 없는 돈에 뭐 하러 잔치를 벌이려 하시느냐?"고 하니 "작년 재작년에 환갑을 치른 친구들 말이 일단 돈을 빌려서라도 잔치를 하면 부조금이 잔치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하더라"며 잔치를 강행했다.

드디어 이장의 환갑잔치날. 일년 전 폐교된 분교 교실에는 흰종이가 깨끗하게 덮인, 베니어판으로 급조된 상이 설치됐다. 그리고는 그 기가 막힌 노력의 결과물들 그러니까 묵과 두부, 산나물들이 올랐다. 운동장에는 대형 차일이 쳐지고 팽과리가 흥을 돋웠다. 운동장 한편 가마솥에는 고기국이 끓고 있었다. 마을 부녀회도 총동원됐다. 이 날은 마을주민 모두가 하루 세 끼를 모두 잔치집에서 먹기 때문에 주부들이 모두 잔치일을 거들었다.

하객으로는 면장을 비롯해 읍내 유지들이 모두 왔고 서울서도 두 아들과 그 친구들이 많이 왔다. 우리 가족도 남편과 아들 딸이 새벽에 서울을 출발하여 잔치에 늦지 않게 대어왔다. 이장부인은 이날 땀에 절은 일복을 벗어버리고 연분홍 한복을 입고는 분교 마당 차일 아래서 더덩실 춤을 췄다. 잔치는 성대하게 치러

젊은날 살의를 느낄 정도로 미웠던 시أت에 대한 감정도 다 사그러지고
이제 자신처럼 늙고 볼품없어 이장이 상대하려하지 않는 그녀의 처지가 안됐을 뿐이다.

졌고 이장의 말에 의하면 부조금은 잔치비용을 충당하고도 조금 남았다. 나는 이들 부부에게 사진을 찍어 앨범으로 만들어 선물했고 또 아주머니의 일터인 밭 앞에서 소년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찍어 크게 확대해서 액자에 넣어 드렸다.

그런데 이 날 이장이 산삼 판 돈으로 놀다가 데려왔다는 그 여자, 평생을 이장 주위에서 맴돌며 아주머니의 속을 그리도 썩였던 여자가 나타나서는 "형님, 나한테는 알려지도 않고 잔치를 치르려고 했어요?" 하더라. 하지만 이게 이장부인은 느긋하다. 젊은날 살의를 느낄 정도로 미웠던 시أت에 대한 감정도 다 사그러지고 이제 자신처럼 늙고 볼품없어 이장이 상대하려하지 않는 그녀의 처지가 안됐을 뿐이다.

내가 이 땅에서 여자로서 태어나 받은 차별에 분노하다 좌절하여 금생에선 더 이상 어떠한 꿈이나 희망을 갖기를 포기하고 남은 생을 자연과 벗하며 살다 가리

라 걱정하고 산으로 갔었는데 그 곳에서 만난 여자의 삶은 더 기가 막혔다. 가부장제의 폐해는 도시나 농촌이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를 바가 없었다.

혹 반, 돌 만인 척박한 땅에 씨감자를 심는 일을 남 녀가 똑같이 하는데도 종살은 차이가 난다. 남자 2만 5,000원, 여자 2만 원. 그런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집에 오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수발하는 일은 여전히 여자의 몫이다. 물론 그들은 그 걸 그냥 여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내 딸, 그리고 내 딸 같은 젊은 여자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딸이 나처럼 젊은날 열심히 일했지만 "내 인생은 뽕이야" 하며 추수할 것 없는 가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산을 내려왔고 우여곡절 끝에 if를 맞게 된 것이다. [1]

글 · 사진 김민숙

한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이장 아주머니가 혼자 밭을 매고 있었다. 남의집 풀밭일을 하러가면 새참도 나오고 막걸리도 나오지만 자기집 일을 할 때는 땀벌 아래서 묵을 축일 수도 없다. 나는 햄파 계란 샌드위치를 만들어 찬 우유와 함께 새참 때쯤 밭으로 배달을 갔다. 처음 먹어보는 뽕이 참 맛있다면서도 빈췌를 남겼다가 남편을 준다. 의리있고 마을일에 헌신적인 이장은 이 마을 모두의 존경을 받는 마을의 기부장이다. 나도 이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부인한테 하는 것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뽕이중의 뽕이다.



내 사랑 투명 반창고 하나

허브차를 끓이는 남자

이숙인 장편소설 『학교는 다다』의 작가, 본지 객원기자

연 두빛 허브향이다. 박하향에 가까운 냄새를 색깔로 느낀 것은 창가에 있는 저 화분 때문이리라. 허브 이파리가 하늘을 향해 머리칼을 풀어올리고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곧게 뻗은 네 두 다리 사이 검붉은 성기를 바라본다. 네가 돌아서 내게 하얀 사기잔 속에 담긴 연두빛 차를 권한다. 나는 웃으며 그것을 받아 마신다. 하지만 조금 전 네가 가위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을 때 나는 조금 놀랐다. 혹시 변태가 아닐까. 넌 처음부터 아무 스스럼없이 웃을 벗었고 가운데 그것을 덜렁거리며 아이처럼 제 거처를 누비고 돌아다녔다.

온빛 가위를 들어 허브의 잎새 끝부분을 조심스레 잡더니 가늘고 긴 손가락을 춤추듯 움직이며 너는 그것을 삭, 삭, 삭— 잘랐다. 연두빛 이파리들이 반투명 유리주전자에 담겨 보글보글 끓는 물방울 속에서 진초록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작은 방안 가득 풀냄새가 번졌다. 나는 혼자

웃을 다 입고 격식을 갖춘 기분으로 작은 다탁에 꽃꽂이 앉아 네가 건넨 차를 조금씩 마셨다. 향기로웠다.

“허브에 최음제가 들어 있는 거 알아요?”

너는 눈을 게슴츠레 뜨며 비시시 웃었고 나는 갑자기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썩그린 내 얼굴을 보자 너는 다시 피식 웃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항의하듯 널 노려봤다.

“이젠 정말 집에 가야 해.”

토요일 오후, 엄마의 저녁을 준비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털로 짠 겹겹 옷도리를 집어들고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너는 내게 다가왔지. 마치 늘씬한 한 마리 고양이처럼. 이윽고 네 가쁜 숨소리가 내 귓가를 따스하게 덮었을 때, 나는 옷웃을 걸쳐 입는 대신 네 몸에 붙은 마지막 부착물을 떼어냈다. 티타늄테 안경은 다시 네 손으로 넘겨져 허브 화분 옆에 가볍게 놓였다.

시계소리 멈추고 커튼을 내려요 화병 속엔 밤을 넣어 새장엔 봄날을

온갖 것 모두 다 방안에 가득히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부드러운 당신 손이 어깨에 가득할 때 옛애기처럼 자욱한 뽀얀 연기 위로

아주 오래된 산울림의 노래를 네가 틀었을 때 도입부의 정적이 서서히 나를 숨막히게 했던 걸 기억한다. 나지막히 가사를 따라 읊조리던 네 음색에 젖어 내 숲에도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여기가 어디인가, 네가 누구인가를 서서히 잊을 수 있었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기처럼 종일 누워 있는 엄마도, 집안이 망하자 나를 떠났던 첫 남자도, 늘 조마조마한 은행 잔고도, 야속하고 알미운 두 언니들까지... 나는 작은 우주선 안을 유영하는 우주인처럼 눈을 감고 빙빙 돌며 너를 안았다. 너는 내 품속으로 스프록 달라붙었지. 마치 달팽이와 달팽이집처럼. 네 온몸은 끈끈했다. 우린 이어 주황빛 전구 속에 둘둘 말린 필라멘트처럼 엉겨들기 시작했다. 아, 숨은 막힐 듯한데 기분좋은 따스함이다.

나는 너를 초록색 양탄자 위에 눕혔다. 네 뱃은 몸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며 네 두 눈을 바라봤지. 기억하니? 네 눈은 그 때 젖어 있었어. 사람의 입 안에 이렇게 많은 침이 고일 수 있다니. 최음제가 들어 있음에 틀림없어. 모두 그 차 때문이야. 허브향 때문이라구... 나는 혀를 아주 길게 내밀어 그의 탄탄하고 눈부신 몸뚱아리 전부를 살살이 흡입하듯 빨고 핥았다. 네 입에서 격한 신음이 토해져 나왔다. 검고 깊은 네 눈동자는 마치 루비처럼 신비스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너는 삼고양이었다. 흑표범이었다. 아니 자칼이었다.

나는 네 위로 올라가 양 무릎으로 가슴께를 누르고 네 스스로 하나씩 웃을 벗었다. 내 살갗이 네 몸에 닿을 때마다 너는 뜨겁다고, 불에 데는 것 같다고 했지. 그랬다. 그 날 오후 3시, 너는 나를 부드럽게 유혹했고, 나는 너를 거칠게 지배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너를 마구 때렸다. 뺨이며

가슴을, 어깻죽지를 마구 때리고 물어뜯었다. 너의 입가에 얼핏 핏방울이 맺히는 걸 보았다. 나는 사람들과 소리내어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사람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붉은해가 풍덩 땅으로 잠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쫓아갔다. 나는 네 위에 올라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커다란 소리를 질렀지. 그러자 눈물이 펑 돌았다. 이 내 너 또한 커다란 신음을 토해내더니 돌연 웃음을 터뜨렸다. 너와 나는 마주 끌어안고 웃으면서 동시에 울고 있었다. 길고 뜨거운 두 개의 혀가 다시 엉켜 하나로 녹아 흘렀다. 사방은 벌써 어둑어둑해졌다.

내가 그 때 정말 사랑을 완했다.

채집상자 속의 나비처럼 조금씩 바스러져가던 내가 진정 꿈꾸었던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격정이었던가. 아니면 모든 것이 완전히 타고 난 다음의, 말간 평화였던가.

얼른 나이를 먹었으면, 계절이 바뀌는 기미를 나처럼 반기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 언제나 철 이른 옷을 서둘러 꺼냈고 지난 옷을 재빨리 벽장에 집어넣던 시절이 있었다. 시간이 어서어서 흐르기만을 지상에 남은 마지막 소망처럼 바라던 때가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이가 아파도 그저 인상을 찌푸렸고 속이 쓰려도 우유 한 잔으로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 가을, 내가 남산에 있는 독일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힐튼호텔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 우연히 그 곳을 산책하게 되면서였다. 우리는 남산 순환도로를 걸다 길 아래 자리잡은 정원식 찻집을 들어갔는데 이민을 가는 친구가 얼굴이나 한 번 보자고 해서 만난 자리였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 헤어지는 날임에도 나는 웬만해서 저녁 시간을 비울 수 없어 점심 약속을 했고 식사 후 산책을 하다 오래 전 영화를 보거나 책을 빌리러 들렀던 독일문화원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대학 시절, 나는 영문과를 다녔는데 교직 수업을 한 번 듣고나자 교사자격증을 따느니 부전공을 하나 더 하겠다는 심정으로 독일어 수업을 꽤 여럿 수강했다.

독일에 대한 우리 또래의 환상은 좀 심하다시피 과장된 바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일본을 통해 수입된 관념철학과 역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해세나 릴케에 치우친 번역, 그리고 루이제 린저와 전해린으로 대표되는 상징기호 탓이 컸을 것이다. 거기에 막스 뮐러의 『독일인의 사랑』... 나 역시 그랬다. 노란 은행잎이 가득 깔린 레오폴트 거리나 슈바벤 거리의 낭만, 음울한 회색 대기와 자욱한 안개 냄새, 그 속에서 가망 없는 사랑처럼 부엌에 타오르는 밀감빛 가스등... 그런 것들로 충만한 독일. 반면 황색 별 표지와 게토, 네오나치즘, 정확하기 이를 데 없다는 도이체 반과 도이체 방크, 정밀기계와 전자회사의 왕국 독일. 그런 것들은 '불안한 실존'이라는 단어 자체에 때려맞아 있던 여대생의 심신구조와 처음부터 거리가 먼 것이었다.

대학 시절, 언니들과 유럽여행을 꽤 길게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따로 떨어져 뽀빠를 둘러 슈바벤 거리와 영국공원을 찾아다녔다. 여름이었고 날씨는 꽤 더웠다. 도시 안내 지도를 들고 거리를 걸을 때 제일 눈에 자주 띄는 것은 붉은 소시지와 햄 파는 가게, 하얗고 검은 빵을 굽는 가게

들이었다. 재색과 올리브그린이 섞인 사무용 건물들도 어지러운 만큼 즐비했다. 다양한 외양의 길가 카페들도 아주 많았다. 하지만 내가 그리던 뽀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때 나는 생각했다. 생이란 앞으로는 늘 이런 것이 아닐까. 언제나 꿈꾸던 것은 자기 안에만 있으며 현실은 매일매일 꿈의 배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 생각을 옮겼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채집용 유리상자에 나비가 고정되는 모습처럼 나의 생은 날카로운 침묵으로 하나씩 코르크판에 꽂히 불박히게 되었다.

우선 왼편 위쪽 날개부터. 대학을 마칠 무렵, 아빠의 회사가 쓰러졌다. 두 대의 차와 언니들이 연습하던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이 모두 남의 것이 되었다. 아빠는 엄마와 나를 삼촌 저택에서 지하 단칸 셋방으로 옮겨놓고서야 인공호흡기를 떼었다. 함께 독일에 꼭 가자고, 언제까지나 날 기다리라고 했던 첫남자는 이 아름다운 조국땅을 어느 날 망명하듯 동적버렸다.

다음은 오른편 위쪽 날개. 외국에서 공부를 하던 두 언니들은 집안의 물락과 함께 약속이나 한 듯 현지에서 주저앉았다. 나는 평생 귀부인으로 살면서 김치 한 번 손수 담가보지 않은 엄마를 계속 부양해야 했다. 엄마는 점점 어린애처럼 변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발병한 류마티즘이 조금씩 전신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언니들은 이따금 엄마에게 업서를 떠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낮엔 엄마를 혼자 돌 수 없어 사람을 들었다. 아빠가 견재할 땐 곰살맞던 친척들도 주위에서 모두 떠나갔고 엄마에게 문병 오는 친구 하나 없었다. 월급은 저축할 새도 없이 매월 날아갔다. 나는 그렇게 살면서 서른을 훌쩍 넘겼다. 나비의 아래쪽 날개 두짝에 따로 침을 꽂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언제나 제 자리에 고스란히 불박히 있었으니까.

"독일 남자라도 사귀나보죠?"

너는 그렇게 물었고 나는 갑작스런 물음에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얼마간 문법과 발음을 익힌 수준의 학습자들이 등글게 앉아 이런저런 물음과 답을 주고 받는 자유화 시간이었다. 나는 저녁 이후 시간을 정해 들었는데 그 시간대는 제법 다양한 나이와 직업군으로 이루어진 반이었다. 하지만 모두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았고 나는 다소 웅크려드는 기분에 늘 한켠에 끼어앉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삶이 네모난 유리상자 안에서 끝나간다고 믿던 언젠가부터 내 얼굴은 밀랍처럼 노랗게 굳어진 채였고 냉소적인 웃음 이외에 내가 지을 수 있는 표정은 따로 없었다.

그런 나에게 누구보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한준서. 내가 처음이었다. 너는 보라색 가디건 속에 하얀 셔츠를 반치입고 하늘빛 진 바지를 입고 있었지. 거기에 나무껍질 빛깔의 가죽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썩 잘 어울렸던 것 같다. 너는 그 때 나를 바라보며 더운 우유를 섞은 크림스프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오래 묵어 딱딱해진 빵처럼 너를 멀거니 바라보았고, 내가

그 날 오후 3시,
너는 나를 부드럽게
유혹했고,
나는 너를 거칠게
지배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너를 마구 때렸다.
뽀빠이며 가슴을,
어깻죽지를
마구 때리고
물어뜯었다.

너는 날
네 스튜디오룸으로
안내했지.
넌 옷을 벗었고
허브차를 끓였다.
그리고 그날 난 내 안에
기이하고 수상한
마녀가
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자 도리어 옆사람들이 더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정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말할 수가 없었다.

다음 시간부터 나도 모르게 널 흘깃흘깃 보기 시작했다. 너는 아주 자연스런 동작으로 과자 부스러기가 묻었다며 내 머리칼에 붙은 비듬을 털어주기도 했고 슬쩍슬쩍 내 어깨를 부딪는 척 만지고 지나갔다. 그런 날 저녁이면 집에 돌아오는 내내 두 불이 화끈거렸다. 어느 날은 국제거지 같은 차림새로 줄기 일쑤였다가 어느 날은 단정한 수트를 입고 나타나 문학이며 철학, 예술 전반에 있어 풍부한 식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던 너... 나는 널 웬지 보기 싫어 문화원을 그만 다닐까 하면서도 피치 못할 야근까지 바뀌가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수업을 들었다.

'아마 아버지가 외교관쯤 되나 봐.'

여자들의 화제는 온통 너에 대한 것이었고 그런 너의 전화는 당연히 남보다 많이 올랐다. 쉬는 시간, 네가 장난스런 웃음을 머금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며 굶은 은사슬 목걸이를 빙빙 돌릴 때면 나는 웬지 조금 서글퍼 그 날 저녁 입맛을 잃었다.

미국 본사에서 한국 지사의 규모를 줄이라는 지시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나 배경이 든든한 여직원 몇을 제외하고 나를 포함한 여러 여직원이 불시에 일자리를 잃었다. 나는 두 달 남짓 다니던 문화원도 회사와 함께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일하는 아줌마는 당연히 그만 오도록 하였고 엄마의 신경질과 눈물, 잦은 병원출입도 모두 내 차지이 되었다.

이제 포르말린에 완전히 절여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몸통에 누군가 마지막 침묵을 애써 찌르려는 성실었다. 나는 빨리 나이나 먹었으면 하고 중얼거릴 뿐. 그것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나는 그 때까지도 약혼자였던 사람 말고는 남자를 모른 채 늙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자는 모습은 연민보다 혐오를 더 느끼게 했다.

내가 그 겨울, 한준서를 다시 보게 된 것은 엄마의 악을 타서 돌아오는 길에 부러 지하철에서 내려 남산 앞을 지나게 되면서였다. 나는 문화원 앞에서 한참을 서성었다. 그는 나를 몹시 반가워했다. 나도 그가 씩 웃는 모습을 보자 추운 겨울, 따스한 온탕에 발을 푹 담그는 기분이 들었다. 그와 나는 내가 일전에 친구와 들렀던 정원식 찻집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즐거웠지만 그 집의 커피값이 너무 비쌌으므로 나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아무래도 내가 한참은 연장자일 테고 학생인 그가 계산을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란 생각이었다. 또 하나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길게 자란 머리를 뒤로 집곤 묶고 온색 귀고리를 3개나 찌랑거리는 그의 외양이. 반들거리는 자주색 가죽점퍼만큼이나 남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리라.

그는 내년 여름 졸업 예정인 대학원생이었다. 나는 계속 속으로 지갑 속의 돈을 헤아리고 있었

는데 그는 남녀혼욕인 독일 대중탕에 대해, 베를린 필하모니의 줄음방지형 객석의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심장보다 높이 등받이가 올라오면 잠이 오기 쉽다는군요. 그래서 의자가 그렇게 낮은 거예요. 참, 전 배 고프는데... 뭘 좀 드실래요?"

나는 괜찮다고 하려다 그만 얼굴에 고개를 고집했던 것 같다. 어떻게 되겠지. 일단 카드로 그으면 돼. 하지만 내 카드는 이미 마이너스 한계에 육박하고 있었다. 거기에 예상대로 이 집의 음식값은 오래 전 아빠와 갔던 호텔 식당만큼 비쌌다.

음식은 훌륭했다. 아주 오랜만에 올리브 잎새와 모짜렐라 치즈를 곁들인 토마토샐러드에 막 갈아엎은 후추향을 음미할 수 있었다. 송이를 넣어 끓인 버섯스프의 향미도 독특했다. 퍼뜩 집에 혼자 있을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스웨그랜드 호텔에서 먹는 풍류였다. 나는 음식에 정신없이 코를 박고 있던 고개를 들어 그를 멀거니 응시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때 너는 내 눈길을 받아 다시 내게 되쏘며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실내 조명은 어두웠는데 두 개의 흑갈색 보석은 발광체처럼 강렬했다. 나는 눈이 부셨다. 저 아래, 발바닥부터 뭔가가 근질근질해오더니 짜릿한 전류가 핏줄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을 후끈 덥히고 있었다. 이윽고 속이 매속거리면서 눈물이 솟구쳐오르려는 순간 그의 핸드폰 신호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속으로만 낮게 부르짖었다. 제발 그냥 그대로 있어.

"음, 전화니? 나 지금 친구랑 있어. 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선배."

선배... 그는 나를 건네보며 애매하게 씩 웃었고 내 몸안을 흐르던 고압전류는 순간 푸시시 소리를 내며 꺼져가고 있었다. 문득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허랑한 자신에 대해 한심한 느낌, 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아픈 엄마까지 잊은 채 회회낙락 수다를 떨고 있단, 음식값은 또 어찌고.

WEDDING 가인들

If you are free...

웨딩가인들과 함께 하세요.



Total wedding service

- 웨딩드레스
- 이브닝 드레스
- 텍시도
- Make-up
- 사진
- 비디오
- 야외촬영

TEL. (02)333-7090
서울 마포 상수동 352-2

엄마는 눈물 자욱을 채 닦지도 않고 잠이 들었다. 부엌은 엉망이었다. 내가 머뭇거리며 카드를 꺼내려 할 때 너는 밝게 웃으며 지갑을 꺼내 뽀얀 웃음을 보였다. 아르바이트 월급 탔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넌 한사코 날 말렸다. 내가 오자고 한 데잖아요. 저도 보통 댄 자장면이나 라면 먹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내도록 해줘요. 너는 또 다시 익살스레 씩씩 웃었고 네 잇속은 윤기 흐르는 물줄 사이로 반짝 드러나는 흰조개들처럼 귀여웠다. 그랬다. 넌 참 귀여웠다.

그 날 밤, 나는 밀린 설거지를 하면서도, 작은 마루와 방을 쓸고 닦으면서도, 내일 아이들에게 가르칠 단어를 찾고 쓰면서도 네 생각을 했다.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나는 네가 해준 어처구니없는 농담들을 떠올리며 혼자 비웃기 웃기도 했다. 그리고 그 농담의 해석에 대해서도, 또 그런 해석을 덧붙일 때 깊이 잡히는 네 이마의 잔주름 하나하나도 간절히 떠올리며 애썼다.

"사오정시리즈 말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뭔가 서로 닿지 않는 현실, 소통부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주위엔 도처에 유리벽이 놓여 있어요."

"취잔 발라동을 아세요? 프랑스 최초의 표현주의 화가의 한 사람인데요. 자기 아들보다 어린 남자와 결혼했어요. 아들은 그 유명한 뮌헨로라는 화가구요. 뮌헨로라는 취잔 발라동이 일어났을 때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러는 사이사이 너는 계속 여러 여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전화를 걸고 또 받아냈다. 이상한 일이었다. 네 앞에선 남자 경험이 그리 대단하지 않던 내 과거가 도리어 부끄러웠으니. 한편 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전황 하는 널 보며 갑자기 맹렬한 증오심이 끓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날 이후 한 달이 흐른 다음 널 다시 만나러 문화원 앞으로 간 것은 내 쪽이었다.

"보고 싶었어요.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기다렸어요."

너는 또 다시 크림수프처럼 웃었다. 무언가 비릿하고 상큼한 기운이 너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볼썽 말을 꺼냈다.

"연극 대신 너 사는 데 가보고 싶어. 너만 혼자 사는 곳."

"지금은 토요일 오후예요."

"난 집에 일찍 가봐야 해."

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널 네 스튜디오룸으로 안내했지.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널 웃을 벗었고 허브차를 끓였다. 그리고 그 날 난 내 안에 이제껏 기이하고 수상한 마녀가 살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다. **11**

매일 아침, 아무 색깔이나 입으면서 성공을 꿈꾸십니까?

"컬러에는 '성공색' 이 따로 있다.

21세기 7가지 성공색을 찾아라!"

튀는 색깔이
뜨는 인생을
만든다



컬러 전문가 김민경 교수의 21세기 성공 전략

자기 컬러를 알아야 성공한다

박진영을 보면 나는 즐겁다
컬러 전문가를 놀라게 한 HOT
겨울 이미지로 성공한 여자, 이영애
컬러를 놓친 순간 아줌마 된다
유동근의 파란색 셔츠가 유행한 진짜 이유

21세기는 이런 컬러가 성공색이다

왜 전세계적으로 블루가 강세인가
커지지 않을 레드와 마티
상품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와인
신비감을 주는 액센트 컬러, 청보라
편안함이 머무는 베이지 공간
카리스마를 뽐내려는 블랙 & 화이트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린

나만의 베스트 컬러를 찾는 법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컬러풀한 옷을 입자
직업에 맞는 컬러가 따로 있다
면접시 유리한 컬러 전략
사랑하는 사람과 컬러 궁합을 맞춰라

북해의 신간



김민경 교수는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 10여 년 간 컬러 테스트(색채분석)를 전공했고 귀국 후 (김민경 컬러 이미지 연구소)를 설립하여 각종 분야에서 컬러 컨설팅을 해왔다. 유명 화장을 피사체 앞에, 영화, 광고에 많은 영향을 준 이미지 메이킹 분야의 '대모'로 불리며 국내 유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민경 지음/신국판/228면(컬러 화보 포함)/값 8,000원



if에게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if!

누군지 알려줘요

Behind if에서 필진의 이름이 실명이었으면 좋겠군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 참 답답하잖아요. 꼭 그런 이름을 고집해야 한다면 이유라도... 김양호, 전북 진안군 진안읍

속이 시원해!

과학고 다니는 동생이 1년간 정기구독을 해서 쉽게 읽었지만 올해 개가 대학진학을 하고 구독기간도 끝나 참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표지가 너무 예쁘고 독특해서 맘에 듭니다. '수다방'부터 읽었는데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밖에도 눈길을 끈 기사가 넘 많지만 어쨌든 참 좋은 잡지라는 거 그게 결론이지요. 박아영, 서울 성북구 돈암동

고통받는 남성을 위해...

나는 여성해방이 곧 남성해방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의 괴로움만 외쳤다. 그러나 주류에 끼지 못하는 남성적이고 착한 남성들은 여성만큼이나 괴로울 것이다. 그런 남성의 고충을 풀어줬으면. 김민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나도 아열혈팬!

기사 읽은 후 한 일주일 동안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처럼 무지가 불타오릅니다. 과격하다는 의견이 있는 듯도 합니다만 개의치 마시기를. '너의 적들에게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너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말로 역사의 말이 우리 여성에게도 폭발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여성의 갑 탕방기와 교육 프로그램 기사화가 가능할까요?

이지숙,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고은부인...」 통쾌해요!

새로 생긴 「음식모녀」의 내용이 정말 좋았고, 「고은부인...」은 정말 통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고정코나된 거 맞죠?) 편집장님의 특집글 심리분석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고... 다만 「여자의 꿈」에서 같은 또래의 비슷한 글을 나란히 실은 게 별로 안 좋았습니다.

김윤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내 예쁜 댄스를 구한 if

if지를 처음 구독한 예독자다. 어느 하나 버릴 내용 없는 알찬 잡지다. 거의 한 글자 안 빼고 다 읽었다.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개성화하고 자신감을 갖자'는 취지로 나 역시 댄스 콤플렉스 때문에 생리를 뒤흔들까도 생각했다가, 그냥 댄스 드러내고 활짝 웃으며 살기로 마음을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호원,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활력을 느껴요!

우리 동네 시립도서관 정기간행물에서 봄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술술 넘기고 나니까 집에서 읽고 싶더군요. 내 방 구석에 또 그리고 앉아서 천천히 야금야금 씹어먹고 싶어서 오는 길에 바로 구입했습니다. 28살이지만 마음은 60인 제가 if를 읽고 있으면 제 나이로 돌아오는 활력을 느낍니다.

신정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광고 더 많이 생겨야 해요!

if를 벌써 네 번이 넘게 사보고 있는데, if보다 재미있는 잡지를 보지 못했다. if에 광고를 접할수록 신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if에 광고가 많이 붙기를 나는 더 바랄 뿐이다. if는 편협한 시각을 바로 잡아주고, 여성운동에의 꿈을 키워주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게 되든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고수할 것이다. 김민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둘러 보지 마시다

'입신양명'과 '호구지책'을 위해 잠시 미났던 학교에 5개월만에 돌아와 정기간행물실에서 if를 발견했다. "이런이면, 이미 봄호는 샀는데..." 하지만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좋은 책은 반드시 돈 주고 사서 밑줄도 치고 낙서도 해가며 읽고 다 읽은 후 예쁘게 전열(?)해 놓았다가 가끔씩 다시 읽어보고 해야 되니까 때문에, 친구들과 둘러읽는다고 자랑하는 몇몇 독자들 반성합니다. if 돈 주고 사서 봅시다. if를 베스트셀러로 만듭시다. 원석연,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4학년

오현경 비디오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녀가 판매를 목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그녀의 남자친구(함모씨?)가 비겁하게 팔아먹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어떤 사고로 인해 비디오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사과를 해야 한다느니, 뽕을 맞고 찍었다느니)하는 작금의 폭력적인 사내는 한 개인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리 탤런트고 공인이라 할지라도 한 성인(成人)의 성생활에 대해 그 누구도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가 좀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lukebox@hanmail.net

아무리 수다방이지만

여러 장 차지하는 지면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 호에서는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if'이라는 분은 요점정리를 한 후에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수다방이지만 너무 반복이... '뽕'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박규연,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내 #둘리도!

요즘 부쩍 일이 많아다 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에 빌려준 if 겨울호는 아직도 못 받고 있고요. 아, 빌려간 그 아이는 책 표지 때문에 방에 부모님 들어오실 때마다 두근두근 한다네요('우잇 얼런 둘러줘야 하는데 난 왜 댄스 까먹는 걸까!') 그렇니다. 뽕뽕, 근데, 형광색 인체는 싫습니다. 188쪽 보세요, 제목도 안 보이자나요. 왜 그러셨을까.

우영... 누울 행복하세요.

고상락, 하이텔 LayGo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인력도 돈도 팔리시겠지만, 글구 저도 어느 정도 일조는 하겠지만 공공도서관이나 대학교서관 등에 정기구독을 권유하는 안 내서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년 초 간행물 선정할 때 많은 도서관에서 if를 구독할 수 있게요. 좋은 책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프,만,세!!!'

연선영, 하이텔 난실

외모로 판단당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매일같이 '제 코가 너무 커서 싫어', '난 저런 눈 정말 싫어', '남자가 왜 저렇게 자기에 갈애'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당신은 자신도 외모로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자신이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불쾌하지는 않았는가? 특히 많은 여성들이 말한다. '외모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 말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위대한 용치로 판단했다면 당신 역시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할 일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일을 그만 두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그것을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지 않겠는가? 김성룡, 하이텔 Raelan0

뭘 잘 모르는데...

지금 하이텔 토론실에 가보면 미스코리아 대회 반대에 대한 토론이 한창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구성의 상품과 상품과 그러는 데, 진짜 성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성인잡지, 무슨 쇼, 그리고 여러 대중매체들, 재발 좀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성의 상품화나 하는 주장들은 다른 데 가서 하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남자를 대부분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찬성한다고 생각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실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남자들의 의견 중 대다수가 이 대회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참고로 안티미스코리아 대회인지... 뭘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재미있었겠군요. 손원철, 하이텔 방천학국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선전된 제목들이 마음에 끌려 서경을 수없이 다 읽고—당시엔 이보다 더한 강연도 시골에 있어서—결국엔 서울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난, 둘 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싸움 일이 없었는데, 싸움이 있다면 시댁에서의 전파나 시댁에 다녀온 후였습니다. 결혼 전엔 '너 같은 애 때문에 여성운동이 안 된다니깐' 이런 말을 섰던 나에게 들을 만큼 꼭 막힌 애였던 제가, 직접 억압의 상황에 처하게 되니 관심이 가고 배우고 싶었던 문제들이 if에 있었습니다. 내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남편이나, 같은 여자로서 여자를 억압된 환경에 두시려는 시어머니는, 뭘겨나는 공을 더 강하게 뛰어오르게 할 뿐이었지요. 어쨌거나 if를 보면 속이 시원하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힘도 나고요...

남편은 읽지 않지만, 제가 읽고 나면 그가 듣거나 말거나 옆에서 종알거립니다. 어느날엔가는 관심있게 읽고 사람이 바뀌어주길 바라면서...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수고하세요!

황정혜, 천리안 법과 열의

영업일이 보내는 편지 투우~~!!

특종!! 이프에서 단행본 책을 냈다. 이름하여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일반 풍 터잡니다는 책 제목이 아니다. 카피다). 이 서점에서 영업부장의 영업계획을 들여보자.

그 동안 이프책은 출판유통에서 일원과 공급을 했었다. 그러나~ 이번호부터는 우리의 영업일이 직접 편다(와이얼~!!!). 그래서 우리 영업일은 신났다. 매일 아침 책주문도 받고 시내 대형서점부터 동네 문 서점도매점까지 뽐뽐거리며 돌아다닌다. 인사모(인문사회과학 출판사영업인모임)에도 나가서 인사드리고 한 번(?)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꿈에 그리던' 자발출판도 갈 계획이다. (대전·전주·광주·마산·부산·대구지역에 계시는 독자들을 연락주세요. 얼굴이라도 좀 봅시다. 영업일이 갑니다.) 아무튼 참으로 장한 영업일이 아닐 수 없다. 출판영업계의 새로운 바람!!! 이프영업일, 색마.

마피아나, 여성운동이나 고것이 문제로다

을 붙여는 우리지계 비가 많이 내린다. 나의 음기가 하늘을 찌를새 비를 들고 다니는 거라고들 한다. 새해 첫날부터 생리를 하더니 올해는 역시 음기가 승한 한 해인 것 같다. 호호호(호호!). 그렇지만 거대한 나는 모 선행처럼 돈글이 돈을 갖다주는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다.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는 필요 없다. 난 마피아의 아내가 되고 싶다. 돈이나 똥똥똥 갖다주는 마피아, 요리도 잘하는 마피아, 한 번 감옥 가면 오랫동안 안 나오는 마피아, 조직에서 나의 생계를 보장해 줄 마피. 글구 마피아에겐 애인이 있지.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귀여운 마피아. 글치만 아내에게 제때 돈을 갖다주는 착한 마피아... 사랑하는 나의 마피아. 혈통이 보장되는 시실리섬에서 태어났더라면 아주 쉽게 마피아의 아내가 되었을 텐데...(반성!).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혈통이 안 되는 관계로 일시적 일을 해야만 한다. 세월과 여성운동을 즐기는 것과 마피아를 그리워하는 사계후에 올라앉아서.

사랑마녀

이 산이 태산이 아닌가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틀레틀레 사람구경을 하는 게 내 취미다. 그러다가 발견한 구석의 '오늘의 명언'. 맞는 소리도 가끔 있지만 내가 듣기엔 대부분 소리이며 일반화의 오류다. 특히 내 가슴을 후려친 문구는 바로 이것. '사랑은 사랑으로서만 보답이 되고, 일은

일로서만 보답이 된다' 와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온다'. 지난 3개월 동안 난 이 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바꾸기로 했다. 바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사랑은 슬픔(혹은 배반)으로 돌아오고 정확성이 떨어지면 일은 두 배가 된다." 그리고 '태산을 넘은 뒤 뒤를 돌아보면 나오는 말'이 산이 태산이 아닌가벼~ 하지만 한 가지 진리는 얻었다. 모든 일에 진실과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리마

'하고 죽자'에 얽힌 비화

행사가 끝났다.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건 이프 기획회의에서였는지, 아니면 단행본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 아이디어 회의에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 팀자 중에 '한 아이디어' 하는 난영씨가 '미스코리아대회 패리디나 해보지 그래요?' 했던 말이 화근이 됐다.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실무자들은 모두 입을 확 다물고 있었다. 누가 재밌을 거 모를까? 그래도 행사와 행사 속에 피 마르는 우리 이프 동지들은 과묵했다(나중에 난영씨에게 편수 감사하).

그러나 우리가 또 누군가. 일을 자지르지 않으면 가슴에 세기가 있는 것 같은 기분... 예라, 모르겠다. 하고 죽자.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내 내 자기 말들을 적어야만 했다. 누구야? 어떤 X야. 이 행사 하자고 한 X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한달 만에 세 발둥이를 낳았다. 단행본, 안타...페스티벌, 그리고 이프9호.

적은 인력, 살인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1인 4, 5억을 거둔 해엔 이프 식구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 한몫씩 했다. 정말 이쁘다. 이렇게 칭찬해 줬으니 앞으로 더 마이나 더 열케미 하겠지.

아아, 그런데 겁난다. 사람이 괴다. 이프가 하는 행사마다 성공하는 건 아마도 이프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거 같다. 자꾸 성공하면 일이 더 많아질 텐데...(빌링~ 불럭~, 앞으로 체통을 지켜야지).

통마

다칩니다요

어느 독자가 비하인드 이프에 나오는 별명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고. 안 가르쳐주면 어떤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모르는 게 약입니다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싶다면... 다칩니다요.

공마

월매나 열심히 살았길래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각. 장소는 술집 안이다. 나는 소주를 먹고 있다. 약간 취했다. 흰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염색머리가 다 빠져가는 커트머리... '무녀'는 아직 단정하다. 그러나 취해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너 뽀뽀이지?' 그린다. '아닌데요.' 심지어, 내게 뽀뽀이라니, 다시 술 한 잔. 아까 그 분이 또 갑자기 '너 뽀뽀이 맞지?' 또 그린다. 억울하다. 12시가 넘어가는데도 집에 안 가고 술 먹고 있는 나를 보고 왜 자꾸 뽀뽀이라고 놀리는 거지? 난 날라리로 보이고 싶은데, 그냥 험렁험렁, 느슨느슨, 휘파람이나 불며 한 세상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여짜고 남의 눈엔 고리하고 타분한 뽀뽀이로 보인단 말인가. 도대체, 월매나 열심히 살았길래...

무늬만 뽀뽀이인 날라리

하나.

소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를 읽고 독자들에게 보내주세요.

소설이 답답해서 일이 근질근질하신 분, 아니면 너무 재밌어서 칭찬을 마구 해주고 싶으신 분, 이제 미스코리아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 내년엔 출전해서 폭파나 해볼까 하고 계신 분, 이프 식구들 중 누가 등장인물인가 궁금해 하고 계신 분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경지에 오른 독자들의 애정과 비판, 충고와 질책을 듣고 싶습니다. 상봉도 무절합니다.

1. 마감: 8월 10일 까지(당일 도착 분까지 유효)
2.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3. 상품: 1등-페미니스트저널 if 3년 정기구독권
2등-페미니스트저널 if 2년 정기구독권
3등-페미니스트저널 if 1년 정기구독권
감상문을 보내신 모든 분께 페미니스트저널 if 가운호(10호)를 드립니다.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빌딩 2층 도서출판 이프 출판팀 앞(우:135-080)
또는 통신 천리안, 나우누리 feminif 하이텔 ifhopia로 보내주세요.
문의: 출판팀장 권혁관 (02-557-7942)

둘.

9호 이프 모니터링모임 합니다. 나날이 화기애애해지는 모니터링 모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이프에 대한 평가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쏟아놓느라 언제나 시끌벅적합니다(참가자들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프 이야기는 점점 뒷전...). 아무래도 이프 동호회가 생겨날 듯, 어쨌든 모니터링모임에 낯익은 얼굴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모임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어 나날이 안정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참석해서 좋은 친구 사귀세요. 특히 하이텔 이프방(feif)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연재: 1999년 7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어디서: 대학교 학림다방 3층(742-2877)

문의: 이프 사무실(557-7941)

셋.

안티미스코리아페스티벌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세요. 행사 준비과정, 합숙훈련, 그리고 행사 당일날의 전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그날 객석을 채웠던 관객들의 소문을 들어보진 않으셨나요? 참여한 관객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은 행사입니다. 벌써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교육자료로 또 여성단체의 회원 시청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량: 50개 한정

구입가: 10만원(팝콘셋 포함)

구입방법: 이프에 전화해서 등록한 후 소정의 금액을 정해진 은행에 입금해 주시면 테이프를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는 이프가 부담합니다.

온라인계좌번호: 한빛은행 148-196417-02-10(예금주: 권혁관)

문의: 557-7942(권혁관)

넷.

강릉지역 이프 독자들 모여세요. 독자 박*의숙씨가 이프 모임을 갖고 싶으시답니다. 박*의숙씨 부모님이 모두 박*씨라서 박*씨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강릉과 인근 지역의 독자들 모두 연락해서 재미있는 모임 꾸려시길... 모임 만드신 분들은 모두 행복해지므로...

연락처: 0391-648-1731/ 011-390-0831

유주
인화 김지윤과 윤홍미의 짧은 인화 긴 여운/ 한상정 전신 광주비엔날레의 여성작가들/ 양현미 책 히스테리아가 짧은 겨울의 책
◆집중탐색 〈푸른사람들〉이 보여주는 테크놀로지 아트/ 오혜주
◆여성화가들의 자화상 여성 화가들의 생존방식 그 불연한 자기 보기/ 재미만
◆if 무엇이든 반지도 아니고, 머리핀도 아니고...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이유는/ 오혜리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엄마의 음식
◆전통문화 색녀열전 어려숙한 책 남자 X학이/ 수박두리
◆동굴 오르가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이경미
◆사이버랜드 PC통신망을 달근 바깥바깥/ 장여경
◆JOURNEY 세계의 여성들 미국 내 남성 에스콰드 서비스 실태/ 10대 소녀들의 영아살해 페미니스트5인조 스파이스걸즈/ 헤어 하이트의 새 책
여자의 여행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여신들/ 엄연수, 이현정 발굴 근대초 유럽의 '수다쟁이' 여자 길들이기, 또다 남자 열주기
실리테스트 해결로 알아보는 당시의 연애스타일
◆가미아의 편지 여성주의 과학의 부활/ 가미아
◆일하는 엄마가 쓰는 창작 동화 동생 삼진이 누나/ 이선희
◆98년 별피해를 맞으며 별피 여자를 살리기!

98/ 봄 / 4호

◆특집 여자 기(氣)를 살리자! 가부장제가 양해아 나라가 산다/ 조현혜경 마구잡이 여성해고, 무식한 기업노리, 경쟁력은 있는가/

박혜숙 한국사회 보수화 물결 진단/ 류숙영 미국사회 대중문화의 페미니즘 죽이기/ 한상아 여자 기를 살리자 여자 기를 살려야 하는 10가지 이유 민담을 통해 본 기생 여자들/ 박미라 글쓰기 IMF인생극장 1'm Fine/ 이순주
◆페미니스트 영부인은 있는가/ 오숙희
◆98 여성정치선언 말들이 알아! 98년 6월 자치제 선거에 즈음하여/ 김신영숙
◆남자에게 스펀지메이커를 린탄에게/ 김미경
◆유자나 영화산책 〈007대다이>를 통해 1007 다시보기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영
◆남자의 성경험 발달에서/ 강홍구
REVIEW 연애 HOT, 인자목 등 연애 인 권유했던 세력화 조직/ 양성희 남성학 남성학 서적이 던지는 또 다른 문제의식/ 박천홍 토코소 요즘 한창 뜨고 있는 TV 토코소 이모저모/ 김정복
인화 이정애, 박희정, 유시진의 작품세계/ 한상정 음악 언더그라운드, 새로운 방식으로 물에 오르다/ 황욱주
책 히스테리아가 짧은 봄의 책
◆News Woman 한국일보 장영수/ 우조고 상회동 시간 최영애 소장/ 윤정옥 장대협 공동대표/ 210여성포럼 공동대표 지은희, 조은, 손숙/ 시인 한영희/ 작가 윤희경/ 코리아헤럴드 이경희
◆Female Gaze 페미니스트 영부 시대/ 남자는 가라/ IMF 마녀사냥/ 말들이 알아! 여성 천지창조/ 이윤의 작품세계/ if가 짧은 오직
◆소침두인 '지하철 성추행'도 노래에 담았/ 언더그

라운드 가수 박주원/ '불타는 대지'의 작가 이하전/ 국내 첫 여성국제축구심판 임은주
◆JOURNEY 세계의 여성들 일본의 나쁜 여자들/ 다이애나비의 달레마/ 미국 파스트레이다 도서관 외
사이버 원도우 온라인 여성 모임은 왜 그렇게들 발발했는지/ 장여경 여자의 여행 제주, 그 43의 역사 속으로/ 신정희전 위대한 여신을 찾아 떠나는 그리스여행/ 엄연수, 이현정 실리테스트 당시의 행동자수는 몇집일까요? 동굴 그 여자의 첫경험/ 이경미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엄마의 빨래, 엄마 우리 식으로 살려요
◆if 무엇이든 태초에 치마가 있었다/ 오혜리
◆집중탐색 산인류가 추구하는 이미지예술 이미지극장의 종합예술가 아들/ 우연
◆여성화가들의 자화상 '보디'와 '보여지다'의 그 면사/ 재미만
◆여성문화재단 모녀에 관한 몇가지 삽화/ 김양진
◆전통문화 색녀열전 무엇이든 물간고고/ 수박두리
◆순정만화 마스노/ 한국회

98/ 여름 / 5호

◆특집 남자를 알고 싶다 남성다움의 신화는 재했다/ 홍진숙 남성철학자의 여성혐오주의/ 류숙영 남성노동으로 드러난 남자들의 성과 사관/ 박미라 여덟 남자의 사랑이야기/ 김경훈 외
여덟 남자의 남성력평가, 무엇이 잘 알려/ 이부아 남자의 성 이후의 섹스다 이야기/ 배종훈 무기의 일생, 남자 또는 '기'로 불리우는 당산에게/ 이호인

남자의 네 가지 유형 당신의 남자는 어떤 유형인가요? if수다쟁이 짧은 최고의 남자, 최악의 남자
◆이여자 〈그대 그리고 나〉의 작가 김정수에게 보내는 프로포즈/ 오한숙희
◆남자에게 서울대 우조고 성취를 사건의 선정류 교수에게/ 김신영숙
◆남자특집 귀신의 세계에도 상처받은 있다 한국귀신과 여성/ 박미라 서구공포영화의 여성괴물/ 주유신
◆Female Gaze 추락하는 것에는 차질이 있다/ 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국립모지 자살학의 〈남들의 희망〉/ 남성사건작가 메이플스트의 작품세계
◆장가의 여성들 새정부 여성정책 미끄는 우연파워/ 최진숙
◆News Woman 연극(마요네즈) 이주실/ 화가 김민준/ 여성사건작가협회 초대회장 박영숙/ 여성사 이바자가 '새파란' / 공동체 가정의 조순실/ 첫 여성총경 김경자
◆제발라잡 "온전히 연대하고 과감히 뒤집자!"
◆장사 하나 황제처럼 먹어도 살아 빠진다/ 양성희
◆장사 둘 나는 나를 배반한다/ 김장복
◆남자의 성경험 마음이 '동' 하면 몸이 '동' 한다/ 변정수
◆전통문화 색녀열전 남자의 정조/ 수박두리
◆인화 미즈노/ 한국회
◆나나의 if세상 신신데렐라/ 박희정공주/ 신장자는 숲속의 공주
◆유제자나 영화산책 〈붉은티〉가 보여주는 뒤집기 전략
◆집중탐색 육체의 고정관념과 싸우다 전사한 남성사건작가 메이플스트/ 박신의
◆REVIEW 광고 광고에 등장하는 레즈비언 이미지/ 지혜 미술 김지현 정점업 전/ 오

혜주 영화 〈미스터 커티〉와 〈투깝스3〉/ 정미아 음악 오영환, 서영은, 아이미 / 이혜경 책 if가 짧은 여름의 책
◆if 무엇이든 천다리스 북의 역사/ 이재진
◆여성화가의 자화상 여성 화가들의 존재증명/ 재미만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엄마의 화장
◆CROSS OVER 동굴 얼굴을 보듯 성가를 보자
사이버랜드우 컴퓨터는 남성의 기(氣)인/ 장여경 여자의 여행 여자 나이육십에 만난 유럽 여행/ 박영숙
세계의 여성들 ◆여자의 꿈 남자가 되고 싶었던 여자아이/ 박영숙
◆이탈엔 이렇게 나는 소비니스트피그를 이렇게 희치했다/ 류숙영
◆상대적이고도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영
히스토리의 당신의 사랑을 갖아가게 하소서, 파넬 박정원 / 박혜숙

98/ 가을 / 6호

◆특집 집만나는 여자들은 '집'이냐? 남자, 자식버린 여자 집중취재 왜 떠나는가? / 황금희
여성성 분석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은 외출/ 김장란
인요분석 '남녀노라 남녀노라' 삼십인악에 날려주소/ 박미라 한선녀의 최후진술/ 한림파 나는 더 이상 이혼을 꿈꾸지 않는다/ 이경자 그녀의 삶을 향한 긴 여정/ 김연
가족에 관한 몇 가지 잡담/ 이남희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걸어가 보라/ 신현림 심리분석 기술을 꿈꾸는 여자들의 유형/ 아니미

여섯 여자가 들려주는 가을 이야기 가을화랑이 나는 이럴 때 떠나고 싶다!
◆Female Gaze 뉴이인도/ 영화 패러디: 티키타무 1998 서울/ 힐러리의 테마송 '바람과 함께 살아가자' / CUNT CABARET
◆남자에게 세기의 테러리스트 백남준 산상에게/ 류숙영
◆if수다쟁이 남자를 알린다
◆남자의 성경험 환상 속의 섹스와 의미있는 섹스/ 김일 News Woman 무당 김금희/ 이옥식 고정/ 가수 인순이/ 전방위 방송인 배유정/ 박영숙 소장/ 시인 작가 송영숙/ 영화배우 김리나/ 〈아, 정정화〉의 원영애
◆장사 하나 북 바르 찍혀라/ 김장복 장사 둘 거짓말, 거짓말, '진짜' 거짓말/ 권혁란 장사 셋 21세기 사랑법과 바야그라/ 배종훈
◆전통문화 색녀열전 콤팩트 / 장현실
◆인화 미즈노 결혼생활 3개월, 결혼후 내가 좋아하게 된 것들/ 한국회
나나의 if세상 선녀와 나무꾼 그후
◆이여자 박서원 '천년의 겨울을 건너온 여자' / 류숙영
◆유제자나 영화산책 〈여고괴담〉이 진짜 공포스러운 몇 가지 이유
◆집중탐색 박화야의 묵묵하는 여자를 엿보기/ 박신의
◆REVIEW 연극 〈원통〉, 〈엄마, 안녕...〉/ 이숙인 영화 〈생과부위자로청구소송〉, 〈세티 오브 엔젤〉/ 목혜정 미술 홍미선, 이진경 전/ 오혜주 만화 유시진, 천계영, 오은하 서평 『페미니즘 비디오 미술』 / 재미만 책 if가 짧은 가을의 책/ 윤숙경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부부싸움
◆여자의 꿈 여자를, 놀았나

는 세상을 꿈꾸며/ 이혜경
◆히스토리의 한남동에 자살의 결려리 연 열전집 여파/ 김민숙
◆이탈엔 이렇게 나는 더러운 성차별주의자로서이다/ 김지경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영
◆if 반개로든 비아그라과 담, '웃겨, 그후에 죽음가는 남자들'
◆CROSS OVER 여자의 여행 나이 육십에 만난 유럽 여행/ 박영숙 세계의 여성들 '집만나는 여자'의 커밍아웃/ 〈뉴욕커〉의 타나 브라운, 미라맥스 영화사로 이직/ 고전문학을 보는 눈, 남녀 따로 노소 따로/ 독일 겨울 정치인들의 '여성정치' 선언/ 터키의 가톨릭 개종안과 순결검사

98/ 겨울 / 7호

◆특집 오르가즘을 찾아서 집중취재 여성들이 말하는 불감증과 성욕/ 권혁란 고대그리스의 에로스과 동성애/ 이경자 미국의 페미니스트가 고백하는 '섹스와 여성해방운동' 프랑스 식수와 여러가레가 재가하는 '페퍼' / 이봉지 영화분석 시네마는 여성의 쾌락을 알지 못한다/ 유제자나
여성의 몸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의 수난사/ 유성혜 사회적 분석 밝히는 여자가 재야 하는 이유/ 변혜정 20대의 성 다시 지어라할 처녀들의 성전/ 임소연 사레 10명의 여자가 밝히는 오르가즘이야기
◆Female Gaze 평성황후어 귀천소서/ 이브의 방주/ 처녀들의 팔방백사
◆남자에게 마이코즘집이 한신고 MC에게/ 이숙인
◆if수다쟁이 여자들의 잠식사
◆맛있는 남자 박진영 '난 페미니스트의 노예가 되어도

좋아' / 류숙영 News Woman 작가 김신영숙/ 작가 미라 스타우트/ 이불/ 장하진 교수/ 〈푸른숲〉 김혜경 사장/ 기자 김미경/ 현해순 소장/ 산의 안 지현숙/ 하이트 김봉영 부장/ 김재경
◆장사 하나 '백'은 '백'가 아니다/ 김장복 장사 둘 성폭력으로 확인되는 '사나이'들의 연애/ 권수현
◆전통문화 색녀열전 찾긴 어디서 찾아/ 장현실
◆나나의 if세상 오르가즘 장가수 1.2
◆이여자 페미니스트 한영애를 만나다/ 이숙경
◆파워워만 한국여성일레니언연구팀 김경주 이사장 & 조미리원장/ 박혜숙
◆집중탐색 한국무용계의 '양평태리'를/ 최대례사/ 황금희
◆REVIEW TV 구성에의 아우성을 보고 / 황금희 영화 제3회 부산 국제영화제 특별프로그램을 보고/ 아남 미술 독립미술작가 14인의 〈육체의 논리〉/ 재미만 책 if가 짧은 겨울의 책/ 윤숙경
◆if 무엇이든 - 헤어스타일 작고, 올리고, 물고 그 화려한 아우성/ 김동진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부엌, 그 아홉번의 공간
◆여자의 꿈 나는 아직도 결혼을 꿈꾼다/ 오순애
◆나의 제사격파가 조상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다/ 이하진
◆이탈엔 이렇게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 손신영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영
◆CROSS OVER 동굴 여성의 성기는 접촉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이버랜드우 정치적으로 올바른 '공관성'에 대하여/ 보라기미 세계의 여성들 독일 재무장

관 라트렌의 부인 크리스타 방글라데시 여성작가 은둔생활/ 프랑스 동성애가족 합법화 초읽기
99/ 봄 / 8호
◆특집 네 겨울에 침을 뱉어라 총론 어떤 여자는 페미니스트의 적인가/ 류숙영 파워워터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미의 기준을 갖고 있다/ 권혁란 외모가꾸기 겨울아, 겨울아 나는 누구냐? / 지혜 미술 당시들의 천국, 미술 속의 누드/ 재미만 심리분석 분석, '인간'과 '육체'의 갈등/ 박미라 다이어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상아 10명의 여자가 말하는 외모 이미지 책을 통해 본 외모의 사회적/ 김보미
◆긴급취재 '꽃소부인' 진도 화를 위한 변명/ 황금희
◆Female Gaze 그들에게 이혼을 허락하라 / 한국 여성계의 어머니, 이태영 여사 떠나면 날/ 왜 그들에게 우리 모두는 누구인가보다 그 무엇인가로 보이는 것일까? 4인의 탐아(潘兒)들/ 자상결려리
◆남자에게 '네 무덤의 침을 빨아'의 저자 장준하에게/ 난영
◆if수다쟁이 왜 우리는 개구리 한테까지 보모를 해야 할까? ◆남자의 성경험 유감, 백의 삶이 타는 탐/ 김지경 ◆아름다운 남자 이광모 '눈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류숙영 ◆장사 너희가 '따'를 어느나/ 권오봉 ◆News Woman 뉴욕현안가정상담센터 설립자 김광희/ 배우 추상이/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연/ 김정숙 국회의원/ 한림대 국제회의학과 서승진 교수
◆음식모녀 딸아, 네 부엌이 아닌 대신

일하지 마라/ 박영옥 딸아, 이런 착한 여느리 안 할래요/ 박이은경
◆고은부인 도끼 들었네 하이트의 수컷들에게/ 고은금순
◆전통문화 색녀열전 쌍코피 / 장현실 나나의 if세상 겨울아, 겨울아! 1.2
◆이여자가 사는 법 한국말 입양하는 30년 전 입양아 다티 연리크/ 류숙영
◆유제자나 영화산책 오성을 때는 모녀전쟁담 (마요네즈)
◆제발라잡 국내 언더그라운드 여성주의 밴드/ 권혁란
◆REVIEW TV 인기 여성연예인 이미지 분석/ 박미라 영화 〈파란대포〉를 본다/ 김신아 연극 〈마요네즈〉와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이숙인 책 if가 짧은 봄의 책/ 윤숙경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엄마의 웃 - 엄마는 예쁘면 안돼! 왜? 엄마니까! ◆여자의 꿈 하나 소녀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 장하나 물 꿈 없는 나의 인생은 양고 없는 연방이다!!! / 이현아 ◆이탈엔 이렇게 취학통지서 유감/ 정현숙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영 ◆CROSS OVER 동굴 자기의 성적 리듬 알기 발굴 역사 속의 여성의 분노, 여성의 복력/ 이은민 사이버랜드우 세계의 여성들 동성애영화 〈파이어〉, 인도서 불꽃논쟁/ 영국서 짧은 일레니엄 여성 10인/ 이스라엘 여성가업가 로젠블럼/ 유고전법재판소 여성파워/ 제2의 성, 간행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553-6715/6, 팩스 565-9059).
- 책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정기구독혜택

- 본사에서 발간하는 단행본을 구입하실 때 할인혜택이 있으며, 본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회원특전이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 분실, 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553-6715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번호와 온라인번호가 대폭 변경되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 구독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 반드시 본사로 전화해 주십시오.
- 지로영수증에 신청자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 if 지난호는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지로번호: 5104723
- 온라인 입금: 예금주 (주)도서출판이프
- 외환 057-13-42924-6 / 조흥 592-01-002980 / 국민 349-01-0056-563
- 신한 295-05-019766 / 제일 438-20-253045 / 한빛 148-203097-13-101
- 농협 096-17-009311

IF를 만든사람들

- 발행 (주)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 김민숙 · 매니징디렉터 박혜숙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제미란 · 디자이너 김명진 · 포토디렉터 김민숙
- 편집위원 김숙진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손자희 오한숙희 류숙영 유재지나 김세중 이해경 · 사진책임기자 엄윤순 조여진
- 기자 김보미 · 객원기자 권혁란 이숙인 황금희 · 광고기획부 정유미 윤숙경 김영란 · 홍보마케팅 우안녕
- 주문전화 557-7942(페미니스트저널 이프 김영란) · 디자인 정일문화사 박선미 김미연 권순나 · 인쇄소 고려서적
- 등록번호: 바-02699
-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빌딩 2층 페미니스트저널 이프(135-080)
- 전화: 553-6715~6 · 팩스: 565-9059 · Htel ID: iftopia · 천리안, 나우누리 ID: feminif · 인터넷 amanda@elim.net
- 하이텔에서도 if를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ATOZ TIM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 여) 나이 세

주소

전화 직업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 B/D 2층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 3 5 - 0 8 0

여성의 욕망을 아는 집지,
페미니스트저널 **if**

if는 정직하다!

if는 용감하다!

if는 자유롭다!

if는 재미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 여) 나이 세

주소

전화 직업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5-18 동복 B/D 2층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자에게> 담당자 앞

1 3 5 - 0 8 0

if를 보고 싶다!

